중학교

역사 2

김태웅
윤선태
박진빈
서각수
안정희
이종대
한성욱
심원섭
이수정
송치중

MiraeN

머리말

역사는 흘러간 과거의 지식이 아닌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할 생생한 기록으로, 현재의 본보기이자 미래의 지표이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과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오늘날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미래를 전망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삶의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역사 학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교과서는 2015년에 개정된 중학교 역사과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집필하였다.

첫째, 세계사 영역을 역사 ①로, 한국사 영역을 역사 ②로 분리 구성하되, 세계사와 한국사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고 서술하였다.

둘째, 본문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의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특히 역사 용어와 개념을 쉽게 풀어 서술하였다.

셋째, 역사과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문헌 자료 및 유물·유적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역사 자료를 읽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역사적 사고력과 탐구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넷째, 다채로운 사진·지도·삽화로 역사적 사실을 입체적으로 재현하였다. 시각 자료는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면서도 주제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학생들이 통찰력을 키우고 창의·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대단원 마무리와 창의·융합 교실을 배치하여 학생 주도의 활동을 이끌어 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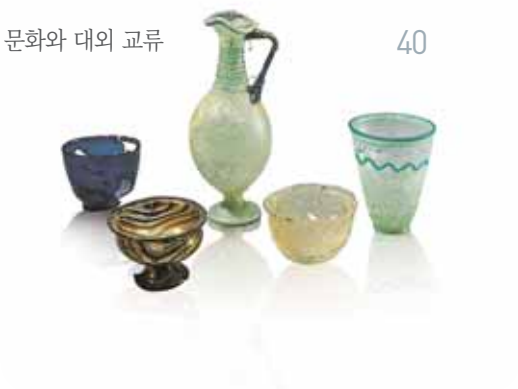
이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역사가 재미없는 과거의 지식이 아닌, 삶에 의미 있고 유익한 진실에 다가가는 안내자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집필진 씀.

차례

I 선사 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01 선사 문화와 고조선 12
02 여러 나라의 성장 22
03 삼국의 성립과 발전 26
04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 40



II 남북국 시대의 전개

01 신라의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54
02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 62
03 남북국의 문화와 대외 관계 70

부록

정답 길잡이 210
역대 왕조 계보 212
연표 216
찾아보기 220
출처 224

Ⅲ 고려의 성립과 변천

01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82
02 고려의 대외 관계 92
03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 98
04 고려의 생활과 문화 102

Ⅳ 조선의 성립과 발전

01 통치 체제와 대외 관계 114
02 사림 세력과 정치 변화 122
03 문화의 발달과 사회 변화 126
04 왜란·호란의 발발과 영향 132

Ⅴ 조선 사회의 변동

01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 146
02 사회 변화와 농민의 봉기 154
03 학문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 158
04 생활과 문화의 새로운 양상 164

Ⅵ 근·현대 사회의 전개

01 국민 국가의 수립 176
02 자본주의와 사회 변화 186
03 민주주의의 발전 196
04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204

구성과 특징

대단원 도입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공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연표와 지도를 제시하였다.

중단원 학습

중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재미있는 삽화를 통해 파악하고 소단원별로 주제를 나누어 구성하였다.

학습 & 도움 자료

학습 내용을 보충하는 심화 자료와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탐구·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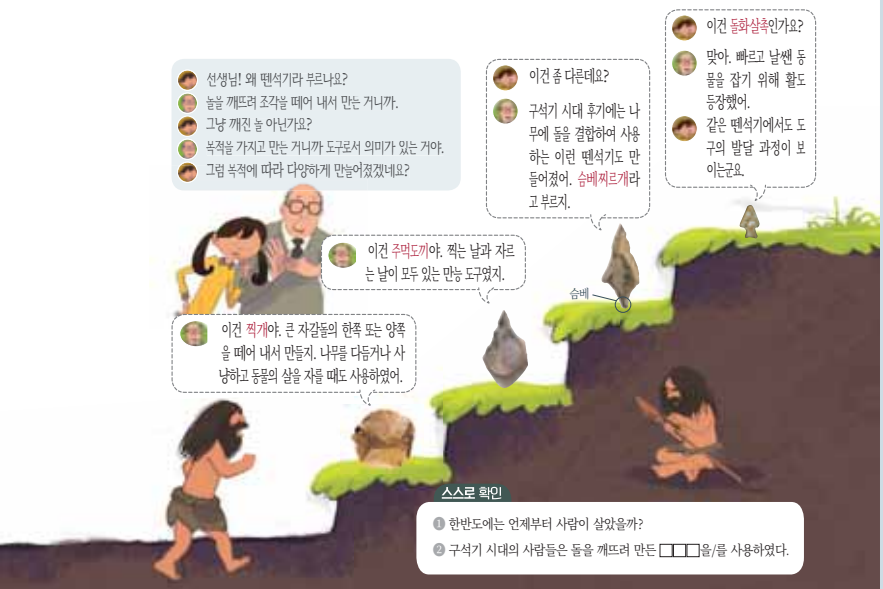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돌과 나무, 동물 뼈 등을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었다. 주먹도끼, 찍개, 자르개와 같은 뗀석기를 사용하여 동물을 사냥하고 고기를 잘라 냈다.

이들은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았으며,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기도 하였다. 무리 지어 이동 생활을 하며 채집과 물고기잡이, 사냥으로 식량을 얻었다. 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영양 상태도 좋아졌다.

구석기 시대 후기에 사람들은 좀 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었다. 슴베가 있는 돌날을 나무에 결합한 슴베찌르개를 사용하였으며, 잔석기를 만드는 흑요석을 일본과 같은 먼 지역과 교환하기도 하였다. 한편 무리의 번성과 풍요로운 식량 획득을 기원하며 고래나 물고기 모양의 조각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구석기 시대 사회는 빈부 차이나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였다.

유럽 지역에서 출토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프랑스 생아슐 출토)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도 이와 같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

흑요석(강원 양구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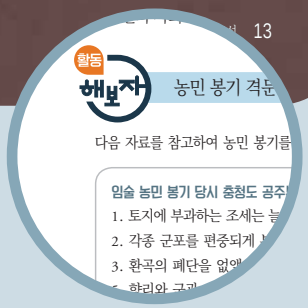
스스로 확인

❶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❷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돌을 깨뜨려 만든 □□□을/를 사용하였다.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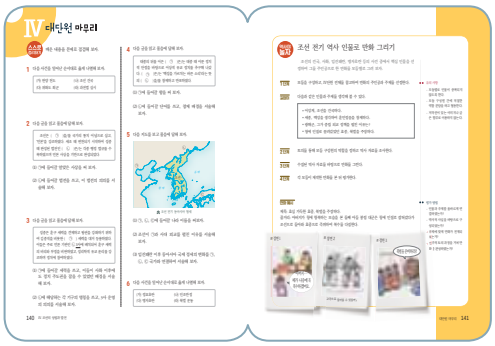
탐구해 보자



역사적 상상력을 키우는

활동해 보자

대단원 마무리



대단원의 핵심 내용을 묻는 문제와 역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융합적 사고를 위한 읽을거리를 마련하였다.

역사 자료를
분석·비교·해석하여 탐구하는

나도 역사가

역사를 배우며

키울 수 있는 역량은?

역사 사실 이해

중요한 역사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역사 자료를 읽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역사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은 역사 정보를 분석·토론·종합·평가하는 능력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과거 사례에 비추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정체성과 상호 존중

역사의식을 함양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능력

I

선사 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01 선사 문화와 고조선

02 여러 나라의 성장

03 삼국의 성립과 발전

04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

역사의 시공간

들여다보기

5세기경 세계

유연

북위

≪ 윈강 석굴(중국 산시성) 북위의 황제들은 부처의 힘을 빌려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자 거대한 석굴 사원을 만들었다.

송

동해

왜

» 다이센 고분(일본 사카이시) 야마토 정권의 지배자들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권력을 과시하였다.

세계사		한국사
		기원전
		2333 고조선 건국(『동국통감』)
진, 중국 통일	221	
한, 중국 재통일	202	
		57 신라 건국(『삼국사기』)
		37 고구려 건국(『삼국사기』)
		18 백제 건국(『삼국사기』)
		기원후
5호 16국 시대 시작	316	313 고구려, 낙랑 축출
로마 제국, 동서 분열	395	372 고구려, 불교 수용
		427 고구려, 평양 천도
		433 나제 동맹 체결
북위, 화북 지역 통일	439	475 백제, 웅진 천도
서로마 제국 멸망	476	
		520 신라, 율령 반포
		527 신라, 불교 공인
		532 금관가야 멸망
		538 백제, 사비 천도
		562 대가야 멸망

이 시기 한국은? 삼국 시대!

- 오른쪽 지도는 5세기 한반도의 형세를 나타낸다.

① 지도의 ㉠~㉣에 들어갈 나라 이름을 써 보자.

_____

② 오른쪽 지도처럼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힌 왕은 누구인지 말해 보자.

_____

01 선사 문화와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어떻게 성립되었을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구석기 시대
- ☐ 뗀석기
- ☐ 슴베찌르개

1 만주와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다

학습 목표 |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한반도의 구석기인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한 인류는 오랜 이동을 거쳐 만주와 한반도에도 정착하였다. 한반도에는 약 70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구석기 시대의 유적은 한반도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평안남도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등이 대표적 유적지이다. 특히 검은모루 동굴 유적은 호모 에렉투스인 중국의 베이징 원인이 등장한 시기와 비슷한 때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시 역포 구역 등에서는 사람의 뼈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고 도구를 발전시켰다.

만주와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

한반도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사람들(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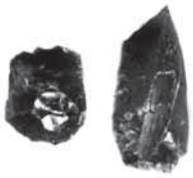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돌과 나무, 동물 뼈 등을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었다. 주먹도끼, 찍개, 자르개와 같은 뗀석기를 사용하여 동물을 사냥하고 고기를 잘라 냈다.

이들은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았으며,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기도 하였다. 무리 지어 이동 생활을 하며 채집과 물고기잡이, 사냥으로 식량을 얻었다. 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영양 상태도 좋아졌다.

구석기 시대 후기에 사람들은 좀 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었다. 슴베가 있는 돌날을 나무에 결합한 슴베찌르개를 사용하였으며, 잔석기를 만드는 흑요석을 일본과 같은 먼 지역과 교환하기도 하였다. 한편 무리의 번성과 풍요로운 식량 획득을 기원하며 고래나 물고기 모양의 조각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구석기 시대 사회는 빈부 차이나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였다.

유럽 지역에서 출토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프랑스 생아슐 출토)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도 이와 같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



흑요석(강원 양구 출토)

스스로 확인

1.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2.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돌을 깨뜨려 만든 □□□을/를 사용하였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간석기
- ☐ 빗살무늬 토기
- ☐ 농경, 목축

간석기(경기 하남 출토)

결합식 낚싯바늘(부산 범방동 출토)과 그물추(경기 연천 출토), 그물무늬가 새겨진 토기 조각(부산 동삼동 출토)

갈돌과 갈판(강원 양양 출토) 나무 열매나 곡물의 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2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다

학습 목표 |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을 구석기 시대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간석기와 토기의 제작

빙하기가 끝나고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숲이 우거지고 노루, 멧돼지, 토끼 등 작고 날랜 동물이 많아졌다.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잡기 위해 돌을 갈아 더 정교한 간석기를 만들었다.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다.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작살과 낚싯바늘, 그물추가 달린 그물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캤다. 또한 채집과 사냥으로 도토리 등의 나무 열매나 뿌리, 고기와 같은 식량을 얻었다. 이들은 음식을 보관하고 조리하기 위해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들기도 하였다.

신석기 시대 후기에는 원시적인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돌로 만든 괭이나 보습 등의 농기구로 조·피·기장 등을 재배하였으며, 돼지·염소 등을 가축으로 길렀다.

가락바퀴(충북 청주 출토) 섬유를 꼬아 실을 만들 때 사용된 도구이다.

지식+ 선사 시대 최고의 발명품, 토기

토기는 식량을 저장, 운반하거나 조리할 때 필요한 그릇이다. 흙을 적절한 모형으로 빚어 불에 구워 만든 토기는 인류 역사를 뒤흔든 창의적 발명품이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류는 자연환경과 생활 풍습에 따라 쓰임새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토기를 만들었다. 토기를 이용하여 음식을 삶거나 쪄서 먹게 되면서 인류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커져 인구수가 크게 늘어났다.

신석기 시대에 중국의 황허강 유역에서는 토기 표면에 색을 칠한 채도가 발달하였고, 일본에서는 새끼줄 무늬로 장식된 조몬 토기가 발달하였다. 한반도에서는 덧무늬 토기, 누른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등이 만들어졌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빗살무늬 토기로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1 이집트 토기(이집트 출토) 동물 모양이 그려진 토기이다.

2 메소포타미아 토기(시리아 출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하였다. 사람들은 수확한 곡식과 종자를 보관하기 위해 토기를 만들었다.

신석기 시대의 사회와 문화

농경과 목축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여전히 사냥과 채집, 물고기잡이가 중요하였지만, 농경을 통해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점차 마을을 이루어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들은 씨족 단위로 공동 작업하여 식량을 생산하였고, 생산물도 공평하게 나누어 빈부의 차이가 없는 평등한 생활을 하였다.

한편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식량을 생산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자연에 위대한 힘이 있다고 믿었다. 태양·물·바위와 같은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이 생겨났고,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도 생겨났다. 씨족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영혼이나 조상을 숭배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하였다.

움집 땅을 원형이나 네모 형태로 50 ~ 100㎝ 깊이로 판 후 단단하게 다지고 가운데에 불을 지필 수 있는 화덕을 두었다. 그리고 기둥을 세운 후 갈대나 억새 등의 풀로 지붕을 만들었다.

3 랴오허강 유역의 홍산 문화 토기(중국 랴오닝성 출토)

4 황허강 유역의 양사오 문화 토기(중국 산시성 출토)

5

빗살무늬 토기 (서울 암사동 출토)

덧무늬 토기 (강원 양양 출토)

6 일본의 조몬 토기 (일본 니가타현 출토)

곡식을 갈아서 토기에 넣어 물을 붓고 끓이면 먹기도 좋고 소화도 잘되죠.

토기의 밑을 뾰족하게 만들어 땅바닥에 꽂아 두고 사용하였지.

스스로 확인

1. 신석기 시대 한반도의 대표적인 토기는?
2. 신석기 시대에는 □□와/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비파형 동검
- ☐ 반달 돌칼
- ☐ 고인돌
- ☐ 족장(군장)

3 만주와 한반도에서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다

학습 목표 | 청동기 문화의 보급에 따른 사회 변화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청동기 문화의 보급

기원전 2000년경부터 만주에 전해진 청동기 문화는 점차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 아연 등의 합금으로, 사람들은 열을 가하여 청동을 녹인 후 거푸집을 이용하여 검·도끼와 같은 무기나 거울·방울과 같은 제사용 도구, 장신구 등을 만들었다.

청동 거푸집(전남 영암 출토) 도끼와 낚싯바늘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 거푸집이다.

만주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무늬가 없는 다양한 형태의 민무늬 토기 등이 있다. 청동기는 재료를 구하기 힘들고 땅을 일구거나 나무를 자르기에 적당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반달 돌칼 등 농기구와 같은 생활 도구는 여전히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졌다.

민무늬 토기(경기 하남 출토)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권이 발달하면서 점차 우리 민족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 기원전 3세기경 일본에 청동기가 전래되었다.

반달 돌칼(국립중앙박물관)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데 사용된 간석기이다.

지식+ 만주·한반도의 청동검과 중국의 청동검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그러한 차이는 청동검이나 제사용 도구의 종류 및 형태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비파형 동검은 중국식 동검과 모양도 다르지만, 중국식 동검이나 오르도스 청동검과 달리 칼날과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조립한 것이 특징이다.

한반도 지역에서 비파형 동검은 점차 세형 동검으로 발전하였다. 세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 후기부터 초기 철기 시대에 주로 청천강 이남 한반도에서 사용되어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불린다.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농경은 청동기 시대에 더욱 발달하여 조, 기장, 수수 등 다양한 잡곡이 재배되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벼농사도 보급되었다. 한편 돼지와 같은 가축을 우리에 가두고 기르는 일도 흔해졌다. 사람들은 농경이 이루어지는 강가나 완만한 구릉에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

농경의 발달로 생산력이 늘어나자 인구가 늘어나고 빈부 차이와 계급이 발생하였다. 또한 식량을 둘러싼 집단 간의 싸움이 자주 일어나면서 마을에는 방어 시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집단 간의 전쟁으로 유력한 정치 세력이 등장하였으며 집단을 이끄는 족장(군장) 세력은 점차 권력을 키워 나갔다. 이들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 권위까지 이용하여 집단을 지배하였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을 통해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지배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탁자식 고인돌(인천 강화) 지배층의 무덤으로 만들어졌다.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야 만들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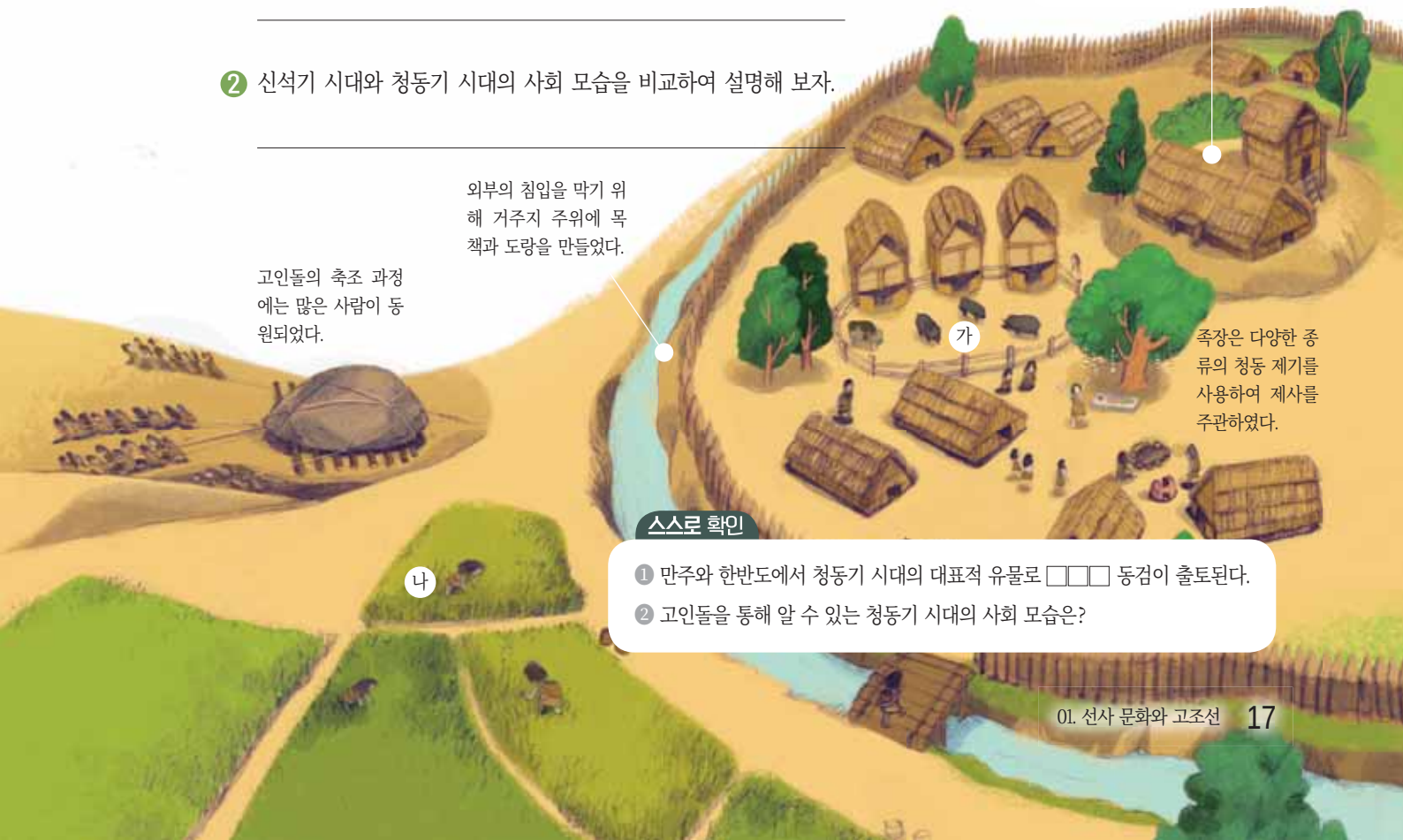
탐구 해보자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

1. 그림의 (가), (나)에 해당하는 설명을 써 보자.

_____

2.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_____



스스로 확인

1. 만주와 한반도에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로 □□□ 동검이 출토된다.
2. 고인돌을 통해 알 수 있는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은?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고조선
- ☐ 단군왕검
- ☐ 8조법

4 고조선이 발전하다

학습 목표 | 고조선을 통해 우리 역사의 기원을 알고 당시 사회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고조선의 건국

기원전 2000년경 이후 황허강 유역에서는 청동기 문화의 발전과 생산력 증대에 힘입어 국가가 성립하였다. 만주 일부 지역과 한반도 지역에서도 발달한 농경과 우수한 청동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선진 집단이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집단을 정복하거나 그들과 연맹을 맺어 세력을 확장하고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성립되었다.

『동국통감』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우두머리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단군왕검이 제정일치 사회의 지배자임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은 처음에는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후기에는 한반도 북서부의 대동강 유역으로 그 중심지가 이동하였다.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등은 고조선과 관련된 문화유산으로 추정된다.

미송리식 토기(평북 의주 출토) 평안북도 의주 미송리에서 이 같은 형태의 토기가 처음 발견되어 이름이 붙여졌다.

탐구 해보자 고조선 건국 이야기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었다.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태백산 지역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 환웅은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에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고 불렀다.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맡아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 (가) ……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단군왕검은 요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불렀다.

- 일연, 『삼국유사』 -

1 (가)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발표해 보자.

2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 농업 사회
- 계급 사회 형성
- 제정일치 사회
- 홍익인간의 이념
- 집단 간의 연맹

고조선의 발전

기원전 5 ~ 4세기경 전국 시대의 혼란을 피해 중국에서 많은 유이민이 고조선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철기 문화가 점차 보급되었다. 청동기 제작 기술도 발달하여 비파형 동검은 세형 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발전하였다. 고조선은 중국의 연과 교류하면서 세력을 키워 나갔으나, 연의 침입으로 일부 영토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고조선은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위를 세습하고 왕 밑에 상, 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을 두어 관료제를 정비하는 등 정치 기틀을 다져 나갔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기원전 2세기경 진·한 교체기에는 유이민 세력과 함께 고조선에 들어온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였다(기원전 194). 이들의 유입으로 고조선 지역의 철기 문화는 더욱 발전하였다.

한편 고조선 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신분층이 형성되었다. 고조선은 「8조법」 등 엄격한 법률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하였다.

명도전(평북 위원 출토) 중국 전국 시대의 화폐로, 고조선의 활발한 교역 활동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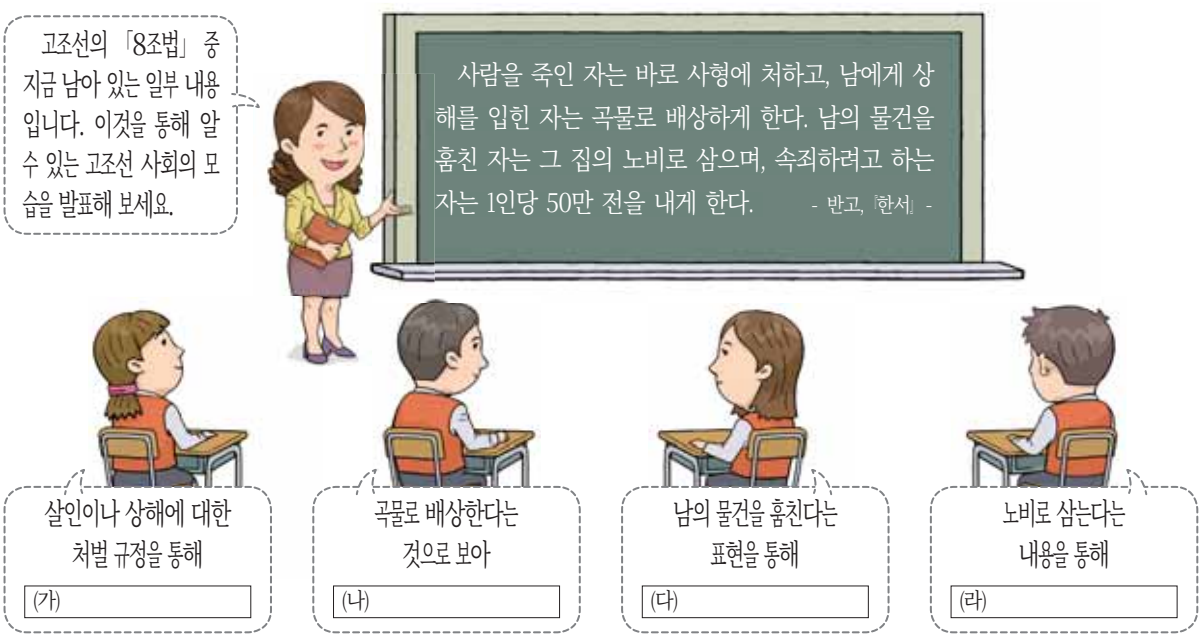
잔무늬 거울(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지름 21㎝인 청동 거울 뒷면에 1만 3,000여 개의 선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1㎜에 3개의 선이 들어가 있는 초정밀 청동 주조 유물이다.

활동 해보자

고조선의 「8조법」 분석하기

모둠 활동

선생님의 물음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가) ~ (라)를 채워 보자.



한의 침입과 고조선의 멸망

이때 세계는?

한이 서쪽으로는 비단길을 개척하고 북쪽으로는 흉노를 몰아냈다. 이어 남쪽으로는 베트남 일대를 정복하는 등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위만이 집권한 이후 고조선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한반도 동남쪽에 있던 정치 집단이나 소국이 직접 중국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 무역을 하였다. 이를 통해 성장한 고조선은 중국의 한과 맞서게 되었다. 흉노 정벌에 나선 한은 고조선이 흉노와 연결되는 것을 막고자 고조선을 공격하였다.

고조선은 한의 대군에 맞서 1년여를 싸웠지만 결국 지배층의 분열로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세워 지배하였다. 한편 고조선 멸망을 전후하여 많은 사람이 남쪽으로 이주하여 삼한 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고조선의 멸망

(기원전 108년) 여름, 니계상 참은 아랫사람을 시켜 왕 우거를 죽이고 와서 항복했으나 왕검성이 항복하지 않았다. 우거의 대신 성기가 다시 모반하였다. 좌장군은 우거의 아들 장과 노인의 아들 최를 시켜 백성에게 사실을 알리고, 모의하여 성기를 죽이니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진번·임둔·낙랑·현도 4군을 세웠다.

- 일연, 『삼국유사』 -

고조선과 한의 전쟁

지식+ 한 군현 설치와 낙랑

한은 고조선을 멸망시킨 후 고조선이 있던 자리에 진번, 임둔, 낙랑, 현도의 4군과 여러 현을 설치하였다. 그중 낙랑은 한반도의 여러 지역과 교류하고 중국의 문화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하며 오랫동안 번성하였다. 하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성장과 공격으로 위축되다가 313년 고구려에 의해 멸망하였다.

낙랑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통로라는 측면과 우리 민족이 중국 지배에 저항하는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 낙랑의 금제 허리띠 고리(평양 석암리 9호 무덤 출토) 순금으로 만든 얇은 금판 위에 수백 개의 금 알갱이를 일일이 붙여 만들었다.

스스로 확인

1. 기원전 2세기 □□의 집권 이후 고조선에서는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가 발전하였다.
2. 고조선의 □□□을/를 통해 고조선 사회가 생명을 중시하고 사유 재산이 있는 계급 사회임을 추측할 수 있다.

나도 역사가

무늬와 그림에 담긴 삶과 신앙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바위와 각종 유물에 그림과 무늬를 새겼다. 다양한 형태로 상징화된 기호, 사람과 동물 모습은 당시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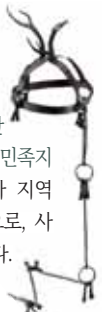
겹동그라미, 십자무늬 등 특이한 기하학적 형태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 태양 숭배나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 관련 유적으로 추정된다.

» 고령 장기리 암각화(경북 고령) 높이 3m, 폭 6m 정도의 바위에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

당시 사람들의 생업이라 할 수 있는 고래 사냥, 목축 등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울산 울주) 울산 시민의 식수원인 인공 호수 근처의 절벽에 많은 고래와 짐승, 사람들이 새겨져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 시베리아 샤먼 관(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지학박물관) 시베리아 지역의 샤먼이 쓰던 관으로, 사슴뿔이 표현되어 있다.

» 사슴 돌(몽골) 몽골 초원 일대에서 많이 발견되는 사슴 돌이다. 표면에 사슴 등이 새겨져 있다.

Y자 모양의 가지에 앉아 있는 새는 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하거나 하늘에서 곡식의 씨앗을 물고 오는 존재로 여겨진다.

» 농경문 청동기(국립중앙박물관) 길이 7.3㎝ 정도의 청동기. 아랫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나무에 앉은 새의 모습과 따비로 밭을 가는 사람이 앞뒷면에 새겨져 있다.

» 검파모양 동기(국립중앙박물관) 대나무를 세로로 쪼개 놓은 모양의 청동기로, 제사와 관련된 유물이다.

사슴은 시베리아 일대의 *샤머니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샤머니즘 초자연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샤먼(무당)을 중심으로 하는 주술이나 종교

사고력 키우기

❶ 선사 시대 사람들이 위 자료에 나타난 동물을 그린 이유가 무엇일지 상상해 보자.

❷ 선사 시대에 나타났던 원시 신앙을 설명해 보자.

02 여러 나라의 성장

철기의 보급에 따라 사회는 어떻게 변하였을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부여, 고구려
- ☐ 옥저, 동예, 삼한

1 철기를 만들어 사용하다

학습 목표 | 철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사회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철제 농기구와 무기(평북 위원 출토)

철기 문화의 발전

기원전 5 ~ 4세기경 고조선에 전파된 철기 문화는 만주 지역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철은 청동보다 구하기 쉽고 단단해서 다양한 농기구나 무기로 만들 수 있었다.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개간이 활발해지고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우수한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전쟁도 더 치열해졌다. 하지만 청동기도 장식품이나 제사와 같은 의례용 도구로 여전히 사용되었다.

여러 나라의 등장

여러 나라의 등장

철기를 잘 다루는 집단은 철제 무기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통합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였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점차 국가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철기 문화의 발전과 사회 변화를 배경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서 연맹 왕국으로 성장한 부여와 고구려를 비롯해 옥저, 동예, 삼한이 등장하였다.

스스로 확인

1. 돌로 된 농기구에서 □(으)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어났다.
2. 철기 문화의 발전으로 만주에서는 □□와/과 고구려가 건국되었다.

❷ 만주와 한반도에서 여러 나라가 성장하다

학습 목표 |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다양한 나라의 생활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제가 회의
- ☐ 제천 행사
- ☐ 민며느리제
- ☐ 책화
- ☐ 천군
- ☐ 소도

부여의 발전

부여는 만주 쑹화강 일대에서 성립되었다. 넓은 평야 지역에 자리 잡은 부여는 농경과 목축이 발달하였으며, 일찍부터 한을 비롯한 중국 왕조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성장하였다. 부여에서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관리들이 별도로 각각의 지역을 다스렸다. 왕의 권력이 약하여 연맹 형태로 국가가 운영되었으며,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고구려의 건국과 발전

고구려는 부여에서 이주한 주몽 집단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에 의해 건국되었다. 압록강 중류 일대 산이 많은 지역에서 성립된 고구려는 한의 군현을 몰아내고 주변 소국들을 복속하면서 점차 영토를 확장하였다.

왕 아래 상가, 패자, 고추가 등의 관직이 있었고 계루부를 비롯한 5부••의 대가가 국가를 운영하였다. 국가의 중요한 일은 제가••가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고구려 사람들은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였다. 고구려에는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과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 5부 고구려 초기 주요 5개 정치 집단으로, 계루부·소노부·절노부·관노부·순노부가 있었다.

•• 제가 회의 부족의 지배자로 여겨지는 여러 '가(加)'가 모인 회의라는 의미로, 고구려의 중요 국가 정책을 의논·결정하였다.

이야기 샘# 부여는 어떤 나라였나요?

건국

부여는 고조선 멸망 이전인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조선이 멸망한 후 한이 설치한 군현이나 고구려와 경쟁하면서 발전하였다.

멸망

부여는 3세기 이후 선비족인 전연의 침입으로 쇠퇴하였다. 5세기 고구려의 침입으로 명맥만 유지하다 왕족들이 고구려에 망명하면서 멸망하였다.

의의

고구려와 백제 왕실은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다. 특히 백제는 부여 계승 의식이 강해 왕족의 성이 '부여씨'였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기도 하였다.

옥저와 동예의 성립

옥저와 동예는 한반도 동해안 지역의 비옥한 지역에서 성립되어 농경에 유리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였다. 특히 동예는 단궁이라는 작은 활과 과하마라는 말, 반어피라 불린 바다짐승의 가죽이 특산물로 유명하였다.

옥저와 동예는 한반도의 동쪽에 치우쳐 선진 문물의 수용이 어려워 정치 발전이 늦었다. 이 때문에 고구려에 예속되어 공물을 바치다가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고구려에 멸망하였다.

옥저에는 가족 공동 묘의 장례 풍습과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동예에는 타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배상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동예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 하늘에 풍요를 기원하고 춤과 노래를 즐기며 집단의 단합을 꾀하였다.

●● 과하마 몸집이 작아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갈 수 있는 말을 뜻한다.

●● 민며느리제 혼인을 약속한 여자아이를 어릴 때부터 신랑 집에서 길러 성장하면 아내로 삼는 혼인 풍습이다.

솟대(강원 강릉) 마을 입구에 세워진 것으로, 마을을 지켜주는 신앙과 관련 있다. 삼한의 소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삼한의 발전

삼한은 한반도의 남부 지역에서 발전하였다.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서 마한이, 경상도 낙동강의 동쪽 지역에서 진한,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변한이 연맹체로 발전하였다. 그중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커 마한 목지국의 지배자가 삼한을 대표하였다.

벼농사가 발전하여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를 열었다. 변한과 진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에 수출하고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 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소도에는 군장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삼한은 이후 백제와 신라, 가야로 이어졌다. 마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에 통합되었고 변한은 연맹체를 이루어 가야로 발전하였다.

각 나라에서 열린 제천 행사는 농사나 사냥의 풍요로움을 하늘에 빌거나, 집단의 단합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였다.

활동 해보자

여러 나라의 특징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

개별 활동

활동 방법

① 마인드맵의 빈칸 (가) ~ (바)에 나라의 이름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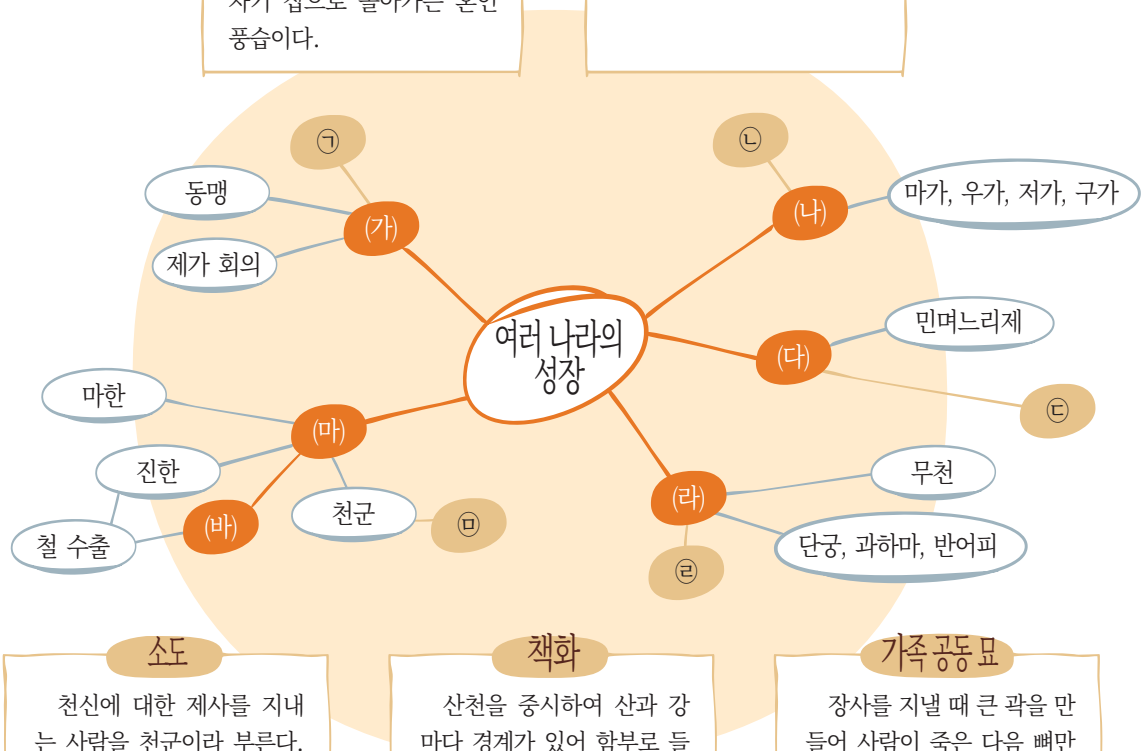
② 마인드맵의 ㉠ ~ ㉤에 들어갈 풍습을 찾아 선으로 연결한다.

서옥제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 뒤편에 지은 서옥(사윗집)에 살다가, 아들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혼인 풍습이다.

영고

12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나라의 큰 제천 행사이다. 연일 음식과 가무를 즐겼다.



소도

천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천군이라 부른다. 천군이 제사 지내는 지역은 신성한 곳으로 죄인이 도망하여 숨더라도 잡아가지 못하였다.

책화

산천을 중시하여 산과 강마다 경계가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 등으로 배상하였다.

가족 공동묘

장사를 지낼 때 큰 곽을 만들어 사람이 죽은 다음 뼈만 추려 곽 속에 넣는다. 죽으면 온 집 식구들의 뼈를 모두 하나의 곽 속에 넣는다.

스스로 확인

1. 고구려에서 각 부족의 지배자들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던 회의는?
2. 옥저에는 혼인 풍습으로 □□□□제가 있었다.

03 삼국의 성립과 발전

삼국은 어떻게 경쟁하며 발전하였을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태조왕
- 고이왕
- 내물왕
- 금관가야

1 삼국과 가야, 나라의 기틀을 다지다

학습 목표 | 삼국 및 가야의 건국과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고구려의 성장

졸본에서 건국된 고구려는 국내성(중국 지린성 지안)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1세기 후반 태조왕 때에는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 지방으로도 진출을 꾀하였다.

고구려는 처음에 계루부, 소노부 등 5부가 연합하여 국가를 형성하였는데, 왕권이 성장하면서 계루부의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였다. 이에 부족적 전통을 지녔던 5부는 수도의 행정 구역으로 변하였고 각 부의 족장들은 중앙의 귀족이 되었다. 또 부자 간의 왕위 계승이 점차 확립되면서 왕권이 더욱 강화되었다.

오녀산성(중국 랴오닝성) 고구려의 첫 도읍지인 졸본의 흘승골성으로 추정된다. 험준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이다. 산 정상은 넓은 평탄지이며, 이곳에서 고구려 초기의 집터가 다수 발굴되었다.

지린성 지안 일대 고구려 유적

환도산성 아래 고분들의 모습(중국 지린성) 넓은 벌판에 수백 기의 무덤이 밀집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백제의 건국과 성장

백제는 비류, 온조 등 부여·고구려계 유이민 세력이 남하하여 한강 하류 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세운 나라이다(기원전 18). 마한의 소국으로 출발한 백제는 육로와 바닷길이 편리한 위례성을 도읍으로 삼았다.

3세기 고이왕 때에는 좌평을 비롯한 관직과 관리의 등급을 마련하는 등 국가 체제를 정비하며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후 주변의 마한 소국을 병합하여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서울 풍납동 토성(서울 송파) 둘레 약 3.5㎞의 대규모 백제 토성으로, 벽돌과 기와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도로와 주거지, 창고와 신전으로 보이는 건물터 등도 발굴되어 위례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탐구 해보자 고구려 장군총과 백제 석촌동 고분

장군총(중국 지린성) 한 변의 길이 31.5m. 중국 지안에 있는 5세기 고구려의 거대한 계단식 돌무지무덤이다.

석촌동 3호분(서울 송파) 한 변의 길이 50.8m. 서울 석촌동에 있는 4세기 백제의 계단식 돌무지무덤이다. 근처에 여러 기의 돌무지무덤이 있다.

1 두 무덤의 모양을 보고 비슷한 점을 찾아보자.

2 백제의 건국 이야기를 찾아보고 두 무덤 양식이 비슷한 이유를 추측하여 말해 보자.

신라의 건국과 성장

낙동강 유역에서 성립한 진한, 변한 사회에도 큰 정치 세력이 등장하였다. 진한의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한 신라는 박혁거세로 대표되는 유이민 세력과 경주·울산 지역의 토착 세력이 결합하여 세운 나라이다. 한반도 동남쪽 끝에 위치했던 신라는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리적 조건으로 고구려와 백제보다 국가 발전이 늦었다.

그러나 울산 지역의 철광 산지와 교통에 유리한 영천 지역을 장악한 신라는 3세기 후반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소국들을 복속시키며 진한의 맹주로 발돋움하였다. 이후 박·석·김, 3성의 유력자가 번갈아 연맹장인 '이사금'으로 추대되었다. 4세기 후반 내물왕 때에는 왕권이 더욱 성장하여 김씨의 왕위 세습이 확립되어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을 왕호로 사용하였다.

- 거서간(귀인)
- 차차웅(제사장)
- 이사금(연장자, 계승자)
- 마립간(대군장)
- 왕

신라 왕호의 변화 신라의 왕권이 성장하면서 그에 맞게 왕의 호칭도 변하였다.

지식+ 신라의 건국과 3성의 시조 이야기

| 박혁거세 |

백마가 하늘에서 내려와 알을 품으니, 알에서 사내아이가 나왔다.

| 석탈해 |

알을 넣은 궤짝을 실은 배가 떠내려와 경주 바닷가에 도착하였다. 노파가 궤짝을 여니 사내아이가 나왔다.

| 김알지 |

계림 숲속 나뭇가지에 금빛 궤짝이 걸려 있고 흰닭이 울고 있어 궤짝을 열어 보니 사내아이가 나왔다.

고씨와 부여씨 단일 성씨만 나오는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이야기와 달리, 신라의 건국 이야기는 박·석·김, 3성의 시조가 차례로 탄생하여 번갈아 신라의 왕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라의 3성 시조 이야기는 신라의 건국과 성장이 어느 한 성씨 집단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 성씨 집단이 서로 연합·협력하여 진한의 맹주로 성장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

신라의 3성 시조 이야기에는 알에서 태어나거나 닭과 연관된 내용이 많다. 알과 닭은 신라의 풍요와 광명을 바라는 상징물이다.

한편 백마에서 태어난 혁거세와 자신의 집안을 대장장이라 칭한 탈해는 신라의 우수한 철기 생산 능력과 군사력을 의미한다.

가야 연맹의 형성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는 낙랑군과 왜를 잇는 해상 교통의 요지에 위치했던 금관가야가 성장하였다. 금관가야는 주변의 여러 소국을 거느리며 가야 연맹을 형성하였다.

3세기 중반 금관가야는 풍부한 철광과 우수한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철제 무기를 비롯한 각종 도구를 제작하였다. 특히 해상 교역이 발달하여 질 좋은 덩이쇠를 삼한과 동예를 비롯해 낙랑·대방군과 왜에 수출하였는데, 이때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또 단단한 토기를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 이를 왜에 전해 주었다.

금관가야가 성장했던 옛 김해만의 자연환경 옛 김해만은 현재와 달리 항구가 발달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을 잘 갖춘 곳이었다. 이로 인해 해상 교역이 발달하였다.

가야는 어떻게 철기를 제작하였을까?

철은 청동과 달리 잘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각종 농기구와 무기 등을 생산하는 데 적합한 금속이었다. 이로 인해 철광석이 풍부한 산지를 차지하는 것이 국가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였다. 가야 연맹은 풍부한 철산지를 확보하여 발전하였다.

1 숯 생산 고온을 내는 백탄을 만들기 위해 숯가마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모래를 덮었다.

2 선철 추출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서는 제철로 내의 온도를 1,200 ℃ 이상으로 높여야 했다. 이를 위해 제철로에 백탄을 넣고 풀무를 밟아 산소를 계속 공급하였다.

덩이쇠(경남 함안 출토)

3 거푸집으로 주조 용해로에 선철을 넣어 녹인 후 원하는 모양의 거푸집에 부어 주철 제품을 만들었다.

4 강철 생산 단조와 담금질을 통해 강철 속의 불순물을 없애고 밀도를 높여 제품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판갑옷(경남 김해 출토)

스스로 확인

1. 신라는 내물왕 때 대군장을 뜻하는 □□□을/를 왕호로 사용하였다.
2. 풍부한 철 생산과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가야 연맹을 주도한 나라는?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근초고왕
- ☐ 광개토 대왕
- ☐ 장수왕
- ☐ 무령왕
- ☐ 법흥왕
- ☐ 대가야

2 삼국과 가야, 경쟁하며 발전하다

학습 목표 |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고구려의 낙랑군 축출

고구려는 3세기경 위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되기도 하였으나,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이용해 국력을 회복하고 대외 팽창을 꾀하였다. 미천왕은 낙랑군을 점령하여 중국 군현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냈다(313).

고구려는 요동과 부여 방면으로 진출하였으나, 수도를 급습한 전연에 의해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등 큰 위기를 맞았다. 이에 고국원왕은 전연과 우호 관계를 맺고 한반도 남쪽으로 진출하여 백제를 압박하였다.

4세기 백제의 대외 관계

칠지도(일본 나라 이소노카미신궁) 백제가 제작하여 왜에 보낸 칼로 백제와 왜의 정치적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백제의 대외 교류와 영토 확장

4세기 후반 백제 근초고왕은 남으로 진출하여 마한 지역을 대부분 복속하였다. 그리고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여 우호 관계를 맺고, 중국 동진과 왜를 잇는 해상 교역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 고국원왕을 격퇴하여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백제는 서남해를 잇는 해상 교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동진, 가야, 왜와 활발히 교류하며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야기 샘 # 백제는 지방 세력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백제가 복속한 지역의 유력자 무덤에서 금은으로 만든 관모, 신발, 허리띠, 장식 큰 칼, 중국 자기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물품들은 백제가 지방 세력을 다스리는 데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왕은 지역의 유력자에게 복속의 대가로 그들이 자기 지역에서 권위를 과시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과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내려 주어 지역 유력자의 충성을 이끌어 냈다.

고구려의 체제 정비와 정복 활동

백제와의 전투에서 고국원왕이 전사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은 고구려는 소수림왕 즉위 이후 태학 설립, 율령 반포, 불교 공인 등의 체제 정비를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루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장천 1호분의 예불도 및 연꽃 화생도(중국 지린성) 불상 앞에서 절하는 모습과 사람들이 연꽃에서 환생하는 모습을 통해 5세기 고구려의 불교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소수림왕의 개혁을 바탕으로 광개토 대왕은 적극적인 정복 활동을 펼쳤다.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의 땅을 차지하였으며,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물리치고 금관가야까지 진격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400).

한편으로는 후연을 격파하여 요동 지역을 확보하고, 거란과 동부여 등을 굴복시켰다. 광개토 대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한 국가라는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광개토 대왕릉비(중국 지린성) 만주와 연해주에 걸쳐 광활한 영토를 개척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아들 장수왕이 세운 비석이다. 비문에는 고구려의 건국 과정, 광개토 대왕의 업적, 무덤 관리인과 그에 관한 법령 등이 기록되어 있다.

광개토 대왕의 시호는 자료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 호우명 청동 그릇에는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강(나라 언덕)에 잠들어 계신, 영토를 크게 넓히신 훌륭한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신라의 무덤 호우총에서 나온 호우명 청동 그릇으로 보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Q 호우명 그릇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A 호우명 그릇은 그릇에 적힌 기록을 통해 광개토 대왕의 장례식 일주년이 되는 415년에 그를 기념하여 고구려에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호우명 청동 그릇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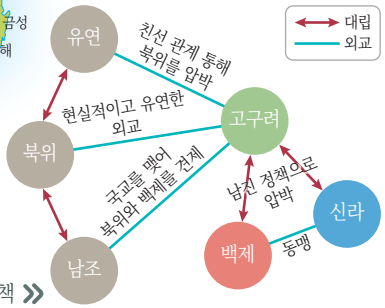
Q 고구려에서 만든 그릇이 왜 경주에 있는 신라 무덤에서 발견되었나요?

A 415년 당시 신라 사신이 고구려의 기념식에 참석하였다가 하사품으로 받아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신라 사신과 그 후손들이 이 그릇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다가, 신라와 고구려의 사이가 나빠진 5세기 말경 무덤 속에 넣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Q 당시 고구려와 신라는 어떤 관계였나요?

A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물리친 후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에 주둔하였고, 신라의 왕자들은 볼모로 고구려에 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신라의 왕위 계승에 개입할 정도로 신라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5세기 신라 무덤에 고구려의 하사품이 많이 출토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 줍니다.

5세기 고구려의 영토 확장



5세기 다원적 국제 질서와 고구려의 외교 정책

고구려의 평양 천도와 대외 관계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이후,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쳐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였다(475). 이에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는 군사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맞섰다.

장수왕은 중국의 남북조나 몽골 초원의 강자인 유연 등과 대등한 외교를 펼쳐 중국이나 유목 세력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세력권을 확립하였다. 이로 인해 고구려, 유연, 북위, 남조가 서로 견제하며 공존하는 다원적인 국제 질서가 만들어졌다.

5세기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이 된 고구려의 왕은 신성한 '하늘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고구려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표방하였다.

탐구 해보자

고구려인의 천하관

자료 1

- 왕의 은택은 하늘에 미쳤고 위엄은 사해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백성은 풍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 광개토 대왕릉비문 -
- 하백의 손자이며 해와 달의 아들인 추모성왕(주몽)이 북부여에서 태어나셨으니 천하 사방은 이 나라 이 고을이 가장 성스러움을 알지니 - 모두루 무덤 묘지문 -

자료 2

고구려는 충주 고구려비에 신라를 '동이'라고 표현하여 고구려가 사방의 오랑캐를 복속시킨 천하의 중심임을 과시하였다.

충주 고구려비 (충북 충주)

1 자료 1, 자료 2를 통해 알 수 있는 고구려인의 천하관을 말해 보자.

2 고구려인이 위와 같은 천하관을 가지게 된 배경을 설명해 보자.

백제의 웅진 천도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을 빼앗기고 개로왕이 전사하는 등 큰 위기를 맞은 백제는 차령산맥과 금강을 방어선으로 하여 후퇴한 뒤, 수도를 웅진(충남 공주)으로 옮겼다. 그러나 천도 이후 왕이 신하에게 피살되는 등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고 내분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왕은 혼인을 통해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였고, 신진 세력을 등용하여 귀족 세력을 견제하는 등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동성왕의 뒤를 이은 무령왕은 농업 생산을 독려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였다. 또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후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였다.

●● 담로 국왕의 자제나 왕족을 보내 다스리게 한 행정 구역으로, 중앙 집권적 지방 통치를 위한 거점으로 추측된다.

«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도(중국 난징박물관) 남조 양에서 무령왕이 파견한 백제 사신을 그린 그림이다. 사신 그림 옆에는 백제가 신라 및 가야 소국들을 백제의 속국으로 삼았다는 내용을 남조에 과시했던 사실이 적혀 있다.

이야기 샘 # 무령왕, 백제 중흥의 기초를 닦다

무령왕의 이름은 부여사마이다. 『삼국사기』에는 동성왕의 아들로 기록되었지만,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묘지명과 『일본서기』의 기록 등을 통해 개로왕의 아들로 추정되고 있다. 무령왕은 왕위 계승에서 한동안 배제되었다가 동성왕이 피살된 이후 즉위하였다. 그는 고구려와 말갈의 침입을 여러 차례 격파하였고, 남조의 양이나 왜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여 대외적 위상을 회복하였다. 또 흩어진 유민을 호적에 올리고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였으며, 제방을 쌓는 등 농업 생산의 기반을 다졌다.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 양의 벽돌무덤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중국 청자나 일본산 금송으로 만든 관, 그리고 청동 거울 등은 백제가 남조 및 왜와 활발히 교류하였음을 보여 준다.

» 묘지석(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과 왕비가 묻혔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묘지명의 발견으로 백제 왕 중 유일하게 무덤을 정확히 알 수 있다.

» 왕과 왕비의 시신을 안치했던 금송관(복원, 국립공주박물관)

« 6개의 귀가 달린 청자(국립공주박물관)

» 의, 자, 손의 세 글자와 동물무늬가 장식된 청동 거울(국립공주박물관)

5세기 신라 고분의 찰갑(복원품)과 출토 모습(경주 쪽샘) 찰갑은 자유로운 신체 활동이 가능한 갑옷으로, 5세기 신라의 전투력을 크게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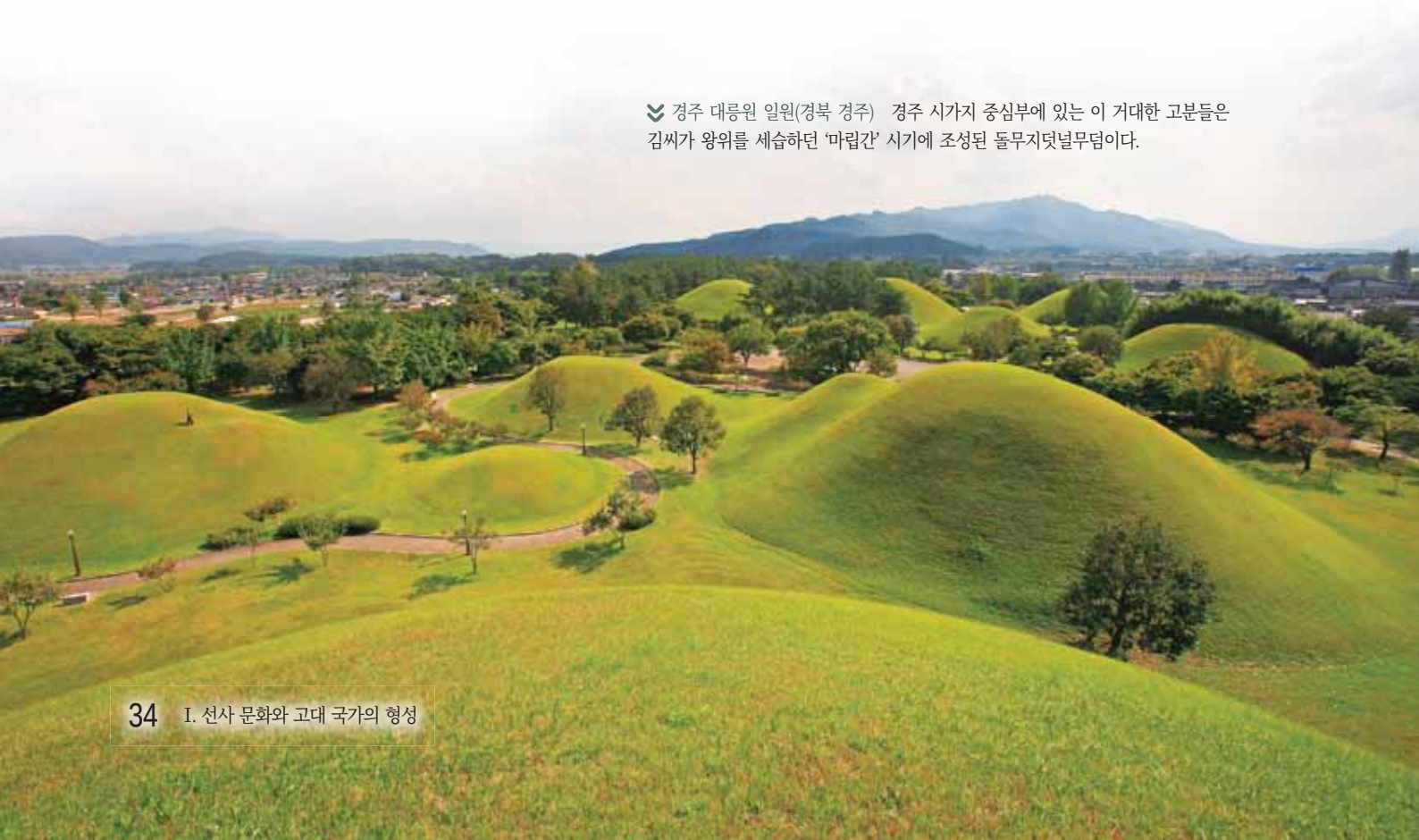
새 모양의 금제 관식(왼쪽)과 관모(오른쪽)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유물로, 신라의 강력한 왕권과 함께 금을 다루는 화려한 공예 기술을 보여 준다.

신라의 중앙 집권 체제 정비

낙동강 중상류의 진한 지역을 통합한 신라는 5세기 후반 백제의 위기를 틈타, 소백산맥을 넘어 보은에 삼년산성을 구축하였다. 신라는 나제 동맹을 이용해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났고, 한강 유역으로 나아갈 기회를 엿보았다. 또한 중앙과 지방을 잇는 도로와 역을 개설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후 지증왕은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보급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수도에 시장을 개설하여 물자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호를 마립간에서 중국식 호칭인 '왕'으로 개편하였다. 또 지방관을 파견하여 복속 지역을 직접 다스렸다.

이어 즉위한 법흥왕은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 지휘권을 체계화하였으며,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 공복의 제도를 실시해 왕권을 강화하였다. 또 불교를 공인하고 상대등을 설치하는 등 신라의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 법흥왕은 '태왕'을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는 등 이후 진흥왕 대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경주 대릉원 일원(경북 경주) 경주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이 거대한 고분들은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던 '마립간' 시기에 조성된 돌무지덧널무덤이다.

가야 연맹의 성장

금관가야가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쇠퇴하자,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성장하여 새로이 가야의 여러 소국을 주도하며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다.

대가야는 합천 지역을 복속하고 소백산맥을 넘어 섬진강 일대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내륙에 위치했던 대가야는 섬진강을 통해 새로이 바닷길을 개척하고 중국 남조, 왜 등과 교역을 시도하였다. 또 고구려의 남진에 대항하여 신라와 백제의 군사 동맹에도 참여하는 등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가야 연맹의 변화

가야 금동관(경북 고령 출토)

'대왕(大王)'이 새겨진 대가야 토기(충남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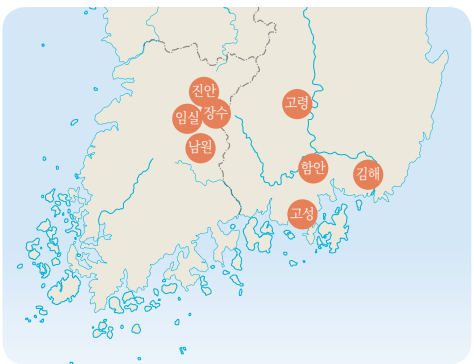
지산동 44호분(경북 고령) 무덤 내부에 32개의 순장곽이 있어 당시 대가야 왕의 힘을 잘 보여 준다.

이야기 샘 # 토기로 보는 대가야 문화권

대가야 토기는 4세기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5세기 말에는 거창, 함양, 남원, 임실, 장수에까지 전해지고, 6세기 초에는 진주를 거쳐 남해안으로 퍼져 나갔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진 대가야 토기를 통해 대가야의 국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대가야 토기 (전북 남원 출토)

대가야 토기 (경북 고령 출토)



대가야 토기 출토 지역

스스로 확인

1. 고구려의 소수림왕은 □□을/를 수용하고 □□을/를 반포하였다.
2.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호를 '왕'으로 개편한 왕은?
3. 금관가야가 쇠퇴한 후 고령 지역의 □□□이/가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성왕
- ☐ 진흥왕
- ☐ 화랑도

3 삼국의 항쟁이 격화되고 가야가 멸망하다

학습 목표 |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삼국 항쟁이 격화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백제의 중흥과 사비 천도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수로 교통이 편리하고 평야 지대인 사비(충남 부여)로 수도를 옮기고, 중앙 관청과 지방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또 부여 계승 의식을 표방하여 한때 국호를 '남부여'라 칭하였다.

성왕은 중국의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며 불교와 유교를 장려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왜에 불교를 전파하고 오경박사를 비롯해 건축, 미술 등에 조예가 깊은 여러 전문가를 파견하여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

6세기 중반 고구려는 왕위 계승 분쟁과 돌궐·북제의 침입으로 국력이 약해졌다. 이에 백제와 신라는 함께 북진하여, 백제는 잃어버린 한성 지역을 되찾았고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신라 진흥왕은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한성 지역마저 기습 점령하였다. 이에 맞서 백제 성왕은 가야 및 왜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오히려 관산성(충북 옥천) 전투에서 전사하였다(554).

황룡사(복원 모형,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는 경제·군사적 요충지인 한강 유역을 확보한 뒤, 황해를 통해 독자적으로 중국과 교류하였다. 진흥왕은 황룡사를 짓고 불교를 장려하여 국가의 정신적 통합을 꾀하는 한편,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재편해 인재를 양성하여 고구려와 백제에 맞섰다.

이야기 샘 # 신라 성장의 발판이 된 화랑도

화랑도는 진골 귀족의 자제를 화랑으로 선발하고 그를 따르는 낭도와 이들을 교육하는 승려로 구성되었다. 진골 귀족부터 평민까지 여러 신분층의 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져 단체 활동을 통해 무예와 사회 규범,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였다.

김대문이 『화랑세기』에서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로부터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맹한 병사가 여기에서 생겨났다."라고 하였을 정도로, 화랑도는 신라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가야 연맹의 멸망

대가야는 가야의 여러 소국을 지배하며 가야 연맹을 이끌었지만, 금관가야 등 여전히 자립적인 지역 세력들이 존재하였다. 이 때문에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무른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가 가야 영토로 진격해 오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에 스스로 항복하였으며, 대가야마저 백제의 가야 진출을 막으려 했던 신라 진흥왕에 복속되었다(562). 이로써 가야 연맹은 소멸하였다.

삼국 항쟁의 격화

진흥왕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함흥평야 일대까지 진출하였고, 정복한 지역에 순수비를 세워 신라의 발전을 대외에 과시하였다.

그러나 6세기 후반 정치적 내분을 극복한 고구려가 잃어버렸던 죽령 이북의 땅을 되찾기 위해 신라를 공격하였다. 또 백제의 무왕이 소백산맥을 넘어 옛 가야 권역으로 진출하여 진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대하면서 삼국 항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신라는 고구려·백제 양국의 공격으로 위급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정국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6세기 신라의 영토 확장

지식+ 단양 신라 적성비에 나타난 진흥왕 대 신라의 발전

단양 신라 적성비(충북 단양)

진흥왕 초기에 건립된 단양 신라 적성비의 내용을 보면, 이전보다 발달한 신라의 국가 지배 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신라의 왕과 귀족들이 회의를 통해 국가의 일을 결정하였지만, 진흥왕은 단독으로 왕명을 내렸다. 이는 귀족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백성을 낱낱이 호적에 기록하고 연령별로 등급화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요역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에 대한 보훈 제도를 마련하여 홀로 남은 아내와 어린 자식을 국가가 돌보아 주고 보상하여 지방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부 체제 정비는 신라가 대외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스스로 확인

1.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정복한 신라의 왕은?
2. 신라는 □□□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재편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의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삼국 통치 체제의 모습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삼국과 가야는 건국 초기에 여러 지역 세력이 연맹한 형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왕권이 성장하면서 지역 세력들이 독자성을 잃고 중앙의 귀족으로 흡수되었고, 중앙 정부는 이들을 관등제를 통해 서열화하였다. 또 각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정복 활동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였다.

한편 넓어진 영토와 많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여 사상적 통일을 꾀하였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의 압박으로 가야는 연맹 단계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신라에 복속되었다.

1 왕권 강화

왕권이 강화되면서 아들에게 왕위를 세습하였다.

2 관등제 정비

지역 세력을 중앙 귀족으로 흡수하고 신분제와 관등제를 통해 국가의 관료로 서열화하였다.

신라의 골품과 관등표

등급	관등명	골품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공복
1	이벌찬					자색
2	이찬					
3	잡찬					
4	파진찬					
5	대아찬					비색
6	아찬					
7	일길찬					
8	사찬					
9	급벌찬					청색
10	대나마					
11	나마					
12	대사					황색
13	사지					
14	길사					
15	대오					
16	소오					
17	조위					

3 지방 행정 체제의 정비

각 지역에 행정 구역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해 왕이 전국을 다스렸다.

4 영토 확장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탐구 1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특징을 말해 보자.

탐구 2 가야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대내적·대외적 원인을 말해 보자.

5 율령 반포

율령을 반포하여 넓은 영토와 백성을 일원적인 규범으로 다스렸다.

탐구 3 신라의 신분제인 골품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해 보자.

6 불교 수용

불교를 수용하여 선업을 쌓고 불법을 수호하는 국왕의 권력을 정당화하였다.

04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

벽화 속 인물의 크기를 다르게 그린 이유가 무엇일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귀족
- ☐ 의식주

1 신분에 따라 다른 생활을 하다

학습 목표 | 삼국 시대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

삼국 시대의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다른 생활을 하였다. 왕실이나 귀족은 화려한 무늬를 넣은 벽돌이나 기와를 이용하여 만든 집에서 살았으며, 탁자나 침상을 사용하였다. 집 안에 부엌, 고깃간, 수렛간, 곡식 창고 등의 건물을 지었다. 반면에 일반 평민은 초가집에서 살았으며 거적 등을 바닥에 깔고 생활하였다.

삼국 시대 가옥의 모습 다소 지위가 있는 촌주나 부유한 농민층의 가옥이라 할 수 있다.

의복 또한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왕족이나 귀족은 비단에 다양한 색과 화려한 무늬를 넣은 옷을 입었고, 평민은 색이 단조로운 베로 만든 옷을 입었다.

대부분의 백성은 콩·보리·조·수수 등 주로 잡곡을 먹었으며, 양식이 떨어지면 도토리나 나무껍질 등을 먹으면서 굶주림을 해결해야 했다. 왕족과 귀족은 주로 쌀을 먹었으며 사냥과 사육으로 얻은 가축, 과일과 해산물 등을 즐겼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청동 수저(국립공주박물관)

고구려 고분 벽화를 통해 본 사람들의 일상과 신앙

일상생활

귀족은 주로 탁자를 이용한 생활을 하였다.

주름 치마를 입은 귀족 여성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볼에 연지를 찍어 화장한 모습이다.

아궁이가 있는 부엌과 사냥한 동물이 걸려 있는 모습이다.

수렵 대회를 열어 무예를 겨루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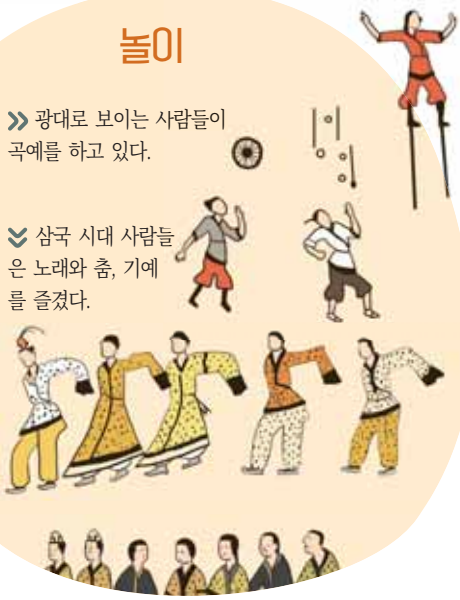
귀족이 타거나 짐을 나르기 위해 수레를 사용하였다.

신앙

농사의 신인 신농씨를 표현한 그림이다.

대장간에서 일하는 쇠의 신과 수레바퀴를 다루는 수레바퀴의 신을 그린 것으로, 고대 동아시아의 다양한 신앙을 엿볼 수 있다.

놀이



광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곡예를 하고 있다.

삼국 시대 사람들은 노래와 춤, 기예를 즐겼다.

스스로 확인

1. 삼국 시대의 사람들은 □□에 따라 다른 생활을 하였다.
2. 왕족이나 □□은/는 비단에 다양한 색과 화려한 무늬를 넣은 옷을 입었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굴식 돌방무덤
- ☐ 무령왕릉
- ☐ 돌무지덧널무덤

2 삶과 신앙의 모습을 고분에 남기다

학습 목표 | 삼국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고분 벽화나 유물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고분 문화

삼국 시대 왕족이나 귀족은 사후 세계를 믿어 죽은 자를 위해 무덤을 만들고 껴묻거리를 함께 묻었다. 삼국은 나라와 시기마다 다양한 형태의 고분을 만들었다. 특히 돌로 방을 만들어 천장과 벽에 그린 그림은 당시 사람들의 풍속과 신앙, 다양한 생활 모습을 잘 보여 준다.

고구려는 고분에 풍속, 인물, 도교의 사신 등을 소재로 벽화를 그렸다. 백제는 고구려의 영향으로 계단식 돌무지무덤을 만들었고 굴식 돌방무덤 등도 남겼다. 특히 벽돌로 만든 무령왕릉을 남겼다. 신라는 독특한 형태의 돌무지덧널무덤을 남겼고 굴식 돌방무덤도 만들었다. 가야도 김해, 고령 등지에 대형 고분을 축조하였다.

토우 장식 장경호(국립경주박물관) 흙으로 빚은 작은 인물이나 동물이 장식되어 있다. 무덤의 껴묻거리로 출토되어 당시 사람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경북 고령) 대가야의 거대한 고분들이 산 능선과 사면에 남아 있다.

고구려의 굴식 돌방무덤

고구려는 초기에 돌을 쌓아 올린 돌무지무덤을 많이 만들었으나, 점차 돌을 쌓아 방을 만든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었다. 굴식 돌방무덤의 천장과 벽에는 다양한 인물과 풍속,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신앙과 생활 모습 등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

해의 신과 달의 신(오회분 4호묘, 중국 지린성) 동아시아 고대 신화 속의 해의 신(오른쪽)과 달의 신이 화려한 색으로 천장과 벽이 만나는 모퉁이에 그려져 있다.

강서 대묘 천장 (남포 강서)

강서 대묘 내부 모습

탐구 해보자

고분 문화의 정수, 왕실 명품 껴묻거리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

시신과 껴묻거리를 넣은 나무 덧널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은 후 흙으로 거대한 봉분을 만들었다. 경주에 여러 기가 분포하고 있다. 금관, 금제 장신구, 유리 제품 등을 비롯해 많은 껴묻거리가 발굴되었다.

천마총 출토 천마도

금관총 출토 허리띠

황남 대총 출토 금관

백제 무령왕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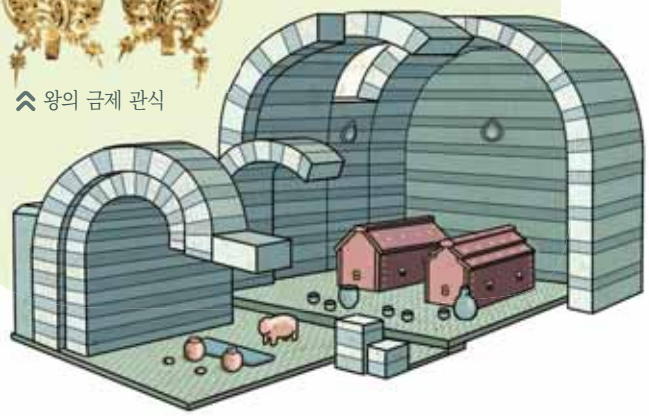
중국 남조의 벽돌무덤 양식으로 축조되었다. 벽돌을 쌓아 만든 방에 왕과 왕비의 시신을 목관에 안치하고 많은 껴묻거리를 두었다. 이를 통해 당시 백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문물 교류 모습을 추론할 수 있다.

청동 다리미와 금동 신발
일본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유사하다.

오수전 중국의 화폐로 백제와 중국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 준다.

왕의 금제 관식

환두대도



1 신라의 고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을 찾아 그 쓰임새를 설명해 보자.

2 백제 무령왕릉이 당시 동아시아의 활발한 문화 교류 사실을 보여 준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3 삼국 시대 사람들이 거대한 고분을 만들어 껴묻거리를 함께 묻은 이유를 설명해 보자.

스스로 확인

1 신라는 경주에 거대한 봉분을 가진 □□□□□무덤을 남겼다.
2 백제는 벽돌을 이용하여 축조한 □□□□을/를 공주에 남겼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서역
- ☐ 아스카 문화

3 주변 국가와 교류하다

학습 목표 | 삼국 시대 주변 국가와의 교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중국, 서역과 교류

삼국은 초원길, 중국을 거치는 사막길, 서·남해안의 바닷길을 통해 주변국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중국을 통해 불교, 유교, 한자, 과학 기술 등을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역 문화와도 접촉하였다.

고구려는 초원길을 통해서 유목 민족과, 바닷길을 통해서는 중국의 남북조와 교류하였다. 일찍부터 해상 강국으로 성장한 백제는 서남해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해상 교역로를 이용하여 중국의 동진, 남조, 일본과 교류하였다. 신라는 초기에 고구려를 통해 중국과 서역 문화를 받아들였다. 가야도 바다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였다.

●● 서역 중국의 서쪽 지역을 가리킨다. 지금의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인도, 유럽을 모두 포함한다.

고구려 사신 추정 인물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고구려 각저총 벽화(중국 지린성) 씨름하는 인물 중 한 명이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1 경주 계림로 보검
2 황남 대총 출토 금제 팔찌
3, 4 경주에서 출토된 사람 얼굴이 새겨진 유리구슬과 유리 제품

서역과의 교통로

일본과 교류

삼국과 가야는 일본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한반도에서 정치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이 일본 열도로 이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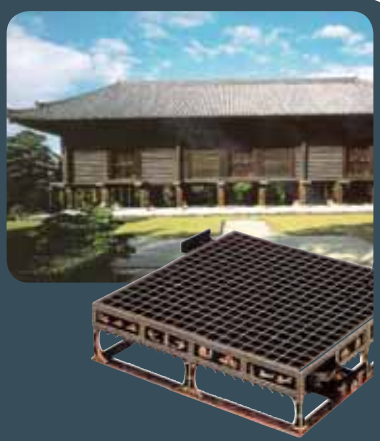
일본과 가장 밀접한 관계였던 백제는 일본에 불교와 한자, 유학뿐만 아니라 천문학과 건축 등 과학 기술을 전하였다. 고구려와 신라는 미술과 조선술 등을, 가야는 발달한 철기 문화와 토기를 일본에 전하였다. 이렇게 전해진 삼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아스카 문화가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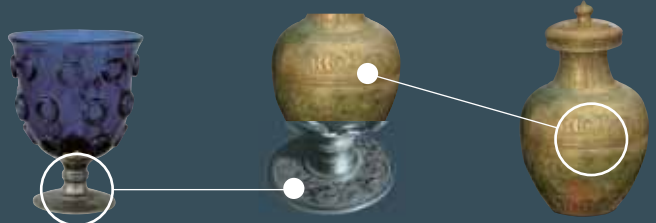
5 호류사 금당과 오층 목탑(일본 나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백제 건축 기술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6 백제 관음상(일본 나라 호류사) 일본으로 간 백제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왕실의 보물 창고, 쇼소인에 있는 우리 보물

쇼소인은 일본 나라에 있는 도다이사에 속한 건물로 일본 왕실의 보물 창고 역할을 하였다. 이곳에는 일본, 백제, 신라, 당, 인도, 사산 왕조 페르시아 등의 희귀한 고대 유물 9,000여 점이 지금까지 온전한 상태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특히 1,300여 년 전 백제 의자왕과 관련된 바둑판과 바둑돌 등 희귀한 한반도의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백제 가공 유리잔 서역 페르시아 계통의 유리잔에 백제가 은으로 가공한 받침을 붙였다. 특히 받침에 새겨진 문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사리호의 문양과 유사하다.

백제가 선물한 바둑판과 바둑돌

스스로 확인

1.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나 황남 대총 출토 금제 팔찌 등은 삼국과 □□의 교류 사실을 보여 준다.
2. 한반도와의 문화 교류를 배경으로 일본에서 발전한 문화는?

삼국의 문화

삼국 시대 불교 관련 문화유산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삼국에서 발전한 종교와 학문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 불교문화의 발전

중국을 거쳐 삼국에 들어온 불교는 왕실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불교와 함께 건축과 예술, 사상 등 선진 문화도 들어왔다. 원광과 자장 등 중국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온 승려들이 활동하였고, 국가 주도로 백제의 미륵사나 신라의 황룡사와 같은 거대한 사찰이 세워졌다.

사찰에는 신앙의 대상으로 탑이 세워졌고, 각지에 불상도 조성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석탑으로는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 신라의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 유명하다. 불상으로는 백제의 서산 용현리 마애 여래 삼존상이 대표적이고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도 여러 점 전해진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전북 익산) 백제 무왕 때 만들어진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오랜 세월을 지나며 크게 파손되었다. 이후 방치되다시피 한 석탑을 최근 완전 해체하여 보수하였다.

서산 용현리 마애 여래 삼존상(충남 서산) 백제의 미소로 대표되는 불상으로 암벽을 깎아 삼존불을 조성하였다.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국립중앙박물관) 몸에서 나온 빛을 표현한 광배가 특징적인 고구려 불상이다.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경북 경주)

2 도교의 수용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선 사상과 노장사상 등이 결합된 도교가 삼국에 전래되어 귀족 사회에서 유행하였다. 이 때문에 고분 벽화나 여러 공예품에 도교 신앙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현무도(남포 강서) 도교의 사신 중 하나인 현무를 그린 고구려의 고분 벽화이다.

산수무늬 벽돌(국립중앙박물관) 도교의 신선 사상이 나타나 있어 당시 귀족 사회에 도교가 유행하였음을 보여 준다.

3 유학의 발전

중국에서 한자와 유학이 전래되면서 유학 교육 기관도 만들어졌다. 고구려는 태학을 세웠고, 백제는 오경박사를 두어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유학은 인재를 양성하고 일상의 규범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

임신서기석(국립경주박물관) 신라 청년 두 사람이 유교 경전을 읽기로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4 과학 기술과 공예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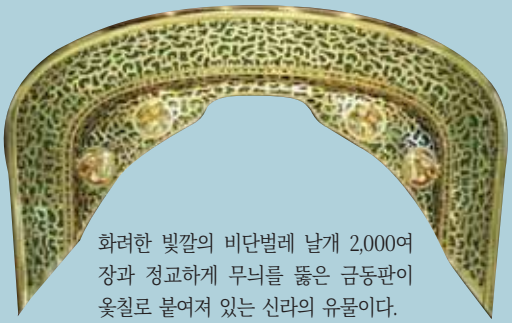
삼국 시대 왕들은 하늘과 연결하여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일식, 혜성의 출현 등 천문 현상을 관측하는 천문학이 발전하여 고분에 별자리를 그리기도 하고, 첨성대와 같은 천문 관측 시설을 만들기도 하였다.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하여 철제 무기나 농기구뿐만 아니라 신라 금관이나 각종 장신구, 백제 금동 대향로와 같은 우수한 공예품도 만들어졌다. 음악은 종교 의식이나 축제와 관련하여 발전하였고, 거문고와 가야금 등의 악기도 만들어졌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나 신라의 천마도 등은 당시 높은 회화 수준을 보여 준다.

탐구 1 삼국의 불교 관련 문화유산을 찾아 나라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자.

경주 첨성대(경북 경주)

| 황남 대총 출토 비단벌레 장식 말안장 뒷가리개(복제품) |



화려한 빛깔의 비단벌레 날개 2,000여 장과 정교하게 무늬를 뚫은 금동판이 옻칠로 붙여져 있는 신라의 유물이다.

비단벌레

탐구 2 삼국 시대 도교의 유행 사실을 알려 주는 문화유산을 찾아보자.

| 백제 금동 대향로 |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높이 64㎝의 향로이다. 백제의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을 보여 주는 걸작이다.

- 상서로운 상상의 동물인 봉황을 표현하였다.
- 향로의 뚜껑 부분이다. 도교에서 신선이 산다는 이상향을 표현하였다.
- 향을 담는 몸통 부분이다. 불교에서 중시하는 연꽃을 표현하였다.
- 향로의 받침대이다. 용이 입으로 향로의 몸통 부분을 받치고 있다.

탐구 3 삼국 시대의 대표적 문화유산을 하나 선택하여 이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보자.

① 사진을 붙이거나 그림을 그린다.
② 제목을 달고 한 문장으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

I 대단원 마무리

스스로 정리하기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자.

1 다음 유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나)

(다)

(라)

(1) 한반도 신석기 시대의 유물을 찾아 그 명칭을 써 보자.

(2) (가)~(라)를 제작된 시기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천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천군이라 부른다. 천군이 제사 지내는 지역을 (㉠)(이)라 하는데, 이곳으로 죄인이 도망하여 숨더라도 잡아가지 못하였다.

(1) ㉠에 들어갈 말을 써 보자.

(2)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회 모습의 특징을 서술해 보자.

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가) 마한 지역을 복속하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 (나)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 (다)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쳐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였다.

(1) (가)~(다) 사실에 해당하는 나라와 왕을 각각 써 보자.

(2) (가)~(다) 사실을 시기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4 경주에서 발견된 다음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서술해 보자.

5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분 양식의 명칭을 써 보자.

> 시신과 껴묻거리를 넣은 나무 덧널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은 후 거대한 봉분을 만들었다. 천마총과 황남대총 등이 대표적이다.

역사야 놀자

삼국 시대 각 나라의 발전 모습을 왕의 활동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되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을 왕을 중심으로 한 마인드맵을 만들어 정리하고 공부해 보자.

1 단계 모둠별로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 중 한 나라를 선정하고 그 나라에서 대표적인 왕 3 ~ 4명을 선정한다.

길잡이 나라별로 다음과 같은 왕을 선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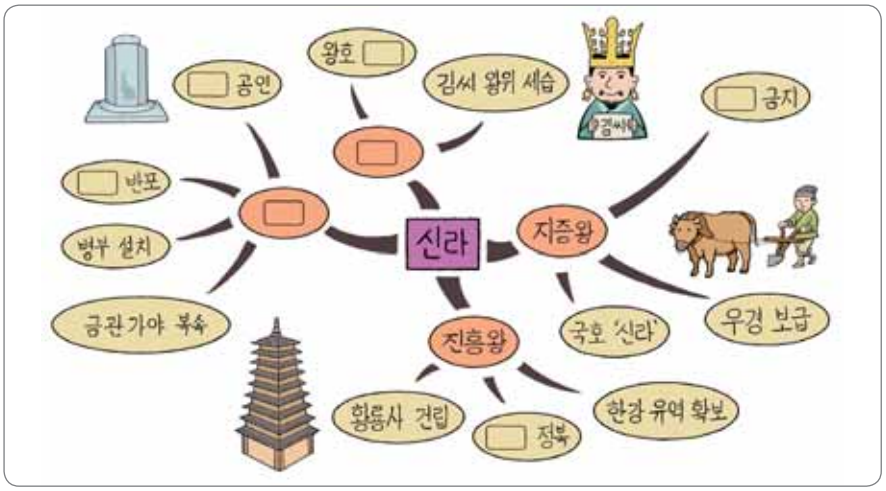
- 고구려: 태조왕, 소수림왕, 광개토 대왕, 장수왕
- 백제: 근초고왕, 동성왕, 무령왕, 성왕
- 신라: 내물왕,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2 단계 각 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과 국왕의 활동을 찾아 정리하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 토의한다.

3 단계 종이에 마인드맵을 만들어 일부 내용은 빈칸으로 남긴다.

4 단계 모둠이 만든 마인드맵을 옆 모둠과 교환하여 빈칸을 채워 내용을 완성한다.

마인드맵 예시



유의 사항

- 모둠별로 주제가 겹치지 않도록 한다.
- 모둠원의 역할을 잘 나누어 협동 작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 마인드맵의 내용은 단어나 구절 등 형식을 가능한 한 통일한다.
- 빈칸으로 만들 내용은 적절한 난이도로 안배한다.

평가 방법

- 역사적 사실과 개념이 정확한가?
- 마인드맵의 세부적 구성이 타당한가?
- 중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있는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

초등학생부터 배우는 구구단, 고대인들도 구구단을 외웠을까?

오늘이 묻고,

산수를 배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외우고 있는 셈법이 있다. 바로 1부터 9까지의 두 수를 곱한 9×9 곱셈표인 '구구단'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곱셈을 익힐 때 가장 먼저 구구단을 외운다. …… 실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구구단'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더불어 산수의 기본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구구단은 언제 어디서 생겨난 것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구구단을 외운 것일까?

- 『디지틀조선일보』, 2018. 10. 26. -

역사가 답하다!

2011년 6월 사비 백제의 도읍지였던 부여의 한 주택 공사장에서 숫자가 새겨진 가로 5.5㎝, 세로 30.1㎝ 크기의 목간 한 점이 발견되었다.

목간의 적외선 촬영 결과 학자들은 숫자에 일정한 형식이 있음을 밝혀냈다. 9 〃 81, 8 9 7□, 7 9 63, 8 〃 64, 7 8 56, 6 8 48, ("은 반복 부호) 그리고 숫자는 계속되었다. 수를 읽어 나가던 학자들은 뭔가 익숙한 숫자의 조합에 놀라며 이 목간이 구구단을 표시한 것임을 알아냈다. 손에 잡기도 편하고 단마다 선을 그어 구분한 아주 정교한 구구단표였다. 9×9=81, 8×9=72, 7×9=63처럼 지금과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을 뿐이었다.

구구단 목간이 발견된 곳은 당시 관청 창고와 공방들이 몰려 있던 곳으로, 이 구구단 목간은 단순히 외우기 위한 게 아니라 백제 관리가 검산 과정에서 확신을 기하기 위해 고안한 공식표였다. 이 구구단 목간의 발견으로 백제를 비롯한 삼국 시대 수학 체계의 발전 모습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II

남북국 시대의 전개

01 신라의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02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

03 남북국의 문화와 대외 관계

역사의 시공간

들여다보기

7~8세기경 세계

당의 동쪽에 문명이 찬란한 신라와 발해라는 나라가 있다던데, 이번 장삿길에는 거기까지 가봤으면 좋으련만…….

우리 당의 수도 장안은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문물이 모이는 국제도시이다.

« 당 태종

인도로 구법 여행을 떠나자.

« 현장

당

» 석굴암 신라가 토함산에 만든 인공 석굴 사원으로 불국토를 염원하는 신라인의 이상이 깃들어 있다.

발해의 불교문화도 자랑할 만하지…….

도다이사

동해

나라 시대

당에 가서 문물을 배워 오자.

세계사		한국사	
수 건국	581		
수, 남북조 통일	589		
		612	살수 대첩
당 건국	618		
다이카 개신	645	645	안시성 전투
		660	백제 멸망
		668	고구려 멸망
		676	신라, 삼국 통일
		698	발해 건국
일본, 나라 시대 시작	710		
탈라스 전투	751	751	신라, 불국사와 석굴암 건립 시작
안·사의 난	755		
		788	신라, 독서삼품과 실시
일본, 헤이안 시대 시작	794		
카롤루스 대제, 서로마 황제 대관	800		
		822	김헌창의 난
		828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900	견훤, 후백제 건국
		901	궁예, 후고구려 건국
		918	왕건, 고려 건국
		926	발해 멸망

이 시기 한국은? 남북국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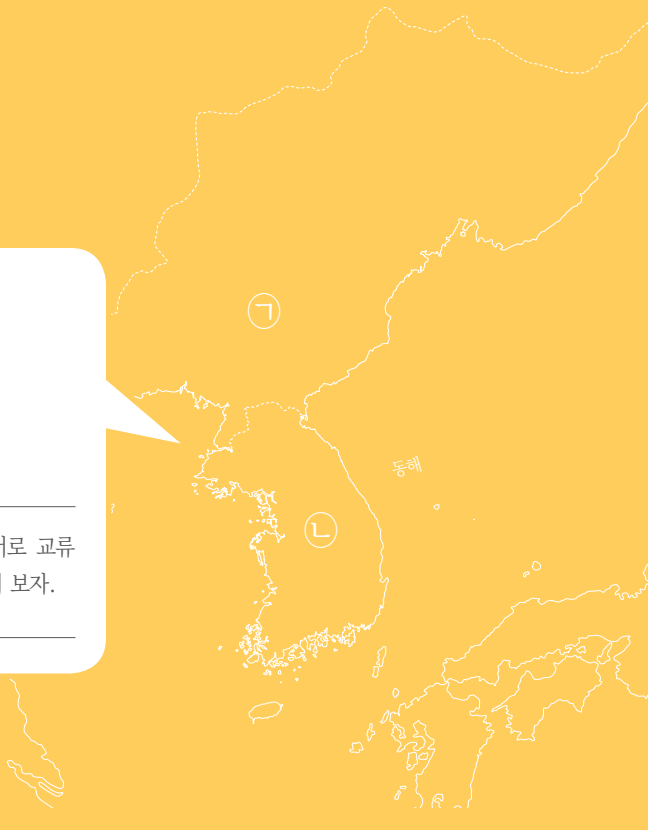
- 오른쪽 지도는 8세기 한반도의 형세를 나타낸다.

① 지도의 ㉠, ㉡에 들어갈 나라 이름을 써 보자.

_____

② 8세기 동아시아에는 당을 중심으로 ㉠, ㉡, 일본, 베트남 등 주변국이 서로 교류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를 써 보자.

_____



01 신라의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고구려가 아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배경은 무엇일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살수 대첩
- ☐ 안시성 전투

1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략을 물리치다

학습 목표 |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략을 물리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

6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제 정세

6세기 후반 수가 분열되었던 중국 지역을 통일하면서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 질서가 크게 변하였다. 수 문제는 유목 세력인 돌궐을 제압하고 고구려를 압박하며 복종을 강요하였다. 이 틈을 타 고구려의 힘에 눌려 있던 말갈과 거란이 고구려로부터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동안 중국의 분열을 이용하여 독자적 세력권을 구축하였던 고구려는 새롭게 등장한 수에 맞서 외교적·군사적 대책을 세워야 했다.

한편 백제는 고구려와 수의 대립을 관망하면서 양쪽과 모두 친선 관계를 유지하였다. 신라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수에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와 외교 교섭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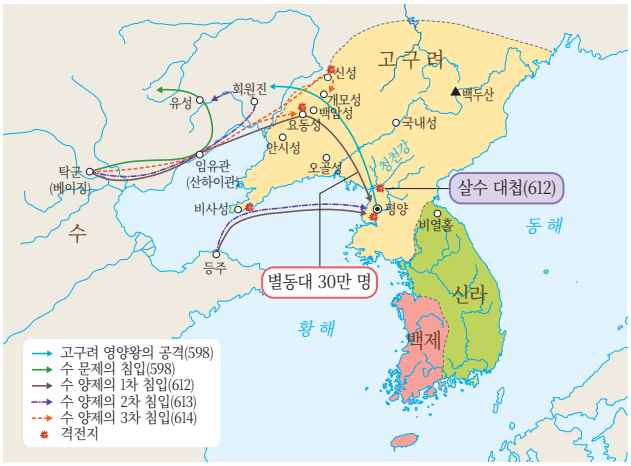
백암성(중국 랴오닝성) 태자하를 해자로 삼은 산성으로,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다. 랴오허강을 방어하던 성 중 하나로 견고하게 쌓아서 지금도 잘 남아 있다. 총 둘레는 2.3㎞이다.

수의 고구려 침략과 살수 대첩

고구려는 수의 침략에 대비하고 말갈과 거란의 이탈을 막기 위해 요서 지역을 선제공격하였다(598). 이에 수는 30만 명의 육·해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침공하였지만, 홍수와 풍랑으로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하였다.

수 양제는 113만 명 이상의 군대를 동원해 다시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고구려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랴오허강도 넘지 못하자, 수는 30만의 별동대를 편성하여 평양성으로 곧바로 진격하였다. 이에 고건무(후일의 영류왕)는 바다를 건너 상륙한 수의 군대를 평양 근교에서 물리쳤고, 을지문덕은 별동대를 유인하여 살수(청천강)에서 크게 격퇴하였다(살수 대첩, 612).

이후에도 수는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번번이 패하였다. 결국 잦은 해외 정벌과 토목 공사로 민심을 잃은 수는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멸망하였다.



고구려와 수의 전쟁

을지문덕이 수의 장군 우중문에게 보낸 시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었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통달하였도다.
전쟁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 김부식, 『삼국사기』 -

이야기 샘 # 살수 대첩의 영웅, 을지문덕을 만나다

살수에서 살아 돌아간 적이 2,7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살수 대첩의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정말 엄청난 승전보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실 저보다는 고건무 장군께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별동대에 식량을 보급하기 위해 미리 상륙했던 수의 해군을 장군께서 평양으로 유인하여 몰살하였습니다.

살수를 건넌 적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적들은 살수까지 급히 오느라 지칠 대로 지쳤고, 앞다투어 후퇴하려다 결국 강에 막혀 자멸한 것입니다.

저의 유인책에 휘말려 적들은 오랜 행군과 굶주림으로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적들은 우리 영토 깊숙이 들어왔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후퇴했지만, 이미 늦은 것이죠. 우리 고구려군은 사기가 떨어진 적을 쉽게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살수 대첩(전쟁기념관 디오라마)

당의 고구려 침략과 안시성 전투

●● 천리장성 당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랴오허강을 따라 북쪽의 부여성에서 남쪽의 비사성까지 이어 놓은 장성이다. 631년(영류왕 13)부터 647년까지 무려 16년이나 걸려 완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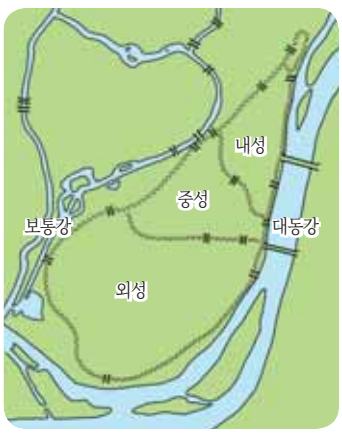
수의 뒤를 이은 당은 처음에는 고구려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 태종이 즉위한 이후 대외 팽창 정책을 펼치면서 고구려를 압박하였다. 고구려는 랴오허강 일대의 국경 지역에 연개소문을 파견하여 천리장성●●을 쌓는 등 당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고구려와 당의 전쟁

이때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왕과 귀족들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642). 연개소문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 당과 화친하려 하였으나, 당 태종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 삼아 직접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당은 요동성과 백암성을 함락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안시성 전투에서 결국 패배하여 퇴각하였다(645). 이후에도 당 태종은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고구려는 이를 모두 물리쳤다.

고구려는 수·당의 침입을 격퇴하고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재편 시도에 맞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지켜 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전쟁과 지배층의 내분으로 고구려의 국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지식+ 고구려의 철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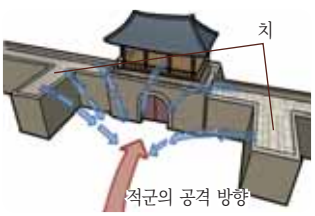


평양성

고구려는 성 외부에 있는 강을 해자로 이용하였다. 성 내부에는 외성·중성·내성 등 겹겹이 방어벽을 쌓아 외성이 무너져도 다시 중성이나 내성에서 적을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었다. 고구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성 바깥에 곡식과 풀을 없애 적군과 말이 먹을 것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적군은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 성을 함락하지 않고는 전진할 수도 없었다.

고구려의 산성은 주변의 다른 산성과도 서로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적의 후방과 측방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하였다.

들여쌓기 성을 쌓을 때 성돌을 쐐기 모양으로 만들고, 성돌 가장자리에 턱을 받쳐 윗돌이 밀려 무너지지 않도록 쌓았다.



치 성벽에 돌출된 '치'를 만들어 적을 정면과 양쪽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었다.

Q 성을 이용한 고구려 방어 전술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스스로 확인

1.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이 수의 30만 별동대를 물리친 전투는?
2. 당 태종은 □□□□의 정변을 구실 삼아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❷ 삼국이 통일되다

학습 목표 |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의의와 한계를 말할 수 있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김춘추
- ☐ 나당 연합
- ☐ 백제·고구려 멸망
- ☐ 백제·고구려 부흥 운동
- ☐ 삼국 통일

신라의 위기와 나당 연합

고구려가 수·당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백제와 신라의 대립도 격화되었다. 백제 의자왕은 당과 연결된 신라를 협공하기 위해 고구려와 손을 잡고,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하여 신라와 당의 연결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백제는 신라의 40여 성을 함락하고, 낙동강 서쪽의 대야성(경남 합천)까지 진출하여 신라의 수도를 위협하였다. 위기를 느낀 신라의 김춘추는 고구려에 가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고구려가 신라에 빼앗긴 죽령 이북의 땅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에 김춘추는 당 태종이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가자, 당에 건너가 신라와 당의 군사 동맹을 요청하였다. 당 태종은 김춘추의 제안을 받아들여 나당 군사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결성하였다(648).

•• 당항성 신라가 당으로 가기 위해 당항진 항구를 개설한 곳이다. 지금 경기도 화성시의 당성 유적이다.

이때 세계는?

당이 토번과 화친하고 돌궐을 복속시켜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는 등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탐구 해보자 김춘추의 외교 활동

자료를 보고 김춘추의 외교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1

❶ 자료 1의 협상이 진행될 당시 한반도의 정세를 말해 보자.

_____

_____

자료 2

❷ 자료 2의 협상 결과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발표해 보자.

_____

_____

백제의 멸망과 부흥 운동

부여 정림사지 오층 석탑(충남 부여) 1층 탑신에 소정방이 '당이 백제를 정벌하였다.'라는 내용을 새겨 놓았다.

나당 연합군은 지배층의 분열로 정치적 혼란에 빠진 백제를 공격하였다. 황산벌에서 계백의 결사대를 물리친 김유신의 신라군은 기벌포에 상륙한 당군과 연합하여 사비성을 포위하였다.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결국 항복하였다(660).

백제가 멸망한 후 당이 백제의 옛 땅을 지배하려 하자 각지에서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백제 부흥군은 한때 세력을 크게 떨쳤지만 지도층의 분열로 약화되었다. 이후 백제를 도우러 온 왜군이 백강 전투에서 패배하고, 최후의 보루였던 주류성이 나당 연합군에 함락되면서 백제 부흥 운동은 실패하였다(663).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 운동

백제의 멸망 이후 당은 신라로부터 군량 지원을 받으면서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죽은 뒤 아들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났다. 이를 틈타 나당 연합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었고, 결국 고구려도 멸망하였다(668).

당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자, 검모잠 등이 보장왕의 서자인 안승을 왕으로 받들고 고구려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지도층의 분열로 안승이 신라에 항복하면서 고구려 부흥 운동은 실패하였다.

이야기 샘 # 고구려 유민의 활약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은 고구려의 재건을 막기 위해 지배층을 중국 각지로 강제 이주시켰다.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고구려 유민들은 몽골 초원이나 중국 각지에서 용맹함을 떨치며 활약하였다.

고문간

몽골 초원으로 이주하여 고구려 유민을 규합하고 세력을 키워 돌궐 묵철가한의 사위가 되었다. '고려왕 막리지'라 칭하는 등 세력을 떨쳤다.

고선지

당의 안서도호부 지역으로 이주되었다가, 뛰어난 무예 실력으로 20세 때 장군의 지위에 올랐다. 여러 차례 파미르고원을 넘어 서역 원정에 성공하였고, 마침내 안서도호부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이정기

안사의 난 이후 혼란에 빠진 당의 정국을 이용하여, 765년 평로치청절도사가 되어 산둥반도 일대를 무려 4대에 걸쳐 지배하였다.

나당 전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

당은 고구려와 백제의 수도에 각각 안동도호부와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하여 한반도를 차지하려 하였다. 이에 신라는 먼저 백제의 옛 땅을 장악하고 백제 유민에게 관직을 주어 민족 통합을 꾀하였다. 또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고 고구려 부흥 운동을 후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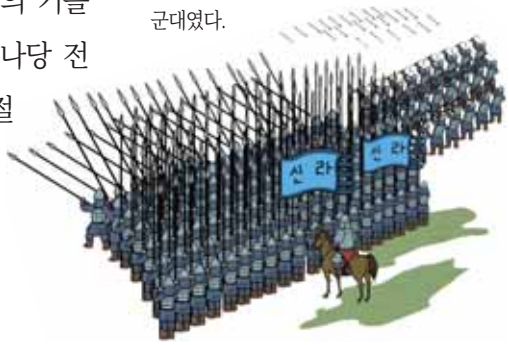
토번이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당을 압박하자, 신라는 고구려 부흥군과 합세하여 당의 부대를 선제공격하였다. 이에 당이 말갈·거란 기병을 동원하여 신라를 침략하였다. 신라는 장창 보병과 쇠뇌 부대를 육성하고 각지에 산성을 쌓아 당에 맞섰다. 신라가 당군을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크게 격파하자, 당은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기고 철수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삼국 통일을 완수하였다(676).

신라의 삼국 통일로 삼국의 문화가 하나로 융합되어 민족 문화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비록 대동강 이북의 옛 고구려 영토를 잃어버렸지만,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동아시아를 지배하려던 당의 야욕을 좌절시켰다. 이는 이후 유목 지역에서 돌궐이 부흥하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건국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나당 전쟁

●● 토번 중국 서쪽에서 7~9세기에 활동한 티베트 왕국이다.

●● 장창 보병과 쇠뇌 부대 장창 보병은 긴 창으로 기병의 기동력을 약화한 군대였다. 쇠뇌 부대는 사거리가 긴 기계식 활을 이용하여 기병을 격퇴하는 군대였다.



활동 해보자

신라의 삼국 통일 평가하기

개별 활동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자.

신라는 외세를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민족 역량이 약화되었어.

더욱이 고구려의 옛 땅을 잃어버렸으니, 삼국 통일이 아니라 백제 멸망에 불과해.

신라는 생존을 위해 외세를 이용한 거야. 또 당이 신라마저 공격하자, 백제 및 고구려 유민과 하나가 되어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였어.

오히려 신라의 현실적 외교가 민족을 보존했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 확인

1. 당으로 건너가 나당 연합을 성사한 신라의 인물은?
2. 신라는 □□□와/과 기벌포에서 당군을 크게 물리치고 삼국 통일을 완수하였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대조영
- ☐ 말갈족
- ☐ 남북국 시대

동모산(중국 지린성)

3 고구려 유민, 발해를 세우다

학습 목표 |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대조영의 발해 건국

고구려 멸망 후 당은 고구려의 왕과 귀족 등 지배층을 중국 각지로 이주시켰다. 요서의 영주 지역에는 고구려의 장군 출신 대조영을 비롯해 많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 거란족 등이 끌려와 살고 있었다.

당의 지배를 받고 있던 돌궐 세력이 몽골 초원에서 재기하여 독립하자, 거란족 이진충이 당에 저항하여 영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틈을 타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영주를 탈출하였다.

대조영은 추격해 온 당의 군대를 말갈족과 함께 물리치고 동모산에 도읍을 정하고 발해를 세웠다(698). 발해가 건국되어 남쪽의 통일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게 되었다.

발해 건국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의견

고구려 유민의 이동과 발해의 건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지만,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건국되어 남북으로 병존했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야 합니다.

발해는 당에 조공을 바치고 정치적으로 복속되었던 말갈이 세운 나라로, 중국의 역사로 보아야 합니다. 말갈은 지금의 만주족입니다.

발해 왕은 자신을 고려(고구려) 왕이라 칭했고, 일본도 발해를 고려라고 불렀습니다.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고구려 장군 출신이고, 발해 지배층의 상당수가 고씨인 점으로 보아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분명합니다.

발해는 '시베리아 민족' 중 하나인 말갈이 세운 국가로서, 러시아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스스로 확인

1. 고구려 장군 출신 □□□이/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발해를 건국하였다.
2. 통일 신라와 발해가 병존하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는가?

활동 해보자

삼국 통일 전쟁 시기, 각국의 장군들 가상 인터뷰하기

모둠 활동

삼국 통일 전쟁기 각국의 장군을 전문가 학습을 통해 가상 인터뷰를 해 보자.

우리 왕은 너무 나약하다. 낭을 무서워하고, 위대한 고구려의 역사를 모르는 것 같다. 나처럼 대당 강경책을 주장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온건한 사람들만 총애한다.

연개소문

우리 왕은 왜 충신들을 감옥에 보내는 걸까? 좌평 성충을 감옥에서 죽이고도 모자라 또 좌평 흥수마저 투옥하다니, 백제의 앞날이 걱정이다.

계백

사비성 공격에 늦게 온 주제에 감히 나에게 대들다니, 괘씸하구나. 김유신! 아직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이라 지금은 참는다만, 신라 너희도 얼마 남지 않았다.

소정방

신라인들이여 두려워 마라. 현재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당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당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두려워 말고 당에 대비하면 된다.

김유신

활동 방법

① 4명씩 한 모둠을 구성한 후, 위의 장군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질문으로 작성한다.

② 모둠별로 학생 1인당 장군 1인을 선택한 뒤, 선택한 인물의 질문에 대해 조사한다.

③ 선택한 인물별로 모여(전문가 집단) 상호 토의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한다.

④ 원래 모둠으로 돌아와 자신이 선택한 인물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둠원에게 설명한다.

장군	인터뷰 질문	답변
연개소문		
계백		
소정방		
김유신		

02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

삼국 통일 이후 신라의 정치, 사회 모습은 어떻게 변하였을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집사부
- ☐ 신문왕
- ☐ 녹읍
- ☐ 9주 5소경
- ☐ 9서당 10정

1 신라 왕권이 강해지고 통치 제도가 정비되다

학습 목표 | 통일 이후 신라의 왕권 강화 정책과 통치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강력한 왕권의 확립

삼국 항쟁이 한창이던 7세기 중반 김춘추는 김유신의 후원 등에 힘입어 왕위에 올라 태종 무열왕이 되었다. 태종 무열왕은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여 통치 체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왕의 비서 기구인 집사부를 독립시켜 그 장관인 시중의 역할을 강화하고, 귀족 회의의 기능을 축소하여 상대등의 권한을 약화하였다.

뒤를 이은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달성하고 나당 전쟁 때 친당적인 진골 귀족들을 축출하였다. 통일 이후 궁궐을 확장하고 월지를 건설하는 등 왕의 위엄을 과시하였다. 신문왕은 역모를 꾀한 장인 김흠돌을 숙청하고 왕권에 도전했던 진골 귀족을 제압한 뒤, 통치 제도를 개혁하여 왕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경주 동궁과 월지(경북 경주) 문무왕 때 만든 별궁과 인공 연못으로, 손님을 접대하던 임해전과 월지궁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연못의 어떤 곳에서도 전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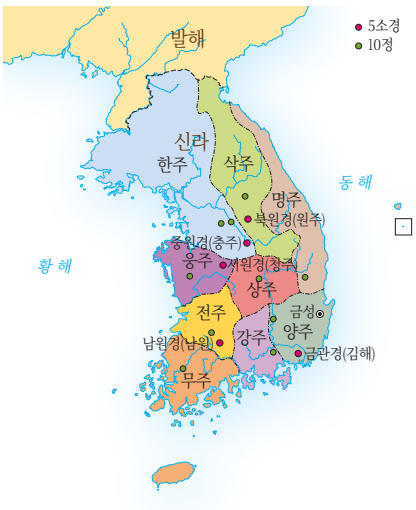
신문왕의 통치 제도 정비

신문왕은 관료에게 새로이 관료전을 지급하고,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녹읍을 혁파하고 녹봉을 지급하였다. 또 국립 교육 기관인 국학을 세워 '충'과 '효'를 강조하는 유학 사상을 보급하였다. 이를 통해 6두품 관료들이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왕권을 뒷받침하였다.

중앙 및 지방의 통치 제도도 새롭게 정비하였다. 중앙에는 10여 개의 관청을 두어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나누었다. 지방은 9주로 나누고 옛 고구려, 백제와 신라 땅에 각각 3주씩 배치하여 민족 통합을 추구하였다. 그 아래 군과 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고, 말단의 촌은 지방의 유력자인 촌주의 도움을 받아 통치하였다. 또 수도 금성(경주)이 국토의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 중요 거점에 5소경을 두었다.

군사 제도는 중앙에 9서당, 지방에 10정을 설치하였다. 9서당은 신라인과 함께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 등으로 편성하여 민족 통합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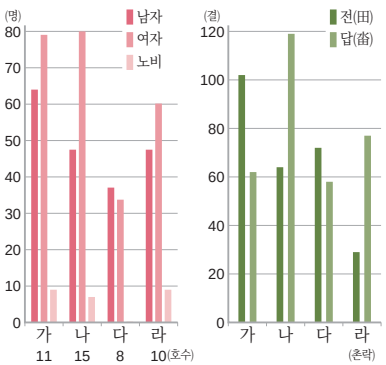
●● 관료전과 녹읍 관료전은 관리에게 준 토지로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에게 조세만 거둘 수 있었다. 반면 녹읍은 해당 지역 농민에게 조세를 걷고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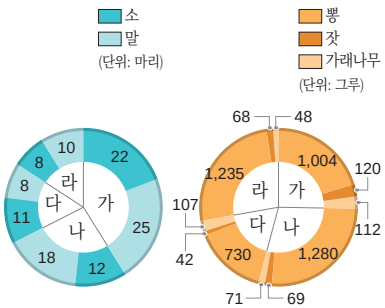


통일 신라의 행정 구역과 군사 조직

지식+ 「신라 촌락 문서」

일본의 쇼소인에 소장된 「신라 촌락 문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호구 조사 자료이다. 서원경 근처 4개 촌락의 인구 증감을 3년마다 작성하였다. 촌주는 촌민의 출생과 사망을 비롯해 이사할 때마다 전입과 전출을 파악하여 촌락 문서를 작성하였다.





가 사해점촌 나 살하지촌 다 轡轡촌 라 서원경 轡轡촌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2011)

「신라 촌락 문서」에는 인구 외에도 말과 소의 수, 토지의 넓이, 유실수가 몇 그루인지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세금 수취를 위해 촌락 문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정부는 촌락 문서를 통해 지방 농민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자 하였다.

스스로 확인

1. 삼국 통일을 달성하고 동궁과 월지를 건설한 신라 왕은?
2. 신문왕은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인 □□을/를 혁파하고, 녹봉을 지급하였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정당성
- ☐ 상경성
- ☐ 해동성국

발해사 목간(일본 나라 출토) '발해사', '교역' 등의 글자가 적혀 있어 발해 사신이 일본에 왔을 때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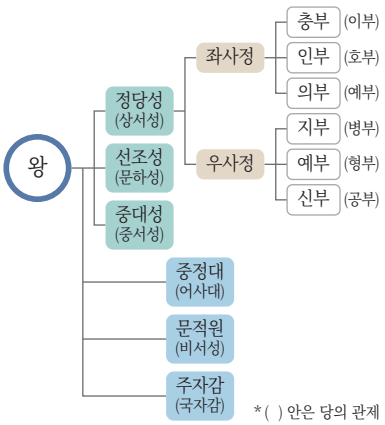
② 발해, 해동성국으로 우뚝 서다

학습 목표 | 발해의 발전과 멸망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발해의 발전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은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고, 동북쪽의 여러 말갈족을 복속하여 영토를 넓혔다. 발해의 세력 확장에 위기를 느낀 흑수 말갈이 당과의 연계를 꾀하자, 무왕은 장문휴를 시켜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732). 발해는 일본과의 친선 관계를 통해 신라와 당을 견제하였다.

문왕은 당과 우호 관계를 회복하고,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수도를 상경성으로 옮기고 통치 체제를 정비하여 왕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발해의 중앙 정치 조직

발해의 통치 제도 정비

발해는 당의 제도를 본떠 중앙 정치 조직을 3성 6부로 정비하였다. 그러나 당과 달리 정당성이 6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6부의 명칭에 유교 덕목을 반영하는 등 운영과 명칭에서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수도를 비롯해 행정 중심지에 5경을 두어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렸다. 또 교통로와 군사적 요지에 15부와 62주를 두었고, 주 아래에는 현을 설치하였다. 주·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어 주변의 말갈 촌락을 지배하였으며, 말갈 족장은 촌락을 직접 다스리면서 지방관의 행정을 보좌하였다.

넓어지는 발해 영토, 새롭게 발굴된 '콕샤로프카성' 역사 신문

한국과 러시아의 연합 고고 발굴대가 러시아 우수리강 상류 콕샤로프카 지역에서 발해 안변부의 관청으로 추정되는 발해 성터(길이 1,645㎙)를 새로 발견하였다.

이곳에서 대규모 성벽을 비롯해 내부 건물지에서 온돌 시설이 확인되었다. 9세기 중국 청자와 위구르 토기도 발견되어 발해의 활발한 대외 교류를 보여 준다.

성터 내부 건물지의 쪽구들(온돌) 시설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고, 말갈족이 힘을 합쳐 세운 나라였다. 지배층에는 왕족인 대씨와 고씨 등 고구려계가 많았지만, 말갈족 성씨도 있었다. 피지배층은 말갈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발해의 번영과 멸망

발해는 문왕 사후 내분이 발생하여 혼란에 빠졌으나, 선왕이 즉위하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다. 선왕은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하고 요동으로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대동강과 원산만을 경계로 신라와 국경을 맞대는 등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였다. 이후 당은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에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칭송하였다.

9세기 말부터 다시 내분을 겪은 발해는 거란족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926). 이후 발해 유민은 고려로 망명하거나, 옛 발해 땅에서 정안국 등을 세워 발해의 부흥을 꾀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발해의 최대 영역과 지방 제도

오매리 발해 절터 발굴 금동판(함남 신포 출토) 발해의 절터에서 '천손' 의식이 기록된 고구려 금동판이 발굴되었다. 이를 통해 고구려 왕실의 '천손' 의식이 발해 지배층까지 계승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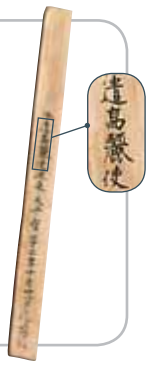
탐구 해보자 발해의 고구려 계승 의식

자료 1

-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 『구당서』 -
- 『신라고기』에는 '옛 고구려의 장수였던 조영은 성이 대씨인데, 남은 군사를 모아 태백산 남쪽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 일연, 『삼국유사』 -

자료 2

발해 왕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스스로 '고려(고구려) 왕'이라고 칭하였고, 일본도 발해를 '고려'라고 불렀다.



'견고려사'가 기록된 일본의 고대 목간(일본 나라 출토) 8세기 일본의 목간에 발해에 보낸 일본 사신을 '견고려사(遣高麗使)'라고 기록하였다.

1 자료 1, 자료 2를 통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근거를 정리해 보자.

2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보여 주는 사례를 더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스스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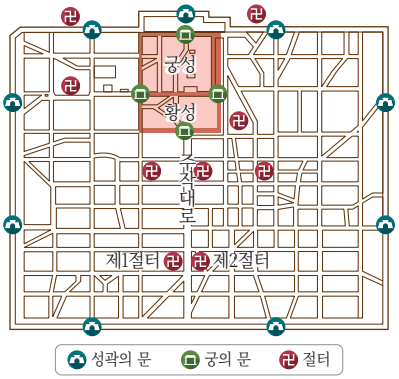
1 대조영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며, 장문휴를 시켜 당의 등주를 공격한 왕은?

2 발해는 선왕 이후 당으로부터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의미의 □□□□(이)라 칭송받았다.

나도 역사가

발해의 수도, 상경성

발해는 여러 차례 수도를 옮겼지만, 최종적으로 상경성을 수도로 삼았다. 상경성은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본떠 만든 계획도시였다. 왕실 및 귀족들은 녹색이나 자색의 유약을 바른 치미, 짐승 모양 기와 등을 얹은 호화로운 집에 거주하였다.



상경성 평면도

발해는 동서남북으로 도로를 건설하여 도시 전체를 바둑판처럼 구획하였다. 그 사방을 성곽(외성)으로 둘렀는데, 둘레가 무려 16㎞에 달하였다.

도시 내부는 왕이 거주하는 궁성과 관청이 있는 황성을 수도의 북쪽 중앙에 구획하고, 황성 남문에서 남쪽으로 뻗은 주작대로를 건설하였다. 주작대로의 좌우에는 사찰을 건설하였으며, 도로를 따라 바둑판 눈금처럼 거주지를 구획하였다. 이러한 크기와 도시계획은 당의 장안성을 모방한 것으로, 상경성은 동아시아에서 장안성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

짐승 모양 기와 무서운 짐승 얼굴 모양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추녀마루 끝을 장식하였다. 악귀를 쫓는 기능을 하였다.

치미 용마루의 양쪽 끝을 장식했던 기와로, 모습이 고구려 치미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주춧돌 장식 나무 기둥이 썩지 않도록 기둥 밑과 주춧돌이 만나는 부분에 녹유(녹색 유약)를 바른 장식품을 덮었다. 이 장식은 커다란 고리 형태인데, 몇 개의 조각을 조립하게 되어 있다.

상경성 제1절터(추정 복원도)

사고력 키우기

❶ 상경성 평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발해 도시의 특징을 말해 보자.

❷ 상경성의 건축 관련 유물을 통해 발해 지배층이 건물에 어떤 장식을 했는지 알아보자.

3 신라가 무너지고 후삼국이 일어나다

학습 목표 | 신라 말 지방 호족이 성장하고 후삼국이 성립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골품제의 모순
- ☐ 호족
- ☐ 선종
- ☐ 풍수지리 사상
- ☐ 후삼국

왕위 계승 분쟁과 지배 체제의 붕괴

신라는 8세기 후반부터 연이은 자연재해로 재정이 어려워져,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어린 나이에 즉위한 혜공왕이 진골 귀족들의 반란으로 살해되었다(780). 이후 150여 년 동안 왕이 20명이나 바뀌는 등 계속된 왕위 계승 분쟁으로 정치적 혼란이 심각하였다.

진골 귀족들의 권력 다툼은 심해졌고, 지방 세력이 왕위 쟁탈전에 개입하거나 중앙 정부에 반기를 드는 일도 발생하였다. 특히 '장안'이라는 새로운 국호를 내걸었던 김헌창의 난에는 여러 지역 세력이 가담하였다. 청해진을 배경으로 군사력을 키운 장보고도 신라의 왕위 계승 분쟁에 개입하였다. 이후 신라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어 각지에서 지방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장보고 동상(중국 산둥 법화원)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해 군사력을 키우고, 당과 일본을 잇는 중계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왕위 계승 분쟁에 개입하였다가 결국 암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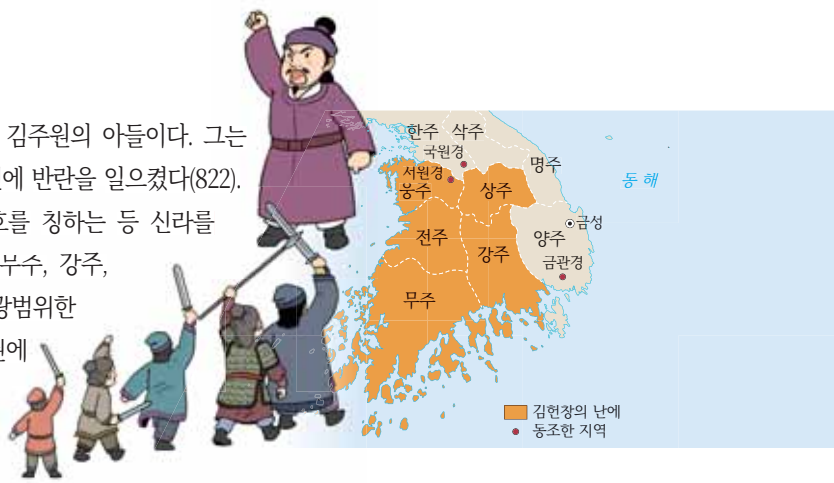
지방 호족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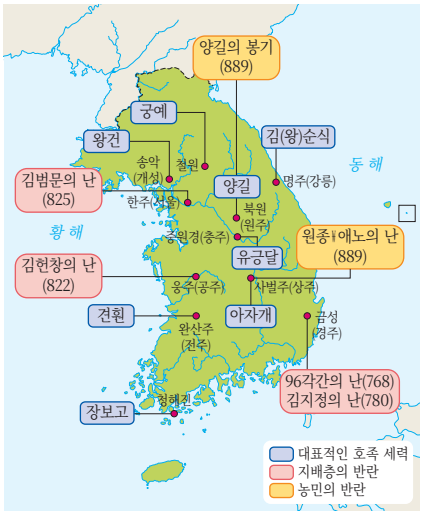
지방 유력자들은 처음에는 신라 정부의 지방 통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지방인을 차별하던 골품제의 모순을 점차 깨닫고, 중앙 정부의 통치력이 약해지자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워 호족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중에는 왕위 쟁탈전에서 패배한 중앙 귀족이 지방에 내려가 호족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토착 세력인 촌주 층이 많았다. 또 장보고처럼 국경 수비를 위해 설치한 군진을 배경으로 성장하거나 해상 무역 활동 등을 통해 성장한 이들도 있었다.

지식+ 김헌창의 난

김헌창은 원성왕과 왕위 계승 분쟁에서 패배한 김주원의 아들이다. 그는 아버지가 왕이 못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헌덕왕 14년에 반란을 일으켰다(822).

김헌창은 '장안'이라는 국호와 '경운'이라는 연호를 칭하는 등 신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반란군에는 웅주, 전주, 무수, 강주, 상주의 5주와 국원경, 서원경, 금관경의 3소경 등 광범위한 지역이 가담하였다. 이 지역들은 옛 백제와 가야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이후 '후삼국 시대'의 분열 조짐을 이미 이 반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신라 말의 사회 혼란

농민의 봉기와 호족의 성장

신라 말에는 자연재해와 기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중앙 귀족과 사원이 대토지를 소유하여 농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진성 여왕 때 중앙 정부가 지방에 세금을 독촉하자, 궁지에 몰린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사벌주에서 일어난 원종·애노의 난(889)을 시작으로 농민 봉기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 틈을 타 지방 호족들은 자신의 지역과 농민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성을 쌓고 스스로 성주나 장군이라 칭하였다. 또 독자적인 통치 기구를 두어 지방을 다스리며 세력을 확대하였다.

6두품 세력의 현실 비판

6두품 세력은 지배층이었으나 골품제로 인해 고위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다. 장관, 장군, 주 도독 등 최고 관직은 진골이 독차지하였다. 6두품 출신인 최치원은 진성 여왕에게 정치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두품 출신 중 일부는 지방 호족과 함께 새로운 사회 건설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6두품 세력의 현실 비판과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은 골품제의 해체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활동 해보자

신라 말 계층별 움직임 알아보기

개별 활동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각 계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을지 말풍선을 채워 보자.

신라 말 상황

진골 귀족들의 왕위 계승 분쟁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사회가 매우 불안하였다. 지방 호족은 독자 세력으로 성장하였고,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과 수탈로 고통을 받았다. 많은 6두품 출신이 골품제를 비판하고 정치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당까지 유학을 다녀왔는데, 신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진골들이 최고 관직을 독점하고, 우리는 늘 그들 뒤치닥거리만 해. 이것만은 고쳐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일 거야.

6두품 관료

나 호족은

우리 농민은

선종과 풍수지리 사상의 유행

지방 호족의 성장 속에서 사상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당에 유학을 다녀온 신라 승려들에 의해 선종이 확산되었다. 교리 연구를 중시한 교종과 달리, 선종은 경전의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다는 실천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교종의 전통적 권위에 도전했던 선종의 가르침은 호족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호족의 후원으로 지방에 선종 사찰이 많이 세워졌다.

한편 선종 승려 도선은 풍수지리 사상을 널리 보급하였다. 이 사상은 기존의 금성(경주) 중심의 지리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지방 호족의 환영을 받았다. 선종과 풍수지리 사상은 지방 호족이 진골 중심의 기존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전남 화순)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과 달리 선종은 승려의 깨달음을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승려의 뼈와 사리를 모시는 승탑이 유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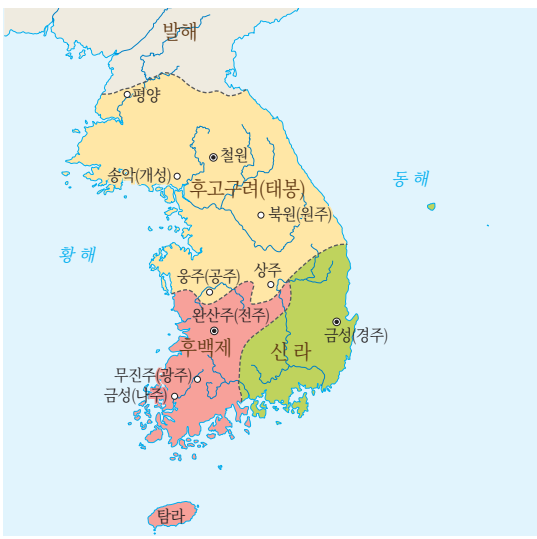
●● 풍수지리 사상 산이나 하천 등 땅의 기운이 인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후삼국의 성립

지방 호족 중 신라에 대항하여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데 성공한 사람은 견훤과 궁예였다. 견훤은 서남해안 군진의 장교로 출세하였다. 그는 진성 여왕 때 농민 봉기를 틈타 옛 백제의 부흥을 내걸고 호족 세력을 모아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였다(900). 견훤은 최승우 등 6두품 세력을 등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키워 신라의 서쪽 국경을 공격하였다. 이후 후백제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서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대하였다.

한편 북원의 호족인 양길의 부하였던 궁예는 자립하여 경기도, 황해도 일대의 호족들을 규합하고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세웠다(901). 이후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국호를 마진, 태봉 등으로 바꾸었다. 그는 광평성을 설치하는 등 통치 제도를 정비하여 나라의 기틀을 다졌다.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건국으로 신라는 다시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다. 견훤과 궁예는 각지의 호족들을 규합하며 세력을 확대해 갔고 후삼국의 항쟁이 격화되었다.



후삼국의 영역

스스로 확인

❶ 신라 말의 혼란한 틈을 타 지방에서 새롭게 성장한 세력은?

❷ □□은/는 경전의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다는 실천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03 남북국의 문화와 대외 관계

통일 신라와 발해는 주변국과 어떻게 교류하였을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원효
- ☐ 의상
- ☐ 독서삼품과
-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 신라, 불교문화를 꽃피우다

학습 목표 | 통일 이후 신라 불교 사상과 학문의 발달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불교 사상의 발달

신라의 불교 사상을 한층 발전시킨 승려는 원효와 의상이었다. 원효는 불교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하려 노력하였고 불교 대중화에도 앞장섰다. 원효의 저술은 중국과 일본, 심지어 인도에도 전해졌다.

의상은 당에서 화엄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모든 존재의 연관성을 주장하였다. 의상은 지방으로 내려가 부석사를 세우고 천민도 제자로 받아들이는 등 신라 불교문화의 폭을 넓혔다. 혜초와 같이 인도까지 새로운 불교 사상을 배우러 간 승려도 있었다.

유학의 발달

유학이 발달하면서 신라에서는 뛰어난 문장가와 유학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강수는 외교 문서를 잘 작성하였고, 설총은 이두를 이용해 유교 경전을 우리말로 풀이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김대문은 『화랑세기』와 『고승전』 등 신라를 빛낸 이들의 전기를 지었다.

원성왕은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국학 학생들의 유교 경전 이해 수준을 평가하여 관료로 선발하였다. 한편 당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한 신라인이 늘어났는데, 당은 신라의 문화 수준을 높이 인정하여 '군자의 나라'라 칭송하였다.

●● 이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 표기법이다.

●● 빈공과 당에서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과거이다.

기술의 발달

신라는 수학과 의학을 가르치는 박사를 두어 과학 기술 인력을 양성하였다. 또한 불교문화가 융성해지면서 불경을 베껴 적거나 인쇄하기 위해 제지술과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였다.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또 불경을 베껴 적은 종이와 금속 공예품은 신라인의 섬세하고 뛰어난 기술 수준을 보여 준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불교중앙박물관) 불탑을 새로 세우고 그 안에 이 다라니경을 베껴 넣으면 큰 공덕을 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동 소탑(경북 경주 나원리 출토) 높이 12.3㎝의 작은 탑으로, 세부가 매우 정교하게 표현되었다. 상륜부에는 지름 2㎜의 원판을 매달아 장식하였고, 폭이 4㎜인 풍탁에는 소리를 내는 혀도 제작하여 달았다.

지식+ 신라 종의 독창성

성덕 대왕 신종(국립경주박물관) 비천상

비천상의 조각이 아름다운 성덕 대왕 신종(에밀레종)은 무게가 무려 19톤에 이르는 거대한 종으로, 종에 기록된 명문을 통해 771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종은 소리가 맑고 널리 퍼져 나가도록 상부에 구멍을 뚫어 음통을 별도로 만들었다. 이는 중국 종과 다른 신라 종의 특징이다. 세계 학계에서는 이러한 독창적인 종의 형태를 인정하여 이를 '신라 종'이라고 부르고 있다. 성덕 대왕 신종은 통일 신라의 과학 기술과 금속 주조 기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려 준다.

스스로 확인

1. 불교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하고 불교 대중화에 앞장선 승려는?
2. 원성왕 때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 수준을 평가하여 관료로 선발하는 □□□□□이/가 시행되었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정효 공주 묘, 정혜 공주 묘
- ☐ 주자감

② 발해 문화, 국제성을 띠다

학습 목표 | 발해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정효 공주 묘지석(복제) 묘지석에 유교 경전과 중국 역사서의 내용이 두루 인용되어 발해의 학문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발해 문화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당과 말갈 등 주변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국제성을 띠었다. 정혜 공주 묘와 같이 고구려 양식의 천장 구조를 갖춘 굴식 돌방무덤과 정효 공주 묘와 같이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혼합된 벽돌무덤도 만들어졌다. 발해는 당의 장안성을 본떠 상경성을 건설하고, 당삼채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발해 자기로 발전시켰다. 한편 흙무덤, 말갈식 토기 등 말갈의 문화도 계속 이어졌다.

발해는 유교 교육 기관인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발해인이 당의 빈공과에서 신라인을 누르고 장원 급제하기도 하였다.

탐구 해보자 발해 문화의 특징

고구려 기와 (국립중앙박물관)

발해 기와 (일본 도쿄대학교)

소그드 은화(러시아 노브고르데예프카 출토)와 일본 와도카이친(중국 헤이룽장성 출토) 상경성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소그드 은화와 일본 동전 등이 출토되어 발해가 주변 여러 나라와 활발히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존불(중국 팔련성 제2절터 출토) 왼쪽 불상에 경교(네스토리우스교)의 십자가 목걸이가 장식되어 있다.

당삼채(중국 랴오닝성 출토)

발해 삼채(중국 헤이룽장성 출토) 당 무종이 빛깔이 곱고 가벼워 새털 같다고 극찬하였다.

1. 고구려 기와와 발해 기와의 유사점을 찾아보자.

_____

2. 위의 유물을 통해 발해 문화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_____

스스로 확인

1. 발해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치한 유교 교육 기관은?
2. 발해는 □□□ 문화를 바탕으로 당, 말갈 등의 문화를 받아들여 국제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❸ 신라와 발해, 대외 교류가 활발해지다

학습 목표 | 남북국 시대에 신라와 발해의 대외 교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신라방
- ☐ 신라도

신라의 대외 교류

신라와 당 사이에는 사절뿐만 아니라 유학생, 승려, 상인 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였다. 특히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산둥반도와 창장강 하류 일대에는 신라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신라방이 생겨났다.

신라는 일본에 유기그릇, 고급 직물, 약재 등을 수출하였고, 실크로드와 바닷길을 통해 당에서 수입한 향료 등을 일본에 중계 무역하였다. 이처럼 대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당으로 가는 항구인 당은포와 수도 인근의 울산항이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발해의 대외 교류

발해의 상경성은 신라, 당, 일본, 거란과 연결된 교통로를 통해 각국의 사신과 상인이 활발히 왕래했던 국제도시였다. 특히 당과 활발히 교류하여 많은 승려와 유학생 등이 당의 문물을 익히고 돌아왔다.

발해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일찍부터 친선 관계를 유지하였고 무역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신라와도 신라도를 통해 때때로 사신이 왕래하였다. 또 초원길을 따라 거란 등 유목 민족과도 담비 등의 모피를 교역하였다.

남북국의 대외 교류

괘릉의 석인상(경북 경주)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 당시 신라와 서역의 교류를 짐작하게 한다.

빛깔도 포장지도 그대로, 1300년 전의 신라 수출품(일본 나라 쇼소인)

신라의 먹 유선형의 먹에 무가(武家), 양가(楊家) 등 신라 생산자의 상표를 찍어 넣었다.

신라 양탄자 염색한 양털을 잿물로 응축해서 만든 신라의 양탄자이다. 우측 상단에는 신라 이두로 생산자를 기록한 상표가 꿰매져 있다.

신라 유기그릇 유기는 신라의 대표적 수출품이었다. 도자기를 '차이나(china)'라고 부르듯이 당시엔 유기를 '시라(신라)'라고 불렀다. 그릇의 크기를 조금씩 작게 만들어 10개를 차례로 포개어 넣었는데, 못 쓰는 신라 문서를 포장지로 재활용하였다.

스스로 확인

1. 신라와 당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산둥반도와 창장강 하류 일대에 형성된 신라인의 거주지는?
2. 발해는 □□□(이)라 불리는 교통로를 이용하여 신라와 교류하였다.

남북국의 불교문화

통일 신라에서 발달한 불교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발해 불교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 통일 신라의 불교문화

통일 신라에서 불교가 융성하면서 사찰 건축과 불교 조각, 공예품 등 불교 예술도 함께 발달하였다. 이 중 불국사와 석굴암은 통일 신라 불교 예술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 불국사 |

통일 신라 사람들은 불교의 이상 세계를 신라의 땅에 재현한다는 취지에서 사찰 구조와 돌 조각으로 불국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백제의 석탑을 계승하여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독자적 석탑 양식을 발전시켰다. 불국사의 삼층 석탑과 다보탑은 화려하면서도 균형 잡힌 통일 신라의 석탑을 대표한다.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경북 경주)

경주 불국사 다보탑(경북 경주)

| 석굴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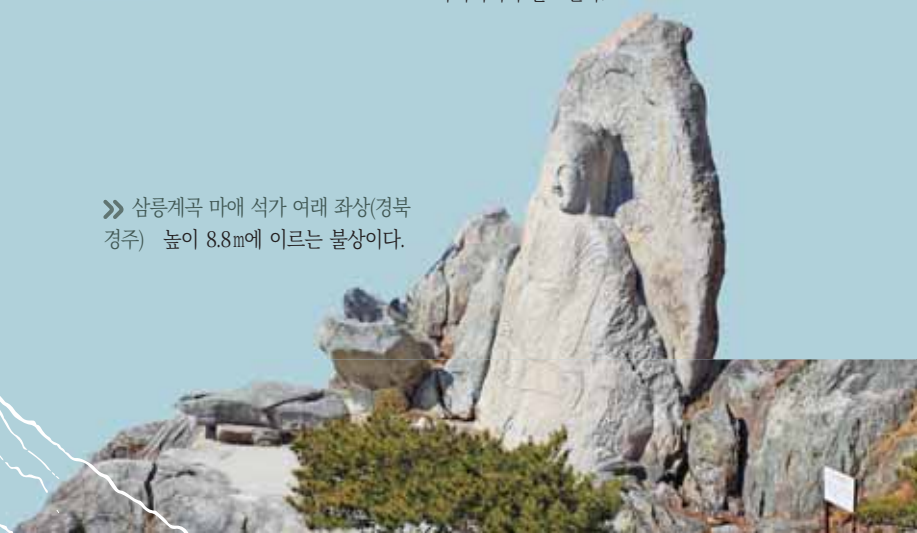
인공으로 만든 석굴 사원인 석굴암은 석굴 입구와 돔 천장이 만들어 내는 완벽한 수학적 비례와 건축 기술, 불상 조각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불교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석굴암 본존불(경북 경주)

| 남산 |

경주는 도시 전체가 유적지이지만, 특히 남산은 산 전체에 사찰 터·탑·불상 등 불교 관련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어 '야외 박물관'이라 불린다.

용장사 삼층 석탑(경북 경주) 남산 전체를 기단으로 삼아 세운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삼릉계곡 마애 석가 여래 좌상(경북 경주) 높이 8.8m에 이르는 불상이다.

2 발해의 불교문화

발해의 절터는 대부분 상경, 동경 등 수도에 위치하고 있어 발해의 불교가 지배층을 중심으로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불상 |

이불병좌상(일본 도쿄대학교) 광배의 모습이나 두 부처의 손이 연결되어 있는 등 고구려 양식이 엿보인다.

함화 4년명 불비상(일본 오하라미술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보살 등을 새긴 비석이다. 맨 아래에는 834년 발해 관리가 어머니를 위해 만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함화는 발해의 독자적 연호이다.

| 석등 |

상경성 제2절터에 남아 있는 높이가 6.3m나 되는 거대한 석등이다. 몸체에 새겨진 연꽃무늬는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발해 석등(중국 헤이룽장성)

| 묘탑 |

발해는 왕족과 귀족의 무덤 상부에 벽돌로 묘탑을 만들어 세웠다. 영광탑은 외형이 잘 남아 있는 묘탑 중의 하나이다.

정효 공주 묘(복원도) 현재 무덤 위의 묘탑은 소실되었지만, 영광탑과 마적달묘의 구조에 의거하여 복원한 그림이다.

탐구 1 신라인이 수도인 금성(경주)에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만든 이유를 말해 보자.

탐구 2 왼쪽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발해 불교문화의 특징을 말해 보자.

탐구 3 남북국의 불교 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는 팸플릿을 만들어 보자.

영광탑(중국 지린성)

Ⅱ 대단원 마무리

스스로 정리하기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자.

1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 보자.

(가) 살수 대첩	(나) 백제 멸망
(다) 나당 전쟁	(라) 고구려 멸망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신문왕은 관료에게 새로이 (㉠)을/를 지급하고, 진골 귀족의 경제적 기반인 (㉡)을/를 혁파하여 녹봉을 지급하였다. 또한 ㉢통치 제도를 정비하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1)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자.

(2)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정책을 세 가지 이상 써 보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고구려 유민인 검모잠 등은 (㉠)을/를 왕으로 받들고 고구려 부흥 운동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 7세기 후반 (㉡)이/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 도읍을 정하여 (㉢)을/를 세웠다.

(1) ㉠, ㉡에 들어갈 인물을 각각 써 보자.

(2) ㉢에 들어갈 국가의 이름을 쓰고, 이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보여 주는 근거를 세 가지 이상 서술해 보자.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혜공왕의 죽음 이후 진골 귀족들은 치열한 왕위 다툼을 벌였다. 이에 따라 신라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점점 약해졌다. (㉠)은/는 국호를 '장안'이라 하며 난을 일으켰다. 한편 지방에서는 농민 봉기가 일어난 틈을 타 (㉡)이/가 등장하였다.

(1) ㉠에 들어갈 인물을 써 보자.

(2) ㉡에 들어갈 세력을 쓰고, 이들의 특징을 서술해 보자.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신라 말 사상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교종과 달리 경전의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다는 실천적인 경향이 강하였던 (㉠)와/과 산이나 하천 등 땅의 기운이 인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가 확산되었다.

(1) ㉠, ㉡에 들어갈 사상을 각각 써 보자.

(2) ㉠, ㉡이 신라 말 사회에 끼친 영향을 서술해 보자.

6 (가), (나)에 해당하는 통일 신라 시대의 승려를 각각 써 보자.

> (가) 당에서 화엄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모든 존재의 연관성을 주장하였다.
> (나) '나무아미타불'만 열심히 외우면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하여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다.

역사야 놀자

삼국의 통일 관련 가상 뉴스 대본 작성하기

삼국 통일 과정 또는 발해 건국 과정 중에 일어난 특정 사건이나 이와 연관이 있는 여러 사건을 선정한 후 가상 뉴스 대본을 작성해 보자.

1 단계 모둠을 구성하고 교과서 57 ~ 60쪽을 참고하여 가상 뉴스 대본의 주제를 토의하여 정한다.

길잡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신라, 치열했던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다.
- 신라의 명장, 김유신 장군 별세하다.
-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 운동은 왜 실패하였는가.
- 삼국 통일을 맞는 옛 고구려인, 옛 백제인, 신라인의 입장은 어떠한가.
- 고구려 유민들, 새 나라 발해를 세우다.

2 단계 모둠 구성원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한다.

3 단계 육하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요소를 포함하여 뉴스 대본을 작성한다.

4 단계 작성한 뉴스 대본을 발표한다.

뉴스 대본 예시

아나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73년 현재 우리 신라군은 당군에 맞서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넘어선 우리 신라가 당군을 물리친다면 삼국 통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전선에 있는 신라군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당군에 담대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아!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합니다.

기자 김유신 장군께서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이 79세의 나이로 부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문무 대왕께서도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전장을 누빈 장군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유의 사항

- 모둠별로 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모둠원 모두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동한다.

평가 방법

-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대본을 작성하였는가?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였는가?
- 내용의 전달력이 좋았는가?
- 발표를 유창하게 하였는가?

창의·융합 교실 과학

돌에서 돌로, 열이 전해지다. 온돌 속 과학 원리

2008년, 러시아 연해주 중북부 추구예프카 지구 콕샤로프카 마을에서 발해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는 온돌 시설을 갖춘 대규모 건물지가 발견되었다. 이 온돌 구조는 땅에 홈을 파 양쪽에 두 줄로 길게 돌을 쌓은 후 덮개돌을 올려 그 위를 흙으로 다진 고구려의 전통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전도란?

열이 물질을 통해 이동하는 현상

복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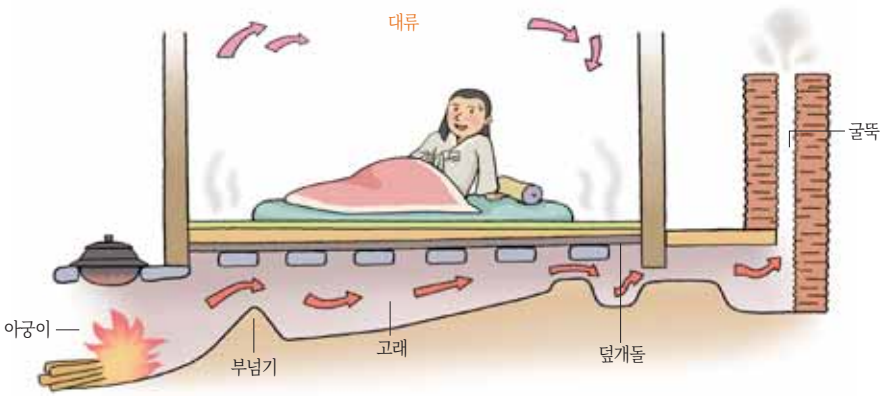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

대류란?

열이 기체나 액체 등을 통해 순환하면서 이동하는 현상

온돌은 방바닥 밑에 넓적한 덮개돌을 깔고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난방이 가능했던 까닭은 '전도, 복사, 대류'의 과학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온돌의 구조



아궁이에서 불을 때면 뜨거운 열기가 방 밑을 지나면서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고 굴뚝으로 빠져나간다. 고래를 지나는 열은 방바닥 밑에 깔린 덮개돌에 전도되어 방바닥을 데운다. 이렇게 데워진 방바닥은 방 전체에 직접 열을 복사하고, 방바닥으로부터 열을 얻은 공기는 대류에 의해 순환하면서 방 전체에 열을 고르게 전달한다.

III

고려의 성립과 변천

01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02 고려의 대외 관계

03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

04 고려의 생활과 문화

역사의 시공간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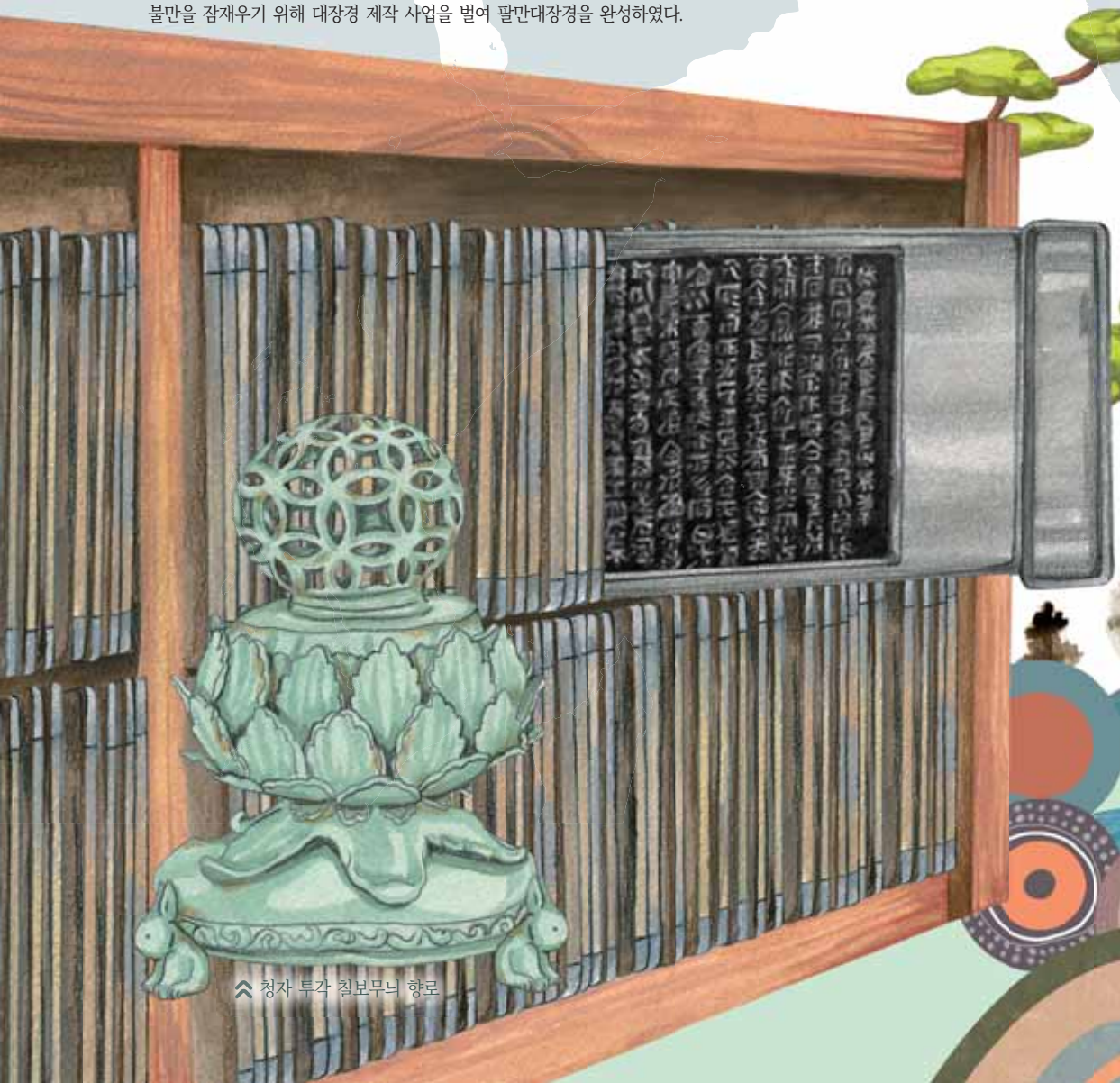
13~14세기경 세계

나는 베네치아 출신의 상인으로 17년 동안 몽골 제국과 그 주변을 여행하였지.

마르코 폴로

델리 술탄 왕국

팔만대장경 강화 천도 후 최씨 정권은 대몽 항쟁을 내세우고 국내의 여러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대장경 제작 사업을 벌여 팔만대장경을 완성하였다.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

광대한 영역을 하나로 만든 우리 몽골 제국 때문에 동서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었지.

칭기즈 칸

원

동해

고려

일본

가마쿠라 막부를 대신하여 무로마치 막부를 개창하였지.

아시카가 다카우지

역참 통행증(패자) 몽골 제국 곳곳에 역참이 설치되어 역참 통행증을 지닌 관리나 여행자에게 말과 숙식을 제공하였다.

세계사		한국사
당 멸망	907	
거란 건국	916	
	926	발해 멸망
	935	신라 멸망
	936	고려, 후삼국 통일
	956	노비안검법 실시
	958	과거제 실시
송 건국	960	
송, 과거에 전시 도입	973	
	983	전국에 12목 설치
	993	거란의 1차 침입
	1019	강감찬, 귀주 대첩
크리스트교 동서 분열	1054	
십자군 전쟁 발발	1096	
	1107	윤관, 여진 정벌
	1126	이자겸의 난
금, 송 정복(남송 시작)	1127	
	1135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1170	무신 정변
가마쿠라 막부 성립	1185	
	1196	최충헌 집권
칭기즈 칸, 몽골족 통합	1206	
영국 대헌장 제정	1215	
	1231	몽골의 1차 침입
	1232	강화도 천도
몽골, 금 정복	1234	
	1236	팔만대장경 조판 시작
	1270	개경 환도
원 성립	1271	
무로마치 막부 성립	1336	
	1356	공민왕, 쌍성총관부 수복
명 건국	1368	
	1392	조선 건국

이 시기 한국은? 고려 시대!

- 오른쪽 지도는 고려 시대 주요 지역을 나타낸다.

① 고려의 수도와 고려 초기 북진 정책을 위해 중시된 곳을 찾아 써 보자.

_____

② 몽골의 침입에 맞서 고려가 수도를 옮긴 지역을 찾아 써 보자.

_____

01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Q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이전 사회에 비해 무엇이 달라졌을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후삼국 통일
- ☐ 훈요 10조
- ☐ 노비안검법
- ☐ 시무 28조

- 918년 고려 건국
- 919년 송악 천도
- 926년 발해 멸망
- 935년 신라 항복
- 936년 후삼국 통일

1 고려, 후삼국을 통일하다

학습 목표 |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체제 정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중국에서 당이 멸망하고 5대 10국 시대가 시작될 무렵, 한반도에서는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 시기 송악(개성)의 호족 왕건은 궁예의 신하가 되어 후백제의 금성(전남 나주)을 점령하는 등 거듭 공을 세웠다. 이후 최고 관직인 시중의 자리에 오른 왕건은 주변의 신망을 얻었다.

한편 궁예는 미륵불을 자처하며 정치를 이끌어 갔으나 점점 민심을 잃었다. 이에 신하들은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왕건은 국호를 고려라 정하고, 이듬해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고려는 고창(경북 안동) 전투에서 후백제에 승리한 뒤 후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힘이 약했던 신라의 경순왕은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었다. 이듬해 고려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난 후백제를 격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충남 논산) 개태사 창건 이후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 개태사는 태조 왕건이 후백제군을 격파한 기념으로 지은 사찰로 '태평 시대를 연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태조의 정책

태조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내세우며 건국 초부터 북진 정책을 펼쳤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영토를 넓혔다. 한편 신라와 후백제의 유민은 물론 발해의 유민까지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민족 통합 정책을 펼쳤다.

발해 유민의 수용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을 이끌고 와 귀화하였다. 그에게 '왕계'라는 성명을 주어 종실 족보에 넣었다.

- 「고려사」 -

태조는 공을 세운 호족들에게 관직과 토지를 내리며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지방의 유력 호족과 혼인 관계를 맺고, 일부에게는 왕씨 성을 내려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중앙 고위 관리를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고, 지방 호족의 자제를 서울에 머물도록 하는 기인 제도를 실시하여 호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다.

태조는 불교를 숭상하고 연등회·팔관회 등의 국가 행사를 중시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이와 함께 백성의 세금을 줄이고 빈민을 구제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이는 태조가 신라 말 이래 누적되어 온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 연등회 정월 보름 또는 2월에 등을 켜고 부처에게 복을 비는 불교 행사이다.

●● 팔관회 고려 시대에 매년 개최된 불교 행사이다. 여러 토속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토착 신앙의 성격도 지닌다.

탐구 해보자 고려의 미래를 위한 태조의 바람, 「훈요 10조」

제1조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도록 할 것.

제2조 도선의 풍수 사상에 따라 사찰을 세울 것.

제4조 중국의 풍습을 따르되 같게 할 필요는 없고, 거란의 제도는 본받지 말 것.

제5조 서경은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니 세 달마다 방문하여 백일 이상 머물도록 할 것.

제6조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히 할 것.

- 「고려사」 -

태조 왕건

1 불교와 관련이 있는 조항과 북진 정책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각각 찾아보자.

2 「훈요 10조」를 통해 태조가 꿈꾸었던 고려는 어떤 나라였는지 설명해 보자.

광종과 성종의 국가 체제 정비

태조 사후, 외척과 공신들의 권력 다툼 속에 태조의 아들인 혜종, 정종, 광종이 연이어 즉위하였다. 불안정한 정국에서 왕위에 오른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하였다. 중국인 쌍기 등 다수의 귀화인을 등용하여 개혁을 펼쳤는데, 특히 유교적 지식과 학문 능력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관리의 공복을 새롭게 정하여 관복 색깔에 따른 상하 질서를 확립하였다. 광종은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호족과 공신을 숙청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 노비안검법 호족들이 불법으로 거느리고 있던 노비를 원래의 신분으로 돌려준 법이다.

성종은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성종은 지방의 주요 거점인 12목에 관리를 파견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에 학교를 세워 유학 교육을 장려하였다.

탐구 해보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제7조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뒤 군현에 수령을 두고자 하였으나, 건국 초 일이 바빠 미처 이 일을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청컨대 외관(지방관)을 두소서.

제9조 관료들로 정사를 볼 때는 모두 중국과 신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공복을 갖추고, 귀함과 천함, 높고 낮음을 구별하시옵소서.

제20조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자신을 닦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날에 힘쓸 일입니다.

- 「고려사」 -

❶ 각 조항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리하여 표를 완성해 보자.

조항	의미
제7조	
제9조	공복 제도를 정착시켜 국왕 중심의 상하 질서를 확립하였다.
제20조	

❷ 성종이 「시무 28조」를 받아들인 뒤 나타난 고려 사회의 변화 모습을 정리해 보자.

스스로 확인

❶ 고려 태조가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❷ 광종은 □□□□□을/를 실시하여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던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하였다.

나도 역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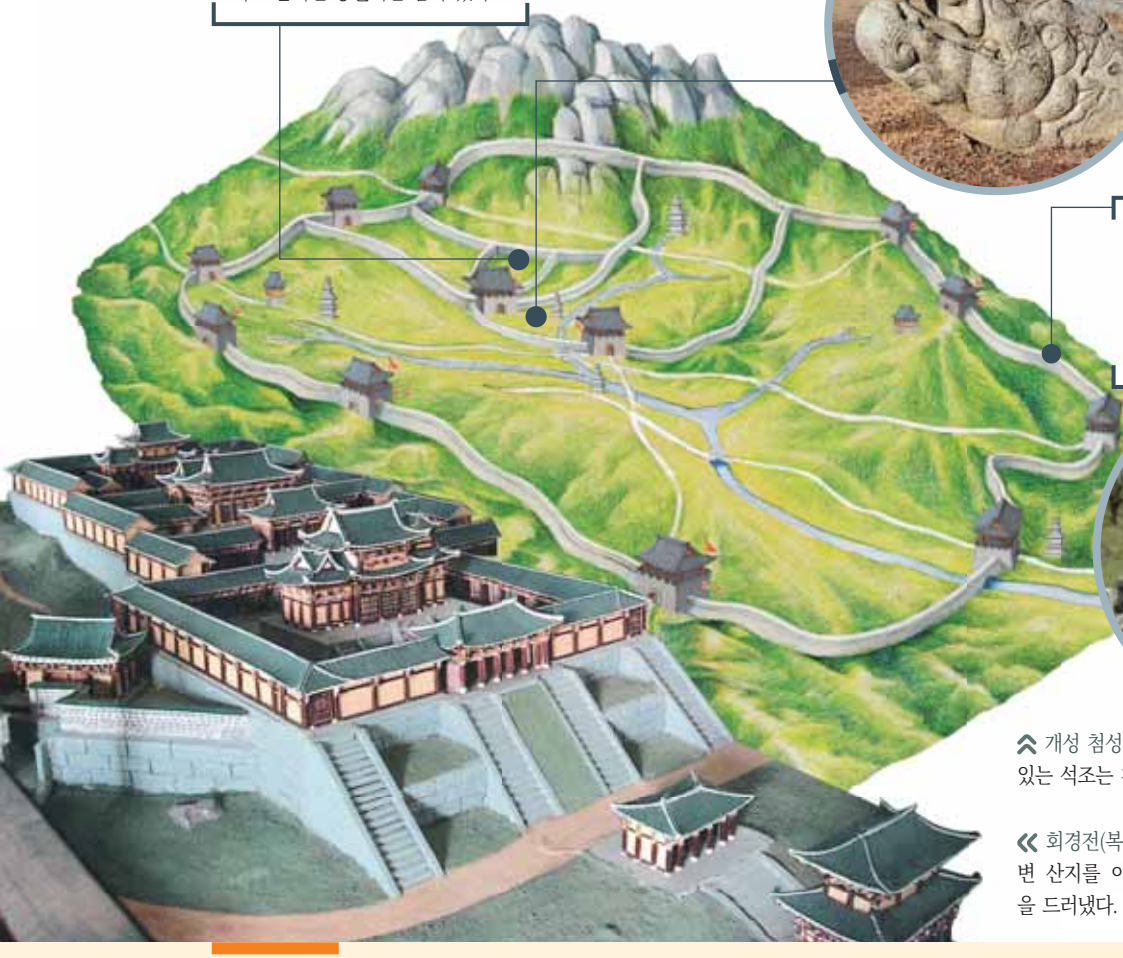
고려의 숨결이 살아 있는 도시, 개경

신라의 변경에 위치한 개경은 고려의 건국 이후 수도가 되었다. 개경의 북쪽에는 송악산이 있어 방어하기에 용이하였고, 예성강을 통해 무역하기에도 유리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고려는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황성
황제가 사는 궁성과 중서문하성·상서성 등의 관청이 자리하였으며, 정문은 광화문이었다. 현재는 만월대로 알려진 궁궐터만 남아 있다.

» 수창궁터의 용머리 석상 황제를 수호하는 용의 머리가 황성에 조각되어 있다.

« 적조사 철조여래좌상(개성 고려박물관) 통일 신라의 불상 양식이 남아 있는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불상이다.



나성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둘레가 23㎞에 이른다. 강감찬의 건의로 쌓기 시작하여 21년 만에 완성하였다(1029).

« 개성 첨성대 천문 관측을 위한 것으로 현재 남아 있는 석조는 천문 기구를 놓았던 받침대로 추정된다.

« 회경전(복원 모형) 개경 궁성의 제1정전으로 주변 산지를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지어 황궁의 위엄을 드러냈다.

사고력 키우기

❶ 개경이 수도로서 지니는 지리적 이점을 써 보자.

❷ 개경을 대표하는 유물·유적을 조사하여 개성의 역사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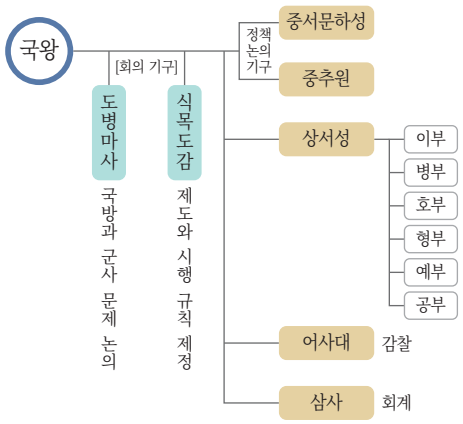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중서문하성
- ☐ 5도 양계
- ☐ 과거제
- ☐ 국자감

2 고려, 통치 체제를 정비하다

학습 목표 | 고려의 통치 체제 정비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중앙 정치 제도



고려의 중앙 정치 기구

고려는 성종 때 당의 3성 6부 체제를 받아들여 고려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였다. 또 송의 제도인 중추원과 삼사를 추가로 도입하여 중앙 통치 체제를 완성하였다. 이 외에도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두었는데, 이곳에서 고위 관료들이 국방 문제 및 법 제정과 격식 등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합의하여 처리하였다.

최고 관서인 중서문하성은 문하시중을 중심으로 국정을 총괄하였고,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상서성은 실무 행정을 6부로 나누어 중추원을 통해 받은 왕명을 집행하였다. 어사대는 관리를 감찰하고 삼사는 국가 재정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였다.

한편 중서문하성의 일부 관리와 어사대의 관원은 대간으로 불렸는데, 이들은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기도 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며 사회 풍속을 감시하였다. 이 외에도 수시로 생겨나는 각종 임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도감을 설치·운영하였다.

●● 대간 관리를 감찰하고, 국왕의 잘못된 정치 행위를 비판·견제하였다.

지식+ 황제국 체제를 지향한 고려

1992년 개성의 현릉 부근에서 불상의 모습으로 조각된 왕건 청동상이 발견되었다. 이 청동상은 광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머리에는 황제가 쓰는 통천관이 표현되어 있고, 발굴 당시에는 황금 장식 옥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고려 국왕이 황제로 받들어지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고려 국왕은 건국 초기부터 스스로를 '해동천자'라고 칭하며 황제국을 지향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국왕은 황제와 같이 조서, 칙서 등을 통해 명령을 내리고 때때로 황제처럼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개경을 황도라 칭하기도 하였다. 또한 관청의 이름과 장관의 명칭까지 중국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중국과 대등한 의식을 드러냈다.

왕건 청동상(조선중앙역사박물관)

Q 고려가 황제국을 지향하였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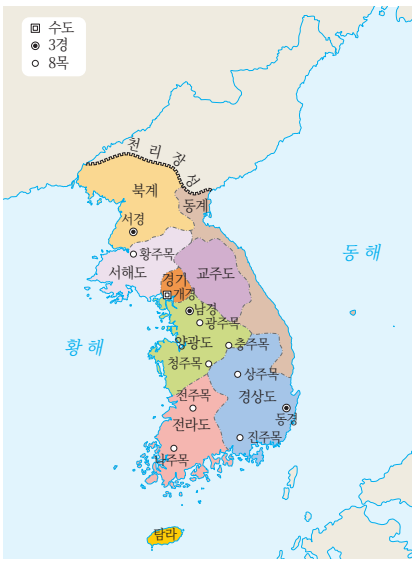
현릉(개성) 태조 왕건의 무덤으로 왕건 청동상이 발견된 곳이다.

지방 행정 제도

고려는 전국을 5도, 양계, 경기로 나누었다. 5도는 일반 행정 구역으로, 도에는 군현을 설치하고 군현을 기준으로 토지와 인구를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양계는 북쪽 국경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행정 구역이었고, 경기는 개경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개경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공급하였다. 수도인 개경과 서경(평양), 동경(경주)을 3경이라고 하여 특별히 중시하였으며, 숙종 때 남경을 설치한 이후에는 동경 대신 남경(서울)을 3경으로 삼았다.

군현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나뉘는데, 속현의 수가 주현보다 훨씬 더 많았다. 현에서는 해당 지역의 향리가 조세나 공물의 징수 등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호족 출신의 특정 가문이 향리직을 세습하였다.

고려는 일반 군현 외에도 향·부곡·소 등의 특수 행정 구역을 운영하였다. 향·부곡의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소의 주민들은 국가에 필요한 특정 물품을 생산하였다. 이들은 일반 군현에 거주하는 양인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다. 한편 육로와 수로의 요지에는 역과 진을 설치하였고, 역에는 통행인의 숙박을 위한 원이 함께 운영되기도 하였다.



5도 양계 성종 때 지방에 설치한 12목은 현종 때 8목으로 개편되었다.

●● 소 광산물·수산물 및 수공업 제품 등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특수 행정 구역을 말한다.

군사 제도

고려의 군사 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을 두어 운영되었다. 중앙군은 2군 6위로 편성되어 2군은 궁궐과 왕실 호위를, 6위는 개경과 국경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지방군은 5도의 주현군과 양계의 주진군으로 구성되었고, 16세 이상의 군역 의무를 진 양인들이 복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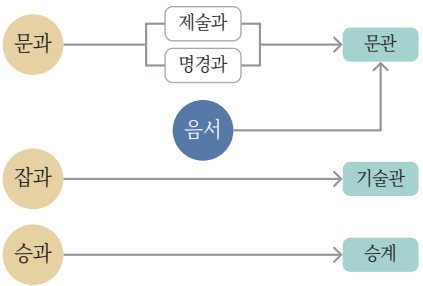
이야기 샘# 고려 시대 향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지방 호족은 많은 기여를 하였다. 국가 체제를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호족 중 일부는 일찍부터 중앙에 진출하였지만, 많은 이들은 지방에 남아 향리가 되어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향리는 자신의 직책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며, 과거 시험을 통해 중앙 관료로 진출할 수도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중앙의 문벌로 자리를 잡기도 하였는데 최충과 김부식이 대표적 인물이다. 이처럼 고려 사회는 이전 사회에 비해 많은 이들에게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교육과 관리 등용

태조는 개경과 서경에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였다. 성종 때 최고 교육 기관인 국자감이 개경에 설치되었고, 지방에는 향교가 설치되었다.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 음서로도 관리가 될 수 있었지만, 과거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과거와 음서, 천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를 선발하였다. 과거에는 문과와 잡과가 있는데, 문과는 문장을 짓는 능력을 보는 제술과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정도를 시험하는 명경과로 나뉘었다. 잡과는 법률과 의학 등 기술학 시험을 통해 기술관을 뽑았다. 한편 승과를 따로 두어 합격한 승려에게 품계를 내렸다.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예나 신체 조건이 뛰어난 사람을 따로 뽑았다. 과거 응시는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가능하였으나 실제로 문과는 귀족이나 향리의 자제가 주로 응시하였다.

음서는 왕족이나 공신, 고위 관리의 자손을 시험 없이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였다. 음서의 혜택은 아들과 사위, 친손과 외손 모두 누릴 수 있었다. 한편 학식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주천받아 특별히 관료로 임명하는 천거도 있었다.

이야기 샘 # 국자감에서는 무엇을 공부했나요?

고려 시대 최고 교육 기관인 국자감에는 유학 학부와 잡학 학부가 있었다.

국자감의 학생은 아버지의 관품에 따라 학부별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유학 학부에서는 『효경』과 『논어』를 공통으로 배우고, 최고 9년까지 재학하며 자신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였다. 잡학 학부는 율학·서학·산학 등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국자감 학생은 3년간 재학하면 과거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 재학 중에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성균관(개성) 국자감은 고려 후기에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스스로 확인

1. 고려의 중앙 정치 기구 중 □□□은/는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기구였다.
2. 고려에서 시험을 통해 학문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관리로 선발한 제도는?

❸ 문벌 사회가 동요하고 무신 정권이 수립되다

학습 목표 | 무신 정변이 일어난 배경과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이자겸
- ☐ 묘청
- ☐ 무신 정변
- ☐ 최충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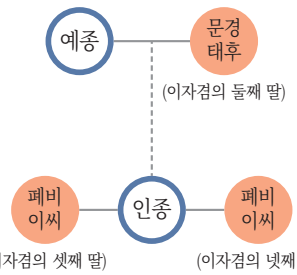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고려의 중앙 지배층은 과거와 음서, 혼인을 통해 문벌을 형성하였다. 특히 경원 이씨 가문은 왕실과 거듭된 혼인을 통해 권력을 차지하였다. 이에 숙종은 윤관 등 과거를 통해 진출한 신진 관료와 함께 문벌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인종이 즉위한 뒤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이자겸은 난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우는 등 왕권을 위협하였다. 이에 인종은 이자겸 세력 내부의 분열을 이용하여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였다(1127).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 없어지자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묘청 등과 함께 금을 정벌하고 황제를 칭하며 연호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김부식 등 개경 세력은 서경 천도를 강하게 반대하였다. 결국 묘청 등은 국호를 '대위'로 하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1135),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 경원 이씨 고려 11대 문종부터 17대 인종까지 연이어 왕비를 배출한 가문이다.



왕실과 이자겸 가문의 혼인도

탐구 해보자 서경 천도를 둘러싼 갈등

자료 1 서경 지역은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대화세(크게 기운이 꽃피우는 형세)이니 만약 이곳에 궁궐을 세우고 수도를 옮기면 국가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이 조공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주변의 여러 나라가 모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 『고려사』 -

자료 2 서경 대화궁 30여 곳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만약 그곳이 길한 땅이라면 하늘이 그렇게 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또 서경 지방은 추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전하께서 만일 이동하신다면 반드시 농작물을 짓밟을 것이니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전하의 뜻과 어긋납니다. - 『고려사』 -

1 자료 1, 자료 2와 같이 주장한 인물과 그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해 보자.

2 서경 천도 운동이 고려 사회에 끼친 영향을 설명해 보자.

무신 정변

무신 정변의 배경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하던 길에 신하들과 술을 마시던 중, …… 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병수박희를 열었다. 한뢰는 무신들이 왕의 총애를 얻을까 두려워하며 시기심을 품었다. 대장군 이소응이 수박희에서 패하자, 한뢰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이소응의 뺨을 때리니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왕과 여러 신하가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 『고려사』 -

고려에서는 문신을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어 문신이 군사 지휘권까지 장악하였다. 고려 초부터 무신과 하급 군인들은 문신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으며 온갖 잡역에 시달렸다. 왕위에 오른 의종은 측근 문신 세력과 친위 부대의 무신을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두 세력이 대립하였고, 정중부와 이의방 등은 의종의 보현원 행차 때 정변을 일으켰다(1170). 이들은 차별받던 무신들을 이끌고 수많은 문신을 살해한 뒤 의종을 폐위하였다.

무신들은 회의 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문신 중 일부는 무신 정권에 저항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권력 다툼이 벌어지며 무신의 최고 권력자가 자주 바뀌었다. 이의민처럼 천민 출신의 최고 권력자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최씨 무신 정권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최충헌은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는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 행정을 장악하였고, 사병 집단인 도방과 삼별초를 군사 기반으로 삼았다.

최씨 무신 정권은 불법적으로 많은 농장을 소유하는 한편, 왕실·문벌 가문과 거듭 혼인하여 정권의 기반을 다졌다. 또 하층민의 봉기를 적극적으로 진압하였다. 이들의 권력은 4대 60여 년 동안 이어졌으며, 몽골의 침략 이후에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 가며 정권을 유지하였다.

●● 삼별초 도둑을 잡기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시작된 좌별초와 우별초,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병사로 조직된 신의군을 합하여 구성된 최씨 정권의 사병 조직이다.

무신 정변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상

통치 체제의 붕괴

왕이 있었지만 무신 집권자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좌우하였다.

하층민 출신의 최고 권력자 등장

무신 정변으로 신분제가 크게 흔들렸다.

농장 확대에 따른 토지 제도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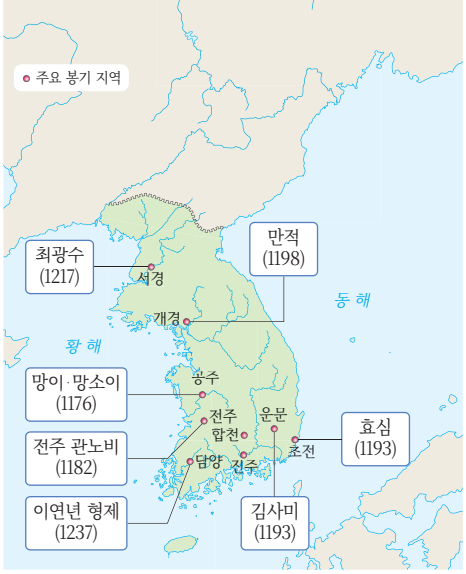
무신 집권자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기도 하였다.

농민과 천민의 봉기

12세기를 전후하여 문벌 세력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토지를 넓혀 나갔고, 이러한 상황은 무신 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지배층의 계속된 수탈에 백성의 고통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의 대부분을 부담하던 농민들은 떠도는 유민이 되거나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공주 명학소에서는 망이·망소이 형제가 난을 일으켜 공주를 함락하며 기세를 떨쳤으나 관군에 진압되었다. 경상도 일대에서는 김사미와 효심이 난을 일으켜 세력을 떨치기도 하였다.

전주에서는 지방관의 가혹한 노동력 동원에 반발하여 죽동 등 관노비들이 봉기하였다. 사노비였던 만적은 노비들을 모아 봉기를 계획하였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만적의 봉기는 신분적 차별을 극복하고 정권의 탈취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 당시 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무신 집권기 하층민의 저항 운동

만적의 외침

무신 정변 이래로 천한 무리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으니, 장군과 재상이 어찌 처음부터 종자가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려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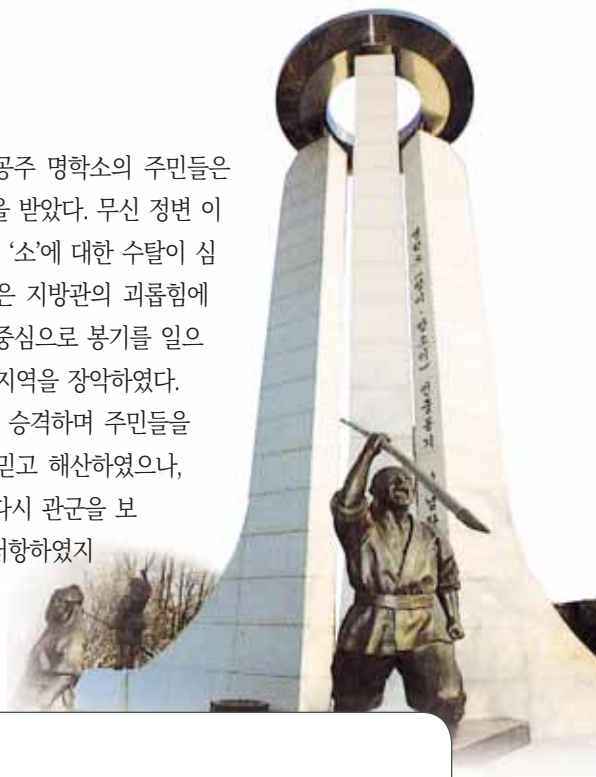
지식+ 망이·망소이의 난

우리 고향(명학소)을 현(충순현)으로 올려 주었고 수령까지 보내 위로하는 척하더니, 곧 군사를 보내 우리 고을을 치고 어머니와 아내를 잡아 가두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차라리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개경까지 쳐들어가고야 말겠다.

- 『고려사』 -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던 공주 명학소의 주민들은 일반 군현에 사는 백성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무신 정변 이후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소'에 대한 수탈이 심화되었고, 이에 공주 명학소 주민들은 지방관의 괴롭힘에 견디다 못하여 망이·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관군을 물리치고 공주 지역을 장악하였다.

이에 정부는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하며 주민들을 달랬다. 명학소의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해산하였으나, 이후 정부는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다시 관군을 보냈다. 망이·망소이 형제는 끝까지 저항하였지만 결국 진압당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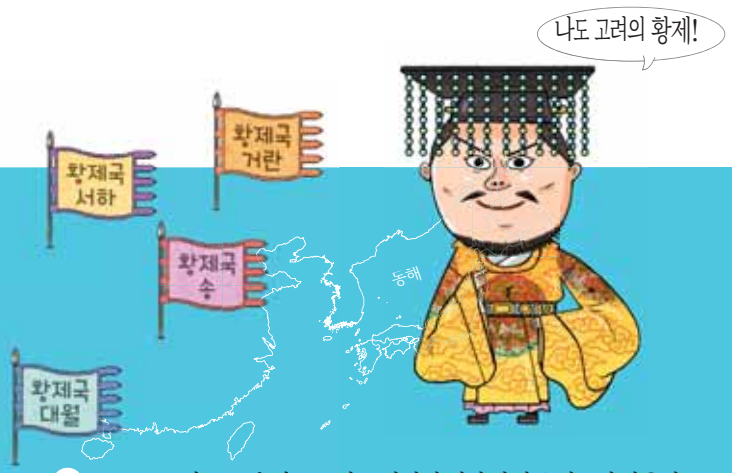


망이·망소이의 난 기념탑(대전 서구)

스스로 확인

1. 묘청과 정지상 등이 풍수지리설에 근거하여 천도를 주장한 곳은?
2. 최충헌은 □□□□을/를 설치하여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였다.

02 고려의 대외 관계



다원적 국제 질서 속에서 고려는 어떻게 대외 관계를 이끌어 갔을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다원적 국제 질서
- ☐ 강동 6주
- ☐ 동북 9성

1 다원적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다

학습 목표 | 10세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 질서를 이해하고 고려와 주변 국가의 교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10세기 초 중국 북쪽에서는 거란족이 나라를 세우고 발해를 멸망시키며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거란은 5대 10국으로 분열된 중국의 혼란을 틈타 만리장성 이남으로 세력을 넓혀 나갔다. 이후 송이 중국을 통일하였지만, 거란은 송을 군사력으로 압도하며 동아시아의 최강국으로 자리하였다.

당시 동아시아에는 거란(요), 송, 서하, 대월 등의 군주가 모두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자국의 실리에 맞게 교류하였다. 이러한 다원적 국제 질서 속에서 고려 국왕도 실리를 위해 송과 거란을 향해서는 자신을 왕이라 낮추었지만, 이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내적으로는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였다.

태조 어진에 참배하는 모습 황제는 의봉루에 나아가 태조 초상화에 절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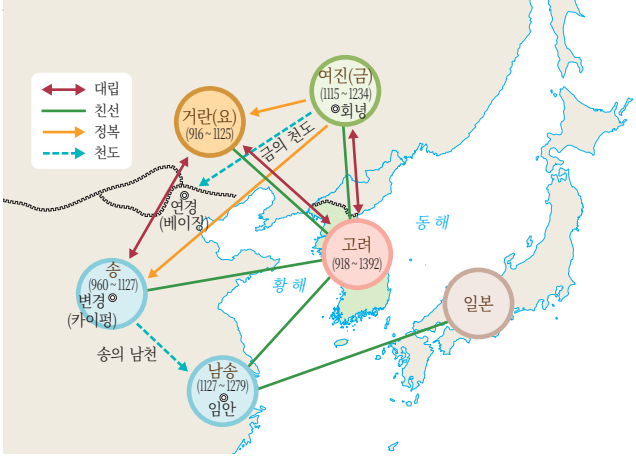
팔관회 매년 연말에 개최된 팔관회에서 송의 상인, 여러 여진 부족, 탐라(제주) 등의 사절단은 고려에 토산물을 바쳤고, 고려 국왕은 이들에게 선물을 하사하는 등 해동천자로서의 위상을 보여 주었다.

고려와 거란의 충돌

거란의 힘이 강성해지자 송은 고려에 군사적 협력을 요청하였다. 거란은 송과 고려의 연합을 막고자 고려를 침입하였고, 이러한 침략 의도를 파악한 고려의 서희는 거란의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였다. 고려는 송과 외교 관계를 끊는다는 조건으로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고 여진족을 몰아낸 뒤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993).

그러나 고려가 계속 송과 관계를 유지하자, 거란이 다시 고려를 침입하였다. 이에 고려는 거란과 외교 관계의 회복을 약속하며 거란군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고려가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자 거란은 세 번째로 고려에 침입하였다. 이때 귀주에서 강감찬의 고려군이 거란군의 침입을 물리치며 큰 승리를 거두었다(귀주 대첩, 1019).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격퇴함으로써 고려·송·거란 사이의 세력 균형과 함께 다원적 국제 질서가 유지되었다. 전쟁 이후 고려는 천리장성을 쌓아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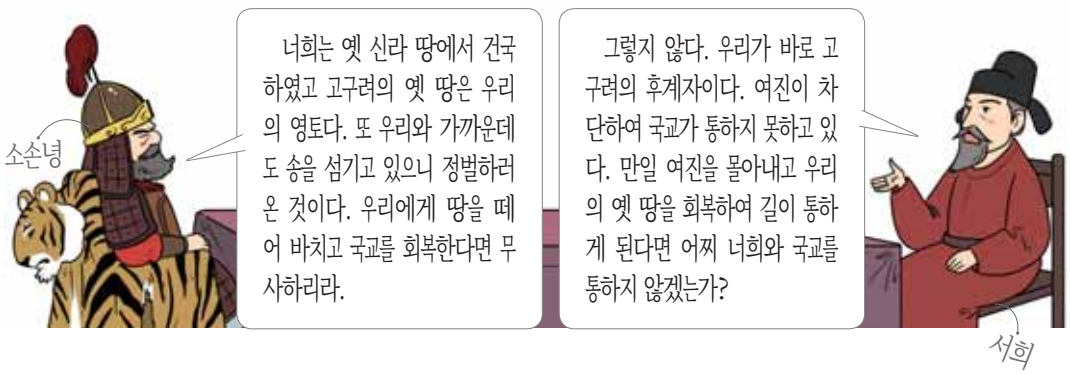


10 ~ 13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거란의 침입

탐구 해보자

서희의 외교 담판



1 서희는 어떤 논리로 거란의 침략을 막아 냈는지 써 보자.

2 고려와 거란이 각각 외교 담판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서술해 보자.

고려의 여진 정벌과 금에 대한 사대

고려 초부터 대부분의 여진족은 고려에 특산품을 바치며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다. 고려는 국경 너머의 여진족을 관리하며 간접 통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2세기 초 여진의 세력이 커지면서 고려와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 예종 때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국경 너머의 여진족 근거지를 점령하고 동북 9성을 쌓았다. 이에 여진족은 9성의 반환을 요구하며 계속 침입해 왔고, 결국 고려는 1년 만에 동북 9성을 돌려주었다(1109).

「척경입비도」(고려대학교박물관) 윤관이 여진을 토벌하고 영토를 확장한 뒤 '고려의 영토'라고 새겨진 경계비를 세우는 장면으로, 조선 후기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후 여진족의 추장 아구다는 여러 여진 부족을 하나로 통합하여 금을 세우고, 거란(요)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금은 고려에 군신 관계를 강요하였고, 권력을 잡고 있던 이자겸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많은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수용하였다(1126).

이듬해 금은 송을 공격하여 남쪽으로 몰아냈다. 동아시아의 패자가 된 금은 서하, 남송, 고려와 차례로 군신 관계를 맺었다. 이에 고려는 남송과 공식 외교를 중지한 채 금에 사대하였고, 태조 때부터 이어 온 북진 정책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지식+ 『고려사』를 통해 본 고려와 여진(금)의 관계 변화

고려 초 여러 여진 부족은 고려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12세기 초 여진이 세운 금이 동아시아 강국으로 성장한 후 여진과 고려의 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건국 초 ~ 11세기

정종 3년(948) 가을 동여진에서 말 700필과 토산물을 바쳤다. …… 1011년 5월 동북 여진의 추장 조을두가 무리 70인을 인솔하고 와서 토산물을 바쳐 각각 의복과 은그릇을 하사하였다.

- 『고려사』 -

숙종 ~ 예종(1104 ~ 1108)

윤관이 아뢰어 별무반을 설치하였다. 말을 가진 자는 신기, 아닌 자는 신보 군으로 삼았다. 승려를 선발하여 항마군으로 삼았다. …… 윤관과 군사들은 9성을 쌓고 남쪽의 주민을 옮겨 살게 하였다.

- 『고려사』 -

예종(1117)

금의 임금 아구다가 "형인 대여진 금국 황제는 아우인 고려 국왕에게 문서를 보낸다. …… 고려 국왕은 형제의 관계를 맺어 대대로 무궁한 우호 관계를 이루기 바란다."라는 서한을 보냈다.

- 『고려사』 -

인종(1126)

이자겸 등이 말하였다. "금이 급격하게 세력을 일으켜 요와 송을 멸망시켰고 병력도 강성하여 나날이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는 서로 국경이 맞닿아 있어서 섬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고려사』 -

고려의 대외 교류

고려는 송, 거란, 여진, 일본 등과 교류하였다. 특히 고려는 송과 공식적으로 외교를 맺고, 송의 상인을 통하여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였다. 송으로부터 비단, 서적, 자기 등이 들어왔고, 금·은, 인삼 등이 송으로 수출되었다. 고려는 유학생과 유학승을 송에 파견하여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이후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고 교류하였다. 거란으로부터 들여온 대장경은 이후 초조대장경 등 고려에서 대장경이 제작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여진도 고려에 드나들며 고려에 찾아온 송의 상인과 교류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송의 상인과 여진의 여러 부족, 일본의 상인들이 개경과 벽란도에서 만나며 고려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 무역이 성행하였다.

초조대장경(국립민속박물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11세기 초부터 만들기 시작하여 1087년에 완성하였다.

고려의 무역선이 그려진 청동 거울(국립중앙박물관)

이야기 샘 # 동아시아 국제 교류의 허브, 벽란도

벽란도는 송의 상인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 및 서역의 이슬람 상인들까지 자주 드나들던 항구였다. 이곳에서는 국가의 공식 무역뿐만 아니라 상인들 사이의 사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1세기 초반 이슬람 상인들도 벽란도에 도착하여 수은과 향신료 등을 금과 비단으로 바꾸어 갔다. 이들은 몇 차례밖에 오지 않았지만, 고려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우리나라의 영문 국가명이 '코리아(KOREA)'가 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고려의 대외 교류

스스로 확인

1. 서희는 거란의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인 후 압록강 유역의 여진을 몰아내고 □□ 6주의 영토를 확보하였다.
2.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 정벌에 성공하여 동북 9성을 쌓은 인물은?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강화도 천도
- ☐ 김윤후
- ☐ 충주성 싸움

이때 세계는?

테무친은 몽골고원의 유목민을 통합하고 칭기즈 칸으로 추대되었다. 그와 그의 후손들은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중국 동북부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오늘날의 이란과 러시아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세웠다.

2 고려, 몽골의 침입에 맞서 싸우다

학습 목표 | 몽골의 침입에 맞서 싸운 고려인의 항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몽골의 침략과 강화도 천도

몽골고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족은 13세기 칭기즈 칸에 의해 통일되었다. 몽골군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복 활동에 나서 동서양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몽골군이 금을 무너뜨린 후 금의 지배 아래 있던 거란족이 몽골군에 쫓겨 고려의 국경선을 넘었다. 이에 고려군은 몽골군과 함께 거란족을 물리친 뒤, 몽골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몽골이 해마다 고려에 수많은 공물을 요구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 무렵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피살되자 몽골은 이를 구실로 고려를 침략하였다. 이에 당황한 고려 정부는 서둘러 몽골과 강화를 맺었다. 그러나 최씨 무신 정권은 곧 항전의 의지를 밝히며 전쟁에 유리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1232).

지식+ 대몽 항쟁의 임시 수도, 강화도

몽골의 침입 이후 최씨 무신 정권은 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강화도로 향했다. 강화도는 섬과 육지 사이의 물살이 빠르고 암초가 많아 방어에 유리하였다.

최씨 무신 정권은 강화도를 임시 수도로 삼은 뒤에 간척 사업을 벌여 농지를 늘렸다. 이에 따라 자급자족이 가능해져 오랜 기간 몽골과 항전을 벌일 수 있었다. 그러나 최씨 무신 정권은 항전 중에도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 백성을 외면하기도 하였다.

대몽 항쟁기 강화도

강화도에 있는 고려 궁터 1234년 세워진 궁궐과 관아가 있었던 곳이다.

강화산성 동문(인천 강화) 몽골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쌓은 성이다.

몽골군에 맞선 고려의 저항

몽골의 침입에 고려군과 백성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웠다. 귀주성에서는 박서가 몽골군의 공격을 막아 냈고, 처인성에서는 김윤후가 처인 부곡민을 이끌고 몽골군 대장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이후 김윤후는 충주성에서도 군민과 천민을 이끌고 몽골군을 물리쳤다.

고려 정부는 강화 천도 후 대몽 항쟁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팔만대장경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최씨 정권은 사치를 일삼고 과도한 세금을 거두며 민심을 잃었다. 결국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가 이루어진 뒤 고려 정부는 개경으로 환도하였다(1270).

한편 삼별초는 몽골과의 강화를 거부하고 진도, 제주도로 옮겨 가며 끝까지 맞서 싸웠다. 그러나 삼별초가 고려·몽골 연합군에 진압되면서 40여 년에 걸친 몽골과의 전쟁이 끝났다.

고려와 몽골의 전쟁

탐구 해보자

고려인의 대몽 항쟁

자료 1

1231년 충주 부사 우종주와 판관 유홍익은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오직 천민들만이 힘을 합해 몽골군을 물리쳤다.

1232년 김윤후는 몽골이 침입해 오자 처인부곡의 작은 성에서 살리타를 격살하고 몽골군을 물리쳤다.

- 『고려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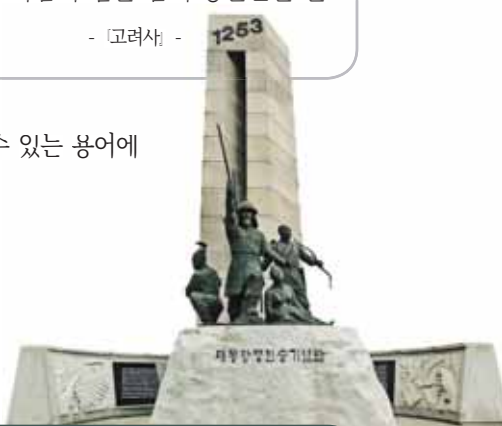
자료 2

1253년 김윤후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힘을 다하여 싸우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벼슬을 주겠다. 내 말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며 관노비의 장부를 불태우고 노획한 소와 말을 나누어 주었다. 이에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몽골군을 물리쳤다.

- 『고려사』 -

1. 자료 1, 자료 2에서 대몽 항쟁에 참여한 이들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용어에 밑줄을 그어 보자.

2. 몽골군에 맞서 하층민들이 열심히 싸운 이유를 써 보자.



대몽 항쟁 전승 기념탑(충북 충주)

스스로 확인

1. 고려가 몽골 침입에 대항하기 위하여 천도한 곳은?
2. 몽골군의 침입에 맞서 처인성에서 □□□이/가 부곡민을 이끌고 몽골군을 물리쳤다.

03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

원의 간섭 이후 고려 사회는 어떻게 변하였을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정동행성
- ☐ 몽골풍
- ☐ 권문세족

왕실 용어의 격하
- 조·종 → 충○왕
- 짐 → 고
- 폐하 → 전하
- 태자 → 세자

1 원 간섭기, 권문세족이 등장하다

학습 목표 | 원 간섭기 고려 사회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다.

원의 내정 간섭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한 뒤, 원은 고려의 제도와 풍속은 인정하면서도 고려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원은 고려에 관리를 파견하여 내정을 간섭하고 화주에 쌍성총관부, 서경에 동녕부 등을 설치하였다.

고려의 국왕은 원의 공주와 혼인하였으며, 왕세자는 왕이 되기 전까지 원에서 지내야 했다. 이에 고려 왕실의 호칭과 관제 등도 격하되었다. 원이 일본 정벌을 위해 설치한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 실패 후에도 유지되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원은 고려에 금, 은, 인삼, 자기, 매 등의 특산물과 공녀를 요구하였다. 한편 원의 간섭 속에서도 두 나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려에는 변발, 몽골식 복장 등 몽골풍이 나타났으며, 원 황실에서도 고려 풍습인 고려양이 유행하였다.

매를 훈련하는 모습 원의 요구에 따라 고려에 응방을 설치하여 해동청(청색 빛깔을 띤 매)을 원에 바쳤다.

몽골풍의 유행

철릭(국립민속박물관) 원 간섭기에 들어온 몽골식 의복으로 추정되며 윗옷과 아랫도리를 따로 만들어 이어 붙인 간편한 옷이다.

변발(「천산대렵도」 일부, 국립중앙박물관) 앞 머리털을 밀고 뒤 머리털만 남겨서 땋는 몽골족의 머리 매무새

소줏고리(국립민속박물관) 원 간섭기 몽골로부터 소주 제조 기술이 전해졌고, 소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로 발전하였다.

몽골어 유행
왕의 음식을 일컫는 '수라', 직업을 나타내는 몽골어 어미인 '-치'가 들어가는 '장사치', '벼슬아치' 등

권문세족의 등장

고려 국왕은 원에서부터 함께 지냈던 측근 세력에 의지하여 국정을 운영하였다. 이 시기에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권문세족은 국왕의 측근 세력이거나, 원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새롭게 지배층이 된 사람들이었다. 이 외에도 몽골어에 능통하거나 원에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권문세족이 되기도 하였다.

권력을 독점한 권문세족은 마음대로 관직을 차지하였고, 자신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다. 또한 불법적 행위를 통해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면서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편 불교 사원도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며 여러 폐단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많은 농민이 노비와 같은 처지로 몰락해 갔고, 조세를 부담해야 할 농민의 수가 줄어들어 국가 재정도 어려워졌다. 충선왕 등은 이러한 문제를 개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원의 간섭과 권문세족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몽어노걸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 시대부터 전해 온 몽골어 교재로 외교와 교역에 필요한 회화를 담고 있다. 원 간섭기에는 몽골어에 능한 이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기도 하였다.

지식+ 권문세족의 횡포

[흑책정사]

권문세족들이 관직에 오를 이름을 서로 다투며 지우고 고쳐 이름을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아이들의 글쓰기 연습책인 흑책 같다고 하여 흑책정사라 불렀다.

[수정목 공문]

권문세족들이 종들을 풀어서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수정목(물푸레 나무)으로 때려 땅을 빼앗았다. 주인이 공식 문서가 있더라도 감히 항의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수정목 공문'이라 불렀다.

Q 위와 같이 권문세족이 횡포를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 확인

1. 원은 일본 원정을 위해 고려에 □□□□을/를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였다.
2. 고려 후기에 원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권력을 얻은 새로운 지배층은?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공민왕
- ☐ 전민변정도감
- ☐ 신진 사대부
- ☐ 신흥 무인 세력

2 공민왕, 개혁 정치를 실시하다

학습 목표 |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의 내용과 신진 사대부의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

공민왕 때의 북방 영토 수복

14세기 중반 중국 각지에서 한족의 반란이 일어나 원이 혼란에 빠졌다. 이 시기에 즉위한 공민왕은 반원 개혁 정치를 실시하여 몽골식 변발과 옷을 금지하였다. 정방을 없애 인사권을 장악하고, 친원 세력인 기철을 숙청하였으며 정동행성의 일부 기능을 폐지하였다. 이후 격하된 관제를 복구하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원에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였다.

한편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농장의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하였다. 그러나 공민왕의 개혁은 권문세족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마저 시해당하면서 개혁은 실패하였다.

신진 사대부의 성장

공민왕과 노국 대장 공주(국립고궁박물관)

공민왕은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고쳐 재정비하고 국왕이 최종 면접을 주관하도록 과거제를 개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진 사대부가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며 성장하였다.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개혁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원 간섭기 내내 이어져 온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였다. 이들은 공민왕 사후 세력이 위축되었지만, 고려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탐구 해보자 전민변정도감을 통한 공민왕의 개혁

신돈이 ㉠ 전민변정도감 두기를 청하고 전국에 방을 붙여 알리기를, "…… 백성이 농사를 지어 온 땅을 ㉡ 권세가들에게 거의 다 빼앗겼다.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도 그대로 가지며 양민을 노비로 삼고 있다. …… 이제 도감을 두어 고치려고 하니,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겠다. 기한이 지나서 일이 발각된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 이 명령이 나오자 권세가들이 빼앗은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니 안팎이 기뻐하였다. - 『고려사』 -

1. ㉠을 설치한 배경을 써 보자.

_____

2. ㉠을 통한 개혁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과 개혁 추진에 대한 ㉡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

_____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14세기 후반 한족 농민 반란군인 홍건적이 고려에 두 차례 침입하였다. 한때 개경까지 함락되어 공민왕이 복주(안동)까지 피란을 떠나기도 하였으나, 이방실·최영 등이 이들을 격퇴하였다.

한편 쓰시마섬과 북 규슈 일대를 근거지로 한 왜구가 고려 해안 일대를 자주 약탈하였다. 이에 고려는 우왕 때 최영·이성계 등을 시켜 왜구를 토벌하였다. 최무선은 진포에서 화포로 왜선을 격퇴하였다. 이후 고려 정부는 박위를 보내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토벌하였다.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이성계 등은 백성의 신망을 얻고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공민왕의 개혁 때 성장한 신진 사대부와 함께 고려의 현실을 개혁하는 데 노력하였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이야기 샘#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친 신흥 무인 세력

고려 말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최영과 이성계였다. 중앙 정계에 등장한 두 사람은 고려 사회의 문제점을 개혁하려 노력하였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은 서로 달랐다.

스스로 확인

1. 공민왕은 □□□□□□을/를 설치하여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를 돌려주고 노비를 해방하였다.
2.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세력은?

04 고려의 생활과 문화

고려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였을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백정
- 가족 제도

1 신분에 따라 다른 삶을 살다

학습 목표 | 고려의 혼인과 가족 제도를 이해하고 여성의 지위를 설명할 수 있다.

고려인의 생활

고려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뉜 신분제 사회였다. 양인 중 관료, 향리 등은 국가의 지배층으로서 국가로부터 전지와 시지, 녹봉 등을 받아 생활하였다.

양인의 대부분은 백정이라 불리는 농민층으로, 일반 군현에 거주하며 국가에 세금, 특산물, 노동력을 바쳤다. 이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군인이 되어 공을 세우면 출세의 길이 열리기도 하였다. 천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부모 중 한 명이 노비이면 그 자녀도 모두 노비가 되었다.

●● 전지와 시지 국가가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로 전지는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을 말하며, 시지는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땅을 의미한다.

「아집도대련」(호암미술관) 고려 문신들이 정원에 모여 시를 짓고 그림을 감상하는 모습이다.

고려의 관리가 쓰던 물품

고려 시대 농민들이 사용한 호미와 작두

「미륵하생경변상도」에 나오는 농민의 모습

혼인과 가족 제도

고려 시대에는 남녀 구분 없이 자신의 가계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중시하여 부모 봉양, 제사의 의무에 있어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았다. 재산 상속도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몫을 상속받았다. 여자는 혼인 후에도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었다.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이었다. 남녀가 혼인한 뒤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 거주하기도 하였다.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호주가 될 수 있었으며, 남녀 모두 이혼과 재혼에 제약이 거의 없었다.

조반 부부의 초상(국립중앙박물관) 고려 말 조선 초 활동했던 조반과 조반 부인을 후대에 그린 초상화로, 부인을 따로 그려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를 짐작케 한다.

탐구 해보자

고려의 가족 제도와 재산 상속

고려 시대 생활 풍속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자료 1 지금은 장가갈 때 남자가 처가로 가게 되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처가에 의지하니 장인·장모의 은혜가 자기 부모와 같다 하겠습니다. 아, 장인이시여! 특히 저를 빠짐없이 두루 돌보아 주셨는데, 이제 버리고 가시니 저는 앞으로 누구에게 의지하리까?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

자료 2 어머니가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그에게는 따로 노비 40명을 더 주려 하자, 그는 사양하며 "1남 5녀 사이에 어찌 저만 더 받아서 우리 6남매가 골고루 화목하게 살도록 하려는 어머니의 뜻에 누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어머니가 의롭게 여겨 그의 말을 따랐다.

- 『고려사』 -

1 자료 1을 참고하여 고려 시대 가족 제도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2 자료 2를 참고하여 고려 시대 재산 상속의 특징을 서술해 보자.

스스로 확인

1 고려는 □□와/과 천인으로 나뉜 신분제 사회였다.
2 고려 시대 양인의 대부분은 □□(이)라 불리는 농민층이었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의천, 지눌
- ☐ 직지심체요절
- ☐ 삼국사기, 삼국유사
- ☐ 성리학

2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다

학습 목표 | 고려 시대에 불교문화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다.

불교 사상의 발달

불교는 고려 건국 초부터 국가의 보호와 지원 속에 교세가 확대되었다. 사원에는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고 승려들의 역을 면제해 주었다. 이에 개경 주위에 10대 사찰이 건립되며 불교가 융성하였다.

왕족 출신의 의천은 천태종을 개창하여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무신 정변 이후 불교계가 타락하자 지눌은 정혜결사를 조직하여(후일 수선사로 개칭) 불교 본연의 수행을 강조하였다.

의천

지눌

인쇄술의 발전

고려 전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목판 인쇄를 통해 대장경을 조판하였다. 고려는 거란과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였다. 의천은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고자 송·거란·일본에서 불경의 해석서들을 모아 목록을 만들고 목판 인쇄를 통해 교장을 간행하였다.

이후 금속 활자가 발명되어 다양한 책을 목판 인쇄보다 쉽게 인쇄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상정고금예문』이 최초로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1234).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직지심체요절』이다(1377).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판

이야기 샘 # 인쇄 강국 고려, 금속 활자로 직지를 찍다

신라 때부터 발달해 온 목판 인쇄는 같은 책을 여러 권 인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다양한 책을 찍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고려는 금속 활자를 발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금속 활자는 각각의 활자를 필요할 때마다 골라 조판하여 인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책을 인쇄할 수 있어 지식의 보급에 유용하였다.

『직지심체요절』은 승려 백운이 여러 경전과 법문에 실린 내용 중 일부를 편집한 책으로, 제자들이 청주 흥덕사에서 묘덕이라는 여성의 시주를 받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이 지방까지 널리 퍼졌으며 고려 사회의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엿볼 수 있다.

『직지심체요절』(복원품, 강화역사박물관)

현재 남과 북에 남아 있는 고려 시대 금속 활자

역사서의 편찬

인종 때 김부식은 왕명을 받아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이후 이규보는 고려의 역사와 민족적 전통을 알리기 위해 『동명왕편』을 지었다. 또 단군 이야기와 고조선 역사를 수록한 일연의 『삼국유사』와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저술되었다. 이 외에도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제현의 『사략』 등 다양한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 『해동고승전』 각훈이 왕명에 따라 삼국 시대 이래 여러 승려의 전기를 기록한 책이다.

성리학의 수용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충렬왕 때 안향에 의해 고려에 소개되었다. 이제현 등은 만권당에서 원의 유학자들과 교류하며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만권당 충선왕이 원의 수도에 있던 자신의 집에 설치한 서재로, 이곳에서 고려와 원의 학자들 사이에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원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색은 성균관을 정비하고 정몽주, 정도전 등의 후학을 양성하는 등 성리학의 보급과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려 말 과거의 시험 과목에 성리학이 반영되면서 성리학은 더욱 확산되었다.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며 개혁을 주장하였다.

신진 사대부의 불교 비판

성균관의 박초가 상소문을 올리기를 "부처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를 이을 적자로서 그 아비를 배반하여 부자의 친분을 끊고, …… 군신 간의 의리를 없어지게 했으며, 남녀가 한집에 사는 것을 도가 아니라고 하고, 남자가 밭 갈고 여자가 베 짜는 것을 의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 『고려사』 -

지식+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역사서로 모두 삼국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책은 우리나라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국가 운영과 관련된 서술이 잘되어 있고, 몽골과의 항쟁 시기에 저술된 일연의 『삼국유사』는 불교 신앙과 민족의 전통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편찬 목적, 서술 방식 등 여러 부분이 달라 서로를 보완해 준다. 두 책은 우리 민족이 삼국 시대와 그 전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연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스스로 확인

1. 천태종을 통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던 인물은?
2. □□□을/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은 신진 사대부는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며 개혁을 주장하였다.

고려의 불교문화와 공예

고려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고려의 청자와 나전 칠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 사원 건축과 석탑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사원 건축물로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이 있다. 석탑으로는 통일 신라 양식을 이어받은 삼층 석탑과 독특한 모양의 다각 다층 석탑이 만들어졌다. 고려 후기에는 원의 영향을 받은 탑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경북 영주) 고려 중기 주심포 양식의 건물로 배흘림 양식의 기둥이 잘 남아 있다.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국립중앙박물관) 원의 영향을 받아 경천사에 세워진 탑이다.

2 불상과 불화

고려 초기 불교 신앙의 성행으로 각 지방에서는 대형 철불이나 석불이 세워졌으며, 통일 신라의 양식을 잇는 불상도 다수 조성되었다. 왕실이나 문벌 가문의 후원을 받아 제작된 불화는 검은 비단 위에 금·은가루로 화려하게 그려졌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충남 논산) 현존하는 국내 최대의 석불로 광종 때 만들어졌다.

영주 부석사 소조 여래 좌상(경북 영주) 통일 신라 시대의 양식을 이어받아 만들어졌다.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국립중앙박물관) 고려 태조가 금강산에서 담무갈보살을 보았다는 일화를 나무판에 금으로 그린 불화이다.

「수월관음도」(아모레퍼시픽미술관) 물에 비친 달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관음의 우아한 자태를 절제된 색감과 치밀한 묘사로 표현하였다.

3 공예

고려 시대에는 청자 제작 기술도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무늬가 없는 순청자가 주로 만들어졌고 12세기 중엽부터는 독창적인 공예 기법인 상감법으로 표면에 다양한 무늬를 새긴 상감 청자가 만들어졌다. 청동기 표면에 은으로 무늬를 장식하는 은입사 기술도 발달하였다.

청자 음각 연화당초문 매병(국립중앙박물관)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국립중앙박물관)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간송미술관)

나전 칠기는 가구나 공예품의 표면에 조개껍데기 등을 가공하여 무늬를 만드는 기술로, 옻칠을 입히는 칠공예 기술과 결합하여 발전하였다. 나전 칠기 제품은 주로 일상생활 도구로 쓰였는데, 나전에 옻칠을 함으로써 방수 효과와 함께 나무가 썩지 않게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

나전 대모 국화넝쿨무늬 염주함(일본 당마사)

나전 모란넝쿨무늬 경함(국립중앙박물관)

탐구 1 고려 시대에 통일 신라의 석탑과 다른 양식의 석탑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해 보자.

탐구 2 값비싼 재료인 금·은가루를 이용하여 불상과 불화를 조성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배경을 정리해 보자.

탐구 3 다음은 고려를 방문한 송의 사신 서긍이 고려청자에 대한 느낌을 적은 글이다. 이를 참고하여 고려청자가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았던 이유를 써 보자.

> 고려인은 도기의 푸른 빛깔을 비색이라고 하는데, 요 몇 년 사이에 도기 만드는 솜씨와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
> - 서긍, 『고려도경』 -

은제 금도금 표주박모양 병 (국립중앙박물관)

Ⅲ 대단원 마무리

스스로 정리하기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자.

1 다음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 보자.

(가) 고려 건국	(나) 신라 항복
(다) 발해 멸망	(라) 후삼국 통일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고려 태조는 지방의 유력한 호족과 (㉠) 관계를 맺고, 일부에게는 왕씨 성을 내리며 호족을 포섭하였다. 한편 지방 호족의 자제를 서울에 머물도록 하는 (㉡) 제도를 실시하였다.

(1)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써 보자.

(2)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고, 이 제도를 실시한 이유를 써 보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광종은 (㉠)을/를 실시하여 호족이 불법적으로 거느린 노비를 해방하였다.
> 성종은 (㉡)이/가 건의한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을/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1)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써 보자.

(2) ㉡에 들어갈 인물의 이름을 쓰고, ㉢에 해당하는 사상을 써 보자.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의 1차 침입 때에는 고려의 서희가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였다. 이후 (㉠)은/는 연이어 고려에 침입해 왔으며, 3차 침입 때에는 귀주에서 (㉡)이/가 이끄는 고려군에 대패하였다.

(1) ㉠에 들어갈 민족을 쓰고, 밑줄 친 '외교 담판'의 결과를 서술해 보자.

(2) ㉡에 들어갈 인물의 이름을 써 보자.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최씨 무신 정권은 (㉠)을/를 설치하여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몽골의 침입 이후 최씨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하였고, 백성은 대몽 항쟁을 전개하였다. ㉡하층민들도 참여하여 열심히 싸웠다.

(1) ㉠에 들어갈 기관의 이름을 써 보자.

(2) ㉡에 해당하는 사례를 서술해 보자.

6 고려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종류와 이름을 두 가지 이상 써 보자.

역사야 놀자

고려의 문화유산 홍보 영상 만들기

남북한에 흩어져 있는 고려의 문화유산을 지역별로 조사하여 선정한 뒤, 이를 소개하는 문화유산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누리집에 공유해 보자.

1 단계 4~5명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Ⅲ단원 전체를 참고하여 지역을 정한다. 소개해야 할 고려의 문화유산을 정한 뒤 제작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길잡이 다음과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나누어 제작할 수 있다.

- 서울·경기: 고려 궁지, 윤관의 묘 등
- 강원도: 월정사, 공양왕릉 등
- 충청도: 개태사, 관촉사, 수덕사, 흥덕사와 『직지심체요절』 등
- 경상도: 팔만대장경, 부석사, 봉정사,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등
- 전라도: 송광사, 강진 도요지, 운주사
- 개성(또는 북한 지역): 만월대, 선죽교, 개성 남대문, 고려 성균관, 숭양서원, 왕건 청동상과 현릉 등

2 단계 토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한다.

3 단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의 주제에 맞춰 영상 촬영을 위한 콘티를 완성한다.

4 단계 콘티의 내용을 기반으로 홍보 영상을 촬영한다.

5 단계 각 모둠이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함께 관람하고 평가한 뒤, 누리집에 공유한다.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콘티 예시

주제: 우리 지역 고려 시대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장면 1 지도 제작

장면 2 문화유산 소개

장면 3 문화유산 훼손 사례

유의 사항

- 모둠별로 선정한 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모둠 구성원 간에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고 협동한다.
- 교과서의 내용 외에 고려 시대 문화유산도 포함할 수 있다.
- 문화유산 훼손 사례를 촬영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평가 방법

- 선정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가?
- 콘티 작성 시 문화유산 훼손 사례,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사례 등을 포함하였는가?
- 홍보 동영상 촬영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는가?
- 다른 모둠의 홍보 동영상을 집중하여 관람하였는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

고려 시대에 생긴 본관제란?

오늘이 묻고,

우리나라 전체 성씨는 2000년 728개에서 2015년 5582개로 7.7배가 늘었다. 음(音)이 같은 성씨를 하나로 묶어 산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본관까지 나누면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늘어난다. 굳이 본관까지 구분하지 않고 성씨만 봐도 귀화 외국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전체 5582개 성씨 중 한자가 없는 성씨가 4075개에 달하는데 귀화 외국인이 등록한 희귀 성씨가 대부분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 본관 역시 한국 지명을 안 쓰고 본국의 이름이나 지명을 써 '태국 태씨'·'몽골 김씨'·'산동 우씨'·'대마도 윤씨' 등의 새로운 가문이 생겨났다.

- 『연합뉴스』, 2017. 1. 6. -

역사가 답하다!

본관제는 어떤 사람의 거주지나 출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려 초에 처음 나타났다. 태조 왕건은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지방 호족에게 성씨를 하사하고, 그 지역을 본관으로 삼게 하였다. 그리고 지방 호족에게 해당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해 주었다. 이를 통해 호족을 포섭하여 삼국으로 분열되었던 민족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초기에 본관과 성을 받은 지방 세력들을 백성(百姓)이라고 불렀다. 이는 새 국가 고려를 함께 만들어 가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한편 고려 전기에는 중국의 한족 관료나 학자들, 여진족의 일부가 고려로 귀화하여 본관과 성을 받았다. 또 수만 명에 달하는 발해 유민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고려로 귀화하였다. 송의 멸망을 전후하여 수많은 송나라 사람들이 고려로 귀화해 본관과 성을 받아 시조가 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고려로 온 원의 공주를 보필하던 이들 중에 고려에 정착하여 특정한 가문의 시조가 된 이들도 많았다.

Ⅳ

조선의 성립과 발전

01 통치 체제와 대외 관계

02 사림 세력과 정치 변화

03 문화의 발달과 사회 변화

04 왜란·호란의 발발과 영향

역사의 시공간

들여다보기

15세기경 세계

동해

조선

일본

명

정화가 항해 때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기린이라네.

정화의 항해로

정화의 함선 명은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여 조공국을 확대하였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백성이 스스로 뜻을 펼 수 있게 하고 민족 문화를 꽃피우리라.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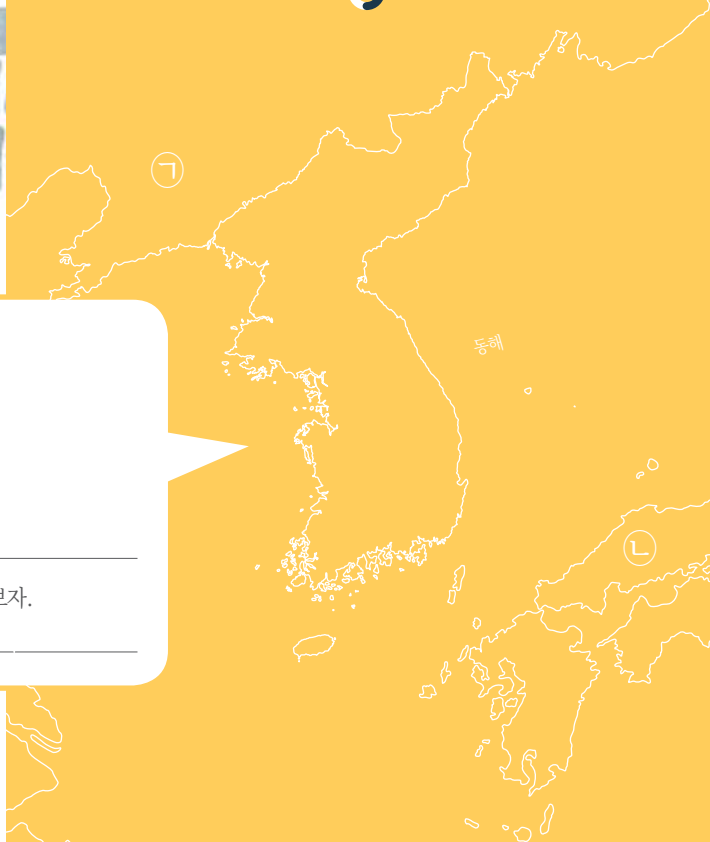
앙부일구

측우기 농업을 중시한 조선에서는 강우량을 파악하여 풍흉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자격루

광화문 경복궁의 정문이다. 조선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양의 주요 건축물 이름을 정하였다.

세계사		한국사
		1314 고려, 만권당 설치
원 멸망, 명 건국	1368	
		1388 위화도 회군
		1392 조선 건국
		1394 한양 천도
		1402 호패법 실시
일본, 명과 감합 무역 시작	1404	
정화의 항해 시작	1405	
		1416 4군 설치(~1443)
		1434 6진 설치(~1449)
		1441 측우기 제작
		1446 훈민정음 반포
비잔티움 제국 멸망	1453	
		1485 『경국대전』 반포
콜럼버스, 아메리카 항로 발견	1492	
		1510 3포 왜란
루터의 종교 개혁	1517	
		1519 기묘사화
일본, 전국 시대 통일	1590	
		1592 임진왜란 발발
에도 막부 수립	1603	
후금 건국	1616	
		1627 정묘호란
후금, 청으로 국호 변경	1636	
		1636 병자호란
청, 중국 정복	1644	
영국, 명예혁명	1688	



이 시기 한국은? 조선 시대!

- 오른쪽 지도는 15세기 조선과 주변 국가를 나타낸다.

① 지도의 ㉠, ㉡에 들어갈 국명을 써 보자.

_____

② 15세기 조선이 ㉠, ㉡ 국가와 벌인 외교 방식의 차이점을 서술해 보자.

_____

01 통치 체제와 대외 관계

조선의 왕에게 유교 공부가 중시된 이유는 무엇일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위화도 회군
- ☐ 과전법
- ☐ 한양 천도
- ☐ 경국대전

1 새로운 왕조, 조선이 건국되다

학습 목표 | 조선이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건국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위화도 회군과 조선의 건국

고려 말, 중국 대륙에 새롭게 등장한 명은 고려가 원으로부터 되찾은 철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였다. 이에 우왕과 최영은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으나, 정벌에 반대하던 이성계가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우왕과 최영을 몰아내고 국정을 장악하였다(위화도 회군, 1388).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는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과전법을 실시하였다(1391). 이는 고려 말 권문세족에게 토지와 노비가 집중되면서 어려워진 민생을 바로잡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였다. 과전법의 시행으로 새 왕조 개창에 참여한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고려를 개혁하려고 노력하던 신진 사대부는 정도전 등 새 왕조 개창을 주장하는 세력과 정몽주 등 고려 왕조를 유지하려는 세력으로 나뉘었다. 이후 이성계는 자신을 지지하던 신진 사대부들과 힘을 합쳐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위화도 회군

과전법 경기 지역의 토지를 전·현직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수조권(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을 나누어 준 제도이다.

태조 어진(전주 경기전) 태조 이성계는 백성에게 단군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녔던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정하였다.

한양 천도와 도성 건설

조선은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성리학적 유교 질서에 따라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하는 '민본'을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국왕이 왕도 정치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겨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1394). 한양은 나라의 중앙에 위치하고 한강이 흘러 교통이 편리하였으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도 유리하였다.

조선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양의 주요 건축물 이름을 정하고, 여러 제도와 의례를 마련하여 유교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경복궁 근정전(서울 종로) 경복궁의 정전으로 '부지런하게 정치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왕위 즉위식과 사신 접대 등의 국가 행사가 열렸다.

유교 이념을 품은 도시, 한양

「도성도」(국립중앙박물관)

유교 통치 이념에 따라 건설된 한양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종묘를 두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을 세웠다. 한양을 둘러싼 성곽을 쌓고, 각각의 문에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등의 유교 덕목을 적용하여 이름을 붙였다.

유교 이념이 담긴 조선 시대 건축물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자.

사직단(서울 종로)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 나라의 근본인 백성의 평안함을 기원하였다.

종묘 정전(서울 종로)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 놓고 유교적 전통에 따라 왕실의 제사를 지낸 곳이다.

호패(국립중앙박물관) 16세 이상의 남자가 가지고 다녔던 일종의 신분증으로, 이름과 출생 연도 등 인적 사항이 적혀 있다.

●● 경연 왕과 신하가 모여 유교 경전과 역사를 공부하던 제도로 학문과 국가 정책을 논의하였다.

국가 기틀의 확립

태조의 아들 이방원은 정도전 등 개국 공신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다. 태종(이방원)은 공신들의 사병을 없애고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나아가 6조에서 나랏일을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여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하고 국왕 중심의 정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호구 조사와 호패법을 실시하여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 징수와 군역 부과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세종은 태종 때 이룬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유교적 이상 정치를 추구하였다. 집현전을 설치하고 우수한 학자들을 키웠으며, 경연●●을 열어 신하들과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고 국왕에게 권력을 집중하였다.

이후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에 힘썼으며,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경국대전』에 따라 중앙 및 지방 통치 제도를 마련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하였다.

지식+ 조선의 기본 법전,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중앙의 6조 체제에 맞춰 6개의 법전으로 구성되었다. 각종 행정 법규를 수록하였고 유교적 기본 질서인 효와 충을 강조하였으며 민본 사상에 입각하여 만들어졌다.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조선은 유교적 법치 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전	중앙과 지방 관제, 문반 관리의 인사에 관한 규정
호전	재정, 토지, 조세에 관한 규정
예전	교육, 과거제, 혼인, 제사, 외교 등에 관한 규정
병전	군사 제도, 무반 관리의 인사에 관한 규정
형전	형벌, 재판, 노비, 상속 등에 관한 규정
공전	도로, 교통, 건축, 도량형 등에 관한 규정

스스로 확인

1. 조선은 □□을/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2. 조선 통치의 기본 규정을 정리한 법전으로 성종 때 완성된 것은?

❷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 체제를 정비하다

학습 목표 | 조선의 통치 체제가 유교 이념에 따라 정비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의정부
- ☐ 3사
- ☐ 수령
- ☐ 과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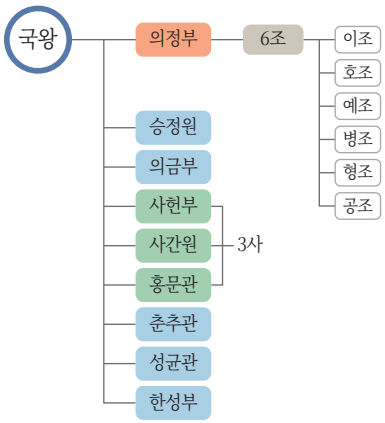
중앙 정치 제도

조선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 제도를 정비하였다. 각 기구의 업무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고, 각 기구의 실무 담당자들은 주로 과거제를 통해 선발되었다.

조선의 정치는 의정부와 6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의정부에서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이 합의하여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왕에게 보고하였다. 6조는 나라의 행정을 나누어 맡아 집행하였다.

그리고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과 반역 등의 큰 죄를 다스리는 의금부를 두어 왕권을 뒷받침하였다. 한편 언론 기관으로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3사를 두어 권력 독점과 관리의 부정을 막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와 균형을 꾀하였다.

이 밖에도 역사서의 편찬과 보관을 담당한 춘추관, 최고 국립 교육 기관으로 유교 교육을 담당한 성균관,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한성부가 있었다.



조선의 중앙 통치 기구

탐구 해보자 권력의 독점을 견제한 3사

> 사헌부는 정치를 토론하고 모든 관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며 옳지 아니한 행위나 거짓된 행동을 단속하는 등의 일을 담당한다. …… 사간원은 임금의 결함을 간언하고 관리들의 잘못을 규탄하는 일을 담당한다. …… 홍문관은 왕궁 서고에 보관된 도서를 관리하고 임금의 물음에 응한다.
>
> - 『경국대전』 -

❶ 3사에 해당하는 기구의 기능을 각각 써 보자.

❷ 조선 시대 3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오늘날의 기관을 찾아보자.

조선 전기의 지방 행정 구역

지방 행정 제도

조선은 지방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부·목·군·현을 두었다. 고려 시대에 특수 행정 구역이던 향·부곡·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하고 대부분의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지방의 행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과 군사권까지 가지고 군현을 통치하였다. 수령 아래에는 향리가 6방으로 나뉘어 수령을 보좌하고 행정 실무를 처리하였다.

중앙에서는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여 수령을 관리·감독하였다. 한편 지방의 양반들은 향촌 자치 기구인 유향소를 설치하였다.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였으며 백성을 유교 질서 속에서 교화하였다.

군사·교통·통신 제도

조선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역 제도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였다.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성에게 부과하였다. 군사 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성되었는데, 중앙군인 5위는 궁궐과 한양을 방어하였다. 지방 각 도에는 병영과 수영을 설치하고 중앙에서 각각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파견하여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군사 제도와 함께 교통·통신 제도도 정비하였다. 국경 지대의 위급한 상황을 중앙에 전달하기 위해 봉수제를 두고, 전국 각지에 역참을 설치하여 통신과 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하였다.

봉수대(서울 남산) 지방의 주요 산마다 설치하여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을 피워 올려 국경 지대의 위급한 상황을 한양의 목멱산(남산)으로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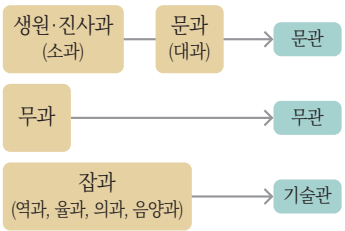
이야기 샘 # 수령은 어떤 일을 했나요?

수령은 지방에 파견된 지방관으로 사또 또는 원님 등으로 불렸다. 수령은 농업을 장려하고, 세금을 징수하였다. 또한 교육을 장려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송을 간편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군사를 훈련하는 등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에서 일어나는 행정·사법·군사적 임무를 모두 관장하였다.

관리 등용 제도

조선의 지배층인 문무 양반 관리는 주로 과거를 통해 선발되었다. 과거에는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다. 문과에는 주로 양반의 자제들이 응시하였고, 무과에는 양반의 자제뿐만 아니라 향리, 상민의 자제들도 응시하였으며 잡과에는 주로 중인이 응시하였다. 과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치러졌으나, 수시로 시행되는 특별 시험도 있었다.

과거제 외에도 천거나 음서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기도 하였지만, 음서로 임용된 사람은 고위 관직으로 승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조선이 고려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한 사회였음을 보여 준다.



조선의 과거제

교육 제도

조선은 유교적 교양과 능력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학문을 가르쳤다. 양인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양반 자제들이 교육을 받았다.

양반 자제들은 서당에서 초보적인 유학 지식을 습득한 후 한양의 4부 학당이나 지방에 설치된 향교에 입학하여 유교 경전을 배웠다. 최고 학부인 성균관에서는 수준 높은 유교 지식을 배웠다. 한편 기술 교육은 해당 관청에서 담당하였다.

「왕세자 입학도」(국립고궁박물관) 유교 공부를 하기 위해 왕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지식+ 문무 양반 관리를 뽑는 조선의 과거제

조선 시대에는 양반 관료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문과와 무과가 모두 실시되었다. 문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이나 논술 능력을 시험하였다. 시험은 첫 번째로 치르는 초시, 초시 합격자가 다시 시험을 치르는 복시, 복시로 최종 선발된 33인이 국왕의 앞에서 치르는 전시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등수에 따라 벼슬이 결정되었다.

무과는 유교 경전과 무예 서적의 내용을 묻는 시험과 무예를 보는 시험을 치렀으며, 문과와 마찬가지로 초시, 복시, 전시를 거쳐 최종 28명을 선발하여 벼슬을 주었다.

김홍도, 「평생도」 중 삼일유가(국립중앙박물관) 과거에서 장원 급제한 사람은 국왕이 내린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3일 동안 거리를 행진하였다.

스스로 확인

1.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는 □□□와/과 6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 조선에서 문무 양반 관리를 등용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는?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사대교린
- ☐ 조공 무역

3 사대교린의 외교를 펼치다

학습 목표 | 조선의 외교 활동을 사대교린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대 외교

조선은 사대교린의 원칙을 바탕으로 외교 활동을 펼쳤다. 건국 초기 태조와 정도전 등이 요동 정벌을 추진하여 명과 대립하기도 하였으나, 태종 때에 들어와 요동 정벌을 중단하고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후 조선은 명에 대한 사대 외교 정책을 표방하여 실리를 추구하였다. 조선은 명과 사대 관계를 맺어 정치적으로 왕권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조공 무역으로 문화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 사대교린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 나라와 화평하게 지내는 정책이다.

류큐의 조공

유구국(류큐)의 중산 왕 찰도가 사신을 보내 문서와 예물을 바치고, 잡아갔던 남녀 12명을 송환하며 망명한 산남왕의 아들 승찰도를 돌려보내 달라고 청하였다. 그 나라 세자 무녕도 왕세자에게 글월을 올리고 예물을 바치었다.

- 『태조실록』 -

교린 정책

조선은 여진과 일본 등의 이웃 나라와는 교린 정책을 펼쳤다. 평화 시기에는 교역을 허락하고 조선에 협조적인 여진인과 일본인, 귀순인에게 토지와 관직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여진족과 왜구가 국경 지역을 침입하면 군사를 동원해 본거지를 토벌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한편 조선은 류큐(오키나와)와 시암(타이), 자와(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도 교역하였다.

지식+ 교린 외교의 지침서, 『해동제국기』

『해동제국기』는 세종 때 신숙주가 일본을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과 류큐에 대해 쓴 책이다. 이 책에는 일본의 역사·지리·언어뿐만 아니라 당시 무기 제조 기술에 꼭 필요한 일본의 유황·구리·철과 류큐의 특산물인 유황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다.

신숙주는 책의 서문에서 "그들의 습성은 강하고 사나우며, 무술을 정련하고 배 타기에 익숙하다. 우리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고 있으니 그들을 도리대로 잘 어루만져 주면 예절을 차려 사신을 보내 임금을 알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노략질한다."라고 하며 일본과의 교린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이 책은 조선의 대일 외교에 있어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되었다.

신숙주(청주 구봉영당) »

스스로 확인

1. 조선은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 나라와 화평하게 지내는 □□□□의 원칙을 바탕으로 외교 정책을 펼쳤다.
2. 조선이 문화적·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대 관계를 맺은 나라는?

나도 역사가

조선의 사대교린 정책

조선은 지리적으로 명, 여진, 일본 사이에 위치하였다.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은 중국과 사대 관계를 맺고, 이웃 나라들과 교린 정책을 바탕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명

칙서를 받들고 북경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으로 나아가서 칙서를 맞이하였다. 칙서에 이르기를, "표를 보고 모두 알았노라. 금·은이 이미 본국(조선)에서 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제부터 조공 물품은 다만 토산물로써 성의를 다할 것이로다."

- 『세종실록』 -

조선은 매년 명에 사절을 보내 조공 무역을 실시하였다. 조선은 종이·붓·화문석·인삼·도자기 등을 조공하고 조공품보다 더 많은 비단, 약재, 서적 등을 가지고 왔다.

여진

경성·경원 지방에 여진족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떼 지어 몰려들 우려가 있고, 일절 끊고 금하면 …… 변경에 불상사가 생길까 합니다. 원하건대, 두 고을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저들로 하여금 와서 물물 교역을 하게 하소서.

- 『태종실록』 -

조선은 여진과 관계가 평화로울 때에는 국경 지대에 무역소를 설치하고 교역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여진이 국경을 침범하자 세종은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어 여진을 토벌하고 4군과 6진을 설치하였다.

일본

좌의정 박은이 "이제 왜가 중국에 들어가 도적질하고 본도로 돌아오는 시기이므로, 이종무 등에게 다시 쓰시마섬(대마도)에 나가 적을 맞아서 치고, 적을 전멸할 기회를 잃지 마옵소서."라고 청하였다.

- 『세종실록』 -

세종은 왜구의 침략이 계속되자 이종무에게 쓰시마섬(대마도)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이후 조선은 3포를 개항하여 일본인의 교역을 허락하였으나 일본은 3포 왜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사고력 키우기

❶ 조선이 명과 사대 관계를 유지한 이유에 대하여 발표해 보자.

❷ 조선이 일본·여진 등과 펼친 교린 정책을 명과의 사대 외교와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02 사림 세력과 정치 변화

Q 사림 세력이 중앙 정치를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훈구
- ☐ 사림
- ☐ 사화

1 사림이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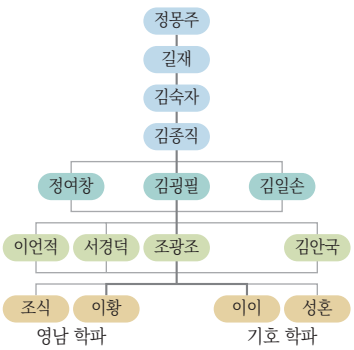
학습 목표 | 사림 세력의 등장과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사림 세력의 등장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왔던 공신들은 중앙의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국가로부터 많은 토지와 노비를 받아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다. 이들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면서 훈구 세력을 형성하였다.

훈구 세력은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을 강화하였고 성종 초 주요 관직을 차지하였다.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 세력을 대거 등용하였다.

사림 세력은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향촌에서 성리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을 계승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향촌 자치와 왕도 정치를 추구하고, 정치 운영에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이에 국가의 권력이 국왕과 일부 공신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3사와 같은 언론 기관을 중심으로 여론을 모아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사림의 계보도

밀양 예림서원(경남 밀양) 성종 때 등용된 김종직은 사림을 대표하는 인물로 존경받았다. 예림서원은 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사화의 발생

사림 세력은 중앙 정치에 진출하면서 훈구 세력의 권력 독점과 비리를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에 사림 세력과 훈구 세력 간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후 사림 세력을 지지하던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하자, 훈구 세력은 사림 세력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였다. 훈구 세력은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사림을 축출하였다(무오사화). 이후 연산군은 어머니인 폐비 윤씨 사건을 구실로 사화를 일으켜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갑자사화).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하자(중종반정), 반정을 주도한 세력이 다시 권력을 차지하였다.

중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을 등용하였다. 이들 사림 세력은 왕도 정치를 강조하며 유교적 이상 정치를 펼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급진적인 개혁 정치에 부담을 느낀 중종과 훈구 세력의 반발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이 제거되었다(기묘사화). 이후 명종 때에는 외척 세력 간의 정치적 다툼 속에서 많은 사림 세력이 또다시 큰 피해를 입었다(을사사화).

●● 조의제문 김종직이 항우에게 죽은 초나라 의제를 애도하며 쓴 글이다. 훈구 세력은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것을 비판하는 글이라며 이를 구실로 사림 세력을 공격하였다.

●● 사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어 일어난 사건으로, 사림 세력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사화라고 한다.

조광조에게 개혁 정치를 묻다

스스로 확인

1.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 세력을 중앙 정계에 등용하였다.
2. 중종 시기 현량과 실시, 소격서 폐지, 위훈 삭제를 주장한 사림 세력의 대표적 인물은?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서원
- ☐ 향약
- ☐ 붕당

② 사림이 성장하여 붕당을 형성하다

학습 목표 | 사림 세력의 집권에 따른 정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영주 소수서원(경북 영주) 중종 때 주세붕이 설립한 백운동 서원은 이후 명종으로부터 '소수'라는 이름의 현판을 받아 최초의 사액 서원이 되었다.

서원의 확대

사림 세력은 덕망 높은 유학자를 기리고 지방 양반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해 지방 곳곳에 서원을 설립하였다. 사림 세력은 서원을 기반으로 향촌에서 정치 여론을 형성하였다.

한편 서원에서 성리학이 깊이 연구되면서 특정 학자의 학통을 계승한 학파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성리학이 더욱 발달하였다.

향약의 보급

사림 세력은 예로부터 내려오던 상부상조의 전통과 성리학적 유교 윤리를 결합하여 향약을 만들었다. 중종 때 조광조가 중국의 향약을 번역하였고, 이후 이황과 이이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어 향촌에 널리 보급하였다. 사림 세력은 향약을 통해 지방민을 교화하고 통제하면서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강화해 나갔다.

향약의 4대 덕목
- 덕업상권: 좋은 일은 서로 권함.
- 과실상규: 잘못된 일은 서로 꾸짖음.
- 예속상교: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교제함.
- 환난상휼: 어려운 일은 서로 도움.

활동 해보자 우리 학급의 '향약' 만들기

모둠 활동

자료 1과 자료 2를 참고하여 우리 학급의 규칙을 만들어 보자.

자료 1 해주 향약
- 초상에는 …… 쌀 한 되와 빈 거적때기 한 닢씩 내며 무명 한 필과 쌀 서 말을 부조한다.
- 불이 나 집이 다 탄 경우 …… 지붕에 덮을 풀 세 마름과 재목 두 조씩 각각 내고 또 힘센 종 한 사람씩 보내 …… 집 짓는 일을 돕게 한다.

자료 2 예안 향약의 처벌 대상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형제간 서로 싸우는 자, 집안의 규율을 어지럽힌 자, 고을 어른을 업신여기는 자, 염치를 돌보지 않고 양반의 기풍을 더럽히는 자, 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울 수 있는데 보고도 구하지 않는 자 등

○○반 규칙
- 친구에게 욕하지 않는다.
-
-
-

사림 세력의 집권과 붕당의 형성

네 차례의 사화로 사림 세력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학문적 입지와 영향력을 넓힐 수 있었다.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키운 사림 세력은 선조 때 다시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정치의 주도권을 잡았다.

사림 세력이 중앙 정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사림 세력 내부에서 정치적 의견 대립이 일어났다. 사림 세력 간의 대립은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사림 세력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붕당을 형성하였다. 이황과 조식 등의 제자를 중심으로 동인이 형성되었고, 이이와 성혼의 제자를 중심으로 서인이 형성되었다.

이후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다. 광해군 때에는 북인이 주도하여 정치를 이끌었으나,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남인과 함께 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 이조 전랑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관인 3사의 관리를 추천하고, 자신의 후임자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다.

●● 붕당 특정한 학문적·정치적 입장을 함께하는 양반들이 모여 만든 정치 집단이다.

붕당의 형성

김효원이 …… 이조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뒤에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이 …… 이조 전랑으로 천거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김효원이 반대하였다. 이에 양편 친지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서로 배척하여 동인, 서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효원의 집은 동쪽 건천동에 있고, 의겸의 집은 서쪽 정릉동에 있었기 때문이다. - 이긍익, 『연려실기술』 -

지식+ 왕의 학문을 논한 이황과 이이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최고 권력자인 국왕도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왕도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조선 성리학의 대가로 꼽히는 이황과 이이도 국왕이 성인이 되기 위해 학문에 매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성학십도』와 『성학집요』를 지어 선조에게 올렸다.

이황은 『성학십도』에서 10개의 글과 그림으로 성인의 학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이는 『성학집요』에서 국왕과 사대부의 학문이 다르지 않음을 설명하고, 국왕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양하여 훌륭한 신하를 가려 뽑아 함께 정치를 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성학십도』 어린 나이의 왕이 이해하기 쉽게 성리학의 기본 내용인 우주 생성의 원리, 마음의 구조, 마음 수련법 등을 그림과 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성학집요』 유교 경전 중에서 공자나 맹자 등의 가르침을 선별하여 편집한 책으로,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스스로 확인

1. 사림 세력이 네 차례의 사화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앙 정치에 진출할 수 있었던 기반은?
2. 사림 세력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을/를 형성하였다.

03 문화의 발달과 사회 변화

조선이 유교 윤리를 보급하려 노력한 까닭은 무엇일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유교 윤리
- ☐ 삼강행실도
- ☐ 주자가례

1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다

학습 목표 | 조선 정부가 유교 윤리를 보급하려고 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유교 윤리 보급과 편찬 사업

조선은 유교 윤리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국조오례의』[●●]를 편찬하여 국가와 왕실의 행사를 유교 예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자, 충신, 열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삼강행실도』를 간행하여 백성에게 유교 윤리를 쉽게 가르치고자 하였다.

한편 조선은 새로운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편찬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치에 필요한 법전인 『경국대전』, 역사서인 『동국통감』과 『조선왕조실록』,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 음악서인 『악학궤범』, 문학서인 『동문선』 등이 국가의 주도로 편찬되었다.

●● 『국조오례의』 제례, 왕실 혼례, 군대 의식, 사신 접대 의식, 상례 등 국가와 왕실에서 치러지는 의식을 규정하였다.

『조선왕조실록』(국가기록원)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국가와 왕실 행사인 종묘 제례 종묘 제례는 왕실의 제사 의례로, 유교의 기본 개념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실천하는 의식이었다. 이때 종묘 제례 의식을 더욱 장엄하게 만들기 위해 예법과 절차에 따라 종묘 제례악을 연주하였다.

유교 윤리의 확산과 사회 변화

조선 정부는 유교 윤리와 예법을 백성의 일상생활까지 확산시키려 노력하였다. 양반들도 아동에게 유교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소학』을 보급하였고, 여러 유교 윤리서를 간행하였다. 또한 『주자가례』를 보급하여 가정에서도 유교 윤리를 따르게 하였다.

지방에 향약이 보급되면서 지방민의 일상생활에 유교 윤리가 스며들었다. 유교 윤리가 확산되면서 양반은 향촌 사회를 주도하는 지배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조선은 법제상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는 사회였으나 점차 양인 중에서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엄격해졌다. 양반은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고, 국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렸다. 중인에는 기술관, 서리, 지방의 향리들이 속하였다. 상민의 대다수는 농민이었으며, 조세·공납·군역 및 요역의 의무가 있었다.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로 국가나 주인에게 예속되어 재산처럼 상속·매매되기도 하였다.

『소학』(국립민속박물관) 유학의 기본을 가르치기 위해 일상생활의 예의범절, 수양을 위한 글, 충신과 효자에 관한 내용을 모아 놓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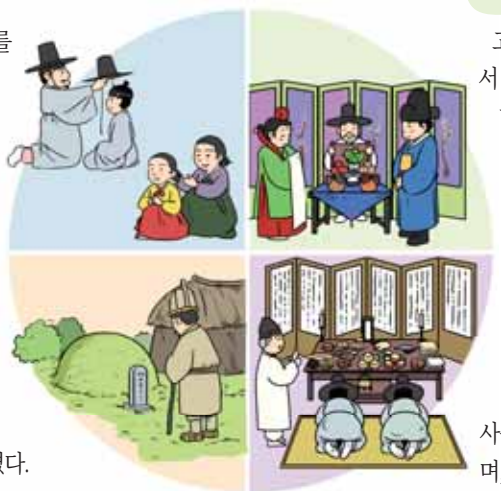
양인 천인 이외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양반, 중인, 상민이 속한다.

지식+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유교 윤리

유교 윤리가 확산되면서, 조선 시대 사람들은 유교적 예법에 따라 관례·혼례·상례·제례 등을 치렀다.

관례

성인이 되는 의식으로, 남자는 상투를 틀고 어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본명 대신 자(관명)를 지어 주고, 사당에 제사를 지낸 후 잔치를 베풀었다. 여자는 땋은 머리를 말아올려 비녀를 꽂는 계례를 하였다.



혼례

고려 시대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 집에서 생활을 하였으나 『주자가례』의 보급으로 일부 양반가를 중심으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혼례를 올린 후 신랑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났다.

상례

고려 시대에 유행한 불교식 화장 풍습이 점차 유교식 매장법으로 바뀌었다. 양반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제례

유교 윤리의 보급으로 조상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효의 기본이 되었으며, 유교 절차에 따라 제사를 지냈다.

Q 『주자가례』의 보급으로 나타난 사회 변화를 정리해 보자.

스스로 확인

1. 조선 정부가 국가와 왕실의 행사를 유교 예법에 따라 규정한 책은?
2. 조선은 법제상 양인과 □□(으)로 구분되는 사회였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훈민정음
- ☐ 천상열차분야지도
-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 ☐ 농사직설

❷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학습 목표 |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과 조선 전기 과학 기술의 발달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

조선은 나라의 근본을 백성이라 여기는 유교 이념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였다. 당시에는 백성이 일반적인 문서에 쓰이는 한자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세종은 백성을 교화하고 백성이 스스로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하였다(1446).

훈민정음은 우리말을 그대로 읽고 쓰기에 편리한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이다. 세종은 훈민정음으로 『용비어천가』를 지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였고, 훈민정음으로 여러 분야의 책을 편찬하여 국가의 정책을 쉽게 알리는 데 활용하였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국문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족 문화가 발전하는 바탕이 되었다.

●●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훈민정음』(언해본, 서강대학교도서관) 훈민정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자음과 하늘(·), 땅(ㅡ), 사람(ㅣ)을 본뜬 모음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다.

탐구 해보자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입장 차이

자료 1 훈민정음 창제 목적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할 뿐이다.

- 『세종실록』 -

자료 2 훈민정음 창제 반대 상소

예부터 중국은 지역마다 풍토는 비록 다르오나 지방의 말에 따라 따로 문자를 만든 것이 없사옵고, 오직 몽골·서하·여진·일본과 서번(티베트)만이 각기 그 글자가 있으나, 이는 모두 오랑캐의 일입니다. ……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와 같아지려는 것입니다.

- 『세종실록』 -

1 자료 1에서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와 자료 2에서 신하가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한 이유를 찾아 써 보자.

2 내가 당시 조선 사람이었다면 어떤 입장을 지지하였을지 말해 보자.

천문학과 지리학의 발달

조선의 과학 기술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다. 특히 하늘의 학문인 천문학과 땅을 연구하는 지리학이 중시되었다. 태조 때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세종 때 간의를 제작하였다. 천문 관측 기술의 발달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이 만들어졌다.

나아가 조선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각종 지도와 지리서를 편찬하였다. 태종 때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동양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이다.

『칠정산』(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내·외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의 『수시력』을 참고하여 편찬하였다.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 기술

조선은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농업을 중시하였다. 세종 때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농사 방법을 정리하여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또한 측우기를 만들어 보급하고,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파악하여 풍흉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여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하였다. 의학을 집대성하여 『의방유취』도 편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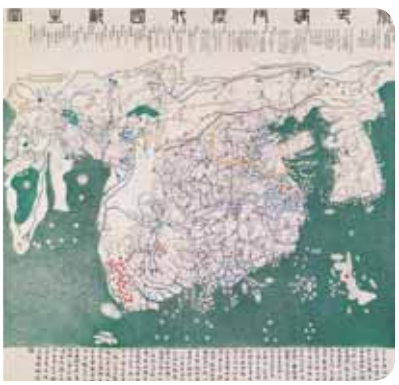
『농사직설』(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각 지방 농민들로부터 농사짓는 방법을 직접 듣고, 이를 간추려 편찬하였다.

지식+ 천문학과 지리학에서 찾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

조선 시대 사람들은 천문 현상에 하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여기고, 하늘의 뜻을 잘 아는 자가 임금이 되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을 읽고 땅의 지리를 살펴보는 것은 왕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에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천문학과 지리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태조 때 국가적으로 고구려의 천문도를 수정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하였다. 이어 태종 때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는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조선이 상대적으로 크게 강조되어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국립고궁박물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일본 류코쿠대학교)

스스로 확인

❶ 세종이 창제한 □□□□은/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이다.

❷ □□□은/는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로 농사에 도움이 되었다.

조선 전기의 과학 기술과 문화유산

조선 전기에 발달한 과학 기술의 특징과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조선 전기 예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 과학 기술의 발달

조선 시대에는 국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모습을 시범으로 보일 만큼 농업을 중시하였다. 농사를 지을 때 강수량과 일조량이 그 해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므로, 별자리를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천문학이 매우 중시되었다. 그 결과 혼천의, 간의, 앙부일구가 만들어지고, 물시계인 자격루도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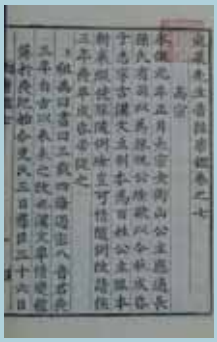
자격루(복원 모형, 국립고궁박물관)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 주는 장치를 갖춘 물시계이다. 자격루가 알려 주는 시각에 따라 관리들의 업무와 한양 백성의 생활이 통제되었다.

간의(복제품) 행성과 별의 위치, 시간, 고도, 방위를 측정할 수 있는 천체 관측 기구이다.

앙부일구(복제품, 국립고궁박물관) '가마솥이 위로 열려 있는 모양의 해시계'라는 뜻으로, 조선 시대에 가장 널리 쓰인 해시계이다.

측우기(복제품, 국립고궁박물관)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기구로 비의 양을 분석하여 각 지역의 풍흉을 가늠할 수 있었다.

2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발달



갑인자 세종 때 만들어진 금속 활자로, 아름다운 글씨체로 유명하다.

병진자 글자의 크기를 보통 활자보다 크게 납으로 만들었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 시대에 발명한 금속 활자를 더욱 발전시켰다. 이에 전보다 뛰어난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책을 찍어 낼 수 있었다.

조선 시대에 인쇄술의 발달로 성리학 관련 서적들이 많이 간행되고 보급되면서, 조선의 성리학이 학문적으로 깊어지고 더욱 발전하였다.

을해자 병용 한글 활자 현재 남아 있는 한글 금속 활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활자이다.

3 양반 중심의 문화

조선 전기에는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한 양반 중심의 문화를 보여 주는 그림과 공예도 발달하였다.

| 그림 |

조선 시대에는 양반 사대부의 정신 세계를 표현한 사군자 그림이 유행하였다. 사대부들은 선비의 기개와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표현한 사군자와 산수화를 즐겨 그렸다.

「사군자」(국립민속박물관)

안견, 「몽유도원도」(일본 덴리대학교) 안평 대군이 꿈에서 본 무릉도원의 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그린 그림으로,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조화롭게 묘사하였다.

| 도자기 |

조선 시대에는 양반 사대부의 취향에 걸맞은 도자기가 제작되었다. 초기에는 고려 시대의 화려한 청자를 대신하여 청자에 백토 가루를 칠한 분청사기가 유행하였고, 16세기 이후에는 깨끗함을 강조한 백자가 발달하였다. 사군자 문양을 넣은 작품도 만들어졌다.

분청사기 음각어문 편병 (국립중앙박물관)

백자 병(국립중앙박물관)

탐구 1 조선 전기에 과학 기술이 발달한 이유를 농업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탐구 2 인쇄술의 발달과 유교 윤리 보급의 연관성을 서술해 보자.

탐구 3 조선 전기의 과학 기술과 문화유산을 주제로 '문화유산 소개 카드'를 만들어 보자.

예시

<앞면>

작품명	「고사관수도」
작가	강희안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설명	바위에 기대어 물을 바라보는 선비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준다.

<뒷면>

04 왜란·호란의 발발과 영향

조선은 왜란 이후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에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임진왜란
- ☐ 수군
- ☐ 의병

이때 세계는?

일본은 15세기 후반 일어난 내분으로 100여 년간 다이묘들이 다투는 전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1 임진왜란을 극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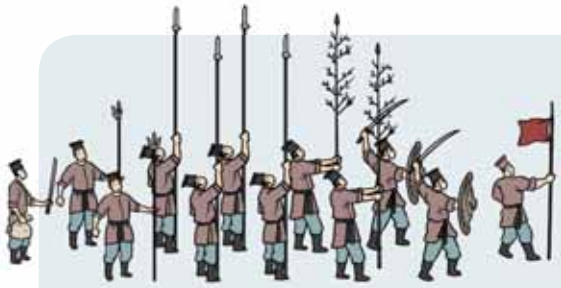
학습 목표 |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과 이후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임진왜란의 발발

16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다이묘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자 하였다. 이에 대륙 침략을 구실로 내세워 조선을 침략하였다(임진왜란, 1592).

건국 이후 큰 전쟁 없이 평화가 지속되어 전쟁 대비에 미흡했던 조선군은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의 침략을 막아 내지 못하였다. 일본군의 대규모 침략에 조선은 순식간에 부산진과 동래성을 빼앗겼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수도 한양이 점령당하였고 선조는 의주로 피란하였다. 일본군은 빠르게 북상하여 평양과 함경도까지 점령하였고, 조선 정부는 명에 지원군을 요청하였다.

변박, 「동래부 순절도」(육군박물관) 임진왜란 초기 동래부 부사 송상현과 백성의 항전을 묘사하고 있다.



긴 창을 이용하여 왜구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 뒤 공격하는 명의 전법(절강전법)은 왜군을 격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 전법은 임진왜란에서도 활용되었다.

수군과 의병의 활약

연이어 패배하던 조선은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전세를 뒤집기 시작하였다.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일본군보다 우수한 성능의 배와 무기를 이용하여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 등에서 승리하였다. 수군의 승리로 서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여 곡창 지대인 전라도 지방을 지키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의병과 승병이 일어났고 이들은 익숙한 지리를 활용하여 적은 병력으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수군과 의병이 활약하는 가운데 명의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고,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무찌르면서 한양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의병을 모으는 격문

섬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 충의란 마땅히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니, 무기를 들고 군량을 모으며, 말에 올라타 앞장서 전쟁터로 달리자. 기꺼이 쟁기를 던지고 논밭에서 일어나 능력이 되는 데까지 오직 충의로 돌아가라.

- 고경명, 『제봉선생집』 -

휴전과 정유재란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은 조선과 명에 휴전을 요청하였다. 휴전 회담이 지속되는 동안 조선은 무기를 정비하고 훈련도감을 설치하는 등 군사 제도를 가다듬었다. 그러나 3년에 걸친 휴전 회담이 결렬되자 일본군은 조선을 다시 침략하였다(정유재란, 1597). 이순신이 이끈 수군은 명량에서 일본군을 대파하였다.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은 철수를 결정하였고, 이순신이 노량에서 철수하는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면서 7년에 걸친 전쟁이 끝났다(1598).

●● 훈련도감 조총을 다루는 포수, 창과 칼 등을 다루는 살수, 활을 쏘는 사수를 합하여 삼수병으로 편성되었다.

화차와 신기전(복원 모형)

전쟁의 영향과 동아시아 정세 변화

귀무덤(일본 교토)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전공을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 베어 가져온 조선인의 귀와 코를 묻은 무덤이다.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막았지만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7년간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토지가 황폐해졌다. 토지 대장과 호적 등이 대부분 사라져 국가 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불국사, 경복궁, 사고•• 등이 불탔으며, 서적과 활자, 그림 등 많은 문화유산이 일본에 약탈당하였다. 일본으로 수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중 일부는 동남아시아의 노예 시장으로 팔려 갔다.

한편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정권이 무너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었다. 전쟁 중에 조선에서 포로로 끌고 간 도자기 기술자와 유학자의 영향으로 일본의 도자기 문화와 성리학이 크게 발전하였다.

전쟁 이후 조선이 일본과 외교를 중단하자, 에도 막부는 조선에 국교를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사명 대사를 파견하여 조선인 포로를 데려오게 하고 일본과 국교를 회복하였다. 이후 일본의 요청으로 조선은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한편 무리하게 지원군을 파병한 명은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 틈을 타 만주의 여진족이 세력을 결집하여 후금을 건국하였다(1616). 이후 동아시아 정세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 사고 국가의 중요한 역사 기록과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곳이다.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를 제외하고 모두 불타버리자 이후 『조선왕조실록』을 여러 부 인쇄하여 지방 곳곳의 사고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지식+ 사명 대사의 포로 송환

사명 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활약하였다. 그는 평양성 탈환과 여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으며 일본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를 적진에서 만나 강화 담판을 벌이기도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선조의 명을 받은 사명 대사는 일본으로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 3,000여 명을 송환해 왔다. 사명 대사의 회담은 이후 통신사 왕래가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사명 대사는 일본의 고승 및 여러 학자와 활발하게 시문을 교류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그의 학문적 지식과 시문의 탁월함을 칭송하였다.

사명 대사(밀양 표충사)

스스로 확인

1. 조선은 우수한 전략과 무기로 무장한 수군과 향토 지리에 익숙한 □□의 활약으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2. 임진왜란 이후 중국 대륙에서는 □의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 여진족이 □□을/를 세웠다.

나도 역사가

수군의 전술과 우수한 무기로 본 임진왜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은 해안 지형을 활용한 전술로 연전연승하였다. 이는 세계 해전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다. 또한 조선의 판옥선은 여러 대의 화포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학익진 전술

학익진 전술은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중앙의 함대가 후퇴하고, 옆의 함대가 앞으로 달려나가 마치 학이 날개를 편 모습처럼 상대방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전술이다. 이순신은 이 전술로 한산도에서 일본군의 함대를 포위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판옥선과 거북선

「판옥선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판옥선은 2층 구조로, 노를 젓는 군인과 포를 쏘는 군인이 다른 층에 배치되어 서로 방해받지 않고 전투에 집중할 수 있었다.

거북선(복원 모형, 전쟁기념관)

거북선은 판옥선에 거북 모양의 철갑을 덮은 형태로, 주로 맨 앞에서 적진을 공격하는 역할을 하였다. 일본군의 대열이 무너지면 그 틈을 타 판옥선이 집중 공격하여 일본의 배를 침몰시켰다.

조선의 군선

배 바닥이 넓어 방향 전환이 쉬웠다. 판재가 두꺼워 배가 무거웠지만 선체가 강하였다.

일본의 군선

배 바닥이 좁아 속도는 빠르지만 방향 전환이 어려웠다. 판재가 얇아 배가 가벼웠지만 선체가 약하였다.

우수한 무기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은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각종 화살이나 탄환을 발사하는 총통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일본군의 화력은 조총이 중심이었던 반면, 조선의 함선은 화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강력한 화력을 과시하였다. 조선군은 판옥선과 거북선에 다양한 총통을 설치하여 일본군의 배를 격파하였다.

황자총통(국립중앙박물관)

천자총통(국립진주박물관)

사고력 키우기

❶ 임진왜란에서 조선 수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이야기해 보자.

❷ 임진왜란 중에 사용된 무기를 모둠별로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중립 외교 정책
- ☐ 인조반정
- ☐ 병자호란
- ☐ 북벌 운동

2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바뀌다

학습 목표 | 병자호란의 배경과 이후 국제 질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광해군의 전후 복구 정책과 중립 외교 정책

선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광해군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토지의 개간을 장려하고 토지 대장과 호적을 정비하였다. 나아가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고 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국방력 강화에도 힘썼다. 또한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을 위하여 『동의보감』을 편찬하여 보급하였다.

이 무렵 세력을 확장한 후금이 명을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키자, 명은 조선에 지원병을 요청하였다. 광해군은 강성해진 후금과 쇠퇴하고 있던 명 사이에서 실리적 중립 외교를 펼쳐 후금과의 충돌을 피하려 하였다.

허준, 『동의보감』(국립고궁박물관) 허준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 서적들을 집대성하여 편찬하였다.

인조반정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은 대의명분과 의리를 중시한 서인 세력에게 크게 비판을 받았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왕위가 불안해진 광해군은 북인과 함께 정권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광해군은 왕권 안정에 위협이 되는 영창 대군을 죽이고 인목 대비를 폐위하였다.

이에 서인 세력은 성리학적 유교 질서를 강조하며 광해군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구실 삼아 광해군과 북인 세력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 왕으로 추대하였다(인조반정, 1623).

●● 영창 대군 인목 대비의 소생이며 선조의 아들 중 유일한 적자였다. 역모 혐의로 광해군과 북인 정권에 의해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죽었다.

지식+ 광해군과 강홍립

17세기 초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가 명에 선전 포고하자, 명은 조선에 지원병을 요청하였다. 광해군은 출병을 피하려 하였지만, 결국 강홍립에게 1만 3,000명의 군사를 내주고 명군과 합류하게 하였다. 그러나 강홍립에게 '형세를 보아 앞으로 일을 정하라.'라는 밀명을 내렸다.

조·명 연합군이 누르하치의 본거지로 진격하던 도중 사르후 전투에서 후금에 크게 패하자, 강홍립은 광해군의 밀명에 따라 남은 병력을 이끌고 후금에 투항하였다.

광해군의 이러한 조치는 당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급변하는 정세를 관망하여 대처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김후신, 「양수투항도」(육군박물관) 누르하치에게 항복하는 강홍립의 모습을 그렸다.

정묘호란

인조 즉위 후 국제 정세가 변화하였다. 후금에서는 태종이 즉위하였고, 명은 요동을 회복하고자 기회를 엿보았다. 이때 이괄의 난에 가담한 일부 무리가 후금으로 도망가 인조반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침략의 기회를 엿보던 후금은 광해군을 위해 보복한다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였다(정묘호란, 1627).

후금에 맞서 관군과 함께 의병들도 항전하였다. 후금은 명과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조선에 형제 관계를 맺을 것을 제의하였다. 조선도 오랜 전쟁과 정권 교체로 전쟁을 치를 힘이 없었기 때문에 후금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 이괄의 난 인조반정에 참여하였던 이괄이 자신이 2등 공신에 그친 것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이다.

병자호란의 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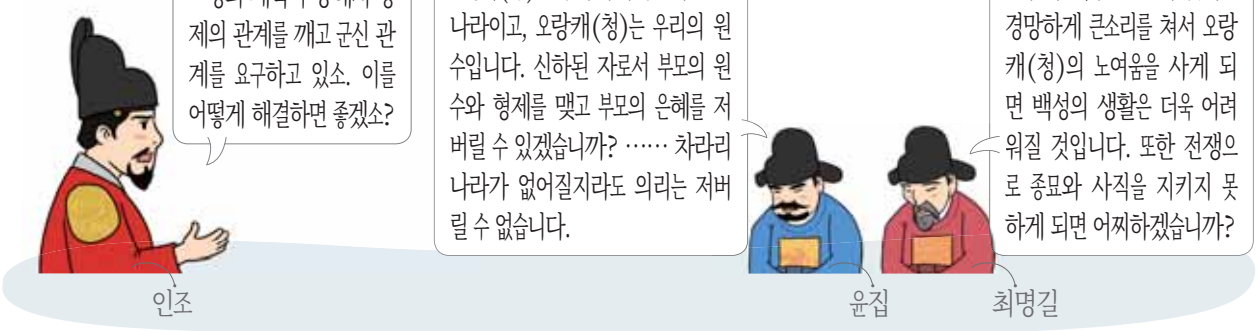
국력이 더욱 강해진 후금의 태종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라 칭하면서 조선에 군신 관계를 맺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를 두고 조선에서는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주화론과 맞서 싸우자는 주전론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조선에서 주전론이 우세해지자, 청 태종은 조선의 왕자와 주전론을 주장한 신하들을 청으로 보내지 않으면 침략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청 태종은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다(병자호란, 1636).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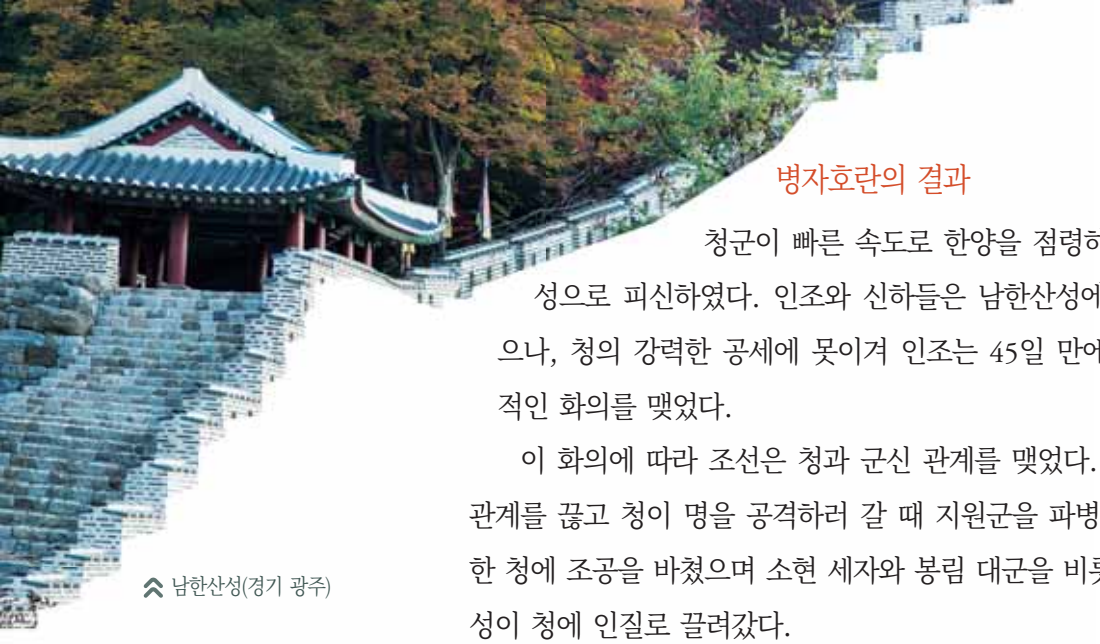
탐구 해보자

주전론과 주화론의 대립



1 두 신하의 주장을 주전론과 주화론으로 구분해 보자.

2 자신이 병자호란 당시 신하였다면 어떤 입장을 지지하였을지 근거를 들어 발표해 보자.



남한산성(경기 광주)

병자호란의 결과

청군이 빠른 속도로 한양을 점령하자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인조와 신하들은 남한산성에서 포위된 채 저항하였으나, 청의 강력한 공세에 못이겨 인조는 45일 만에 삼전도에서 청과 굴욕적인 화의를 맺었다.

이 화의에 따라 조선은 청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이에 조선은 명과 외교 관계를 끊고 청이 명을 공격하러 갈 때 지원군을 파병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청에 조공을 바쳤으며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하와 백성이 청에 인질로 끌려갔다.

명·청 교체와 북벌 운동의 전개

17세기 중반 명이 멸망하자 청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중국 전역을 지배하였다. 이후 동아시아에는 청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청에 대한 굴욕적인 항복으로 집권 세력의 위신이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에 당한 수치를 씻고 복수해야 한다는 북벌 운동이 일어났다.

청에 인질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효종은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였지만 이미 강성해진 청을 정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효종이 죽은 뒤 북벌 운동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북벌 운동

저 오랑캐는 반드시 망하게 될 형편에 처해 있소. …… 정예화된 포병 10만을 길러 …… 결사적으로 싸우는 용감한 병사로 만든 다음, 기회를 봐서 저들이 예기치 못하였을 때 곧장 …… 쳐들어갈 계획이오.

- 송시열, 『송서습유』 -

이야기 샘 # 호란 이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전쟁이 끝난 후 수십만 명의 조선인 포로가 청에 끌려갔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기도 하였다.

이후 청군은 심양성 밖에 포로 시장을 열어 몸값을 받고 포로를 풀어 주었다. 왕족이나 군인의 몸값은 국가에서 돈을 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 백성은 개별적으로 몸값을 내야 했기 때문에 돈을 내지 못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많았다.

스스로 확인

1. 광해군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시한 외교 정책은?
2. 두 차례 호란을 겪은 조선에서는 청에 대한 수치를 씻고 복수해야 한다는 □□ 운동이 일어났다.

나도 역사가

전쟁 속에서도 이루어진 동아시아 삼국의 문화 교류

왜란과 호란 중에도 동아시아 삼국은 문화적 교류를 지속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활약한 인물을 통해 동아시아 삼국의 문화 교류 내용을 알아보자.

이삼평, 일본 도자기 발전에 공헌하다

임진왜란 중 조선에서 수많은 도공이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중 이삼평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백자 제작에 성공하여 일본 아리타 지역에서 추앙받았다. 이후 아리타 도자기는 일본과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 일본 도자기 역사를 새롭게 바꿔 놓았다.

« 이삼평 비(일본 사가현)

» 현재의 아리타 도자기

강항,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치다

강항(영광 내산서원)

성리학자 강항은 정유재란 당시 의병으로 활약하다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는 일본의 역사, 정세, 지리 등을 담은 『적중견문록』을 지어 조선에 몰래 전하였다. 한편 강항은 일본의 승려들과 만나 성리학을 전파하였다. 그중 후지와라 세이카는 강항을 만난 후, 승려를 그만두고 성리학자가 되어 일본 성리학의 시조가 되었다.

소현 세자, 아담 샬과 인연을 맺으며 세계관을 넓히다

소현 세자는 병자호란 뒤 청에 끌려가 8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하였다. 그는 베이징에서 독일 예수회 신부인 아담 샬과 인연을 맺어 서양 학문과 과학 기술에 관한 많은 조언을 들었다. 소현 세자는 청과 서구 문물을 보면서 조선을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을 꿈꾸었다.

> 어제 뜻밖에 제게 보내주신 천주상, 천문서들, 기타 서학서들을 선물로 받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것입니다. …… 제가 조선으로 돌아갈 때 이것들을 궁중으로 가지고 갈 뿐 아니라 인쇄하고 복사해서 선비들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 - 소현 세자가 아담 샬에게 보낸 편지 일부 -

아담 샬 (프랑스 국립박물관)

사고력 키우기

❶ 왜란과 호란 시기에 이루어진 동아시아 삼국의 문화 교류 내용을 조사해 보자.

❷ 동아시아 삼국의 문화 교류가 각국에 끼친 영향을 정리해 보자.

Ⅳ 대단원 마무리

스스로 정리하기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자.

1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 보자.

(가) 한양 천도	(나) 조선 건국
(다) 위화도 회군	(라) 과전법 실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조선은 (㉠)을/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민본'을 강조하였다.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법전인 (㉡)은/는 각종 행정 법규를 수록하였으며 민본 사상을 기반으로 완성되었다.

(1) ㉠에 들어갈 알맞은 사상을 써 보자.

(2) ㉡에 들어갈 법전을 쓰고, 이 법전의 의의를 서술해 보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종직을 비롯한 (㉠) 세력을 대거 등용하였다. 이들은 주로 언론 기관인 ㉡3사에 배치되어 훈구 세력의 비리와 부정을 비판하였고, 성리학적 유교 윤리를 강조하며 정치에 참여하였다.

(1) ㉠에 들어갈 세력을 쓰고, 이들이 사화 이후에도 정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을 서술해 보자.

(2) ㉡에 해당하는 각 기구의 명칭을 쓰고, 3사 운영의 의의를 서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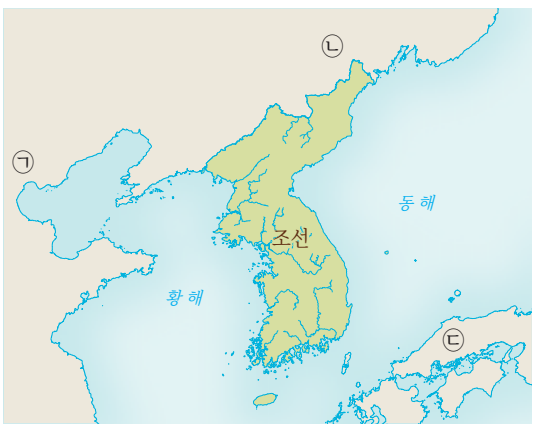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태종의 뒤를 이은 (㉠)은/는 태종 때 이룬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이상적 유교 정치를 추구해 나갔다. (㉠)은/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을/를 창제하고 반포하였다.

(1) ㉠에 들어갈 왕을 써 보자.

(2) ㉡에 들어갈 단어를 쓰고, 창제 배경을 서술해 보자.

5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조선 전기 동아시아 형세

(1) ㉠, ㉡, ㉢에 들어갈 나라 이름을 써보자.

(2) 조선이 ㉠과 사대 외교를 펼친 이유를 서술해 보자.

(3) 임진왜란 이후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를 ㉠, ㉡, ㉢ 국가와 연결하여 서술해 보자.

6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 보자.

(가) 정묘호란	(나) 인조반정
(다) 병자호란	(라) 북벌 운동

역사야 놀자

조선 전기 역사 인물로 만화 그리기

조선의 건국, 사화,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사건 중에서 핵심 인물을 선정하여 그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를 모둠별로 그려 보자.

1 단계 모둠을 구성하고, Ⅳ단원 전체를 참고하여 만화의 주인공과 주제를 선정한다.

길잡이 다음과 같은 인물과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이성계, 조선을 건국하다.
- 세종, 백성을 생각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 광해군, 그가 중립 외교 정책을 펼친 이유는?
- 청에 인질로 끌려갔었던 효종, 북벌을 주장하다.

2 단계 토의를 통해 모둠 구성원의 역할을 정하고 역사 자료를 조사한다.

3 단계 수집된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만화를 그린다.

4 단계 각 모둠이 제작한 만화를 본 뒤 평가한다.

유의 사항

- 모둠별로 인물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모둠 구성원 간에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협동한다.
-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나 글은 함부로 이용하지 않는다.

평가 방법

- 인물과 주제를 올바르게 연결하였는가?
-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는가?
- 주제에 맞게 만화가 전개되었는가?
- 민주적 토의 과정을 거쳐 만화를 완성하였는가?

만화 예시

제목: 효심 가득한 효종, 북벌을 주장하다.

줄거리: 아버지가 청에 항복하는 모습을 본 둘째 아들 봉림 대군은 청에 인질로 잡혀갔다가 조선으로 돌아와 효종으로 즉위하여 복수를 다짐한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글

오늘이 묻고,

'댕댕이'는 멍멍이로 강아지를 말하며 착시 현상으로 '멍'의 'ㅁ'과 'ㅕ'가 'ㄷ'과 'ㅐ'의 '댕'으로 보여 생겨난 신조어고, '커엽다'는 귀엽다는 뜻으로 '커'를 자세히 보면 '귀'로 보이는 착시 현상 때문에 생겨난 신조어다. '띵곡' 역시 착시 현상으로 생겨난 신조어로 '명곡'을 뜻하며, 렬루는 'real'을 빨리 발음한 '렬'과 '루'의 합성어로 '정말로'라는 뜻이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신조어에 대해서 ○○○ 씨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조어는 시대상을 반영한 재치있는 말들이 많고, 새로운 현상을 나타낼 때 적절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글 파괴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시빅뉴스』, 2019. 1. 22. -

역사가 답하다!

훈민정음은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말을 분석하여 그에 대응하는 글자를 찾아 만든 과학적인 글이다.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훈민정음은 쉽게 발음할 수 있으며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할 수 있어 편리하고, 만들고 싶은 말을 편리하게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우수한 글이다.

자음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ㅁ'은 입 모양을, 'ㅅ'은 이의 모양을,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 자음인 'ㄱ', 'ㄴ', 'ㅁ', 'ㅅ', 'ㅇ'에 획을 더하거나 기본 자음을 더하여 'ㄱ(ㅋ)' → 'ㅋ', 'ㄴ' → 'ㄷ(ㄸ)' → 'ㅌ' → 'ㄹ', 'ㅁ' → 'ㅂ(ㅃ)' → 'ㅍ', 'ㅅ(ㅆ)' → 'ㅈ(ㅉ)' → 'ㅊ', 'ㅇ' → 'ㅎ'이 만들어졌다.

모음자는 '천·지·인(하늘·땅·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ㆍ'는 하늘의 둥근 모양,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 'ㅣ'는 사람의 서 있는 모양이다. 이 기본 글자에 'ㆍ'를 결합하여 'ㆍ'+ 'ㅡ' = 'ㅗ', 'ㅡ '+'ㆍ'= 'ㅜ', 'ㆍ'+ 'ㅣ' = 'ㅓ', 'ㅣ' +'ㆍ'= 'ㅏ'를 만들었고, 거기에 'ㆍ'를 하나씩 더 더해서 'ㅛ', 'ㅠ', 'ㅕ', 'ㅑ'를 만들었다.

V

조선 사회의 변동

01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

02 사회 변화와 농민의 봉기

03 학문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

04 생활과 문화의 새로운 양상

역사의 시공간

들여다보기

17~18세기경 세계

「연행도」

청으로 가서 발달한 문물을 보자.

청

중국의 경극

일본의 가부키

수원 화성 팔달문 정조는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탈춤

« 자명종과 천리경 연행사를 통해 조선에 전해졌다.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될 때마다 일본에서 조선의 인기가 높아졌지.

» 「통신사 행렬도」

통신사를 따라가서 재주를 선보였는데, 일본인들의 반응이 엄청나더군.

» 마상재

세계사		한국사
		1608 경기도에 대동법 시행
명 멸망	1644	
		1659 1차 예송
명예혁명	1688	
		1708 전국적으로 대동법 시행
지정은제 시행	1713	
		1742 영조, 탕평비 건립
		1750 균역법 실시
플라시 전투	1757	
미국 독립 선언	1776	1776 규장각 설치
		1784 이승훈, 천주교 전도
프랑스 인권 선언 발표	1789	
		1791 시전 상인의 특권 폐지
		1796 화성 축성
		1811 홍경래의 난
1차 아편 전쟁	1840	
미·일 화친 조약 성립	1854	
		1860 동학 창시
		1862 임술 농민 봉기
일본, 메이지 유신	1868	

이 시기 한국은? 조선 후기!

- 오른쪽 지도는 조선 후기 청과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의 경로를 나타낸다.

① 지도의 ㉠, ㉡에 들어갈 사절단의 명칭을 써 보자.

_____

② 당시 사절단을 통한 문화 교류의 특징을 서술해 보자.

_____

01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

조선 후기 탕평 정치가 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비변사
- ☐ 대동법
- ☐ 붕당 정치
- ☐ 예송, 환국

1 양 난 이후 국가를 재건하다

학습 목표 | 양 난 이후 통치 체제의 정비 과정과 붕당 정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비변사의 위상 강화

비변사의 위상 강화

요즈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비변사에서 모두 다룹니다. 의정부는 한갓 이름뿐이고 6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 방비(비변)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과거나 비빈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처리합니다. - 『효종실록』 -

양 난을 거치면서 비변사는 의정부를 대신하는 최고의 정치 기구로 자리 잡았다. 비변사는 원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기구였으나 거듭된 전쟁으로 상설 기구가 되었다.

이후 고위 관료들은 비변사에서 국방과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비변사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의정부의 기능은 축소되었다.

지방 통치 체제 및 군사 제도의 개편

5군영 체제

양 난 이후 양반이 농민을 억압하고 관리가 조세를 수탈하는 등 지방 통치 체제가 흐트러졌다. 이에 정부는 유향소의 권한을 약화하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향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편 정부는 왜란 중에 창설한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한성과 그 주변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중앙의 5군영 체제가 완성되었다. 지방군으로는 양반부터 천민까지 포함하여 속오군을 창설하였다. 속오군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령이나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로부터 훈련을 받다가 적이 침입해 오면 전투에 동원되었다.

조세 제도 개편

조선 정부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지를 복구하기 위해 개간을 적극 장려하고 조세 제도를 개편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국가의 재정 수입원 중 가장 비중이 큰 공납을 개편하였다. 공납은 집집마다 토산물을 바치는 것이었는데, 하급 관리나 상인들이 공납을 대신 납부하고 과도한 대가를 챙기는 방납의 폐단이 컸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토지를 기준으로 쌀(1결당 12두), 베, 면포, 동전 등을 거두는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조세 운영도 안정되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생겨났다. 공인은 물품을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수공업자에게 주문하였다. 이에 상업과 수공업이 활발해지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붕당 정치의 전개

인조반정 이후 정권을 잡은 서인은 남인과 함께 정국을 이끌어 갔다.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상대 당의 정책을 비판하였다. 상호 견제 속에 붕당 정치가 본격화되자 사림의 정치 참여의 폭이 확대되고 언론 기관인 3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에 각 붕당은 사림의 여론을 모으는 데 힘쓰고 이를 공론••으로 삼아 정치적 행동을 취하였다.

•• 공론 각 붕당이 조정에서 내놓은 정책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말한다.

이야기 샘 # 양 난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한 노력과 그 효과는?

조선은 양 난을 겪은 뒤 흐트러진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제도를 개편하였다.

훈련도감 창설에 대한 군인의 의견

훈련도감에 들어온 후 국가에서 급료를 주니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고 군사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조총 부대까지 편성되어 있으니 이제 누가 쳐들어와도 나라를 튼튼히 지킬 것입니다.

대동법 실시에 대한 농민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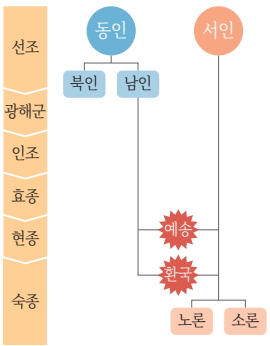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고 하니, 저처럼 땅 없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부담이 줄어들어 참 좋습니다.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던 자들도 사라지겠죠? 얼른 전국에 널리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붕당 정치에 대한 관리의 의견

여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골고루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법이지요. 아무리 정치적 견해가 다른 붕당이라 하더라도 서로 협조하며 공론에 따라 정치하면 나라에도 좋은 일이죠.

붕당 정치의 변화

●● 환국 집권 붕당이 급격히 바뀌는 정치 상황을 뜻한다.



붕당의 분화

효종 사후 현종 때 두 차례 예송이 일어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예송은 효종과 효종비가 죽은 후 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일어난 논쟁이다. 서인과 남인은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나, 상호 협조와 견제의 원칙을 지키면서 정국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숙종 대에 이르러 여러 차례 환국●●이 발생하면서 붕당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숙종은 집권 붕당이 바뀔 때마다 상대 당의 인사들을 정계에서 축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인은 남인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숙종 말년에 노론과 소론은 왕위 계승을 놓고 대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권을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숙종은 붕당 정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기하였다.

지식+ 예송과 환국

[예송]

예송은 겉으로는 예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이었으나, 여기에는 붕당 간의 학문적 차이와 정치적 입지, 왕을 바라보는 시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각 붕당의 사대부들은 '예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생각하며 논쟁에서 이기고자 하였다.

[환국]

숙종 초반에 일어난 경신 환국으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기사 환국 때에는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였다. 이때 서인의 우두머리 송시열이 죽임을 당하였다. 마지막 갑술 환국 때에는 서인이 다시 집권하면서 남인은 정치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후 노론과 소론이 번갈아 권력을 장악하였다.

Q 예송과 환국 이후 탕평론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 확인

1. 국방 문제를 다루던 임시 기구였으나, 양 난을 거치면서 국방 문제 외에 주요 정책까지 논의하게 된 기구는?
2. 숙종 대에 이르러 여러 차례 □□이/가 발생하면서 붕당 간 대립이 격화되어 상호 공존과 견제의 원칙이 무너져 갔다.

② 영조, 정조가 탕평 정치를 펼치다

학습 목표 | 영조, 정조가 실시한 개혁 정치의 내용과 탕평 정치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탕평책
- ☐ 균역법
- ☐ 규장각
- ☐ 수원 화성

영조의 탕평 정치

붕당의 폐해 속에 왕위에 오른 영조는 본격적으로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영조는 붕당의 근거지로 변질된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같은 관청에 여러 붕당의 인물이 함께 근무하게 하여 붕당의 균형을 꾀하였다. 또한 붕당 간의 심한 갈등을 일으키던 이조 전랑의 권한을 크게 약화하였다.

탕평책으로 정국을 안정시킨 영조는 민생을 위한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다. ●●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의 군역 부담을 줄여 주었고(1750),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였다. 또한 태종 때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여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청계천을 정비하여 도성의 홍수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속대전』, 『동국문헌비고』 등을 편찬하여 문물 제도를 정비하였다.

영조 어진(국립고궁박물관)

●● 균역법 군역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법으로 상민이 내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 주었다.

탐구 해보자 영조의 탕평책 실시

자료 1 붕당의 폐해가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 근래에 와서 인재 임용이 붕당에 들어 있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고, 조정의 대신들이 서로 공격하여 공론이 막히고 서로를 반역자라 지목하니 선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 한 조정 가운데서 공격을 일삼고 한 집안에서 싸움만을 서로 계속하고 있으니, 이러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 『영조실록』 -

자료 2 임금이 말하기를, "선대 임금(숙종)께서 서원 가운데 그대로 보존하도록 명한 것은 내버려 두고, 그 나머지는 주자서원일지라도 마땅히 헐어서 치워 버려야 한다. 이 서원을 건립한 것이 어찌 높이고 사모하는 참된 마음에서 나왔겠는가? 그것을 빙자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이루려는 데 지나지 않으니 도리어 옛날의 현인에게 오욕을 끼치는 것이다." 하였다.

- 『영조실록』 -

남과 두루 친하되 편당 짓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당만 짓고 남과 두루 친하지 못하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생각이다.

탕평비(성균관대학교) 영조가 붕당의 폐해를 일깨우기 위해 성균관에 세운 비석이다.

1 자료 1을 읽고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

2 자료 2와 같이 영조가 서원을 정리하고자 한 이유를 유추해 보자.

정조의 개혁 정치

규장각(창덕궁 주합루) '규장'은 왕의 글이라는 뜻으로, 이곳에 역대 왕들의 친필과 도서를 보관하였다.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개혁을 실시하였다.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등용하고, 집권 세력인 노론 이외에도 소론과 일부 남인 세력까지 관직을 주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여 정책 자문 기구로 삼고, 이곳에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때 벼슬길이 막혀 있던 서얼 출신의 박제가, 이덕무, 서이수 등이 등용되어 정조의 개혁을 뒷받침하며 활약하였다. 한편 정조는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기존의 5군영과 별도로 장용영을 창설하였다. 장용영은 국왕의 호위 군대로서 왕권을 뒷받침하였다.

정조는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문예 부흥을 위한 여러 정책을 폈다.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해 시전 상인의 특권을 일부 없애고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였다. 또한 노비의 처우를 개선하였으며, 도망간 노비를 찾아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대전통편』을 비롯한 수많은 책을 편찬하여 문물제도를 정비하였다.

●● 서얼 양반의 자손 중 양인 신분의 첩이 낳은 서자와 천민 신분의 첩이 낳은 얼자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지식+ 정조 대의 규장각과 문예 부흥

> 임금이 평소 책을 숭상하여 세손 때부터 책을 많이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왕위에 오른 첫 해에 맨 먼저 『고금도서집성』 5천여 권을 북경에서 구입하였고, 옛날 홍문관과 강화부 행궁에 보관되어 있던 명대 서적들을 옮겨 모았다. …… 규장각 서남쪽에 서고를 건립하여 중국 책들을 저장하였으며, 북쪽에는 우리나라의 책을 저장하였는데, 총 3만여 권이었다. - 『정조실록』 -

규장각은 궁중에 있는 책과 유물을 보관하는 왕실 도서관이자 학문 연구 기관으로, 중국의 백과사전인 『고금도서집성』을 보관하였다.

정조는 규장각을 중심으로 다양한 편찬 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왕조의 통치 규범을 재정리한 『대전통편』, 외교 문서를 정리한 『동문휘고』, 무예와 병기를 정리한 『무예도보통지』 등이 편찬되었다.

한편 편찬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활자가 주조되었다. 1796년에 완성된 정리자를 비롯해 수많은 금속 활자가 만들어져 책을 널리 보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조 때 문예가 크게 부흥하였다.

규장각에는 '근무 중에 손님이 오더라도 일어나지 말라(객래불기).'라는 근무 수칙이 있었다. 이는 규장각 관리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정조 개혁 정치의 정점은 수원 화성 건설이었다. 그는 친아버지 사도 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이장하고,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여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중심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에도 불구하고 붕당 정치의 폐해는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왕권은 여전히 기존의 노론 세력에 의존하였고, 심지어 왕의 외척 가문이 왕권을 위협할 만큼 강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수원 화성 정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곽 도시이다. 화성의 건설 과정에서 새로운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공사 기간을 줄이고 공사 경비를 절감하였다.

『화성성역의궤』에 있는 서북공심돈 공심돈은 적을 살피기 위한 망루이자, 군사들이 공격할 수 있는 군사용 시설이다.

이야기 샘 # 정조, 백성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다

1795년 2월, 정조는 수원 화성에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마치고 궁궐로 돌아가는 길에 백성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자 백성을 불러 물었다. 이때 백성이 잡역의 부담을 호소하자 정조는 환곡의 일부를 탕감하고 잡역도 줄일 것을 지시하였다.

이처럼 행차 때마다 정조는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줌으로써 국왕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겨울에 쌓인 눈을 치우는 백성의 고생을 덜어 주기 위해 화성 행차 시기를 겨울에서 봄, 가을 농한기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격쟁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임금이 행차하는 길에서 꽹과리와 징을 쳐서 하소연하던 제도이다.

상언 억울한 사연을 글로 써 문서로 전달하였다.

「시흥환어행렬도」(국립고궁박물관) 정조의 행차가 화성에서 출발하여 시흥 행궁에 다다른 모습을 그렸다.

스스로 확인

1. 영조는 백성의 군역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을/를 실시하였다.
2. 정조가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창설한 군대는?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 세도 정치
- [ ] 암행어사

3 세도 정치가 나라의 기강을 흔들다

학습 목표 | 세도 정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세도 정치의 대두

정조의 뒤를 이어 순조가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왕권이 약화되고 외척을 비롯한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들 가문 중 순조의 외척인 안동 김씨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세도 정치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헌종과 철종 때까지 3대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몇몇 유력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들은 비변사와 주요 관직을 차지하여 국정을 좌지우지하였다. 그 결과 붕당 정치도 사라지고 왕권은 크게 약화되었다.

●● 세도 세도는 '세상에 펴야 할 바른 도리(世道)'라는 뜻이었으나, 19세기에 들어와 유력한 가문의 중심 인물이 정치를 주도하는 세도(勢道)로 변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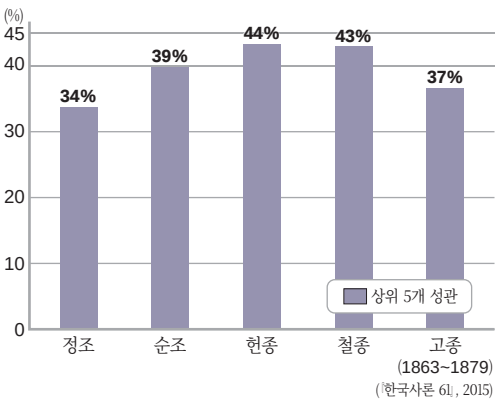
정치 기강의 해이

세도 정권의 등장으로 정치 기강이 크게 문란해졌다. 세도 가문은 다른 정치 세력을 조정에서 내쫓았고, 권력을 이용하여 벼슬을 사고팔아 부를 쌓았다. 또 비정기적인 과거를 빈번하게 시행하여 자신들과 가까운 가문 출신들을 합격시켰다. 이렇게 관리가 된 이들은 향리와 결탁하여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였다.

지식+ 세도 가문의 권력 독점

세도 정치 시기에는 소수의 몇몇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운영하였다. 이때 하위 관료들의 고위 관료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료들은 정책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실무 중심의 행정 기능만 수행하였다.

과거 합격자들이 관직에 진출하여도 정2품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세도 가문 출신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에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를 비롯한 5대 가문이 정2품 이상 고위직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정부의 모든 논의는 세도 가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왕에게 올라갈 수 없었다.



(『한국사론 61』, 2015)

●● 상위 5개 성관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대구 서씨, 연안 이씨, 반남 박씨

소수 유력 가문의 정2품 이상 고위직 독점

스스로 확인

1. 순조·헌종·철종 때 특정 소수 가문이 왕을 대신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정국을 주도한 정치 형태는?
2.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는 왕실의 □□(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잡고 관리 임명을 좌지우지하였다.

나도 역사가

암행어사의 파견과 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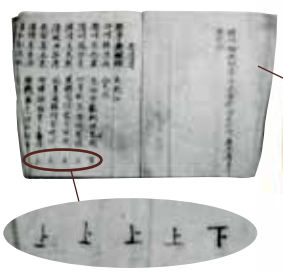
암행어사는 조선 중종 때부터 고종 때까지 무려 400여 년간 지속적으로 파견되었다. 정부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수령의 통치 실태를 점검하고 백성의 삶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조는 향촌을 안정시키기 위해 암행어사를 자주 파견하였다. 정조는 "암행어사가 있으므로 논밭을 잘 갈았는지 못 갈았는지 조사하여 상도 주고 벌도 줄 수 있으니, 그것을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세도 정치 시기에는 정치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암행어사가 파견되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파견된 암행어사 또한 신분이 노출되어 제 기능을 못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암행어사 가운데 수령의 비리를 적발하기는커녕 이들과 결탁하여 수탈을 비호하는 이도 있었다.

» 마패 암행어사는 마패를 지니고 있어 언제든지 역에 있는 말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어사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마패를 사용하였다.

« 유척 암행어사는 유척(놋쇠로 만든 자)을 가지고 다니며, 수령이 형벌을 가할 때 쓰는 도구들을 점검하거나 도량형의 오류를 적발할 때 사용하였다.



» 암행어사 보고서(국립중앙도서관) 암행어사는 지방관의 근무 실태를 평가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때 올린 보고서는 정부가 수령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사고력 키우기

❶ 정조가 암행어사를 자주 파견한 이유를 써 보자.

_____

❷ 세도 정치 시기에 암행어사 파견 횟수가 줄어든 이유를 추측해 보자.

_____

02 사회 변화와 농민의 봉기

조선 후기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납속책, 공명첩
- ☐ 삼정의 문란

●● 납속책 국가가 곡식이나 돈을 받고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관직을 내려 주던 정책을 말한다.

공명첩(전북대학교박물관) 이름을 쓰는 곳을 비워 둔 관직 임명장이다. 이 공명첩은 이름 칸에 들어간 채홍직의 필체가 나머지 부분과 다른 것으로 보아 나중에 쓴 것으로 보인다.

1 향촌 사회가 흔들리다

학습 목표 |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 나타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신분제의 동요와 향촌 사회의 변화

양 난 이후 상민들은 여러 방법으로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들 중 부유한 사람들은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통해 양반 신분이 되었다. 반면 일부 양반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일반 농민과 다름없이 소작인이 되거나 장사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갔다. 이에 양반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상민의 수가 줄어들면서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는 등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크게 동요하였다.

한편 중인들은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한 부와 실력을 바탕으로 관직 진출을 막고 있는 제도를 바꾸고자 하였다. 노비들은 도망을 가거나 재산을 축적하여 신분적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일부 노비의 신분이 상승하였고 심지어 양반이 되는 노비도 나타났다. 노비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노비제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순조 때는 왕실과 중앙 관서에 소속되어 있던 6만여 명의 공노비를 해방하고 양인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신분제의 동요와 함께 향촌 사회에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재산을 축적한 부유한 상민과 향리들이 기존 양반들에 도전하면서 향촌에서 양반들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었다.

신분제의 동요

옷차림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요즘 이것이 문란해져 상민과 천민이 조정의 관리나 선비처럼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다. …… 심지어 시전 상인과 군역을 지는 상민들까지도 서로 양반이라고 부르고 있다.

- 『일성록』 -

삼정의 문란과 농민층의 의식 성장

세도 정치로 정치 기강이 무너지자 조세의 기본이 되는 전정, 군정, 환곡의 삼정이 문란해졌다. 각 지방의 수령과 향리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정해진 액수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었다. 특히 관리들이 농간을 부리는 환곡의 폐해가 가장 심각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 체제에 불만이 많은 일부 농민은 세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정부와 탐관오리를 비방하는 벽보를 붙여 불만을 표출하였다. 심지어 무기를 들고 양반가와 관아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민란을 생각하는 백성

근래 세금이 무겁고 관리가 탐학하여,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없어서 모두가 난리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때문에 요망스러운 말들이 동쪽에서 부르짖고 서쪽에서 화답하니, 이들을 법률에 따라 죽인다면 백성으로서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 정약용, 『목민심서』 -

삼정의 문란

전정

토지의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존의 전세와 대동법으로 추가된 대동세 등이 있었다. 19세기 세도 정치기에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잡다한 항목의 세금이 추가되어 농민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군정

군역 대신 내는 세금으로, 균역법 실시 이후 농민의 군포 부담이 2필에서 1필로 줄었다. 그러나 군역을 피하여 군포를 내지 않는 농민이 늘어나자 관리들은 남아 있는 농민에게 모자란 군포를 대신 부담시켰다. 심지어 어린아이나 죽은 사람의 몫까지 군포를 징수하였다.

환곡

먹을 것이 부족한 시기에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 주고 추수철에 갚게 하는 일종의 빈민 구제 제도였다. 그러나 관리들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농민에게 억지로 곡식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붙여 곡식을 받아갔다. 심지어 쌀 한 톨의 곡식을 빌리지 않은 사람에게 곡식의 이자를 바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Q 세도 정치 시기에 삼정의 문란이 심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 확인

1. 조선 후기에는 □□의 수가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수가 줄어들면서 신분 질서가 동요하였다.
2. 세도 정치 시기 농민들이 부담한 삼정 중에서 가장 폐단이 심했던 것은?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정감록
- ☐ 홍경래의 난
- ☐ 임술 농민 봉기

2 농민 봉기가 일어나다

학습 목표 |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정감록』(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예언 사상의 확산

세도 정치로 사회가 불안해지고 백성의 고통이 커지자 각종 예언 사상과 종교가 민간에 널리 퍼졌다. 조선 왕조가 망하고 정씨 왕조가 들어선다는 예언을 담은 『정감록』이 널리 퍼졌고, 미륵이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미륵 신앙도 유행하였다.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도 민간에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상과 신앙에는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백성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격문

조정에서는 서쪽 땅을 업신여겨 썩은 흙처럼 대했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마저도 서쪽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 일컫는다. - 『패림』 -

조선 초기부터 평안도 사람들은 변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중앙으로부터 오랫동안 차별을 받았고, 관직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조선 후기 평안도 지역에서는 청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세도 정권의 상공업 통제와 가혹한 세금 수탈로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몰락 양반인 홍경래는 중소 상공인, 광산 노동자, 빈농과 함께 봉기하였다(1811).

홍경래가 이끄는 반군은 세도 정권 타도를 목표로 내세우고, 한때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관군의 무차별적인 탄압으로 정주성에서 패배하면서 진압되고 말았다. 홍경래의 난은 실패로 끝났지만, 통치 체제를 부정하고 농민들과 더불어 정부에 적극 저항했다는 점에서 이후 일어난 여러 농민 봉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지식+ 동학의 등장

천주교가 조선에 전해져 한창 퍼져 나갈 무렵, 경주 지방의 몰락 양반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하였다. 최제우는 천주교가 조선에 퍼지는 것을 내버려 두면 서양이 조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여, 천주교 즉 서학에 맞서 동학을 창시하였다.

동학은 유교와 불교, 도교뿐만 아니라 백성이 믿고 있던 여러 민간 신앙이 융합된 종교였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인즉천)을 내세워 모든 인간이 평등한 세상을 열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리는 많은 백성의 공감을 얻었고, 동학은 짧은 기간에 교세를 크게 확장하였다.

정부와 양반 지배층은 백성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나쁜 종교라고 하여 동학을 금지하고 최제우를 처형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동학은 백성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에 힘입어 교세를 넓혀 나갔다.

최제우(경주 용담정)

임술 농민 봉기

세도 정치하에 삼정 문란과 탐관오리의 수탈이 계속되자 1862년 경상도 진주에서 몰락 양반인 유계춘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이후 봉기는 전라도, 충청도 등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70여 고을로 번졌다.

정부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농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일부 세력의 반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임술 농민 봉기는 농민들이 조세 제도의 폐단에 맞서 직접 저항하였다는 점과 농민의 사회의식이 크게 성장하였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세도 정치 시기 주요 농민 봉기

활동 해보자

농민 봉기 격문 쓰기

모둠 활동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농민 봉기를 알리는 격문을 써 보자.

임술 농민 봉기 당시 충청도 공주부 농민의 요구 사항

1.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늘 7냥 5전(쌀 1.5가마니)으로 정하여 거둘 것.
2. 각종 군포를 편중되게 부담시키지 말고 집집마다 골고루 부담시킬 것.
3. 환곡의 폐단을 없앨 것.
5. 향리와 군관, 여러 심부름꾼의 농민들에 대한 침탈을 금지할 것.

- 송근수, 『용호한록』 -

우리가 봉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따라서, 다음을 요구한다.

1. .....
2. .....
3. .....

진주 농민 항쟁 기념탑(경남 진주)
진주 농민 항쟁 기념탑에는 유계춘 등 양반부터 귀대, 맹돌 등 천민까지 봉기에 참여한 인물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스스로 확인

1. 조선 왕조가 망하고 정씨 왕조가 들어선다는 예언을 담은 책은?
2. 1811년, 평안도에서 □□□은/는 지역 차별과 세도 정권의 수탈에 저항하여 난을 일으켰다.

03 학문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

지전설과 같은 새로운 학설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실학
- ☐ 북학파
- ☐ 국학
- ☐ 대동여지도

이때 세계는?

청대에는 경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고증학이 유행하였다.

1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 나타나다

학습 목표 | 조선 후기에 나타난 실학과 국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 개혁론, 실학의 대두

양 난 이후 정부는 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등 개혁 정치를 펼쳤으나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이에 기존의 성리학을 바탕으로 삼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새로운 학문이 나타났다. 이를 실학이라고 한다.

실학자들은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태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학문 경향은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국학 연구 등으로 확산되었다.

마을을 단위로 공동 농장을 만들어 농민들이 함께 농사짓고, 세금을 제한 나머지를 일한 만큼 나눠야 한다.

정약용

재물은 샘과 같다. 샘물을 퍼내지 않으면 말라버리듯이 소비를 권장해야 생산이 활발해진다.

박제가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의 실학자는 토지 제도를 개혁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반면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등의 실학자는 상공업의 진흥을 통해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청의 선진 학문을 받아들이자고도 주장하여 북학파라고 한다. 특히 홍대용은 지전설을 주장하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실학 연구의 성과로 조세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상공업 진흥책이 강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국가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국학의 발달

17세기 초 오랑캐라 여겼던 청이 명을 멸망시키자 조선에서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우리의 역사, 언어, 지리 등을 연구하는 국학이 발달하였다.

유득공은 『발해고』를 써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밝혔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써서 단군 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신경준은 『훈민정음운해』를 써서 글의 원리를 그림으로 풀어 설명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밝혔다.

한편 국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지도와 지리책이 편찬되었다. 이중환은 전국을 직접 돌아다닌 뒤 『택리지』를 써서 각 지방의 지리 환경과 생활 모습, 풍속 등을 소개하였다. 또 김정호는 당시까지 만들어진 모든 지도를 종합하여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

» 김정호, 「대동여지도」(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 등의 표시가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 「대동여지도」 분첩(국립중앙박물관)
22개의 분첩으로 구성되었다.

탐구 해보자

우리 역사와 우리 땅에 대한 연구

자료 1 발해를 세운 대조영은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차지했던 땅은 또 어떤 땅인가. 그 역시 고구려 땅이다. …… 통일 신라가 망하고 발해가 망한 뒤에 왕건이 이를 통합하여 고려라 하였는데 남쪽은 전부 차지하였지만 발해가 차지했던 북쪽 땅은 여진에 빼앗기기도 하고, 거란에 빼앗기기도 하였다. - 유득공, 『발해고』 -

자료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옥한 곳은 전라도의 남원, 구례 그리고 경상도의 성주, 진주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벼 한 말을 심어서 100말에서 140말을 추수할 수 있고, 적다 하더라도 최소한은 80말을 추수할 수 있다. - 이중환, 『택리지』 -

1 **자료 1**, **자료 2**와 같이 조선 후기 우리 역사와 우리 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을 말해 보자.

2 조선 후기 국학 연구의 다양한 사례를 찾아 발표해 보자.

스스로 확인

1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등의 실학자는 □□□의 진흥을 통해 현실을 개혁하자고 주장하였다.

2 조선 후기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역사, 언어, 지리 등을 연구하는 □□이/가 발달하였다.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연행사
- ☐ 서학
- ☐ 통신사

2 동아시아, 문화를 교류하다

학습 목표 | 연행사와 통신사를 통한 문화 교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청으로 간 연행사

병자호란이 끝난 뒤 조선은 청에 연행사를 파견하였다. 연행사는 청에 조공을 바치고 청으로부터 답례품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조선과 청 사이에 많은 물자가 오가며 무역이 활발해졌다. 또 연행사에 참여한 일부 학자는 청의 학자들과 학문을 교류하였다.

연행사는 세계 지도, 과학 기술 서적, 화포, 자명종, 천리경 등의 서양 문물을 조선에 들여와 소개하였다. 특히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 「곤여만국전도」가 전래되어 조선인의 세계관이 확대되었다. 서양 문물을 접한 조선인들은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던 생각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 연행사 조선 후기 청의 수도인 연경(지금의 베이징)에 파견한 사신을 부르는 말이다. 대체로 청 황제의 생일, 동지, 정월 초하루에 맞춰 파견하였고, 19세기 말까지 총 500여 회에 걸쳐 파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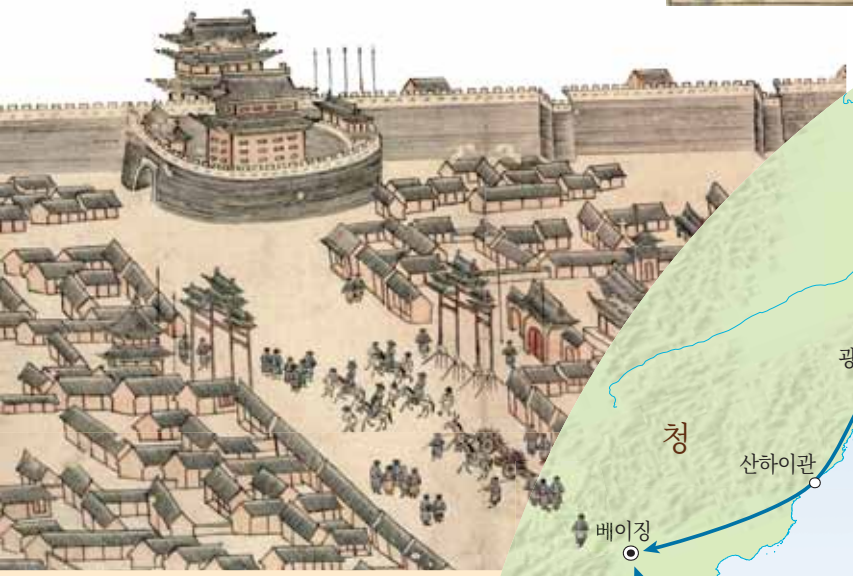
이때 세계는?

명 말부터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서양 문물이 소개되었고, 특히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곤여만국전도」는 중국인의 세계관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곤여만국전도」(일본 도호쿠대학부속도서관) 중국에 온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만든 지도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래되어 이를 본뜬 여러 지도가 만들어졌다.

자명종과 천리경(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연행도」(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청의 연경을 다녀온 조선 사절단의 모습을 담은 기록화이다.



서학의 전래

청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연경을 방문한 조선 사신을 통해 천주교가 조선에 전래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천주교를 서양의 학문 중 하나로 받아들여 서학이라고 불렀다. 서학은 인간 평등을 강조하고 제사를 부정하여 유학자들로부터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서학을 금지하고 신자들을 탄압하였다.

≪ 『천주실의』(가톨릭대학교 전례박물관) 마테오 리치가 지은 천주교 교리서로, 조선에도 전래되어 포교에 활용되었다.

일본으로 간 통신사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일본과 국교를 단절했으나,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국교를 재개하고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일본은 막부의 쇼군이 바뀔 때마다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쇼군은 조선 국왕의 외교 문서 전달 과정을 지방 영주와 백성에게 보여 줌으로써 막부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하였다.

•• 막부 1192 ~ 1868년에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무사 정권을 말한다.

이야기 샘 # 화제를 몰고 다닌 통신사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면 일본 화가들이 앞다투어 달려와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통신사가 오면 일본에서는 조선에 대한 열기가 들끓고, 유행이 바뀔 정도였다. 통신사는 외교 사절의 역할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 문화를 전하는 역할도 하여 일본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관리가 경비 문제 등을 들어 통신사의 방문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결국 조선의 통신사 파견은 19세기 초에 중단되었다.

≪ 말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마상재 통신사의 일원으로 따라간 곡예단의 공연으로 일본인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 일본이 조선의 사신단을 위해 제공한 배

≫ 『통신사 행렬도』(국사편찬위원회) 통신사 행렬의 규모는 400 ~ 500명 정도였고 체류 기간은 6 ~ 12개월로 연행사의 규모를 능가하였다.

스스로 확인

1. 조선에서 청의 수도 연경에 보낸 사신을 □□□(이)라고 부른다.
2.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막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 여러 차례 파견한 대규모 사절단은?

조선을 예술에 담다

조선 후기 문학과 예술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문학과 예술에 반영된 사회상을 설명할 수 있다.

"가난한 양반이 ……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자기 논의 김을 맨들, 누가 감히 괄시하랴. 너희들 코에 잿물을 붓고, 머리끄덩이를 회회 돌리고, 수염을 낚아채더라도 누구도 감히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 박지원, 「양반전」 -

1 문학

이 글은 가난한 양반의 입을 통해 양반의 위선과 횡포를 비꼬는 내용이다. 조선 전기에는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엄격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양반 중심의 한문학에서도 양반을 풍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2 진경 산수화와 추사체

조선 후기 그림 분야에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중국의 산수화를 모방하여 그리는 화풍에서 벗어나 조선의 산천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진경 산수화가 등장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화가인 정선은 실제 조선의 경치를 직접 보고 이를 사실적으로 그렸다.

한편 추사체와 같은 독특한 개성과 정서가 물씬 배어 있는 글씨체도 등장하였다.

김정희, 「연전농」(국립중앙박물관) 김정희가 수많은 명필의 글씨체를 두루 연구하여 완성한 글씨체로 굳센 기운과 부드러움이 함께 녹아있다.

정선, 「금강전도」(삼성미술관리움) 상상 속의 금강산이 아니라 실제의 금강산을 담은 그림이다. 맨 윗부분에 금강산 비로봉이, 가운데에 만폭동이, 아랫부분에 장안사가 있다.

정선, 「인왕제색도」(삼성미술관리움) 소나기가 내린 뒤 해질녘 인왕산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금강전도」와 함께 정선의 진경 산수화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3 풍속화

18세기 후반 도시민과 농민의 삶이나 여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린 풍속화가 유행하였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등을 들 수 있다.

김홍도는 백성의 생활을 살피려는 정조의 뜻을 받들어 풍속화를 그렸다. 그는 서민의 생활 모습을 소박하면서도 정감 어린 필치로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반면 신윤복은 주로 도시인과 부녀자의 모습, 남녀 간의 사랑 등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 김홍도, 「벼타작」(국립중앙박물관)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그림으로, 일하는 농민과 이들을 지켜보는 양반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였다.

» 김득신, 「노상알현도」(평양조선미술박물관) 길에서 만난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 신윤복, 「단오풍정」(간송미술관) 단옷날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타는 여성들을 표현하였다.

탐구 1 박지원의 『양반전』과 같은 소설이 쓰인 배경을 말해 보자.

탐구 2 진경 산수화와 추사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서술해 보자.

탐구 3 조선 전기에 그려진 아래 그림과 조선 후기 풍속화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 이정, 「묵죽도」(국립중앙박물관)

04 생활과 문화의 새로운 양상

조선 후기 서당이 널리 보급되면서 서민의 의식은 어떻게 변하였을까?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적장자 우대 상속
- ▢ 족보

1 상속 제도와 사회 풍속이 바뀌다

학습 목표 | 조선 후기 상속 제도와 혼인 풍속이 변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적장자 우대 상속 제도의 확대

양 난을 거치면서 민심이 흐트러지고 향촌 질서가 흔들리자, 양반들은 『주자가례』를 보급하여 향촌 질서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주자가례』의 영향으로 성리학적 생활 규범이 정착되면서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었다.

이에 제사와 상속 제도도 변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자녀가 돌아가며 제사를 지냈으나, 후기에는 점차 적장자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자녀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 주는 균분 상속 제도가 적장자를 중심으로 한 상속 제도로 바뀌었다. 이후 차남 이하의 아들과 딸의 상속분은 점차 줄어들었다.

●● 적장자 처가 낳은 맏아들로, 제사를 이어받았다.

혼인 풍속의 변화

부계를 중심으로 한 생활 규범이 정착되면서 혼인 풍속도 변화하였다. 조선 중기까지는 혼인 후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상당 기간 생활하였으나, 후기에는 혼인 후 신부가 곧장 신랑 집으로 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혼인 풍속은 양반 가문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상민들에게 확산되었다.

» 김준근, 「신랑전안」(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신랑이 혼례를 올리기 위해 신부 집으로 가는 모습이다.

» 김준근, 「신부출가」(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혼례 후 신부가 친정을 떠나 신랑 집으로 가는 모습이다.

족보 편찬의 성행

조선 후기 양반 가문에서는 족보 편찬이 성행하였다. 족보는 조상의 계보를 보여 주는 것으로, 외가나 처가의 계보가 모두 수록되었다. 그러나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17세기 이후에는 족보가 점차 부계 위주의 계보로 자리 잡아 갔다. 외손에 대한 기록은 삭제되거나 축소되었고, 부계의 자손만 남성을 중심으로 수록되었다.

양반들은 족보를 만들고 이름을 올려 친족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였고, 자신의 신분이 양반임을 과시하였다. 이에 족보는 양반 신분을 유지하고 내세우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심지어 상민과 천민은 족보를 위조하여 양반으로 행세하기도 하였다.

부계 위주로 기록된 광주 이씨 족보(국립중앙도서관) 서문에 외손의 수록 숫자가 성과 본이 같은 친손보다 많을 것을 우려하여 외손을 수록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탐구 해보자

제사 풍속과 상속 제도의 변화

조선 후기 사회 풍속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자료 1 예(禮)에 지자(支子, 맏이가 아닌 자식)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형은 종자(宗子)이므로 신주를 세워 제사를 주관하지만, 아우는 지자이므로 제사를 주관하지 못하고 다만 제사에 참여하거나 제사를 도울 뿐이다.

- 조익, 『가례향의』 -

자료 2 부모 자식 간의 정과 도리는 아들이나 딸이나 차이가 없지만 딸은 부모가 살아 있을 때에 봉양하는 도리가 없고 죽은 뒤에도 제사를 지내는 예가 없으니 어찌 재산을 아들과 동등하게 나누어 주겠는가. 딸에게는 3분의 1만 주어도 정과 도리에 비추어 볼 때 조금도 잘못된 일이 아니다. - 부안 김씨 종중 고문서 일괄 -

1 자료 1, 자료 2에 나타난 제사 풍속과 상속 제도의 변화 내용을 말해 보자.

2 조선 후기 상속과 제사 풍속이 위와 같이 변화된 배경을 설명해 보자.

스스로 확인

1 조선 후기에는 □□□ 중심의 상속 제도가 자리 잡았다.

2 양반 가문이 조상의 계보를 보여 주기 위해 편찬한 것은?

단원의 핵심 용어를 확인해 보자.

- ☐ 모내기법
- ☐ 장시
- ☐ 서민 문화

2 사회·경제적 변동 속에서 서민 문화가 확산되다

학습 목표 | 조선 후기에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

조선 후기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 농법은 김매는 노동력을 크게 줄여 주면서도 수확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일부 농가는 쌀을 비롯한 담배·목화·채소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여 시장에 팔아 소득을 늘렸다.

그 결과 농민 중 일부는 부농층으로 성장하였지만 토지를 잃고 몰락하는 농민도 늘어났다. 지주로부터 땅을 빌리기가 점점 힘들어져 땅을 빌리지 못한 농민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거나, 도시나 광산 등에서 품을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갔다.

모내기(「경직도」 일부, 독일 게르트루드클라센)

한편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물품을 거래하는 장시가 크게 늘어났다. 장시와 함께 물자가 모이는 포구도 상업의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화폐 유통도 늘어났다.

김준근, 「가마점」(독일 함부르크민속학박물관)

상평통보(국립중앙박물관)

상업의 발달은 수공업에도 영향을 끼쳤다. 민간에서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면서 관청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 쇠퇴하였다. 또한 수공업이 발달하여 은·구리 등의 광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민간 위주의 광산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서민 문화의 대두

조선 후기 농업과 상업의 발달로 일부 서민들의 경제력이 커졌다. 또한 서당 교육이 보급되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에 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문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서민 문화가 대두하였다.

서민들은 양반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의 문제점과 부조리를 거침없이 풍자하였다. 한편 중인들도 시를 짓거나 감상하는 모임을 조직하여 활발한 문예 활동을 벌였다.

김홍도, 「서당도」(국립중앙박물관)

유숙, 「수계도권」(국립민속박물관) 조선 후기 중인들이 모임을 만들어 시를 짓고 감상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서민 문화의 여러 가지 모습

서민 문화의 발달 모습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는데, 그중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가 대표적이다.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다룬 『춘향전』과 현실 사회의 부조리를 소재로 한 『흥부전』 등의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다. 서민들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사설시조를 지어 솔직하고 소박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현실을 풍자하였다.

판소리와 탈춤도 유행하였다. 창과 사설로 엮어 나가는 판소리는 솔직한 표현으로 서민층은 물론 양반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양반의 위선과 사회 모순을 풍자한 탈춤 또한 장시나 포구 등에서 공연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서민들의 미적 감각과 의식을 반영한 민화가 유행하였다. 민화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화가들에 의해 그려졌으며, 서민들은 민화를 사서 벽에 걸거나 병풍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양반을 풍자하는 사설시조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올라 앉아
건넛산을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있구나
가슴이 섬뜩하여 풀떡 뛰어 도망가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내 몸이 날래기 망정이지 멍들 뻔하였구나

- 작자 미상, 『청구영언』 -

윤덕희, 「책 읽는 여인」(서울대학교박물관)

「까치호랑이」(국립중앙박물관)

활동 해보자

말뚝이의 양반 풍자를 랩으로 표현하기

개별 활동

말뚝이의 대사를 참고하여 조선 후기 양반에 대한 풍자를 랩으로 표현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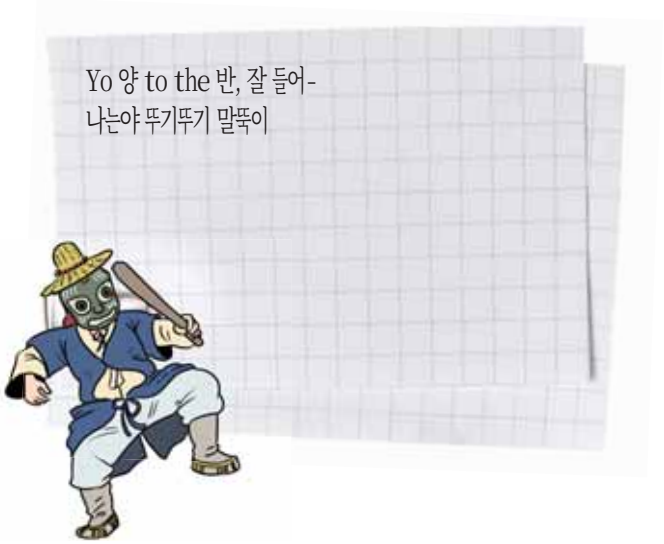
말뚝이: 양반들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거니 노론, 소론, 이조, 호조, 옥당(홍문관)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개*잘양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들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 이놈 뭐야!

- 봉산 탈춤 대사 -

* 개잘양 개의 가죽

** 개다리소반 상 다리 모양이 개의 뒷다리처럼 구부러진 작은 밥상



스스로 확인

1. 조선 후기 논농사에서 □□□□이/가 널리 보급되어 수확량이 크게 늘었다.
2. 조선 후기 □□ 교육으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늘면서 서민 의식이 높아졌다.

상업과 서민 문화의 발달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달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전국의 포구와 장시에서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각종 놀이 문화가 발달하였다.

❶ 경강상인

조선 후기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이다. 배를 타고 서남해안을 오가며 곡식, 소금, 어물 등을 거래하여 재산을 쌓았다.

❷ 보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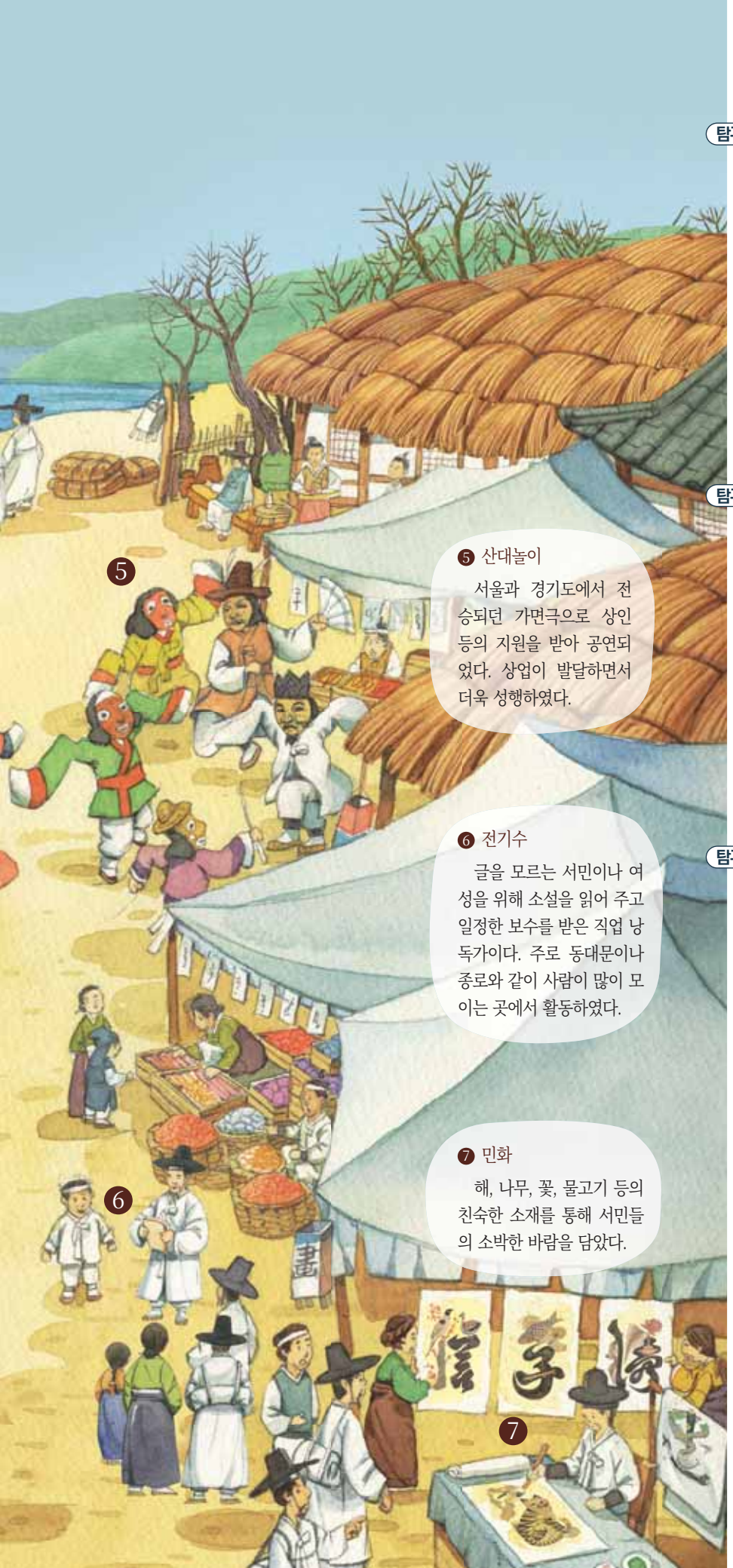
관청의 허가를 받아 봇짐이나 등짐을 지고 전국의 장시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상인이다.

❸ 행상

장시와 포구를 돌아다니며 상거래를 한 상인을 말한다.

❹ 객주

중개업 및 금융업, 숙박업 등에 종사한 상인이다. 일부 객주는 관리들과 결탁하여 특정 물건을 독점 취급하였다.



❺ 산대놀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승되던 가면극으로 상인 등의 지원을 받아 공연되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더욱 성행하였다.

❻ 전기수

글을 모르는 서민이나 여성을 위해 소설을 읽어 주고 일정한 보수를 받은 직업 낭독가이다. 주로 동대문이나 종로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활동하였다.

❼ 민화

해, 나무, 꽃, 물고기 등의 친숙한 소재를 통해 서민들의 소박한 바람을 담았다.

탐구 1 강이나 바다의 포구에서 상업이 활발했던 이유를 추론해 보자.

탐구 2 그림에 나타난 상인들을 찾아보고, 각 상인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탐구 3 민화의 소재로 쓰인 생물과 사물을 찾아 의미를 쓰고, 이를 활용하여 문자도를 그려 보자.

소재	의미
잉어	시험 합격
까치	
호랑이	

V 대단원 마무리

스스로 정리하기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자.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요즈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에서 모두 다룹니다. 의정부는 한갓 이름뿐이고 6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 방비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과거나 비빈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처리합니다. - 『효종실록』 -

(1) ㉠에 들어갈 기구를 써 보자.

(2) ㉠의 위상이 높아진 이유를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결지어 서술해 보자.

2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 보자.

(가) 환국	(나) 예송
(다) 탕평비 건립	(라) 수원 화성 건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인조반정 이후 권력을 잡은 서인은 남인과 함께 (㉠) 정치를 전개해 나갔다. 이로써 사림의 정치 참여 폭이 커졌으며, 사림은 여론을 모아 공론으로 정치를 운영하였다. 현종 때 두 차례의 예송을 거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이후 숙종 때 (㉡)을/를 거치면서 (㉠) 정치가 크게 변질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숙종은 탕평론을 제기하였다.

(1) ㉠, ㉡에 들어갈 단어를 써 보자.

(2) ㉠ 정치의 긍정적인 기능을 서술해 보자.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정조의 뒤를 이어 어린 나이의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안동 김씨 등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 정치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정치 기강이 해이해지고, 삼정이 문란해져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
> 세도 가문과 탐관오리의 수탈이 계속되자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특히 평안도 지역에서 몰락 양반 (㉡)이/가 난을 일으켜 이후 농민 봉기에 영향을 끼쳤다.

(1) ㉠에 들어갈 단어를 써 보자.

(2) 밑줄 친 '삼정'의 3가지 종류를 써 보자.

(3) ㉡에 들어갈 인물을 쓰고, 이 인물이 난을 일으킨 이유를 서술해 보자.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일본과 국교를 단절했으나,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국교를 재개하고 일본에 (㉠)을/를 파견하였다.
>
> 또한 조선은 병자호란이 끝난 뒤에 청에 (㉡)을/를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서양 문물이 조선에 전해졌다.

(1) ㉠, ㉡에 들어갈 단어를 써 보자.

(2) 밑줄 친 '서양 문물'의 사례를 2가지 이상 쓰고, 이를 통해 나타난 조선인의 세계관 변화를 서술해 보자.

6 조선 후기에 나타난 제사 풍속과 상속 제도의 변화를 조선 전기와 비교하여 서술해 보자.

역사야 놀자

농민 봉기를 소재로 드라마 대본 쓰기

세도 정치 시기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 임술 농민 봉기 등을 소재로 하여 드라마 대본을 써 보자.

1 단계 4인 모둠을 구성하고, 152~157쪽을 참고하여 드라마의 주제를 정한다.

길잡이 다음과 같은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홍경래, 평안도 지역 차별에 맞서 봉기하다.
- 홍경래, 정주성 전투에서 패배하다.
- 유계춘, 진주 농민 봉기를 이끌다.
- 귀대, 맹돌이도 함께 봉기에 나서다.
- 1862년, 임술년! 전국의 농민이 벌 떼같이 일어나다.

2 단계 토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 구성원의 역할을 정하고 역사적 자료를 조사한다.

3 단계 수집된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모둠 내 토의를 통해 드라마 대본을 작성한다.

4 단계 모둠원이 한 사람씩 인물을 맡아 작성한 대본에 따라 연기하고 평가한다.

유의 사항

- 모둠별로 대본의 전개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 모둠 구성원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협동한다.
- 저작권이 있는 글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인물 설정 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며, 가상 인물을 설정할 때에는 반드시 역사적 근거에 따르도록 한다.

평가 방법

- 주제에 알맞은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였는가?
- 대본을 역사적 오류 없이 작성하였는가?
- 인물의 선정과 활동이 시대상을 벗어나지 않았는가?

드라마 대본 쓰기 예시

드라마 제목: 홍경래, 평안도 지역 차별에 맞서 봉기하다.

등장 인물	홍경래(몰락 양반), 우군칙(지식인이자 상인), 홍총각(평민 출신)
장면	평안도 어느 장터 주막/ 저녁. 홍경래와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서 봉기를 모의하는 장면

홍경래: (머리를 쥐어짜며) 아, 어찌 또 낙방이란 말인가? 내 이리 열심히 공부를 하였건만 …… 여보게, 친구들! 어찌 조정으로부터 우리 평안도는 계속 차별을 받는다는 말인가?

우군칙: (화가 나 발을 구르며) 에잇, 어찌 세도 가문 사람들은 우리 평안도 지역을 업신여기고 노비들까지 우리를 '평안도 놈'이라고 얕잡아 본단 말인가?

홍총각: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평민들도 세도 가문의 착취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찌 평안도를 차별하면서도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지요? 이래서야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세금을 독촉하니 ……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홍경래: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그래, 결심했어. 이대로는 안 될 일이야! 사람들을 모아야겠네. 세도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겠어!

창의·융합 교실 과학

월하정인 속 두 사람이 만난 때는?

조선 시대 풍속 화가인 신윤복의 작품 중 「월하정인」은 달이 비추는 밤에 두 연인이 만난 장면을 긴장감 있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월하정인」 속의 두 사람이 만난 시각은 언제일까? 작품 속 달의 모양을 보고 월식의 원리를 활용하여 그 시각을 알아보자.

여기서 잠깐

월식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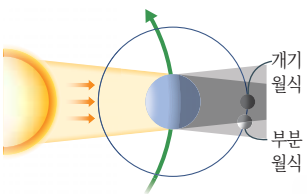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가려지는 현상

개기 월식이란?

태양-지구-달이 일직선상에 놓여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

부분 월식이란?

지구의 그림자에 의하여 달의 일부분이 가려져 보이는 현상



월식의 원리

신윤복, 「월하정인」(간송미술관)

그림 속 장면의 시각을 추정한 근거

위로 볼록한 달을 보니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월식 때임을 알 수 있군요. 또 가려진 부분이 달의 아래쪽인 것은 부분 월식이라는 뜻이지요.

신윤복 활동 시기 중 부분 월식은 1784년 8월 30일과 1793년 8월 21일(음력 7월 15일)로 두 번이었지만, 1784년 당시에는 비가 와 월식을 볼 수 없었지요.

VI

근·현대 사회의 전개

01 국민 국가의 수립

02 자본주의와 사회 변화

03 민주주의의 발전

04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역사의 시공간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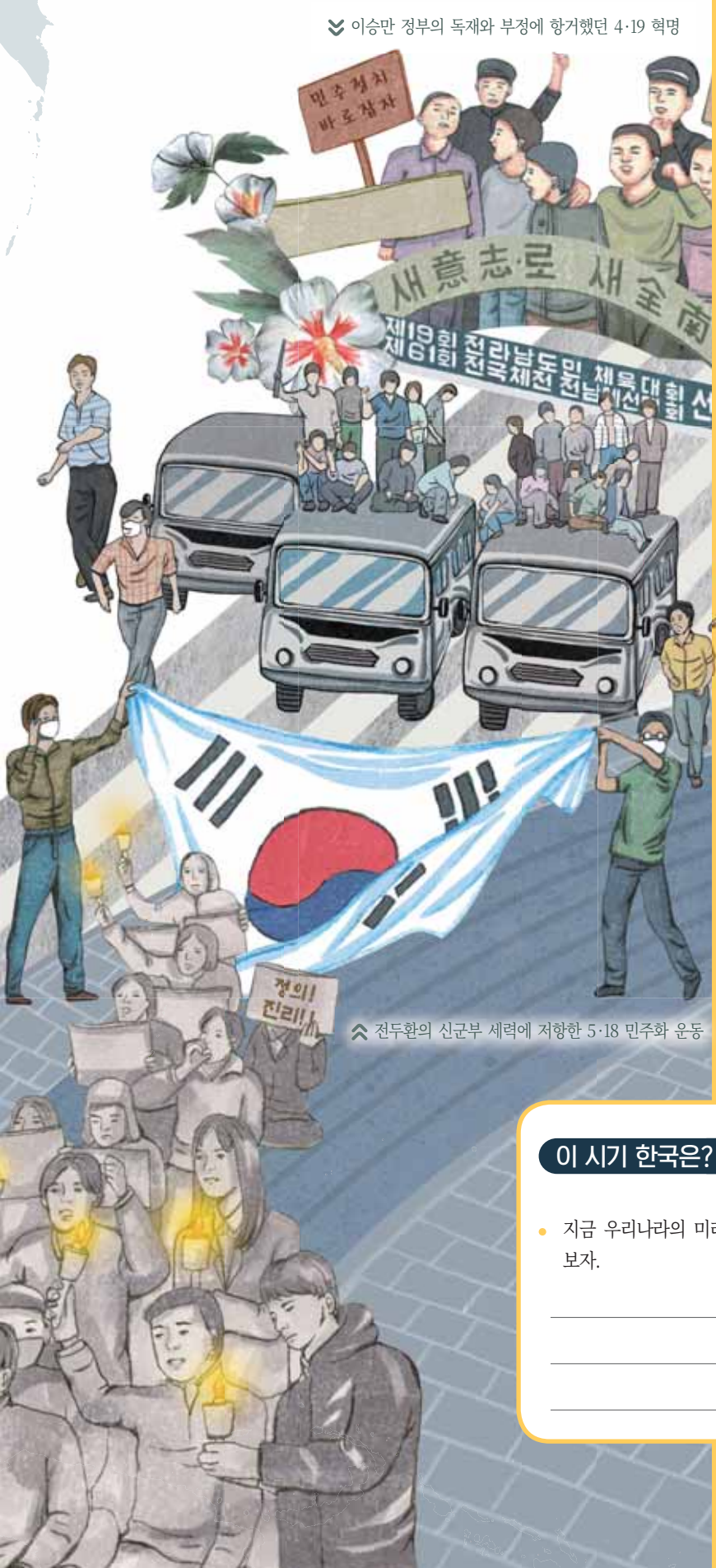
1945년 이후의 세계

중국 톈안먼 사건 당시 탱크에 맞선 시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군인들이 강제 진압하였다.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부정에 항거했던 4·19 혁명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에 저항한 5·18 민주화 운동

세계사		한국사
청, 양무운동 시작	1861	
일본, 메이지 유신	1868	
	1876	강화도 조약 체결
	1884	갑신정변
청·일 전쟁 발발	1894	1894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
	1897	대한 제국 수립
러·일 전쟁 발발	1904	
	1905	을사늑약
	1910	국권 피탈
중화민국 수립	1912	
러시아 혁명	1917	
	1919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만주 사변	1931	
중·일 전쟁 발발	1937	
태평양 전쟁 발발	1941	
	1940	한국 광복군 창설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1945	1945 8·15 광복
	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1949	
	1950	6·25 전쟁 발발
	1960	4·19 혁명
	1965	일본과 국교 수립
닉슨 독트린	1969	
베트남 전쟁 종식	1975	
	1972	10월 유신 선포
	1980	5·18 민주화 운동
	1987	6월 민주 항쟁
베를린 장벽 붕괴, 톈안먼 사건	1989	
소련 해체	1991	
	1991	남북, UN 동시 가입
세계 무역 기구(WTO) 출범	1995	
	1997	외환 위기
	2000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2002	한·일 월드컵 대회 개최
	2007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2017	문재인 정부 출범

이 시기 한국은? 대한민국!

-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을 써 보자.

01 국민 국가의 수립

❶ 문호를 개방하고 개화 정책을 펼치다

학습 목표 | 문호 개방 이후 다양한 정치 세력의 움직임을 비교할 수 있다.

문호 개방과 개화를 둘러싼 갈등

19세기 초 열강들은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통상 수교를 거부하였으나, 그가 물러난 이후 1876년 일본의 강요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후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여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화의 움직임은 위정척사 사상을 지닌 양반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민중과 구식 군인의 저항(임오군란)으로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일부 개화파는 급진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아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갑신정변).

낡은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

농민들도 전라도에서 봉기하였다. 이들은 신분제 폐지, 조세 제도 개혁, 외세 배격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낡은 체제를 바꾸려 하였으나 일본군에 진압되었다(동학 농민 운동).

일본의 간섭 아래 개화파가 주도한 새 정부는 농민군과 개화 지식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신분제 및 낡은 악습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명성 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미사변)을 저지르고 조선의 내정에 더 깊이 간섭하였다.

중국은 아편 전쟁 이후 양무운동과 변법자강 운동 등을 통해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열강들의 압력이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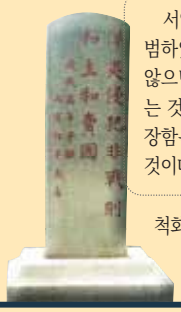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막부를 타도하고 왕정이 회복된 뒤 메이지 유신을 추진하고 있다. 신분제 폐지, 서양 정치 제도 수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1866 병인양요

1871 신미양요

어재연 장군의 '수(帥)' 자기 신미양요 때 광성보 전투에서 미국에 빼앗긴 깃발로, 2007년에 반환되었다.

고종의 친아버지인 흥선 대원군



척화비(부산 강서)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을 때 싸우지 않으면 곧 화의하자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활동 해보자 모의 법정 활동하기

개화파, 위정척사파, 농민 운동 지도자에 속하는 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하여 모의 법정 활동을 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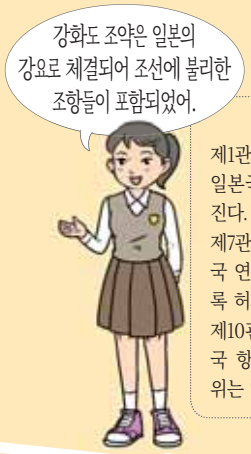
활동 방법

① 5명씩 한 모둠을 편성한 후, 모의 법정에 세울 인물을 한 명 선정하고 그 인물의 활동을 조사한다.

• 최익현	• 김옥균	• 전봉준

② 모둠원이 각각 역할을 정한다.

피고인	자신의 활동 의도, 내용, 결과 등을 소개한다.
검사	피고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고, 검사의 입장에서 질문한다.
변호인	피고의 활동 의미나 그에 대한 평가를 변호인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검사의 주장을 반박한다.
증인	검사, 변호인, 판사의 질문에 답한다.
판사	재판을 주재하면서 피고와 검사, 변호인에게 질문하고, 판결문을 발표한다.



강화도 조약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7관: 일본국 항해자가 조선국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10관: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는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급진 개화파 김옥균 갑신정변을 일으켜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우정총국(서울 종로)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군국기무처의 회의 모습

1876 강화도 조약
1882 임오군란
1884 갑신정변
1894 동학 농민 운동
청·일 전쟁
갑오개혁
1895 을미사변
1896 아관 파천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 적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저들이 왜인이라고 하나 실은 서양 오랑캐입니다. 아들이 아비를 아비로 여기지 않고 신하가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고 인간은 금수로 변할 것입니다.

일본 및 서양과 통상을 반대한 위정척사파 최익현

재판을 받기 위해 이송 중인 동학 농민 운동의 지도자 전봉준

구 러시아 공사관의 현재 모습(서울 중구) 을미사변 직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아관(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다.

모둠 활동

③ 모둠원이 맡은 역할에 맞게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활동지에 주요 내용을 작성한 후 재판을 진행한다.

[사건 또는 인물명]

모둠원 이름	담당 역할	진술 및 판결
	피고인	
	검사	
	변호인	
	증인	
	판사	

❷ 국민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다

학습 목표 |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자주적인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열강의 침탈 속에 조선 정부는 1897년 대한 제국의 수립을 선포하여 대내외에 자주독립국임을 내세웠다. 그리고 새로 즉위한 황제를 중심으로 상공업 진흥, 실업 학교 설립 등의 개혁(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한편 개화 지식인은 『독립신문』을 간행하고 토론회 등을 열어 계몽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독립 협회를 조직하여 자주독립과 근대적 민권을 강조하였다. 근대적인 대중 집회인 만민 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간섭을 규탄하고 자유 민권 의식을 확산시켰다.

국권 수호를 위한 노력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인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러·일 전쟁 중에는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였다.

이후 일제의 침탈에 저항하는 항일 운동이 각계각층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의병을 조직하여 무력으로 일제에 저항하기도 하고, 안중근 등 의열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등장하였다. 또 신민회와 같은 각종 단체를 만들어 교육과 산업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 자주적인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애국 계몽 운동)도 나타났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저항을 폭압적으로 진압하였다.

한편 일제는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여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 제국의 군대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강제 병합하여 식민지로 삼았다.

곤룡포를 입은 고종

고종이 대한 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환구단

1896 독립 협회 조직

1897 대한 제국 수립 선포

『독립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발행 신문으로, 한글판과 영문판이 함께 발간되었다.

활동 해보자 독도 홍보 노래 만들기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할 것.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칙령 제41호』가 실린 대한 제국 『관보』

- 『관보』, 1900. 10. 27. -

1900년 대한 제국이 석도(독도)를 우리 영토로 관할할 것을 분명히 한 칙령이다. 일본은 이제까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를 통해 일본이 '주인 없는 땅 독도를 먼저 점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00년 대한 제국 칙령으로 그 이전부터 석도(독도)를 대한 제국의 영토로 관할한 것이 분명해지자, 최근에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 군함의 격침 모습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을사늑약(풍자화) 일본군이 칼로 고종 황제를 위협하는 모습과 을사늑약에 찬성한 을사오적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1898 관민 공동회

1904 러·일 전쟁 발발

1905 을사늑약 체결

1907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 강제 퇴위, 군대 해산

1909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처단

1910 일본, 한국 병합

관민 공동회(민족 기록화) 1898년 독립협회는 정부 대신까지 참여한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자주독립을 주장하였다.

항일 의병 운동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후 다양한 계층이 의병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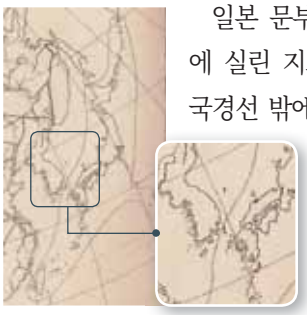
모둠 활동

일본 「태정관 지령」

일본 「태정관 지령」(1877)

일본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이 1877년에 내린 지령이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유념하라.'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당시 일본 메이지 정부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자교과용지도 외국지부 상」



「여자교과용지도 외국지부 상」(1903)

일본 문부성의 검정 교과서에 실린 지도로, 독도가 일본 국경선 밖에 있다.

1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자.

2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노래 가사를 바꾸어 만들어 보자.

❸ 일제에 맞서 민족 운동을 전개하다

학습 목표 |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선 다양한 민족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대한 제국을 병합한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 경찰을 이용하여 강압적인 통치를 하였다. 「조선 태형령」을 공포하여 한국인에게 태형을 가하였고, 식민 교육을 통해 일왕에 대한 충성심을 주입하였다.

이에 맞서 우리 민족은 1919년 3·1 운동을 일으켜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그리고 통일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는 민족적 열망 속에 민족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민족 운동의 전개

3·1 운동 이후 우리 민족은 물산 장려 운동을 통해 민족 기업을 양성하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등 민족의 실력을 키워 독립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김원봉 등은 의열단을 조직하여 의거 활동을 하였고,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일제는 친일파를 양성하는 등 민족 분열을 꾀하였으나, 민족 운동가들은 이념과 계층을 초월한 협동 전선 단체로 신간회를 조직하여 민족 운동의 단결을 도모하였다. 학생들도 광주 학생 항일 운동과 같은 대규모 시위를 벌여 일제에 저항하였다.

한편 만주와 연해주 등지의 독립군은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두는 등 무장 투쟁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910년대 교사와 학생 일제는 교사에게도 군복과 비슷한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였다.

의열단을 조직한 김원봉 의열단은 일본 요인 암살, 식민 통치 기관에 폭탄 투척 등의 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

무단 통치 일제는 헌병 경찰을 앞세워 강압적으로 한국을 통치하였다.

1919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의열단 조직

유관순 학생의 신분으로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은 일제의 참혹한 고문으로 순국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지도자(밀랍 인형)

탐구 해보자

국내에서 전개된 다양한 민족 운동

자료를 보고 국내에서 전개된 다양한 민족 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1 3·1 운동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 「기미 독립 선언서」 -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민족 자결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민족 대표 33인이 작성한 선언서이다.

일제는 3·1 운동 이후 식민 통치 방식을 기만적인 '문화 통치'로 바꾸고 민족 운동의 분열을 꾀하였어.

3·1 운동 이후 우리 민족은 실력 양성 운동, 무장 투쟁, 사회주의 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제에 맞섰어.

경성 방직 주식회사의 토산품 애용 선전 광고 물산 장려 운동은 자급자족, 토산품 애용 등을 통해 민족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농촌 계몽 활동을 내세운 브나로드 운동 포스터

1923 물산 장려 운동 1926 6·10 만세 운동 1931 브나로드 운동 1932 윤봉길, 흥커우 공원 의거

'문화 통치' 일제는 친일파를 양성하여 우리 민족을 회유하였다.

1920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북로 군정서

1927 신간회 창립

신간회 3대 강령
-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구함.
-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신간회 창립 일제와 타협을 거부하고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하여 신간회를 창립하였다.

1929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원산 총파업

평양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인 고무 공장 여성 노동자 강주룡(1931)

자료 2 물산 장려 운동

내 살림 내 것으로! / 보아라!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이 / 거의 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 /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 조선 사람, 조선 것

- 「조선 물산 장려회 궐기문」 -

일본 상품 유입과 일본 기업의 진출에 맞서 1920년대 초반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되었다. 물산 장려 운동은 자급자족, 토산품 애용 등을 통해 민족 기업을 육성하려는 경제적 독립운동이었다.

자료 3 광주 학생 항일 운동

학생 대중아 궐기하자
검거자를 즉시 석방하라
교내에 경찰권 침입을 절대 반대하자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확립하라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격문」 -

1929년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전국적인 반일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민족 차별 철폐와 식민 교육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1 자료 1, 자료 3이 발표된 민족 운동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해 보자.

2 자료 2에서 주장한 내용과 그 의도를 말해 보자.

❹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

학습 목표 |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독립을 위한 노력

1930년대 중반부터 일제는 신사 참배, 황국 신민 서사 암송, 일본식 성명 사용 등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민족을 일제의 침략 전쟁에 동원하고자 하였다.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력을 수탈하고 쌀과 금속 등의 물자를 수탈하였다. 그리고 징용·징병뿐만 아니라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중·일 전쟁 이후 중국 관내에서는 조선 의용대와 한국 광복군이 항일전에서 활약하였다.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일본에 선전 포고하고 한국 광복군을 참전시켰다. 국내에서는 조선어 학회 등이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1945년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였다.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8·15 광복 이후 연합국은 우리나라를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할하고,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점령 통치를 하였다.

이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결정하였는데,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좌익과 우익 세력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좌우 합작 운동이 추진되었고 김구 등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전개하였다. 결국 유엔이 결정한 남한 단독 선거에 의해 제헌 국회가 수립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38도선 이북에서도 김일성을 수상으로 북한 정권이 수립되어 한반도는 분단되고 말았다.

신사 참배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금속류 공출

1931 만주 사변 — 1937 중·일 전쟁 — 1941 태평양 전쟁

민족 말살 통치

조선어 학회 조직

1940 한국 광복군 창설

조선어 학회의 조선말 『큰사전』 원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의 한국 광복군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도와 미얀마에 파견되어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활동 해보자 새 국가 건설을 위한 선거 공약 만들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해 보자.

활동 방법

① 다음 활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 8·15 광복 직후 대통령 출마 공약 만들기
- 8·15 광복 직후 대중 앞에서의 연설문 작성하기

② 오른쪽 참고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세부적인 정치·사회적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정치·경제 등 부문별 공약을 만들거나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연설문을 작성한다.

카이로 선언 미·영·중 정상들이 카이로에 모여 우리 민족의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하였다.

미·소, 38도선 분할 점령 미군과 소련군은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점령하였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

1943 카이로 선언

1945 8·15 광복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1948 제주 4·3 사건

5·10 총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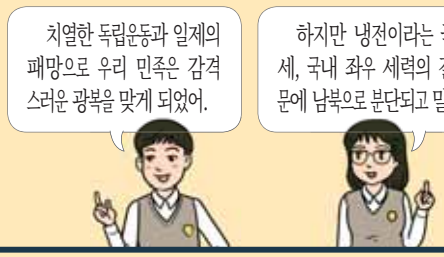
대한민국 정부 수립

광복의 기쁨에 환호하는 사람들 8·15 광복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이 광복의 기쁨에 환호하고 있다.

우익 세력의 신탁 통치 반대 시위

좌익 세력의 3상 결정 지지

제주도의 불탄 마을 남한 단독 선거에 저항하여 좌익 세력과 일부 제주도민이 봉기하였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개별 활동

참고 자료 8·15 광복 직후의 상황

광복 직후 일제 식민 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자주적이고 근대적인 통일 국가를 수립하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분단되었고, 좌익과 우익의 이념 대립은 점점 격화되었다.

수많은 정치 세력과 정당, 단체가 각각의 목소리를 키웠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할 구심점은 보이지 않았다. 친미·친소 인사들, 자본주의자,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등등 각자의 생각과 사상이 달랐고 지향하는 국가의 모습도 달랐다. 미국과 소련도 자기 나라의 이익을 앞세웠다. 한편 일제 치하에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 요구도 높았고,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민들의 토지 개혁 요구도 컸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가 나선다.

부문	공약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활동 해보자

국민 국가 수립 과정을 보여 주는 연표 완성하기

활동 방법

① 국민 국가 수립 과정에서 나타났던 역사적 사실을 초성을 참고하여 연표를 완성한다.

② (가), (나)에 해당하는 말풍선의 내용을 작성한다.

ㄱㅇㄷ 조약 체결

조선은 일본에 문호를 개방하여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였다.

1876년

ㄱㅅㅈㅂ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
토지와 관련된 조세 제도를 개혁한다.

1884년

외세를 몰아내자.
탐관오리를 징벌하라.
세금을 마구 걷지 말라.

1894년

ㄷㅎㅇㄷ

농민군은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1948년

ㄷㅎㅁㄱ ㅈㅂ 수립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1948년

ㄱㄱ의 평양 방문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여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ㄱㅈ ㅎㅅ ㅎㅇ ㅇㄷ

광주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시작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929년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실시하라. 민족 차별 철폐하라.

ㅎㄱ ㄱㅂㄱ 창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의 독립군 부대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1940년

8·15 광복

(나)

1945년

대한 제국 조직

청의 사절단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건립하여 독립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1896년

1899년

대한국 국제의 대한국 국제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누린다.

대한국 국제는 헌법과 같은 것으로, 황제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였다.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은 헤이그에 이상설 등 3명의 특사를 보냈으나, 일제의 방해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1907년

국권 피탈

1910년

대한 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다.

1920년대에 세워진 조선 총독부 건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상하이에 있었던 정부 청사

1919년

3·1 운동

3·1 운동은 이념과 계층의 차이를 넘어 전개된 전 민족적인 항일 운동이었다.

청산리 대첩

김좌진이 이끈 북로 군정서는 만주와 연해주의 여러 독립군 부대와 연합하여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1920년

02 자본주의와 사회 변화

① 개항으로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되다

학습 목표 | 개항 이후 경제적 변화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개항 이후 경제 상황

일본에 개항한 이후 조선은 서양 각국과도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일본과 청, 서구 열강의 경제 침략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되고 일본으로 쌀과 콩 등이 많이 유출되어 국내 곡물 가격이 폭등하였다. 또 면직물의 유입으로 국내 수공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청 상인과 일본 상인은 내륙으로 진출하여 조선의 상권을 경쟁적으로 침탈하였다. 일본은 러·일 전쟁 이후 화폐 발행권을 차지하고 대한 제국 정부의 재정을 예속화하였다.

근대 경제 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

개항 이후 열강은 철도·광산·삼림 등의 이권을 빼앗아 갔고, 이에 맞서 조선의 각계각층 사람들은 경제적 구국 운동을 벌였다. 대한 제국은 산업을 육성하고 재정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계몽 운동가는 열강의 경제 침략에 맞서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적 실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국민은 대한 제국이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국채 보상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열강의 침략과 간섭으로 한국의 자주적인 근대 경제 체제 수립은 어려워졌다.

경인선 개통(1899)

열강의 경제 침탈

개항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

탐구 해보자

경제적 구국 운동

열강의 경제 침탈에 맞서 우리 민족이 전개한 다양한 경제적 구국 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1 러시아의 영토 침탈에 대한 저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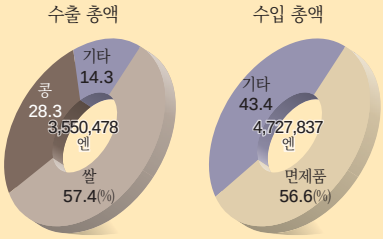
현재 러시아가 우리 대한을 향하여 절영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신하된 자가 만약 조그마한 땅이라도 타국인에게 주면 이는 황제 폐하의 역신이며 역대 임금의 죄인이며 우리 대한 2천만 동포 형제의 원수입니다.

- 정교, 『대한계년사』 -

자료 2 상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

외국인이 각지에 점포를 열어 장사를 하고 땅을 사들이면 대한 인민의 상권이 외국인에게 모두 돌아간다. 우리나라 각 부 각 군 지방에 잡거하는 외국 상인을 모두 엄금하여 대한 인민의 상업을 크게 일어나게 해 달라.

- 『독립신문』, 1898. 10. 18. -



개항 이후 대일 수출입 상품의 품목별 비율(1890)

(오이시, 『일본 산업 혁명의 연구』)

한반도는 점차 일본의 식량과 원료 공급지, 공산품 시장이 되었다.

일본 제일 은행권 지폐

일제는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여 일본의 제일 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사용하게 하였다.

조선은 개항 이후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편입되면서 자주적이고 근대적인 경제 체제를 수립해야 할 과제를 갖게 되었어.

그래서 열강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좌절되고, 일본에 의해 식민지 경제 체제가 구축되고 말았지.

경제적 구국 운동

한성 은행 1897년에 설립된 근대적 은행이다.

국채 보상금 모집 금액표

1907년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국채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자료 3 회사 설립을 통한 산업 발전

요즈음 서양 제국에서는 모두 회사를 설립하여 상인들을 부르고 있는데, 실로 부강의 기초라 하겠다. 회사란 여러 사람이 자본을 합하여 농공, 상공의 사무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겨 운영하는 것이다. 또 정부에서 그 사업을 장려하여 날로 발전하게 해야 한다.

- 『한성순보』, 1883. 11. 20. -

자료 4 정부의 빚을 갚기 위한 모금 운동

지금은 우리들이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300만 원은 바로 우리나라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라. 갚아 버리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 2천만 인이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이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 『대한매일신보』, 1907. 2. 21. -

1 자료 1 ~ 자료 4 주장이 제기된 배경을 써 보자.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4	

2 자료 1 ~ 자료 4 주장의 내용을 잘 보여 주는 구호를 만들어 보자.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4	

❷ 식민지 경제 체제로 재편되다

학습 목표 | 일제의 식민지 경제 수탈 정책을 시기별로 설명할 수 있다.

식민지 수탈 경제 체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일제는 조선을 식량 및 원료 공급지이자 일본 상품의 판매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식민지 경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철도와 도로, 항구와 같은 시설도 일제가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수탈하고 대륙을 침략하는 데 이용되었다.

1910년대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많은 토지를 조선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또 「회사령」을 공포하여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1920년 「회사령」이 폐지된 후에는 일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진출하였다. 한편 일제는 1920년대에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여 부족한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병참 기지화 정책의 추진

일제는 1929년 대공황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후 공산품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양 사육과 면화 재배를 강요하였다(남면북양 정책).

만주 사변과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침략 전쟁을 위해 한반도를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기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한국인을 값싼 임금으로 부리고 자원을 수탈하였으며, 일제의 수탈에 저항한 한국인의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을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수탈로 한국은 자주적 근대화의 가능성이 낮아졌고, 대다수 한국인은 식민지 경제 체제에서 생존을 위협받으며 경제적으로 몰락해 갔다.

일제가 각지에 만든 신작로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

일제가 부설한 간선 철도망

1910 년대

토지 조사 사업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등을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토지 조사령」 -

일제는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통해 국유지 등 많은 토지를 조선 총독부의 소유로 만들었다.

토지 측량 모습

탐구 해보자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의 특징과 그 영향 등을 알아보자.

자료 1 일제는 1910년 [(가)]을 공포하여 한국인의 기업 활동과 민족 자본의 육성을 어렵게 하였다.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혹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한다.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

전라북도 동진 수리 조합이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건설하고 있는 운암제 일제는 수탈을 위한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한반도 각 지역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쌓아 놓은 인천항의 쌀

일제는 자원과 노동력을 수탈하고 한반도를 그들의 식량과 공업 원료의 공급지이자 상품 판매 시장으로 만드는 식민지 경제 정책을 실시하였어.

1930년대

병참 기지화 정책

남면북양 정책 일제는 한반도 남쪽에서 면화, 북쪽에서 양을 기르게 하여 일본 기업의 원료를 공급하게 하였다.

흥남 조선 질소 비료 공장

철도, 항만, 도로 역시 우리 민족의 편의보다는 일제의 경제적 필요에 맞게 건설되어 운영되었어. 그래서 일제 수탈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지.

자료 2 1920년대 [(나)] 때문에 일본으로 유출되는 쌀의 양이 늘어나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 하락하였다. 또 부족한 식량은 만주에서 들여온 잡곡으로 충당하였다.

올해도 쌀농사가 풍년인데 왜 우리는 잡곡만 먹는 거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일본 놈들만 좋으라고 쌀농사 짓는 거지.

자료 3 1930년대 이후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중화학 공업과 광업 같은 군수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다)]을 전개하였다.

전쟁 물자만 만드느라 정작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해서 큰일이네.

전쟁 물자도 물자지만, 임금도 일본 사람의 반절밖에 안 주고……. 이런 차별과 노동 착취가 어디 있는가?

1 자료 1 ~ 자료 3 의 (가) ~ (다)에 들어갈 식민지 경제 정책의 명칭을 각각 써 보자.

2 자료 1 ~ 자료 3 의 경제 정책이 추진된 이후 나타난 결과를 말해 보자.

❸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다

학습 목표 |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특징과 의의, 이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설명할 수 있다.

6·25 전쟁의 피해와 원조 경제

8·15 광복 이후 식민지 경제 체제를 극복하고 자주적 근대 경제 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과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인이 소유했던 농지와 산업 시설이 민간에 매각되었다. 또한 6·25 전쟁 전부터 시작된 농지 개혁으로 지주 계급이 소멸하고 많은 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어 국민은 식량난과 물자 부족, 실업 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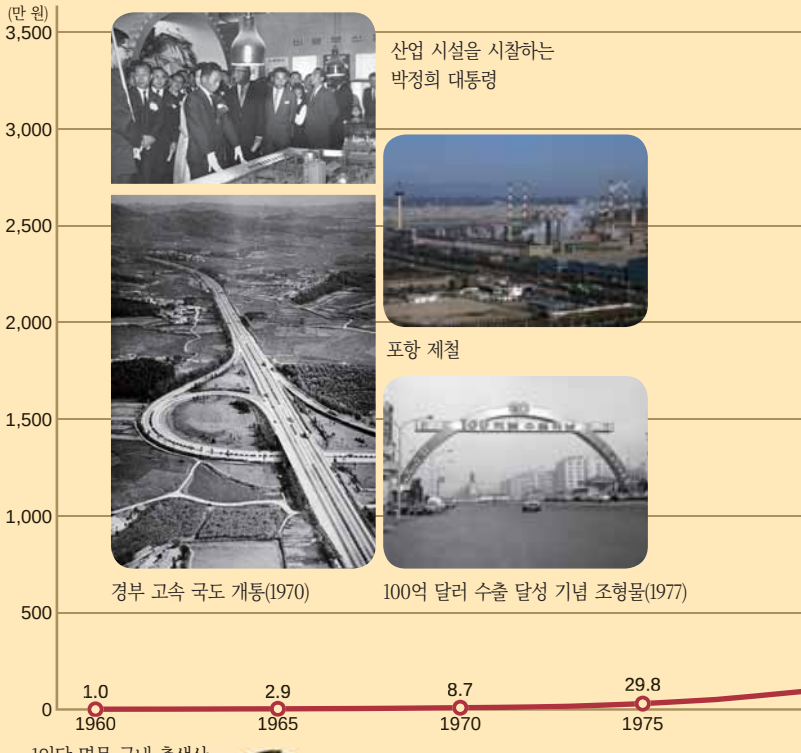
미국에서 보낸 밀가루 구호 포대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경제 지원에 의존하여 전후 복구 사업을 전개하였다. 미국이 무상으로 원조한 농산물과 면화, 설탕 등이 소비재 산업의 발달에 도움을 주었으나,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졌다.

급속한 경제 성장

1960년대 들어와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수출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60년대에 섬유, 식품 등의 소비재 산업이 발전하였다.

1970년대에는 철강, 기계, 조선업 등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 개발이 추진되어 수출이 크게 늘고 국민 소득도 높아졌다. 198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지.

활동 해보자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에 대해 토론하기

대한민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으로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위상도 높아졌다. 그러나 노동 문제나 농촌 문제 등의 사회 문제도 나타났다.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에 대해 토론해 보자.

활동 방법

① 3 ~ 5명씩 한 모둠을 편성한다.

② 모둠별로 1960 ~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모습과 그 특징을 찾아본다.

③ 당시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 사진, 신문 기사, 인물 등 토론을 위한 자료를 조사한다.

③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갖는 긍정적 의미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각각 정리한다.

④ 두 모둠이 각각 경제 성장의 긍정적 입장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통계청, 2018)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지나친 정부의 개입, 노동 문제, 수출 의존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어.

모둠 활동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이러한 말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입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나라를 지금과 같은 선진국으로 만든 것은 당시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던 노동자들이 경제 성장의 주역입니다. 경제 성장의 공을 국가에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진국과 달리 국가가 경제 개발 정책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으로 민간 차원의 자발적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정경 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요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 입장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

❹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추진되다

학습 목표 |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추진

1970년대에 등장한 신자유주의로 인해 세계 경제 질서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개방과 세계화의 움직임 속에 국가 간의 경제적·사회적 장벽이 낮아졌다. 1980년대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시장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세계 경제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결국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를 겪으며 국제 통화 기금(IMF)으로부터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받았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금융 등의 개혁과 구조 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부각되었다.

노동 운동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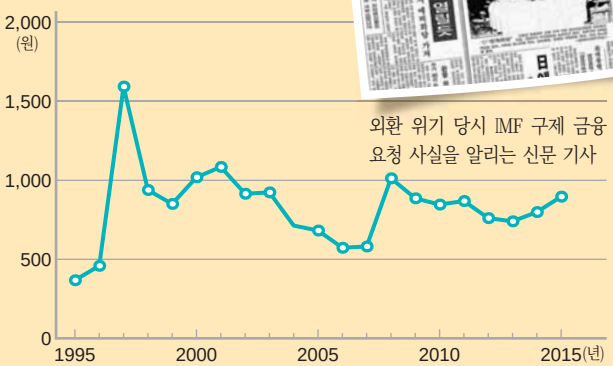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 조건이 있었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 이후 본격화된 노동 운동은 1980년대 후반부터 많은 기업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추진되면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급증하였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청년 고용 문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갈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외환 위기

농산물 개방 반대 시위

외환 위기 당시 IMF 구제 금융 요청 사실을 알리는 신문 기사



원·달러 환율 추이 (통계청, 2018)

탐구 해보자

신문 기사로 보는 외환 위기

신문 기사를 통해 외환 위기 당시의 사회 모습, 영향, 결과 등을 알아보자.

>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는가 하면 시중 실세 금리가 치솟으면서 금융 시장 공황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주식 시장에서는 환율 급등에 따른 불안 심리와 홍콩,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폭락으로 종합 주가 지수가 사상 최대치인 38.24포인트 폭락한 515.63으로 마감됐다. …… 서울 외환 시장에서도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매매 기준율보다 0.20원 높은 975원으로 시작돼 오전 10시 980원까지 치솟았으며 이후 계속 979원대로 맴돌다 997.90원으로 마감됐다.
>
> - 「연합뉴스」, 1997. 11. 7. -

사회적 양극화와 고용 문제

고층 아파트와 판자촌

지하철역에서 사고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는 모습

(박상준 외, 『한국과 일본의 청년 실업 비교 분석 및 시사점』, 2018)

한국 청년의 실업률 추이

노동 운동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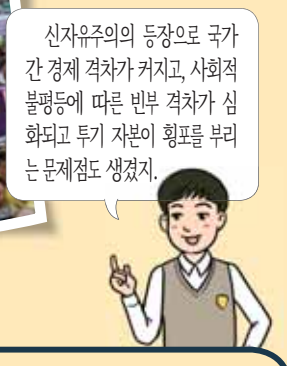
저희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 시간을 단축하여 10 ~ 12시간으로, 그리고 1개월의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원합니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 % 이상 인상해 주십시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 대통령에게 보내려 했던 탄원서, 1970 -

한국 사회 노동 문제를 제기하며 분신한 전태일 동상

노동자 대투쟁(1987)

외국인 노동자 시위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외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IMF)에 2백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 정부는 IMF의 유동성 조절 자금(STAND - BY CREDIT) 55억 달러 외에 미국, 일본 등의 협조 융자를 통해 나머지 145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는다는 방침이다.

- 『연합뉴스』, 1997. 11. 22. -

○○ 기업이 최근 사내 임직원 154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단어를 조사한 결과 IMF가 19 %로 1위를 차지 …… 임금 삭감, 임금 동결 등 임금과 관련한 용어가 18 %로 2위, 감원과 해고 등 고용과 관련한 단어가 12 %로 3위를 각각 기록,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대한 불안 심리를 그대로 반영했다.

- 『연합뉴스』, 1997. 12. 27. -

1 외환 위기 당시 사회 모습을 찾아 정리해 보자.

2 외환 위기 이후 사람들의 의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말해 보자.

5 대중문화가 발전하다

학습 목표 |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발전 모습을 시기별·분야별로 설명할 수 있다.

서구 문화의 수용과 대중문화의 발달

8·15 광복 이후 미국을 통해 서구 문화가 급속히 유입되면서 서구 문화와 전통문화 사이에 혼란이 생기기도 하였다. 1960년대부터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요, 영화, 소설, 스포츠 분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다. 당시 잡지, 신문,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대중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매체였다.

가요나 영화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였다. 1970~80년대에는 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계층의 생활,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등이 대중문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당시 정부는 대중 매체를 장악하고 언론·문화·예술 활동을 통제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가요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SNS)의 발전은 대중문화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하였다.

스포츠와 문화 교류의 확대

경제가 성장하고 건강과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야구나 축구 등의 프로 스포츠 확산, 아시안 게임,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제 대회의 유치는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활약하였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문화적 역량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영화, 텔레비전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대중가요, 한식 등이 전 세계에 유행하여 한류 열풍이 일어났다.

1970년대
극장에서 상영된 정부 정책 홍보 뉴스

1980년대
프로야구 원년 개막식 경제 성장에 따라 프로 스포츠도 발전하였다.

활동 해보자 시대별 대표 노래 선정하기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역사와 시대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노래를 찾아보자.

활동 방법

① 모둠을 편성하여 모둠별로 1940년대 이후부터 201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시기를 선정한다.

② 각 모둠은 각종 자료를 검색하고 토의를 거쳐 각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대중가요를 선정한다.
(대중가요 대신 영화나 소설, 드라마 등을 소재로 삼아 활동할 수 있다.)

③ 선정한 대중가요의 가사, 가사에 담긴 의미, 당시 시대상을 조사하여 서술한다.

④ 모둠별 발표를 통해 선정한 대중가요를 설명한다.

⑤ 선정한 대중가요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1990년대

대중문화의 발달 1990년대 이후 대중가요를 비롯한 여러 대중문화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2000년대

한·일 월드컵 개최 1980년대 이후부터 많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였다.

2010년대

한류의 확산 우리 대중가요는 2000년대 이후 케이팝(K-Pop)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확산될 만큼 발전하였다.

모둠 활동

- 연대: 1990년대
- 노래 제목: 교실 이데아
- 작사 / 작곡 / 가수: 서태지와 아이들
- 가사: 됐어(됐어) 이제 됐어(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족해(족해) 이젠 족해(족해)
  내 사투로 내가 늘어놓을래
  매일 아침 일곱 시 삼십 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구백만의 아이들의 머리 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 가사가 의미하는 내용: 입시 경쟁과 주입식 교육으로 대변되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당시 청소년의 입장에서 표현하였다. 가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듬과 현란한 춤으로 표현하여 청소년의 열렬한 공감을 이끌어 냈다.
- 노래가 만들어질 당시 사회 분위기: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자 다양한 분야에서 각계각층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교육에서도 교사, 학생 등이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 ♬ 노래 들어보기

- 연대:
- 노래 제목 :
- 작사 / 작곡 / 가수:
- 가사:
- 가사가 의미하는 내용:
- 노래가 만들어질 당시 사회 분위기:
- ♬ 노래 들어보기

03 민주주의의 발전

1 제헌 헌법, 민주주의를 지향하다

학습 목표 |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과 제헌 헌법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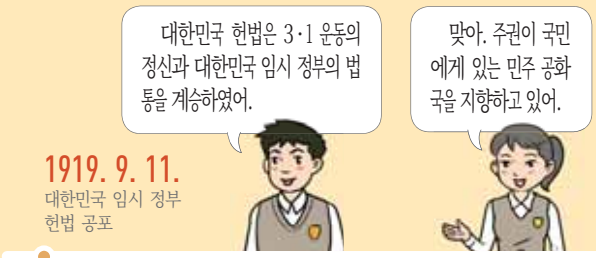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의 공포

3·1 운동 이후 국내외에 수립된 여러 임시 정부를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 의정원이 이전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개정하고 임시 정부 헌법을 제정하였다. 1919년 9월, 국무원이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을 공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은 주권 재민과 삼권 분립의 민주 공화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제헌 헌법의 공포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국회 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21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 남녀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최초의 보통 선거였다. 이때 198명의 국회 의원이 당선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는 곧바로 헌법을 제정하는 일에 착수하였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였다.

제헌 헌법은 민주 공화국을 지향하고, 주권 재민과 삼권 분립,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바탕에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회 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임시 의정원 의원들 임시 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입법 기관으로, 오늘날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탐구 해보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과 제헌 헌법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과 제헌 헌법이 공통으로 지향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 보자.

자료 1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1차 개헌, 1919. 9.)

㉠아 대한인민은 아 국이 독립국임과 아 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언하엿도다.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엿으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엿도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야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야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야 …… 정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보장이 되게 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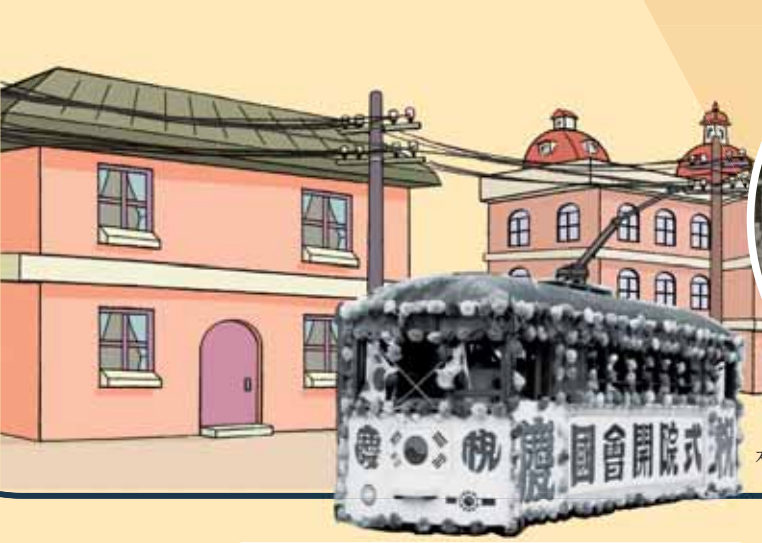
제1장 총령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재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1948. 5. 10.
5·10 총선거

5·10 총선거 투표소에 서 있는 사람들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원칙 아래 진행된 총선거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 선거로, 95.5%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1948. 5. 31.
제헌 국회 개원식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헌 국회 개원식 축하 문구로 꾸며진 전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

자료 2 제헌 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1 자료 1에 기미 독립 선언문의 내용인 ㉠을 옮겨 놓은 이유와 자료 2에서 ㉡을 통해 알 수 있는 의미를 이야기해 보자.

2 자료 1, 자료 2에서 '공화정'과 '주권 재민'의 원칙이 구현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3 위의 활동을 기반으로 아래 빈칸을 채우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과 제헌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 체제에 대해 발표해 보자.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이 □□□□ □□ □□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❷ 4·19 혁명, 민주주의의 씨를 뿌리다

학습 목표 |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에 맞선 4·19 혁명의 전개 과정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이승만 정부는 여러 차례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였다. 제2대 국회 의원 선거 결과 간접 선거로는 대통령에 재선될 확률이 희박해지자,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통과시켰다(발췌 개헌).

이후 당시 대통령에 한하여 횟수 제한 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였다(사사오입 개헌). 나아가 이승만 정부는 자유당의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3·15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1960).

4·19 혁명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국민 시위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진압하였다. 4월 11일, 시위 과정에서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자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4월 19일, 경찰이 학생과 시민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이후 대학교수들까지 나서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하였다. 결국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4·19 혁명). 이로써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장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되찾았다.

4·19 혁명 이후 민주당이 집권하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다. 장면 내각은 내각 책임제를 바탕으로 독재 청산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발췌 개헌 6·25 전쟁 중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강압적 방법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1952. 7. 7. 발췌 개헌

1954. 11. 29. 사사오입 개헌

사사오입 개헌안의 통과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 이승만 정부는 부결된 개헌안을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인원을 사사오입(반올림)의 논리를 적용하여 통과시켰다.

활동 해보자 4·19 혁명 관련 글쓰기

자료를 읽고 글쓰기 활동을 해 보자.

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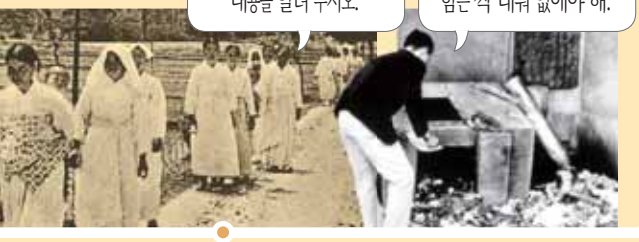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을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 지금 저의 모든 친구,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 저희 모든 학우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 한성여중 2학년 진영숙 학생의 마지막 편지 -

자료 2 나는 알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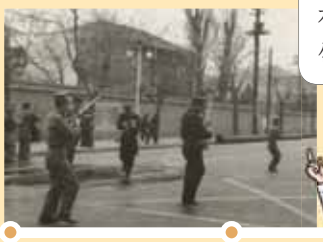
아침 하늘이 밝아 오면 달음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놀이 사라질 때면 탕 탕 탕 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놀을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오빠와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 수송 국민학교 강명희 학생의 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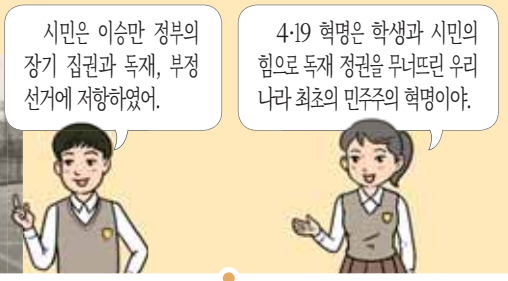


1960. 3. 15.
3·15 부정 선거

시위대에 발포하는 경찰



1960. 4. 19.



1960. 4. 25.
대학교수단의 시위

1960. 4. 26.
이승만 하야

3·15 부정 선거 무효를 외치는 마산 학생

대학교수단의 시위

이승만 하야 소식에 환호하는 시민

개별 활동

1 자료 1을 읽고 4·19 혁명 당시 시위에 참여한 학생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야기해 보자.

2 자료 2의 시를 통해 4·19 혁명 당시 상황을 파악해 보자.

3 자료 1, 자료 2를 바탕으로 4·19 혁명에 참여한 당시 중학생이 되어 시 또는 일기, 편지 등의 글을 써 보자.

제목: _____

이름: _____

❸ 민주주의, 시련을 겪다

학습 목표 |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와 유신 체제

1961년 박정희와 일부 군인은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5·16 군사 정변). 이후 새 헌법에 따라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박정희는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구실로 대통령 3선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였다.

1972년 박정희 정부는 10월 유신을 단행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 헌법을 공포하였다. 유신 헌법은 긴급 조치권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양심적 지식인, 학생, 종교인은 이에 저항하여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1979년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나자, 이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박정희가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가 막을 내렸다(10·26 사태).

신군부의 등장과 5·18 민주화 운동

10·26 사태 이후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병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12·12 사태). 시민이 신군부의 퇴진을 외치며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자,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계엄 철회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신군부는 계엄군을 투입하여 이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광주 시민은 시민군을 결성하여 계엄군에 맞섰으나,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헌법을 고쳐 간접 선거로 7년 단임의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었다.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 아래 박정희 정부는 헌법의 비방·개정과 폐지 주장 금지, 학생들의 정치 참여 활동 금지 등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약하였다. 그리고 긴급 조치를 발표하여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5·16 군사 정변(1961)

유신 헌법 공포(1972)

유신 체제 반대 운동

각계각층에서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부·마 민주 항쟁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개되었다.

활동 해보자

5·18 민주화 운동으로 웹툰 그리기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을 바탕으로 웹툰을 그려 보자.

활동 방법

① 4명씩 한 모둠을 구성한다.

② 토의를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참고 누리집]
- 5·18 기념 재단(http://www.518.org)
-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http://www.518archives.go.kr/)

③ 주제에 맞는 스토리를 작성한다.

④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리에 맞춰 웹툰을 구성한다.

⑤ 완성된 웹툰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신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유신 체제가 무너진 후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또 한번 시련을 겪었다.

광주 금남로로 출동하는 계엄군

학생을 구타하는 계엄군

5·18 민주화 운동은 이후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끼쳤어.

5·18 민주화 운동(1980)

광주 시민은 시민군을 결성하여 계엄군에 맞섰고, 자치 공동체를 만들어 질서를 유지하였다.

금남로 시위

헌혈하는 광주 시민

1997년, 재판부는 12·12 사태와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신군부의 행동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였어.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 진압한 혐의로 재판받는 노태우와 전두환

모둠 활동

[제목]

1

2

3

4

4 민주주의를 꽃피우다

학습 목표 |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가 발전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6월 민주 항쟁

전두환 정부는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뉴스를 사전 검열하는 등 언론을 장악하여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1987년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은 진상 규명 및 정권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전개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개헌을 거부하고 시위를 탄압하였으나,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6월 민주 항쟁).

결국 당시 대통령 후보이자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대통령 5년 단임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한 개헌안이 통과되고, 새 헌법에 따라 국민 투표를 거쳐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정부가 평화적으로 교체되었다.

6·29 민주화 선언을 보도한 호외

다양한 가치를 포괄한 민주주의의 발전

6월 민주 항쟁으로 군부 독재 정권이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인권 의식이 확산되고 다양한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시민운동은 노동과 인권뿐만 아니라 여성, 환경, 경제,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국가와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해결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고 있다.

6월 민주 항쟁

노태우 정부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였으며, 북방 외교에 힘썼다.

활동 해보자 시민 단체 소개하기

자료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시민 단체란 일반 시민이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스스로 모여 활동하는 단체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단체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바른 정치를 이루기 위한 정치 관련 시민 단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관련 시민 단체, 국가 복지 정책을 감시하는 복지 관련 시민 단체, 여성이나 청소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 단체 등이 대표적이다.

활동 방법

① 4명씩 한 모둠을 구성한다.

② 토의를 통해 소개할 시민 단체의 분야를 선택한다.

정치, 환경, 복지, 여성, 청소년, 인권, 사회적 약자 등

③ 해당 분야와 관련된 시민 단체를 조사한다.

④ 조사한 시민 단체 중 소개하고 싶은 단체를 선택한다.

⑤ 선택한 시민 단체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한다.

⑥ 시민 단체 소개집을 완성하고 친구들과 공유한다.

김영삼 정부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금융 실명제와 같은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외환 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다.

김대중 정부

국제 통화 기금(IMF)으로부터 지원받은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고,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등을 국정 목표로 삼고, 정경 유착 단절과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명박 정부

신 발전 체제 구축의 국정 목표 아래 활발한 시장 경제 성장을 추진하였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실시하였다.

박근혜 정부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을 국정 목표로 삼았으나,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탄핵되었다.

문재인 정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 지표로 삼고 출범하였다.

6·29 민주화 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모둠 활동

❶ 자료를 읽고 시민 단체의 개념과 활동을 정리해 보자.

개념	
활동	

❷ 모둠별로 시민 단체를 소개하는 글을 써 보자.

1. 선택 분야:
2. 시민 단체 명:
3. 누리집 주소:
4. 언제, 왜 만들어졌을까?

5. 이 시민 단체의 주요 활동은?

<활동 사진>

04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1 6·25 전쟁으로 분단이 고착되다

학습 목표 |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전쟁이 끼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6·25 전쟁의 발발

38도선은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임시로 그은 경계선이었다. 그러나 남북이 각각 다른 정부를 수립하면서 38도선을 사이에 놓고 대립이 격화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선전 포고도 없이 남한을 기습 침공하였다.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고 낙동강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여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하지만 중국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전쟁은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지속되다가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며 중단되었다.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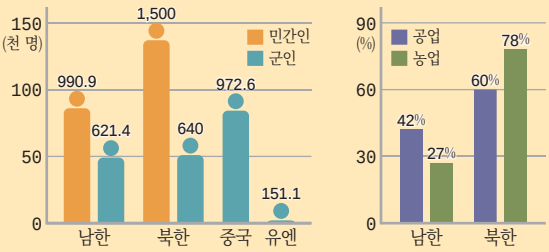
6·25 전쟁은 냉전 시대에 나타난 국제 전쟁으로, 정신적·물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기나긴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대부분의 건물과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다. 또한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죽었으며, 수많은 전쟁고아와 이산가족이 생겼다. 전쟁 이후 남북은 분단 상황을 이용하여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서로에 대한 적대 감정이 커져 휴전선을 두고 분단이 고착되었다.

1950. 6. 25.
북한군 남침. 전쟁 발발

1950. 6. 28.
북한군 서울 점령

1953. 7. 27.
정전 협정 조인

정전 협정서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의 대표가 모여 정전 협정에 서명하였다.



(『통계로 본 6·25 전쟁』, 2014)

6·25 전쟁으로 발생한 사상자 및 산업 파괴율

활동 해보자 6·25 전쟁 관련 UCC 만들기

김성칠의 일기(1950. 6. 28.)

그들(북한군)이 상냥하게 웃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적개심이 우러나지 않는다. …… 어제 본 국군과 이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다르다면 그들의 복장이 약간 이색질 뿐, 왜 그 하나만이 우리 편이고 그 하나는 적으로 돌려야 한단 말이냐. 언제부터 그들 사이에 그렇듯 풀지 못할 원수가 맺히어 총검을 들고 죽음의 마당에서 서로 대하여야 하는 것이냐. 서로 얼싸안고 형이야 아우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그들이 오늘날 누굴 위하여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이냐.

- 김성칠, 『역사 앞에서』 -

1950. 9. 15.
인천 상륙 작전

인천 상륙 작전 유엔군은 9월 15일에 인천에 상륙하고,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였다.

1950. 10.
중국군 개입

6·25 전쟁의 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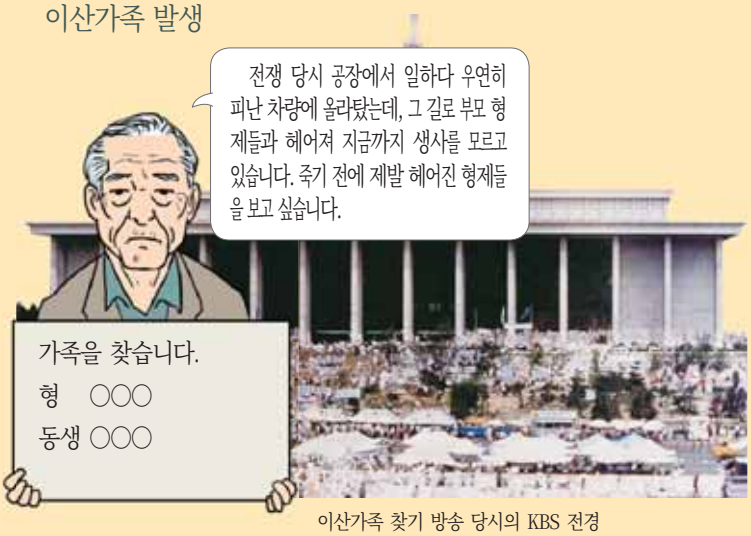
영향

반공 정책 강화

6·25 전쟁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정부는 반공 교육을 강화하고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다. 반공, 멸공, 승공을 내세우며 거리에 반공 포스터와 표어를 붙이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반공을 강조하였다.

반공 포스터

이산가족 발생



이산가족 찾기 방송 당시의 KBS 전경

모둠 활동

위의 연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6·25 전쟁과 관련된 UCC를 만들어 보자.

활동 방법

① 4명씩 한 모둠을 구성한다.

② 자료를 참고하여 6·25 전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③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UCC의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④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UCC를 제작한다.

⑤ 각 모둠이 제작한 UCC를 발표하고 평가한다.

제목: ( )

컷 번호:	컷 번호:
내용	내용
오디오 / 효과	오디오 / 효과

❷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다

학습 목표 |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남북 대화의 시작과 남북 정상 회담

6·25 전쟁 이후 남북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냉전 체제가 완화되자 1970년대 초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고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1991년 남북은 국제 연합(UN)에 동시 가입하였으며,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하였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대북 화해와 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어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한때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기도 하였으나, 남북은 2018년 남북 정상 회담을 연달아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남북은 평화 통일을 위해 다양한 문화·스포츠, 경제 교류 등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남북의 이질감을 줄이고 우리가 하나의 민족임을 일깨우기 위해 한반도기 아래 남북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였으며, 대중문화 교류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개성 공단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제 협력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통일 신문

남북의 통일 노력

1972

7·4 남북 공동 성명(일부)

첫째, 통일은 외세의 의존과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91

남북 기본 합의서(일부)

남과 북은 7·4 남북 공동 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2000

6·15 남북 공동 선언(일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2018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일부)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통일 신문 만들기

남북의 교류

| 경제 교류

소 떼 방북

개성 공단 사업 시작

| 문화·스포츠 교류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행사로 열린 남북 청년 공동 문화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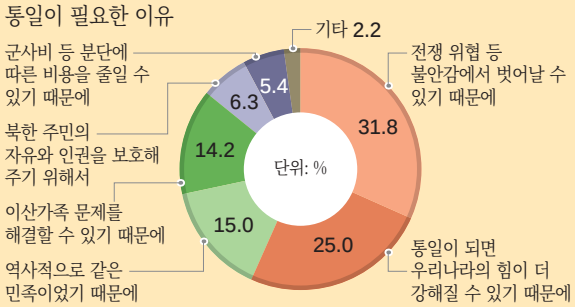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북 카누 단일팀

| 이산가족 상봉

북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열린 단체 상봉 남북한은 간헐적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많은 이산가족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이 생각하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필요한 이유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통일 Q&A]

Q. 제시된 각 선언문이 공통으로 추구하고 있는 통일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Q. 제시된 자료 외에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보여주는 사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

.....

[공모전] 통일 포스터 또는 평화 통일 4행시 만들기

1. 통일 포스터 만들기

2. 평화 통일 4행시 만들기

평	
화	
통	
일	

VI 대단원 마무리

스스로 정리하기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자.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가) 김옥균 등의 개화파가 우정총국에서 정변을 일으키고 새 정부를 구성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 (나)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구식 군인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민중이 봉기하였다.
> (다) 전봉준의 주도로 농민들이 신분제 폐지와 외세 배격 등을 주장하며 전라도 일대에서 봉기하였다.
> (라) 을미사변 직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다.

(1) (가)~(라) 사건의 명칭을 각각 써 보자.

(2) (가)~(라) 사건을 시기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고종은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는 (㉠)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영국 등의 방해로 이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1) ㉠에 들어갈 지명을 써 보자.

(2) 고종이 위의 특사를 파견한 이유를 서술해 보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국채 1,300만 원은 바로 우리나라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라. 값아 버리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 『대한매일신보』, 1907. 2. 21. -

(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민족 운동의 명칭을 써 보자.

(2) 위 민족 운동이 추진된 배경을 서술해 보자.

4 다음 편지가 쓰인 배경을 서술해 보자.

> 저희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 시간을 단축하여 10~12시간으로, 그리고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원합니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 % 이상 인상해 주십시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가) 3·15 부정 선거를 계기로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 (나) 광주에서 계엄 철폐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엄군이 폭압적으로 진압하였다.
> (다) 전두환 정부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1) (가)~(다) 사건의 명칭을 각각 써 보자.

(2) (가)~(다) 사건을 시기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6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를 써 보자.

> • 분단 이후 최초로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하였다.
> •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고 개성 공단을 설치하였다.

역사야 놀자

현대사 사진첩 만들기

광복 이후 현재까지 분야를 나누어 각 시기를 대표하는 사건을 하나씩 선정하여 사진첩을 만들어 보자.

1 단계 모둠을 편성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진첩을 만들 분야를 선택한다. 스포츠, 대중가요 등 더 세부적인 분야를 선정할 수도 있다.

2 단계 1945년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기를 일정한 기간으로 구분한다.

3 단계 토의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시기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을 하나씩 선정한다.

4 단계 선정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정리하고 주요 사진을 선택한다.

5 단계 종이에 사진을 붙인 후 관련 설명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사진첩 예시

현대사의 정치 분야 시기별 주요 사건

시기	사진	설명
1945 ~1959		광복(1945) 일제의 패망과 함께 감격스러운 광복이 찾아왔다.
1960 ~1979		4·19 혁명(1960)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장기 집권에 저항하는 시민이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1980 ~1999		5·18 민주화 운동(1980)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가 집권하자,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2000 ~2018		제1차 남북 정상 회담(2000)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유의 사항

- 내용 선정 시 모둠원 각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상호 의견을 존중한다.
- 모둠원의 역할을 잘 나누어 협동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사건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사진을 고르고, 사건의 설명은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평가 방법

- 시기와 분야를 적절하게 나누었는가?
- 사건이나 인물 등을 선정한 이유가 타당한가?
-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을 적절하게 골랐는가?
- 사건에 대한 설명이 핵심 위주로 정확하게 기술되었는가?

부록

- 정답 길잡이
- 역대 왕조 계보
- 연표
- 찾아보기
- 출처

정답 길잡이

스스로 확인

Ⅰ 선사 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13쪽 ❶ 약 70만 년 전 ❷ 뗀석기
15쪽 ❶ 빗살무늬 토기 ❷ 농경
17쪽 ❶ 비파형
❷ 계급의 발생과 지배층의 등장
20쪽 ❶ 위만 ❷ 8조법
22쪽 ❶ 철 ❷ 부여
25쪽 ❶ 제가 회의 ❷ 민며느리
29쪽 ❶ 마립간 ❷ 금관가야
35쪽 ❶ 불교, 율령 ❷ 지증왕 ❸ 대가야
37쪽 ❶ 진흥왕 ❷ 화랑도
41쪽 ❶ 신분 ❷ 귀족
43쪽 ❶ 돌무지덧널 ❷ 무령왕릉
45쪽 ❶ 서역 ❷ 아스카 문화

Ⅱ 남북국 시대의 전개

56쪽 ❶ 살수 대첩 ❷ 연개소문
59쪽 ❶ 김춘추 ❷ 매소성
60쪽 ❶ 대조영 ❷ 남북국 시대
63쪽 ❶ 문무왕 ❷ 녹읍
65쪽 ❶ 무왕 ❷ 해동성국
69쪽 ❶ 호족 ❷ 선종
71쪽 ❶ 원효 ❷ 독서삼품과
72쪽 ❶ 주자감 ❷ 고구려
73쪽 ❶ 신라방 ❷ 신라도

Ⅲ 고려의 성립과 변천

84쪽 ❶ 혼인 정책, 사성 정책
❷ 노비안검법
88쪽 ❶ 중추원 ❷ 과거제
91쪽 ❶ 서경 ❷ 교정도감
95쪽 ❶ 강동 ❷ 윤관
97쪽 ❶ 강화도 ❷ 김윤후
99쪽 ❶ 정동행성 ❷ 권문세족
101쪽 ❶ 전민변정도감 ❷ 신진 사대부
103쪽 ❶ 양인 ❷ 백정
105쪽 ❶ 의천 ❷ 성리학

Ⅳ 조선의 성립과 발전

116쪽 ❶ 유교 ❷ 경국대전
119쪽 ❶ 의정부 ❷ 과거제
120쪽 ❶ 사대교린 ❷ 명
123쪽 ❶ 사림 ❷ 조광조
125쪽 ❶ 서원, 향약 ❷ 붕당
127쪽 ❶ 국조오례의 ❷ 천인
129쪽 ❶ 훈민정음 ❷ 측우기
134쪽 ❶ 의병 ❷ 명, 후금
138쪽 ❶ 중립 외교 ❷ 북벌

Ⅴ 조선 사회의 변동

148쪽 ❶ 비변사 ❷ 환국
151쪽 ❶ 균역법 ❷ 장용영
152쪽 ❶ 세도 정치 ❷ 외척
155쪽 ❶ 양반 ❷ 환곡
157쪽 ❶ 정감록 ❷ 홍경래
159쪽 ❶ 상공업 ❷ 국학
161쪽 ❶ 연행사 ❷ 통신사
165쪽 ❶ 적장자 ❷ 족보
167쪽 ❶ 모내기법 ❷ 서당

대단원 마무리

Ⅰ 선사 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1 (1) (가) 빗살무늬 토기 (2) (나) - (가) - (다) - (라)
2 (1) 소도 (2) 삼한은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였다.
3 (1) (가) 백제 – 근초고왕, (나) 신라 – 진흥왕, (다) 고구려 – 장수왕 (2) (가) - (다) - (나)
4 왼쪽 유물은 경주 계림로에서 출토된 보검, 오른쪽 유물은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유리병이다. 모두 서역에서 전래된 유물로, 당시 신라가 서역과 교류하였음을 보여 준다.
5 돌무지덧널무덤

Ⅱ 남북국 시대의 전개

1 (가) → (나) → (라) → (다)
2 (1) ㉠ 관료전, ㉡ 녹읍 (2) 지방을 9주로 나누어 옛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 땅에 각각 3주씩 배치하였다. 지방의 중요 거점에 5소경을 두었다. 군사 제도로 중앙에 9서당, 지방에 10정을 설치하였다.
3 (1) ㉠ 안승, ㉡ 대조영 (2) 발해, 대조영이 고구려 장군 출신이며 발해 스스로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였다.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고려 왕'이라고 칭하였다.
4 (1) 김헌창 (2) 호족, 스스로 성주나 장군이라 칭하고 독자적인 통치 기구를 두고 세력을 확대하였다.
5 (1) ㉠ 선종, ㉡ 풍수지리 사상 (2) 지방 호족이 진골 중심의 기존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6 (가) 의상, (나) 원효

Ⅲ 고려의 성립과 변천

1 (가) → (다) → (나) → (라)
2 (1) ㉠ 혼인 (2) ㉡ 기인, 지방 호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3 (1) ㉠ 노비안검법 (2) ㉡ 최승로, ㉢ 유교
4 (1) ㉠ 거란, 고려는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후 고려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강동 6주를 차지할 수 있었다. (2) ㉡ 강감찬
5 (1) ㉠ 교정도감 (2) 김윤후와 처인 부곡민이 몽골군 대장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충주성에서 군민과 천민이 합심하여 몽골군을 물리쳤다.
6 불상 - 영주 부석사 소조 여래 좌상
불화 - 「수월관음도」,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
불탑 - 경천사지 십층 석탑

Ⅳ 조선의 성립과 발전

1 (1) (다) - (라) - (나) - (가)
2 (1) 유교 (2) 경국대전,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 제도를 마련하여 유교적 법치 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
3 (1) 사림, 향촌에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사림 세력의 학문적 입지와 영향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2)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조선은 언론 기관인 3사를 두어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4 (1) 세종 (2) 훈민정음, 백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백성이 스스로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유교 통치 이념에 따라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5 (1) ㉠ 명, ㉡ 여진, ㉢ 일본 (2) 정치적으로는 왕권의 안정을 꾀하고, 문화적 · 경제적으로는 무역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실리적 외교로서 사대 외교를 전개하였다. (3)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지원군을 파견한 ㉠ 명은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 여진은 세력을 결집하여 후금을 건국하여 성장하였다. ㉢ 일본은 에도 막부를 열었고, 전쟁 중 끌고 간 도자기 기술자와 유학자 등의 영향으로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6 (나) - (가) - (다) - (라)

Ⅴ 조선 사회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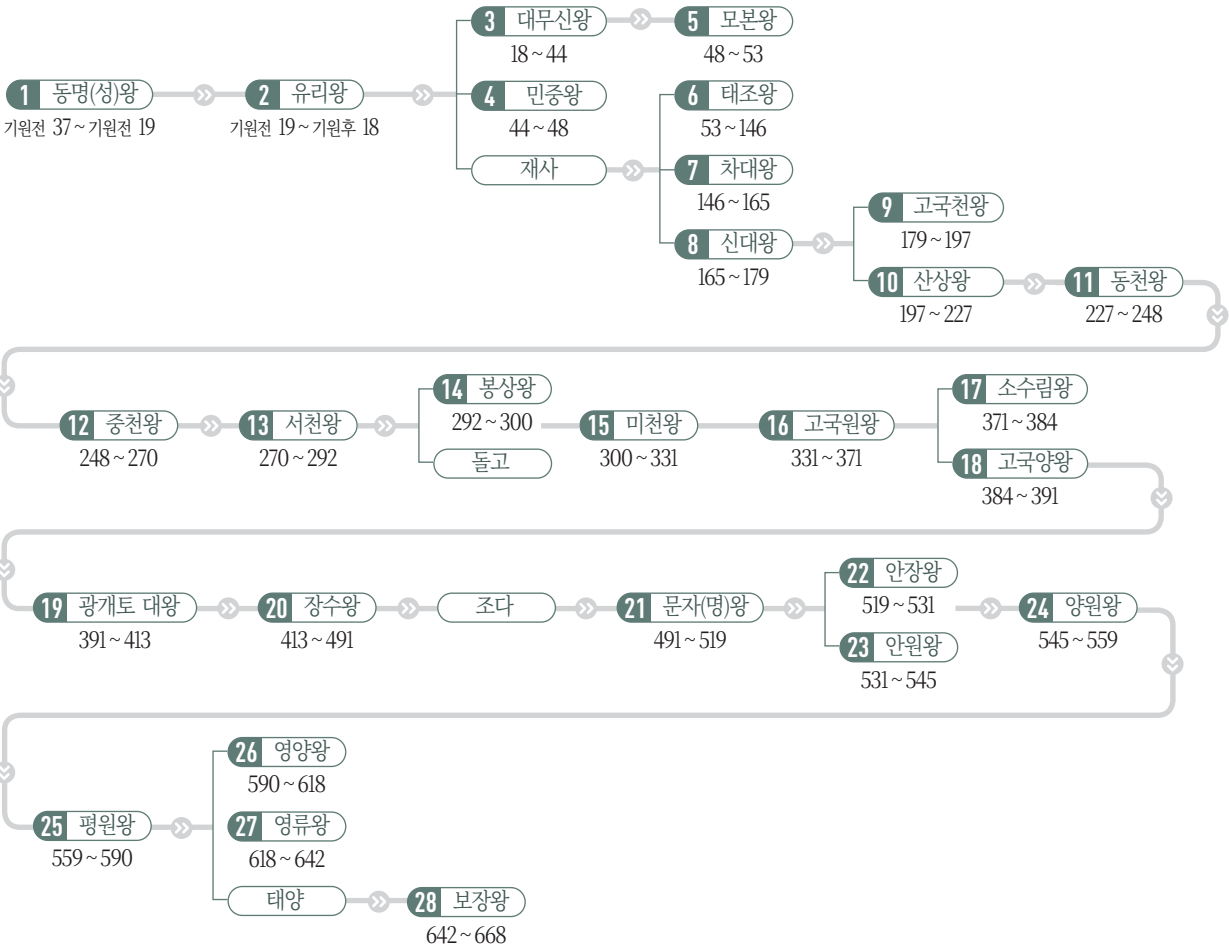
1 (1) 비변사 (2) 비변사는 원래 국방 문제를 다루던 임시 기구였으나 양 난을 거치면서 기능이 확대되고 상설 기구화되었다.
2 (나) - (가) - (다) - (라)
3 (1) ㉠ 붕당, ㉡ 환국 (2) 붕당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상대당의 정책을 견제·비판함으로써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4 (1) 세도 (2) 전정, 군정, 환곡 (3) 홍경래,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과 세도 정권의 수탈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5 (1) ㉠ 통신사, ㉡ 연행사 (2) 자명종, 천리경, 「곤여만국전도」 등을 통해 조선인들은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기던 세계관에서 점차 벗어났다.
6 조선 전기에는 자녀가 돌아가며 제사를 드렸으며 자녀 균분 상속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와서 적장자가 제사를 주관하면서 적장자 중심의 상속 제도가 일반화되었다.

Ⅵ 근 · 현대 사회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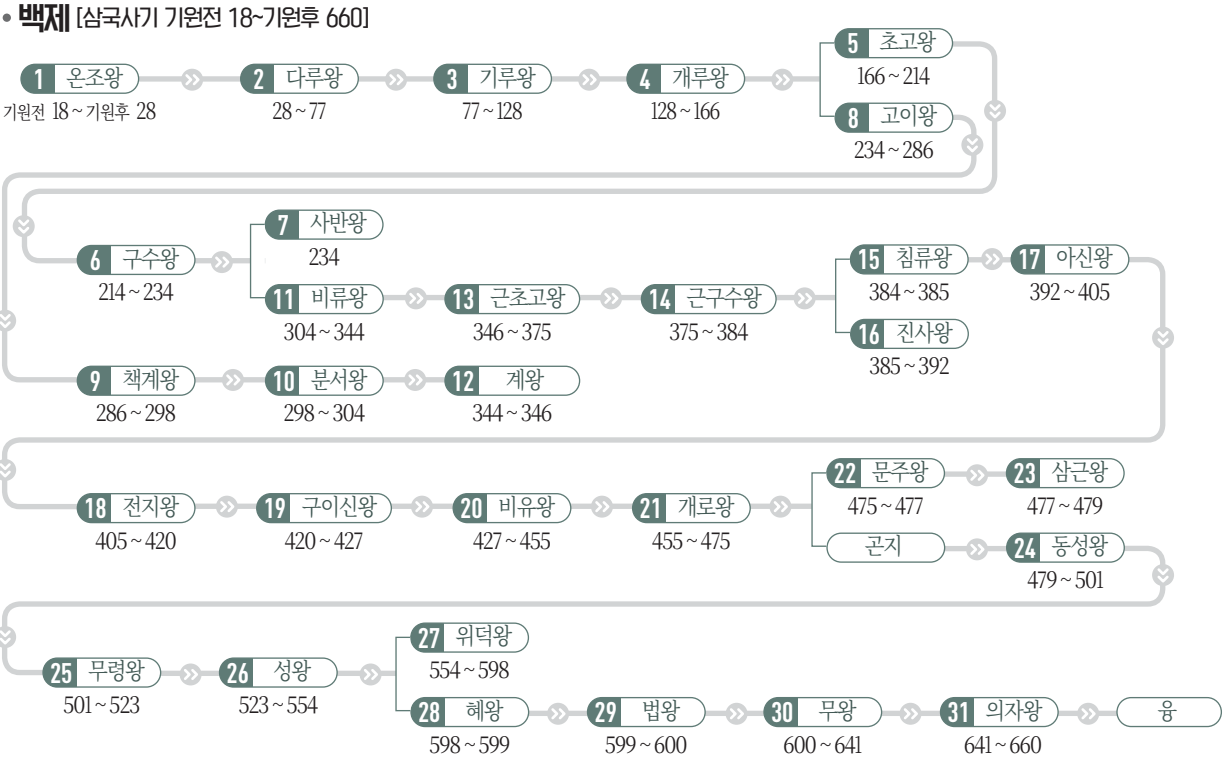
1 (1) (가) 갑신정변, (나) 임오군란, (다) 동학 농민 운동, (라) 아관파천 (2) (나) - (가) - (다) - (라)
2 (1) 헤이그 (2) 고종은 일제의 침략과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3 (1) 국채 보상 운동 (2) 대한 제국 정부가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이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4 1960년대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해야 했으며, 정부는 노동 운동을 통제하였다.
5 (1) (가) 4·19 혁명, (나) 5·18 민주화 운동, (다) 6월 민주 항쟁 (2) (가) - (나) - (다)
6 김대중 정부

역대 왕조 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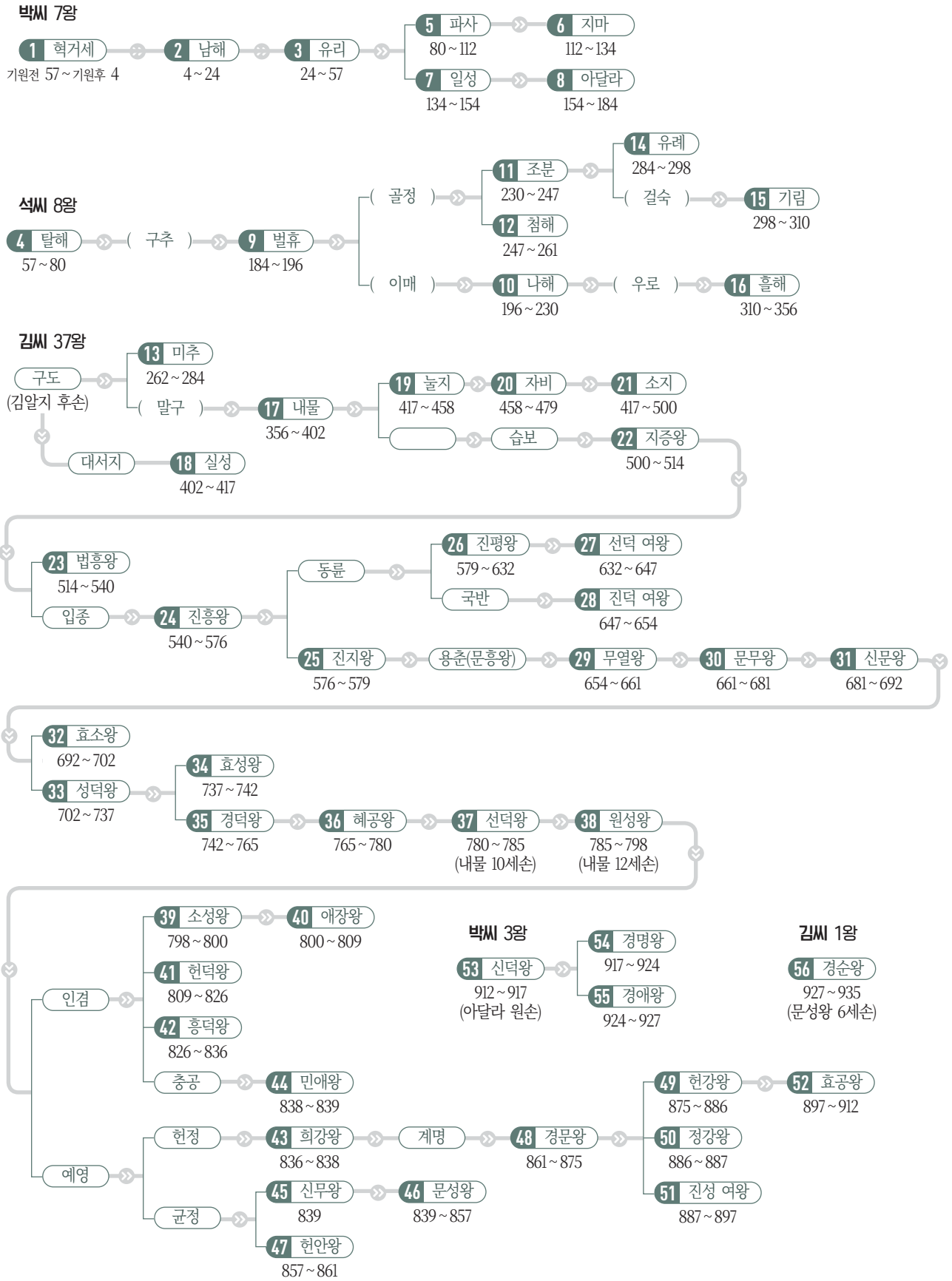
• 고구려 [삼국사기 기원전 37~기원후 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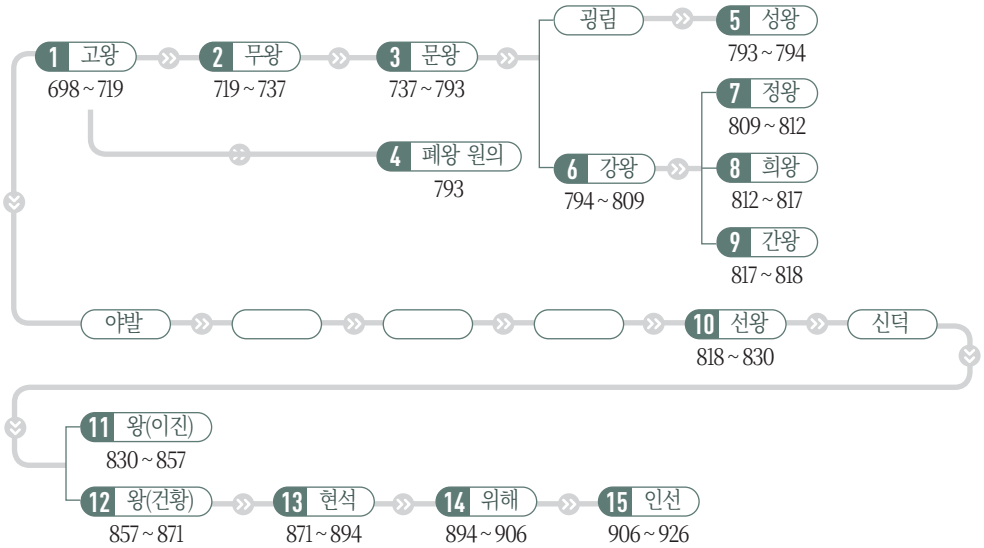
• 백제 [삼국사기 기원전 18~기원후 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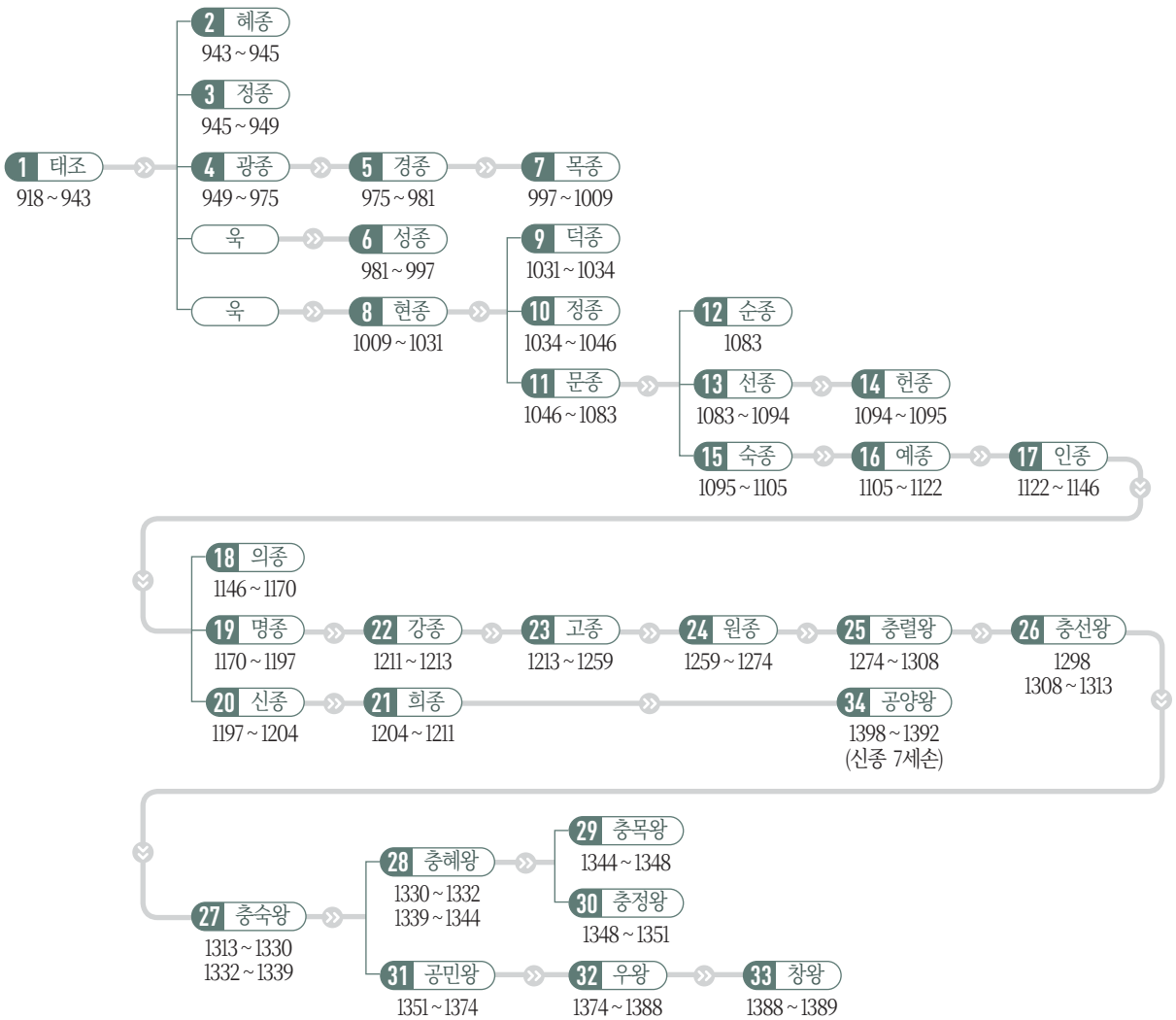
• 신라 [삼국사기 기원전 57~기원후 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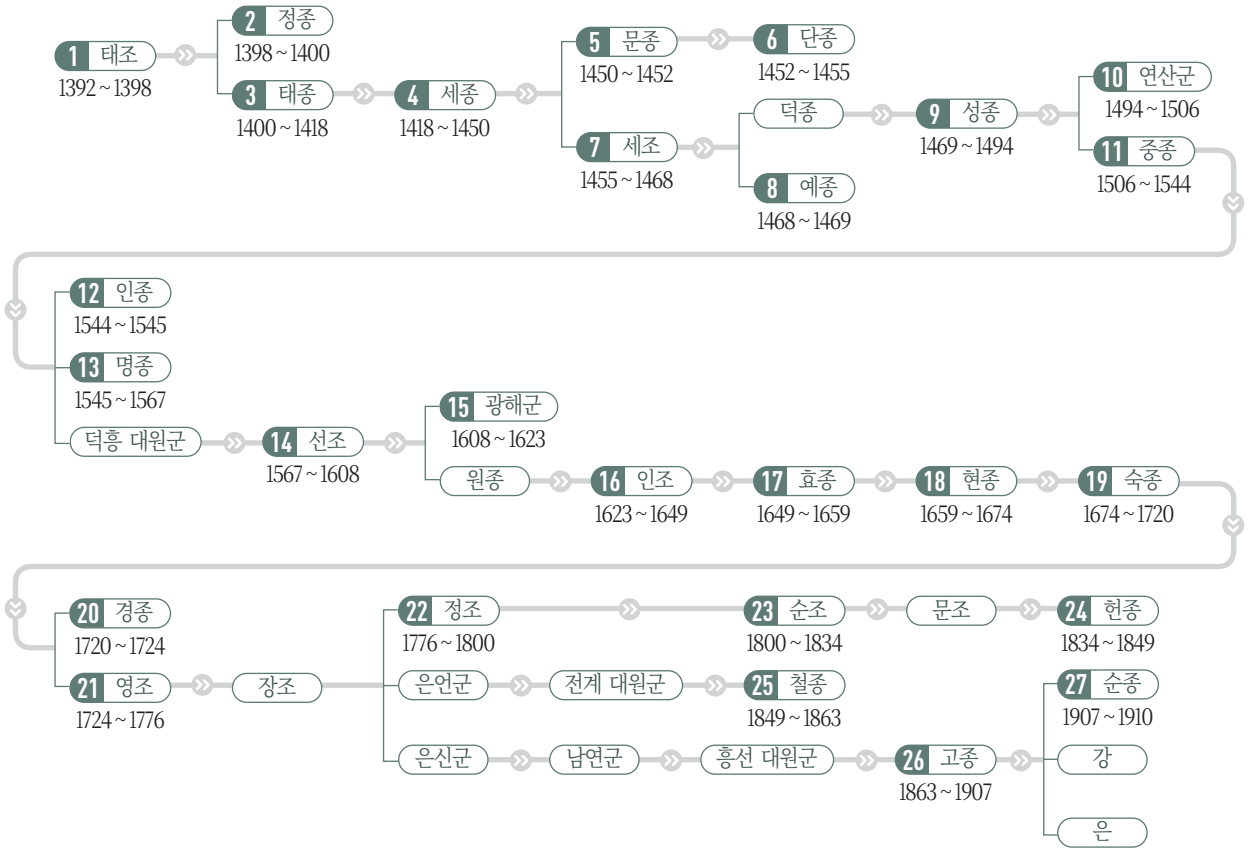
• 발해 [698~926]



• 고려 [918~1392]



• **조선** [1392~1910]


1 태조
1392 ~ 1398
2 정종
1398 ~ 1400
3 태종
1400 ~ 1418
4 세종
1418 ~ 1450
5 문종
1450 ~ 1452
6 단종
1452 ~ 1455
7 세조
1455 ~ 1468
덕종
8 예종
1468 ~ 1469
9 성종
1469 ~ 1494
10 연산군
1494 ~ 1506
11 중종
1506 ~ 1544
12 인종
1544 ~ 1545
13 명종
1545 ~ 1567
덕흥 대원군
14 선조
1567 ~ 1608
15 광해군
1608 ~ 1623
원종
16 인조
1623 ~ 1649
17 효종
1649 ~ 1659
18 현종
1659 ~ 1674
19 숙종
1674 ~ 1720
20 경종
1720 ~ 1724
21 영조
1724 ~ 1776
장조
22 정조
1776 ~ 1800
은언군
전계 대원군
25 철종
1849 ~ 1863
은신군
남연군
흥선 대원군
26 고종
1863 ~ 1907
23 순조
1800 ~ 1834
문조
24 헌종
1834 ~ 1849
27 순종
1907 ~ 1910
강
은

연표

	한국	아시아	유럽·아메리카
기원전	약 70만 년전 구석기 문화 8000년경 신석기 문화 2333 고조선 건국(『동국통감』) 2000년경 청동기 문화의 보급 400년경 철기 문화의 보급 194 위만, 고조선의 왕이 됨. 108 고조선 멸망 57 신라 건국 37 고구려 건국 18 백제 건국	10000년경 중국, 신석기 문화 2500년경 중국 문명 시작 1500년경 중국, 상 왕조 성립 1100년경 중국, 주 건국 770 주의 동천, 춘추 시대 시작 403 중국, 전국 시대(~ 221) 300년경 일본, 야요이 문화 성립 221 진(秦), 최초로 중국 통일 202 한, 중국 재통일	8세기경 폴리스 성립 753 로마 건국 525 페르시아, 오리엔트 통일 492 그리스·페르시아 전쟁(~ 479) 334 알렉산드로스, 동방 원정 264 포에니 전쟁(~ 146) 27 로마, 제정 시작
기원후	3 고구려, 국내성 천도 57 신라, 석탈해 즉위 194 고구려, 진대법 시행 260 백제 고이왕, 16관등과 공복 제정	25 후한 건국 105 채륜, 제지법 개량 184 황건적의 난 220 후한 멸망, 삼국 시대(~ 280)	19 로마, 노예 해방령 발표 58 로마, 파르티아와 전쟁 70 로마, 콜로세움 착공 96 로마, 5현제 시대 시작
300	313 고구려, 낙랑 축출 371 백제, 고구려 평양성 공격 372 고구려, 불교 전래, 태학 설치 373 고구려, 율령 반포 384 백제, 불교 전개 396 고구려 광개토 대왕, 백제 공격	304 5호 16국 시대 시작 317 동진 건국 376 전진, 화북 통일 4세기경 일본, 야마토 정권 수립	313 로마, 크리스트교 공인(밀라노 칙령) 325 니케아 공의회 375 게르만족의 이동 시작 395 로마, 동서로 분열
400	405 백제, 일본에 한학 전함. 427 고구려, 평양 천도 433 나제 동맹 체결(~ 553) 475 백제, 웅진 천도	420 동진 멸망, 송 건국 439 북위, 화북 지역 통일	476 서로마 제국 멸망 486년경 프랑크 왕국 건국
500	502 신라, 우경 실시 503 신라, 국호와 왕호를 정함. 520 신라, 율령 반포, 공복 제정 527 신라, 불교 공인 532 신라, 금관가야 통합 536 신라, 연호 사용 538 백제, 사비 천도 552 백제, 일본에 불교 전함.	534 북위, 서위와 동위로 분열 581 수 건국 589 수, 중국 통일	529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537 성 소피아 성당 건립
600	612 고구려, 살수 대첩 645 고구려, 안시성 전투 승리 660 백제 멸망 668 고구려 멸망 676 신라, 삼국 통일 682 신라, 국학을 세움. 685 신라, 9주 5소경 설치 698 대조영, 발해 건국	618 당 건국 629 현장이 『대당서역기』 저술 645 일본, 다이카 개신	638 프랑크 왕국 분열

« 오녀산성(중국 랴오닝성)

한국		아시아	유럽·아메리카
727 혜초, 『왕오천축국전』 저술 751 신라, 불국사와 석굴암 건립 시작 788 신라, 독서삼품과 설치	700	710 일본, 나라 시대 시작 751 탈라스 전투, 이슬람 세계에 제지법 전파 755 당, 안·사의 난 794 일본, 헤이안 시대 시작	726 성상 숭배 금지령 756 피핀의 기증(교황령의 기원) 768 카롤루스 대제, 프랑크 왕국 왕 즉위
828 장보고, 청해진 설치 834 신라, 공복 제도 공포	800	875 당, 황소의 난 894 일본, 견당사 파견 중지	800 카롤루스 대제, 서로마 제국의 황제 대관 829 잉글랜드 왕국 성립
900 견훤, 후백제 건국 901 궁예, 후고구려 건국 918 왕건, 고려 건국 926 발해 멸망 936 고려, 후삼국 통일 956 노비안검법 시행 958 과거제 실시 983 전국에 12목 설치 993 거란의 1차 침입, 서희의 외교 담판	900	907 당 멸망, 오대 시작(~ 960) 916 거란 건국 939 베트남, 응오 왕조 성립(~ 963) 946 거란, 국호를 요라 함. 960 송 건국 973 송, 과거에 전시 도입	962 오토 1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대관 987 프랑스, 카페 왕조 성립
1019 강감찬, 귀주 대첩 1044 천리장성 완성 1076 전시과 개정, 관제 개혁	1000	1004 송, 요와 화친 1069 왕안석, 신법 실시 1075 베트남, 과거제 도입 1076 베트남, 국자감 설치	1054 크리스트교, 동서로 분열 1077 카노사의 굴욕 1096 십자군 전쟁 시작
1107 윤관, 여진 정벌 1126 이자겸의 난 1135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1170 무신 정변 1176 망이·망소이의 난 1196 최충헌 집권 1198 만적의 난	1100	1115 여진, 금 건국 1125 금, 요를 멸망시킴. 1127 북송 멸망, 남송 시작 1161 금, 변경으로 천도 1185 일본, 가마쿠라 막부 성립 1189 남송 주희, 『사서집주』 완성	1128 독일 기사단 창설 1163 프랑스, 노트르담 성당 건축 시작 1170 프랑스, 파리 대학 세움.
1231 몽골의 1차 침입 1232 강화도 천도 1236 팔만대장경 조판 시작 1270 개경 환도, 삼별초의 대몽 항쟁 1274 고려·몽골 연합군의 제1차 일본 정벌	1200	1206 칭기즈 칸, 몽골 통일 1225 베트남, 쩐 왕조 성립(~ 1400) 1234 금 멸망 1271 원 제국 성립 1275 마르코 폴로, 대도에 도착 1279 남송 멸망, 원의 중국 정복	1215 영국, 대헌장 제정 1299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 출판
1314 고려, 만권당 설치 1359 홍건적의 침입(~ 1361) 1376 최영, 왜구 격파 1377 최무선, 화약 무기 제조 1388 위화도 회군 1389 박위, 쓰시마섬(대마도) 토벌 1391 과전법 제정 1392 고려 멸망, 조선 건국 1394 한양 천도	1300	1315 원, 과거제 실시 1336 일본, 무로마치 막부 성립 1346 이븐 바투타, 대도에 도착 1351 원, 홍건적의 난 발생 1368 명 건국	1302 프랑스, 삼부회 소집 1309 교황, 프랑스 아비뇽에 유폐 1337 영국·프랑스, 백년 전쟁(~ 1453) 1378 교회의 대분열 시작 1381 영국, 와트 타일러의 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경북 영주) »

한국		아시아		유럽·아메리카
1416	4군 설치(~ 1443)	1402	명, 영락제 즉위	1453 비잔티움 제국 멸망
1420	집현전 확장	1404	일본, 명과 감합 무역 시작	1455 영국, 장미 전쟁 시작
1434	6진 설치(~ 1449)	1405	정화의 항해(~ 1433)	1488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희망봉 발견
1441	측우기 제작	1408	명, 『영락대전』 완성	1492 콜럼버스, 아메리카 항로 발견
1446	훈민정음 반포	1428	베트남, 후기 레 왕조 성립(~ 1788)	1498 바스쿠 다 가마, 인도 캘리컷 도착
1485	『경국대전』 반포	1421	명, 베이징 천도	
		1467	일본, 전국 시대 시작	
1504	갑자사화	1543	포르투갈인, 일본에 조총 전래	1517 루터의 종교 개혁
1506	중종반정	1550	사비에르, 일본에서 포교 시작	1519 마젤란 일행, 세계 일주(~ 1522)
1510	3포 왜란	1571	일본, 나가사키 개항	1521 에스파냐, 멕시코 정복, 아스테카 제국 멸망
1519	기묘사화	1573	명, 일조편법 시행	
1543	주세붕, 백운동 서원 건립	1590	일본, 전국 시대 통일	1536 칼뱅의 종교 개혁
1592	임진왜란 발발, 한산도 대첩			1588 영국, 무적함대 격파
1593	행주 대첩			
1597	정유재란 발발			
1608	경기도에 대동법 시행	1602	마테오 리치, 「곤여만국전도」 제작	1600 영국, 동인도 회사 설립
1609	일본과 기유약조 체결	1603	일본, 에도 막부 성립	1618 30년 전쟁
1610	『동의보감』 완성	1616	후금 건국	1628 영국, 권리 청원 제출
1623	인조반정	1635	에도 막부, 쇄국령 실시	1642 영국, 청교도 혁명
1627	정묘호란	1636	후금, 청으로 국호 변경	1648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1636	병자호란	1644	명 멸망, 청, 중국 정복	1651 크롬웰, 항해법 발표
1659	1차 예송	1681	청, 삼번의 난 진압	1688 영국, 명예혁명
		1689	청,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1689 영국, 권리 장전 승인
1708	전국적으로 대동법 시행	1713	청, 지정은제 시행	1701 프로이센 왕국 성립
1712	백두산정계비 건립	1722	청, 옹정제 즉위	1709 영국, 인클로저 운동
1742	영조, 탕평비 건립	1735	청, 건륭제 즉위	1773 보스턴 차 사건
1746	『속대전』 간행	1757	청, 외국 무역을 광둥에 한정함.	1776 미국, 독립 선언
1750	균역법 실시			1789 프랑스, 인권 선언 발표
1776	규장각 설치			
1784	이승훈, 천주교 전도			
1791	시전 상인의 특권 폐지(신해통공)			
1794	화성 축성(~ 1796)			
1811	홍경래의 난	1840	1차 아편 전쟁	1804 나폴레옹, 황제 즉위
1860	최제우, 동학 창시	1851	청, 태평천국 운동 시작	1814 빈 회의 개최
1862	임술 농민 봉기, 삼정이정청 설치	1854	미·일 화친 조약 성립	1823 미국, 먼로 선언
1866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1858	미·일 수호 통상 조약	1830 프랑스, 7월 혁명
1868	오페르트 도굴 사건	1868	일본, 메이지 유신	1832 영국, 제1차 선거법 개정
1871	신미양요	1894	청·일 전쟁 발발	1848 프랑스, 2월 혁명
1875	운요호 사건	1898	청, 변법자강 운동	1861 미국, 남북 전쟁 시작, 러시아, 농노 해방령
1876	강화도 조약 체결	1899	청, 의화단 운동 시작	
1884	갑신정변			1863 링컨, 노예 해방 선언
1894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 시행			
1895	을미사변			
1896	아관 파천, 독립 협회 설립			
1897	대한 제국 수립			
1898	만민 공동회 개최			

1400 1500 1600 1700 1800

» 「곤여만국전도」(일본 도호쿠대학부속도서관)

한국		아시아		유럽·아메리카	
1904	한·일 의정서 체결	1901	청, 신축조약 체결	1902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 개통
1905	을사늑약 체결	1902	영·일 동맹 체결	1907	영국·프랑스·러시아, 3국 협상 성립
1907	국채 보상 운동,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 황제 강제 퇴위	1904	러·일 전쟁(~ 1905)	1914	제1차 세계 대전(~ 1918)
1908	의병, 서울 진공 작전	1905	베트남, 동유 운동 전개	1917	러시아 혁명
1909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처단	1907	베트남, 통킹의숙 개설	1918	윌슨, 14개조 원칙 발표 영국, 30세 이상 여성에게 투표권 인정
1910	국권 피탈	1909	일본, 청과 간도 협약 체결	1919	연합국·독일, 베르사유 조약 체결
1912	토지 조사령 공포	1911	청, 신해혁명	1920	국제 연맹 성립
1919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912	중화민국 성립	1922	소련 성립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집권
1920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1919	중국, 5·4 운동	1929	대공황 발생
1926	6·10 만세 운동	1927	중국, 난징에 국민당 정부 수립	1933	히틀러 집권, 미국, 뉴딜 정책 시행
1929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931	만주 사변	1935	독일, 재군비 선언
1940	한국 광복군 창설	1934	중국 공산당, 대장정 시작	1939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1945	8·15 광복	1937	중·일 전쟁 시작, 제2차 국·공 합작	1941	대서양 헌장 발표, 태평양 전쟁 시작
1948	제주 4·3 사건, 5·10 총선거	1940	일본군 베트남 진주	1943	카이로 회담
1950	6·25 전쟁 발발	1941	베트남, 베트남 독립 동맹 결성 태평양 전쟁(~ 1945)	1945	포츠담 선언, 독일과 일본 항복, 국제 연합(UN) 창설
1953	정전 협정 조인	1945	베트남, 북위 17도선 이남에 영국군·프랑스군, 이북에 중국군 진주 베트남 민주 공화국 수립	1947	미국, 트루먼 독트린 발표, 마셜 계획 발표
1960	4·19 혁명, 장면 내각 수립	1946	중국, 국·공 내전	1949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성립
1961	5·16 군사 정변	1949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1967	유럽 공동체(EC) 출범
1963	박정희 정부 성립	1966	중국, 문화 대혁명	1969	미국, 닉슨 독트린
1965	한·일 협정 조인	1972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1989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1972	10월 유신 선포	1989	중국, 톈안먼 사건 발생 일본, 아키히토 천황 즉위	1990	독일 통일
1980	5·18 민주화 운동	1991	베트남, 중국과 국교 수립	1993	유럽 연합(EU) 출범
1987	6월 민주 항쟁	1997	영국, 중국에 홍콩 반환		
1988	서울 올림픽 개최				
1991	남북, UN 동시 가입				
1997	외환 위기				
2000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2001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2001	미국, 9·11 테러
2002	한·일 월드컵 개최	2002	중국, 동북 공정 시작	2003	미국·이라크 전쟁
2003	노무현 정부 출범	2006	베트남, WTO 가입	2004	탐사 로봇 스피릿, 화성 착륙
2005	2005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 개최	2008	중국, 베이징 올림픽 대회 개최	2005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선종
2006	수출 3,000억 달러 돌파	2009	일본, 민주당 집권	2009	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
2007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2012	일본, 아베 집권	2017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2008	이명박 정부 출범				
2010	G20 정상 회의 개최				
2013	박근혜 정부 출범				
2017	문재인 정부 출범				
2018	제3차 남북 정상 회담				

1900

2000

찾아 보기

ㄱ

가락바퀴 14
가야 연맹 29, 35, 37
간석기 14
갑신정변 176
갑오개혁 176
강감찬 93
강동 6주 93
강주룡 181
강홍립 136
강화도 조약 176, 177
강화도 천도 96
개경 85, 87, 89
개로왕 33
개화파 176, 177
거푸집 16, 29
검모잠 58
검파모양 동기 21
격쟁 151
견훤 69
경국대전 116, 117, 126
경부 고속 국도 190
경연 116
경원 이씨 89
경인선 186, 188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8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 71, 74
경주 불국사 다보탑 74
경주 첨성대 47
계루부 23, 26
계림도독부 59
계백 58, 61
고건무 55
고구려 22, 23, 26, 31, 32
고국원왕 30, 31
고려양 98
고령 장기리 암각화 21
고분 벽화 41, 42, 46
고이왕 27
고인돌 17, 18
고조선 18, 19, 20, 22
고종 178
곤여만국전도 160
골품제 38, 67, 68
공론 147
공명첩 154
공민왕 100, 101
공출 182
과거제 84, 88, 117, 119
과전법 114
곽재우 133
관료전 63
관민 공동회 179
관산성 전투 36
관찰사 118
광개토 대왕 31, 35
광개토 대왕릉비 31, 32
광무개혁 178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80
광해군 126, 136, 137
교종 69, 104
구석기 시대 12, 13
국내성 26
국자감 88, 100
국제 연합(UN) 206
국채 보상 운동 186
국학 63, 71, 159
군국기무처 177
군장 17, 24
굴식 돌방무덤 42, 72
궁예 69, 82
권문세족 99, 100
권율 133
귀주 대첩 93
귀주성 97
규장각 150
균역법 149, 155
근초고왕 30
금관가야 29, 35, 37
금남로 201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 46
금속 활자 104, 130, 150
기벌포 58, 59
기인 제도 83
김대중 192, 203, 206
김부식 87, 89, 105
김알지 28
김영삼 201, 203
김옥균 176, 177
김원봉 180
김유신 58, 61, 62
김윤후 97
김춘추 57, 62
김헌창 67
김홍도 163

ㄴ

나당 연합군 57, 58
나당 전쟁 59, 62
나전 칠기 107
낙랑 20, 24, 30
남면북양 정책 188
남부여 23, 36
남북 기본 합의서 206
남북국 60, 74
남산 74
남인 125, 147, 148
남진 정책 32
납속책 154
내물왕 28
노론 148, 150, 151
노무현 203, 206
노비안검법 84
노태우 202
녹봉 63, 102
녹읍 63
농경문 청동기 21
농사직설 129

ㄷ

단군왕검 18
단궁 24
단양 신라 적성비 37
담로 33
당삼채 72
당은포 73
당항성 57
대가야 35, 37
대간 86
대동법 147
대동여지도 159
대마도 121
대장경 95, 104
대전통편 150
대조영 60, 64
대중가요 194
대중 매체 194
대중문화 194, 206
대한 제국 178, 180, 186
대한 제국 칙령 제 41호 178
대한국 국제 185
대한민국 임시 정부 180, 182,196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 196
대한민국 정부 182, 196
덧무늬 토기 15
덩이쇠 29
도교 42, 46, 47
도방 90
도병마사 86
도선 69
도요토미 히데요시 132, 133

도쿠가와 이에야스 134
독도 178, 179
독립신문 178
독립 협회 178
독서삼품과 71
돌궐 36, 54, 59, 60
돌무지덧널무덤 42, 43
돌무지무덤 27, 42
돌화살촉 13
동맹 23
동명왕편 105
동모산 60
동성왕 33
동의보감 136
동학 156
동학 농민 운동 176
뗀석기 13

ㄹ

러·일 전쟁 178, 186
류큐 120

ㅁ

마립간 28, 34
마한 24, 27, 30
만권당 105
만달사람 12
만민 공동회 178
만적 91
만주 사변 188
망이·망소이의 난 91
매소성 59
명도전 19
명성 황후 176
모내기법 166
모두루 무덤 32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182
몽골 90, 96, 97, 104, 105
몽골풍 98
묘청 89
무과 88, 119
무구정광대다라니경 71
무단 통치 180
무령왕 33, 36
무령왕릉 42
무신 정변 90, 104
무천 24
문무왕 62
문재인 203
문화 통치 181
물산 장려 운동 180, 181
미륵 신앙 156
미송리식 토기 18
미천왕 30
민며느리제 24
민무늬 토기 16
민족 말살 통치 182
민화 167, 169

ㅂ

박근혜 203
박서 97
박위 101
박정희 200
박종철 202
박혁거세 28
반달 돌칼 16
반어피 24
발췌 개헌 198
발해 삼채 72
발해 석등 75
발해고 159
백암성 54, 56
백자 131
백정 102
백제 금동 대향로 47
법흥왕 34, 37
벽돌무덤 33, 43
벽란도 95
변한 24, 28, 29
별무반 94
병인양요 176
병자호란 136, 137, 138, 160
병참 기지화 정책 188, 189
봉수제 118
부·마 민주 항쟁 200
부여 23, 36
부여 정림사지 오층 석탑 58
북로 군정서 181, 185
북벌 운동 138
북진 정책 83, 94
북학파 158
분청사기 131
불교 39, 46, 70, 74, 75, 104, 106
불국사 74
불화 106
붕당 125, 147, 148, 149
붕당 정치 151, 152
브나로드 운동 181
비변사 146, 152
비파형 동검 16, 18, 19
빈공과 71, 72
빗살무늬 토기 14, 15
뼈바늘 14

ㅅ

사군자 131
사대교린 120, 121
사략 105
사로국 28
사명 대사 134
사비 36
사비성 58
사사오입 개헌 198
사심관 83
사화 123, 125
산미 증식 계획 188, 189
산수무늬 벽돌 46
살수 대첩 55
삼강행실도 126
삼국사기 105
삼국유사 105
삼별초 90, 97
3사 117, 122, 147
삼정 155
삼정이정청 157
상경성 64, 66, 72, 73, 75
상언 151
상정고금예문 104
상평통보 166
서경 83, 87, 88, 89, 98
서민 문화 166, 167, 168
서역 44
서옥제 23
서울 풍납동 토성 27
서원 124, 125, 149
서인 125, 136, 137, 147, 148
서학 161
서희 93
석굴암 74
석촌동 고분 27
석탈해 28
선종 69, 104
성균관 100, 105, 117, 119
성덕 대왕 신종 71
성리학 105, 115, 122, 124
성왕 36
세도 정치 152, 155, 156

세속 5계 36
세형 동검 16
소도 24
소론 148, 150
소수림왕 31
소학 127
소현 세자 138
속대전 149
속오군 146
솟대 24
송악 69, 82
쇠뇌 부대 59
수령 118, 146, 155
수원 화성 151
수월관음도 106
순수비 37
슴베찌르개 13
승정원 117
시무 28조 84
시민운동 202
식목도감 86
신간회 181
신돈 100
신라 촌락 문서 63
신라도 73
신라방 73
신문고 149
신문왕 62
신미양요 176
신민회 178
신사 참배 182
신석기 시대 14, 15
신윤복 163, 172
신자유주의 192
신진 사대부 100, 101, 105, 114
신탁 통치 182
신흥 무인 세력 101
실학 158
쌍성총관부 98, 100

ㅇ

아관 파천 177
아담 샬 139
아리타 도자기 139
아스카 문화 45
안동 김씨 152
안동도호부 59
안서도호부 58
안시성 전투 56, 57
안중근 178, 179
안향 105
암행어사 153
애국 계몽 운동 178
양사오 문화 15
어사대 86
어재연 176
여진 93. 94, 120
역참 118
역포아이 12
연개소문 56, 58, 61
연등회 83
연행사 160
영고 23
영광탑 75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106
예송 148
오경박사 36, 46
5군영 체제 146
오르도스 청동검 16
옥저 22, 24, 26
왕건 82, 83, 86
왜구 101
외환 위기 192, 193, 202
용곡사람 12
우왕 101, 114
우정총국 177
울산항 73
움집 14
웅진도독부 59
원종·애노의 난 68
원효 70
월지 62
위례성 27
위만 19, 20
위화도 회군 114
유관순 180
유교 36, 71, 84, 115, 117
유득공 159
유신 헌법 200
유향소 118, 146
윤관 89, 94
율령 31, 34, 39
을미사변 176
을사늑약 178
을지문덕 55
음서 88, 89, 119
의병 133, 137, 180
의상 70
의열단 180
의정부 116, 117, 146
의천 104
이괄의 난 137
이규보 105
이기붕 198
이두 71
이명박 203
이방실 101
이방원 116
이불병좌상 75
이사금 28
이산가족 204, 206
이삼평 139
이색 105
이성계 101, 114
이순신 133, 135
이승만 182, 190, 196, 198
이의민 90
이이 124, 125
이자겸 89
이조 전랑 125, 149
이황 124, 125
인쇄술 71, 104, 130
인조반정 136
인천 상륙 작전 204, 205
일본 태정관 지령 179
일연 105
임술 농민 봉기 157
임신서기석 46
임오군란 176
임진왜란 132, 135

ㅈ

자격루 130
잔무늬 거울 19
잔석기 13
장군총 27
장면 198
장보고 67
장수왕 32
장시 166, 168
장용영 150
장창 보병 59
전두환 200, 202
전민변정도감 100
전봉준 177
전태일 192, 193
정감록 156
정당성 64
정도전 106, 116, 120
정동행성 98
정몽주 114, 122
정묘호란 137
정방 90, 100
정선 162

정약용 158
정유재란 133
정지상 89
제가 회의 23
제왕운기 105
제주 4·3 사건 183
제헌 헌법 196, 197
조공 120, 138, 160
조광조 123
조몬 토기 14, 15
조선 의용대 182
조선 총독부 180, 188
조선 태형령 180
조선어 학회 182
조선왕조실록 126
조의제문 123
족보 165
족장 17, 26
종묘 제례 126
좌평 27
주먹도끼 13
주자가례 126, 164
주자감 64, 72
주전론 137
주화론 137
준왕 19
중계 무역 20, 73
중국식 동검 16
중립 외교 정책 136
중방 90
중서문하성 86
중인 119, 127, 154, 166
중·일 전쟁 182, 188
중추원 86
지눌 104
지증왕 34
직지심체요절 104
진경 산수화 162
진한 24, 28, 34
진흥왕 36, 37
집사부 62
집현전 116
징병 182
징용 182
찍개 13

ㅊ

차차웅 28
책화 24
처인 부곡민 97
척화비 176
천거 88, 119
천군 24
천리장성 56, 93
천마도 43
천마총 43
천상열차분야지도 129
천자총통 135
천태종 104
철릭 98
청동기 16, 17, 18, 19
청산리 대첩 181
청·일 전쟁 176
청자 107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107
청해진 67
초조대장경 95, 104
최무선 101
최승로 84
최승우 69
최씨 무신 정권 90
최영 101, 114
최우 90
최윤덕 121
최익현 177
최제우 156
최충헌 90, 91
최치원 68
추사체 162
충선왕 99
충주 고구려비 32
측우기 129, 130
칠정산 129

ㅋ

카이로 선언 183
케이팝(K-Pop) 195

ㅌ

탕평책 149, 150, 151
태조왕 26
태종 무열왕 62
태평양 전쟁 182
태학 31
택리지 159
토지 조사 사업 188
통신사 161

ㅍ

판문점 선언 206
판옥선 135
팔관회 83, 92
팔만대장경 97, 104
풍속화 163
풍수지리 사상 69, 89
풍양 조씨 152

ㅎ

학익진 135
한국 광복군 182
한성 은행 187
한양 115, 117, 132
해동고승전 105
해동성국 64
해동천자 86
행주 대첩 133
향교 88, 119
향리 87, 88, 102, 118
향약 124, 125, 127
향약집성방 129
헌병 경찰 180
헤이그 특사 파견 179
현무도 46
혜공왕 67
호우명 청동 그릇 31
호족 69, 82, 83, 84
호패법 116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129
홍건적 101
홍경래의 난 156
화랑도 36
화엄종 70
환곡 155
환구단 178
환국 148
환도산성 26
환웅 18
환인 18
황국 신민 서사 182
황남 대총 44, 47
황룡사 36, 46
회사령 188
훈구 122, 123
훈련도감 133, 146, 147
훈민정음 128, 142
훈민정음운해 159
훈요 10조 83
흥선 대원군 176

출처

인용 자료 출처

Ⅰ 선사 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12쪽 (하1) 강종훈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1』, 웅진지식하우스, 2011, 25쪽 18쪽 (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삼국유사』 권제1 기이 고조선 19쪽 (하)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 사료로 본 한국사, 고조선의 범금 8조 20쪽 (중)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삼국유사』 권제1 기이 위만 조선 32쪽 (하1)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 사료로 본 한국사, 광개토왕의 영역 확장 / (하2) 고구려연구재단, 『다시보는 고구려사』, 2004, 14쪽 50쪽 (상) 『디지틀조선일보』, 2018. 10. 26.

Ⅱ 남북국 시대의 전개

55쪽 (중)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삼국사기』 권제44 열전 제4 60쪽 (하) 강종훈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1』, 웅진지식하우스, 2011, 217쪽 63쪽 (하) 강종훈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1』, 웅진지식하우스, 2011, 305쪽 64쪽 (하2) 『한겨레신문』, 2008. 10. 16. 65쪽 (하1) 강봉룡 외,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1』, 솔, 2007, 253쪽 / (하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삼국유사』 권제1 기이, 말갈과 발해 66쪽 (중) 김왕직, 『발해 상경성 내 제1절터의 건축적 성격』, 고구려발해학회, 2015, 51쪽

Ⅲ 고려의 성립과 변천

83쪽 (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고려사』 권2 세가 태조 17년 7월 / (하) 『고려사』 권2 세가 태조 26년 4월 84쪽 (하) 『고려사』 권93 최승로 열전 86쪽 (상) 김인호 외, 『고려시대사』, 푸른역사, 2017, 104쪽 89쪽 (하1) 『고려사』 권127 묘청 열전 / (하2) 『고려사』 권98 김부식 열전 90쪽 (상) 『고려사』 권128 열전 권제41 91쪽 (중) 『고려사』 권129 최충헌 열전 / (하1) 『고려사』 권19 세가 명종 7년 3월 93쪽 (하) 『고려사』 권94 서희 열전 94쪽 (하1) 『고려사』 권2 세가 정종 3년 9월, 『고려사』 권4 세가 현종 2년 5월 / (하2) 『고려사』 권81 지 병제, 『고려사』 권82 지 성보 / (하3) 『고려사』 권14 세가 예종 12년 3월 / (하4) 『고려사』 권15 세가 인종 4년 3월 97쪽 (중1) 『고려사』 권103 이자성 열전 / (중2) 『고려사』 권103 김윤후 열전 99쪽 (하1) 『고려사』 권75 지 선거 / (하2) 『고려사』 권126 임견미 열전 100쪽 (하) 『고려사』 권132 신돈 열전 103쪽 (하1)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제37권 애사·제문 외구 대부경 진공에게 올리는 제문 / (하2) 송기호, 『시집가고 장가가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9~20쪽 105쪽 (중) 『고려사』 권120 김자수 열전 107쪽 (중2) 서긍, 『고려도경』, 서해문집, 2015, 223쪽 110쪽 (좌) 『연합뉴스』, 2017. 1. 6.

Ⅳ 조선의 성립과 발전

117쪽 (하) 한국의 지식콘텐츠(https://www.krpia.co.kr/), 『경국대전』 이전 중앙관직 120쪽 (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9일 병오 1번째 기사 121쪽 (중1) 『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2월 13일 을유 1번째 기사 / (중2)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5월 10일 기해 2번째 기사 / (하)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7월 6일 기유 6번째 기사 122쪽 (중) 김훈식 외, 『조선시대사 2』, 인간과 사회, 푸른역사, 2017, 68쪽 124쪽 (하1)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 『율곡전서』, 율곡선생전서 제16권 잡저 / (하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011, 310쪽 125쪽 (중)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 『연려실기술』 제13권 선조조 고사본말 128쪽 (하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29일 갑오 4번째 기사 / (하2)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0일 경자 1번째 기사 133쪽 (상) 『제봉선생집』 권7, 정기록, 마상격문 137쪽 (하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인조실록』 33권, 14년 11월 8일 무신 1번째 기사 / (하2)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 사료로 본 한국사, 후금에 대한 주화론 138쪽 (중)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 북벌 운동 송자대전 『송서습유』 제7권 139쪽 (중2) 김경미, 『소현 세자의 '청' 체험과 문화 수용』, 『한국문화연구 10』, 2006, 154~155쪽 142쪽 (좌) 『시빅뉴스』, 2019. 1. 22.

Ⅴ 조선 사회의 변동

146쪽 (중)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효종실록』 13권, 효종 5년 11월 16일 임인 1번째 기사 149쪽 (하1) 『영조실록』 3권, 영조 1년 1월 3일 임인 2번째 기사 / (하2) 『영조실록』 53권, 영조 17년 4월 20일 갑인 2번째 기사 150쪽 (하) 『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 6월 29일 경자 2번째 기사 152쪽 (하) 윤민경, 『세도정치기 안동 김씨 가문의 정치적 기반 – 국왕, 유력 가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61』, 2015, 189~191쪽 153쪽 (상) 『정조실록』 19권, 정조 9년 1월 1일 신해 2번째 기사 154쪽 (하) 『일성록』, 정조 20년 병진 10월 9일 157쪽 (중1) 김종수,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5』, 솔, 2002, 231쪽 165쪽 (하1)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국역총서 제7집 (가례향의)』 上, 2012, 60쪽 / (하2) 권내현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3』, 웅진지식하우스, 2011, 312쪽 172쪽 (하) 『한겨레』, 2011. 8. 16.

Ⅵ 근·현대 사회의 전개

177쪽 (중)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최익현 면암집 제3권, 소, 병자년(1876, 고종13) 1월 22일 178쪽 (하2)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 사료로 본 한국사, 울릉도와 독도 -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180쪽 (하)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 사료로 본 한국사, 3·1 독립 선언서 181쪽 (하1)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수학습자료집』 2011, 301쪽 / (하2) 한규무,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41, 광주학생운동』,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02쪽 186쪽 (하1) 한국의 지식콘텐츠(https://www.krpia.co.kr/), 대한계년사 권3 / (하2) 독립신문 한글판(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26512&cid=62142&categoryId=62340), 1898. 10. 18. 187쪽 (상1) 조기준, 『한국 자본주의 성립사론』, 대왕사, 1985 / (하1)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수학습자료집』, 2011, 190쪽 / (하2) 전국역사교사모임, 『심마니 한국사』, 역사넷, 2002, 95쪽 188쪽 (상1)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 사료로 본 한국사, 토지 조사령 / (하)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 사료로 본 한국사, 회사령 190쪽 (중)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192쪽 (중)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192쪽 (하) 『연합뉴스』, 1997. 11. 7. 193쪽 (중1) 박상준, 김남주, 장근호, 『BOK 경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8, 15쪽 / (우상1)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 사료로 본 한국사, 전태일의 편지 / (하1) 『연합뉴스』, 1997. 11. 22. / (하2) 『연합뉴스』, 1997. 12. 27. 195쪽 (하) 서태지, 『교실 이데아』 196쪽 (하) 김유향,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기원』, 윌비스, 2017, 55~62쪽 197쪽 (하) 김유향,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기원』, 윌비스, 2017, 161~177쪽 198쪽 (하1) 민주화운동사업기념회 오픈아카이브(http://archives.kdemo.or.kr/isad/view/00849821) / (하2) 오픈아카이브(http://archives.kdemo.or.kr/isad/view/00481323) 204쪽 (중2) 박동찬, 『통계로 본 6·25 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하) 김성칠, 『역사 앞에서』, 창비, 2018, 115~116쪽 207쪽 (하)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7, 22쪽

사진 출처

■ 가톨릭대학교 전례박물관(http://museum.catholic.ac.kr/) 161쪽(상)
■ 게티이미지(https://edge.gettyimageskorea.com) 2쪽(하), 10쪽(상), 11쪽(상), 14쪽(하1, 하2), 15쪽(상), 21쪽(상4), 26쪽(하), 27쪽(하2), 34쪽(하), 36쪽(중), 42쪽(중), 45쪽(상1), 54쪽(하), 55쪽(하), 60쪽(상), 62쪽(하), 74쪽(하1, 하2, 하3), 75쪽(상2, 중), 86쪽(하), 96쪽(하1), 126쪽(하2), 132쪽(하2), 133쪽(중1, 중2, 하1), 139쪽(하1, 하2), 142(하), 174쪽(상, 중), 179쪽(상3, 하), 180쪽(중2), 190쪽(상1, 상2, 중1, 중2), 191쪽(상1, 상2, 상3), 193쪽(상1, 상2, 상3, 상4, 중2, 중3), 194쪽(상), 195쪽(상1, 상2, 상3), 198쪽(상), 199(상3, 중3), 200쪽(상1, 상2, 중), 201쪽(하1, 하3), 202쪽(상1, 상2, 하), 203쪽(상1~6), 205쪽(상2), 206쪽(상1, 상2, 상4), 207쪽(상2, 상3, 상5)
■ 국가기록원(http://theme.archives.go.kr/) 126쪽(중)
■ 국립고궁박물관(http://www.gogung.go.kr/) 100쪽(중), 115쪽(중3), 130쪽(중1, 중2, 중3), 136쪽(상), 151쪽(하)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http://portal.nrich.go.kr/) 85쪽(하2)
■ 국립민속박물관(https://www.nfm.go.k/) 98쪽(하1, 하2), 127쪽(상)
■ 국립중앙박물관(http://www.museum.go.kr/) 13쪽(상2), 14쪽(상6), 15쪽(하4), 16쪽(중2, 하3), 19쪽(상), 20쪽(하), 21쪽(하2), 46쪽(중2, 하2, 하3), 66쪽(하), 71쪽(중), 72쪽(중1), 107쪽(하1, 하2), 131쪽(하3), 162쪽(중1)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13쪽(하4), 16쪽(하4), 17쪽(중), 19쪽(중), 21쪽(상1, 상2, 하1), 32쪽(하), 34쪽(상1, 상2), 37쪽(하), 43쪽(상1, 좌중1, 좌중2, 우중1), 45쪽(중2), 46쪽(상, 중1), 47쪽(상), 47쪽(중1), 58쪽(상1), 69쪽(상), 71쪽(하2), 74쪽(상2, 상3), 104쪽(상1, 상2), 106쪽(하1, 하3, 하4), 107쪽(상1, 상2, 상3), 114쪽(하), 115쪽(중4, 중6, 하1, 하2), 119쪽(하), 120쪽(하), 131쪽(하1), 132쪽(하1), 135쪽(하2), 139쪽(중1), 149쪽(상), 159쪽(중), 162쪽(중2, 하), 176쪽(하1, 하2), 177쪽(상2, 하3)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snu.ac.kr/) 129쪽(중), 151쪽(중1)
■ 셔터스톡(https://www.shutterstock.com/ko/) 21(상), 27쪽(하1), 78(상), 135(상), 139(상)
■ 쇼소인(http://shosoin.kunaicho.go.jp/) 45쪽(중1), 73쪽(하2, 하3, 하4)
■ 연합포토(http://www.hellophoto.kr/) 27쪽(중), 45쪽(중3), 47쪽(중2), 58쪽(상2), 64쪽(하1), 67쪽(중), 98쪽(중), 157쪽(중2), 192쪽(상), 196쪽(상2), 204쪽(상), 205쪽(상1), 206쪽(상3), 207쪽(상1, 상4)
■ e뮤지엄(www.emuseum.go.kr/) 35쪽(하1), 41쪽(상), 95쪽(상), 115쪽(중2), 116쪽(상), 121쪽(상), 131쪽(상, 하2), 135쪽(하1), 153쪽(중1, 중2), 162쪽(중1), 163쪽(상, 중2, 하2), 166쪽(중2, 하1, 하2), 167쪽(중2)
■ 일본 e뮤지엄(http://www.emuseum.jp/) 52쪽(하), 81쪽(하)
■ 전북대학교박물관(https://museum.jbnu.ac.kr/) 154쪽(중)
■ 토픽이미지(http://www.topicimages.com/) 74쪽(상1), 115쪽(중1), 122쪽(하), 124쪽(상), 126쪽(하1), 138쪽(상), 143쪽(중), 144쪽(중2), 169쪽(하), 172쪽(상)
■ 포트폴리오(https://www.portforlio.com/kr/) 26쪽(중), 66쪽(상), 82쪽(하), 96쪽(하2), 104쪽(중1), 106쪽(상1), 118쪽(중), 135쪽(중2), 144쪽(중1), 150쪽(상), 151쪽(중2, 중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99쪽(상), 106쪽(하2), 115 (중5), 125쪽(하3), 130쪽(하1, 하2)
■ 기타(책)
12쪽 (하2) 강종훈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1』, 웅진지식하우스, 2011, 25쪽
13쪽 (상) 브라이언 M. 페이건 외, 강미건 역, 『고대 세계의 위대한 발명 70』, 랜덤하우스, 2007, 22쪽 / (하1) 서울대학교박물관, 『발굴유물도록』. 1997, 11쪽 / (하2)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도록』, 2007, 11쪽 / (하3) 충북대학교박물관, 『중원지역의 구석기 유적』, 2005, 205쪽
14쪽 (상1) 서울대학교박물관, 『발굴유물도록』, 1997, 50쪽 / (상2) 국립중앙박물관, 『즐거운 역사 체험 어린이박물관』, 웅진씽크빅, 2006, 46쪽 / (상4) 국립중앙박물관, 『즐거운 역사 체험 어린이박물관』, 웅진씽크빅, 2006, 47쪽 / (상5) 강릉대학교박물관, 『발굴유적유물도록』, 2000, 32쪽
15쪽 (하1, 하2) 중국사학회,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13쪽 / (하3)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사계절, 2011, 17쪽 / (하5)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도록』, 2007, 16쪽
16쪽 (상1) 이건무, 조현종, 『선사 유물과 유적』, 솔, 2005, 190쪽 / (중1)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도록』, 2007, 25쪽 / (하1) 강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016, 33쪽 / (하2) 강종훈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1』, 웅진지식하우스, 2011, 50쪽
18쪽 (중) 이건무, 조현종, 『선사 유물과 유적』, 솔, 2005, 125쪽
21쪽 (상3) 국립민속박물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_샤먼』, 2011, 119쪽
22쪽 (상, 중)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2005, 49, 54쪽
24쪽 (중) 예술의전당, 울산광역시, 『神話, 그 영원한 생명의 노래: 울산 암각화에서 무신도까지』, 2000, 92쪽
29쪽 (중) 이영훈 외, 『고분미술II』, 솔, 2004, 243쪽 / (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2005, 83쪽
30쪽 (중)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2005, 78쪽 / (하) 한성백제박물관, 『백제 왕의 선물』, 2015, 51, 65, 73, 87, 91쪽
31쪽 (상1) 고구려연구재단, 『다시 보는 고구려사』, 2004, 178쪽 / (상2) 조선일보사, 『집안고구려고분벽화』, 1993, 116쪽 / (하1) 강종훈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1』, 웅진지식하우스, 2011, 161쪽 / (하2)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2005, 129쪽
33쪽 (상, 하1, 하2)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2005, 33, 79쪽 / (하3)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91969.html), (하4, 하5)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1999, 49, 55쪽
34쪽 (중1, 중2) 국립경주박물관, 『명품100선 국립경주박물관』, 2007, 16, 19쪽
35쪽 (중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2005, 88쪽 / (중2) 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생활사박물관 06』, 사계절, 2012, 62쪽 / (중3) 대가야박물관, 『고령지산동대가야고분군 도록』, 2015, 76, 120쪽 / 35쪽 (하2)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2005, 85쪽
42쪽 (상) 국립경주박물관, 『명품100선 국립경주박물관』, 2007, 85쪽 / (하1) 조선일보사, 『집안고구려고분벽화』, 1993, 48쪽 / (하2, 하3) 동북아역사재단, 『평양 일대 고구려 유적』, 2007, 309, 320쪽
43쪽 (우상1, 3, 우중2)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1999, 21, 32, 54쪽 / (우상2) 국립중앙박물관, 『백제』, 1999, 127쪽
44쪽 (중1) 강종훈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1』, 웅진지식하우스, 2011, 168쪽 / (중2) ICOMOS 한국위원회, 『고구려고분벽화』, 예맥출판사, 2005, 75쪽 / (하1, 하3) 국립경주박물관, 『명품100선 국립경주박물관』, 2007, 32, 33, 49쪽 / (하2, 하4)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2005, 45, 97쪽 (상2) 히스토리카한국사 편찬위원회, 『히스토리카 한국사』, 이끌리오, 2007, 233쪽 / (중3) 강종훈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1』, 웅진지식하우스, 2011, 333쪽
46쪽 (중3)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발굴에서 전시까지』, 2007, 98쪽 / (하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2005, 65쪽
47쪽 (하3)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2005, 71쪽
52쪽 (상1) 국립부여박물관, 『중국낙양문물명품전』, 1998, 145쪽 / (상2) 강종훈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1』, 웅진지식하우스, 2011, 204쪽
63쪽 (중) 강봉룡 외,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2』, 솔, 2007, 127쪽

63쪽 (하) 강종훈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1』, 웅진지식하우스, 2011, 305쪽
64쪽 (상)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2005, 111쪽
65쪽 (중) 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문명기행』, 2007, 253쪽
65쪽 (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2005, 111쪽
66쪽 (중1) 서울대학교박물관·동경대학문학부, 『해동성국 발해』, 2003, 33쪽 / (중2) 강종훈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1』, 웅진지식하우스, 2011, 256쪽
71쪽 (상)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2005, 123쪽 / (하) 국립경주박물관, 『명품100선 국립경주박물관』, 2007, 194, 203쪽
72쪽 (상, 중3, 중4)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한국생활사박물관 06』, 사계절, 2012, 26, 31, 41쪽 / (중2)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2005, 107쪽 / (중5) 정지희, 『한국 경교 유물 연구』, 『도시역사문화 제4호』, 서울역사박물관, 2006, 90쪽 / (하1, 하2) 서울대학교박물관·동경대학문학부, 『해동성국 발해』, 2003, 91쪽
73쪽 (중) 안장헌, 『문화유산일기』, 진선books, 2003, 148쪽 / (하1)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한국생활사박물관 05』, 2012, 35쪽 / (하5) 국립중앙박물관, 『통일 신라』, 2003, 155쪽
75쪽 (상1, 하) 서울대학교박물관·동경대학문학부, 『해동성국 발해』, 2003, 30, 43쪽
80쪽 (상) 지안니 과달루피, 『중국의 발견』, 생각의 나무, 2004, 49쪽
81쪽 (상) 정수일, 『초원 실크로드를 가다』,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창비, 2011, 211쪽 / (중) 김희보, 『그림으로 읽는 세계사 1』, 가람기획, 2008, 384쪽
85쪽 (중1)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한국 생활사박물관 07』, 사계절, 2002, 29쪽 / (중2) 국립중앙박물관, 『대고려』, 2018, 306쪽 / (상, 하1) 박종진, 『두근두근 개성 답사』, 청년사, 2018, 60, 61쪽
86쪽 (중) 국립중앙박물관, 『북녘의 문화유산』, 2006, 41쪽
88쪽 (하) 박종진, 『두근두근 개성 답사』, 청년사, 2018, 44쪽
91쪽 (하2) 김인호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2』, 웅진지식하우스, 2011, 179쪽
94쪽 (중)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 휴머니스트, 2002, 136쪽
95쪽 (중) 김인호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2』, 웅진지식하우스, 2011, 115쪽
97쪽 (하) 초등역사교사모임, 『초등학교 선생님이 함께 모여 쓴 한국사 이야기 2』, 늘푸른아이들, 2007, 64쪽
102쪽 (중)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한국 생활사박물관 07』, 사계절, 2002, 37쪽 / (하1)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한국 생활사박물관 07』, 사계절, 2002, 40쪽 / (하2)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한국 생활사박물관 07』, 사계절, 2002, 42, 43쪽 / (하3)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한국 생활사박물관 07』, 사계절, 2002, 42쪽
103쪽 (상)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한국 생활사박물관 07』, 사계절, 2002, 59쪽
104쪽 (중2)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 휴머니스트, 2002, 161쪽 / (하1) 국립중앙박물관, 『대고려』, 2018, 308, 306쪽 / (하2) 오명숙, 『미리 가 본 국립중앙박물관』, 한림출판사, 2009, 48쪽
106쪽 (상2)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 휴머니스트, 2002, 163쪽
107쪽 (중1) 유홍준, 『유홍준의 한국 미술사 강의 2』, 눌와, 2012, 454쪽
113쪽 (중2) 신병주, 『키워드 한국사 4』, 사계절, 2011, 76쪽
119쪽 (중) 신병주, 『키워드 한국사 4』, 사계절, 2011, 67쪽
125쪽 (하1) 강응천 외, 『16세기』, 민음사, 2014, 179쪽 / (하2) 신병주, 『키워드 한국사』 4, 2011, 157쪽 / (하4) 신병주, 『키워드 한국사』 4, 2011, 160쪽
127쪽 (상) 국립민속박물관, 『선비 그 이상과 실천 도록』, 2009, 55쪽
128쪽 (상) 김인덕 외, 『한국 美의 재발견2- 과학 문화』, 솔, 2006, 285쪽
129쪽 (상) 국립민속박물관, 『천문-하늘의 이치, 땅의 이상 도록』, 2004, 114~115쪽 / (하1) 국립민속박물관, 『천문-하늘의 이치, 땅의 이상 도록』, 2004, 54쪽 / (하2) 권내현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3』, 웅진지식하우스, 2011, 82쪽
130쪽 (상) 국립민속박물관, 『천문-하늘의 이치, 땅의 이상 도록』, 2004, 70쪽 / (하3) 국립중앙박물관, 『금속 활자에 담은 빛나는 한글 도록』, 2008, 22쪽
131쪽 (중) 안장헌, 『문화유산일기』, 진선Books, 2008, 125쪽
133쪽 (하2)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사계절, 2011, 107쪽
134쪽 (하) 신병주, 『키워드 한국사 4』, 사계절, 2011, 188쪽
135쪽 (중1) 김인덕 외, 『한국 美의 재발견 2 – 과학문화』, 2005, 87쪽
136쪽 (하) 이희근, 『주제로 보는 한국사 3』, 고즈윈, 2005, 100쪽
149쪽 (하3) 권내현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3』, 웅진지식하우스, 2011, 203쪽
156쪽 (상)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한국 생활사 박물관 11』, 사계절, 2007, 31쪽
158쪽 (중) 염정섭,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 11』, 여유당, 2007, 239쪽 / (하) 권내현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3』, 웅진지식하우스, 2011, 305쪽
160쪽 (중1)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2004, 298쪽 / (하)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2004, 292쪽
161쪽 (중) 신기수, 『조선 통신사의 여정』, 월인, 2018, 325쪽 / (하1) 권내현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3』, 웅진지식하우스, 2011, 188~189쪽 / (하2)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
163쪽 (하1)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시대 풍속화』, 2002, 161쪽 / (중1) 염정섭,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 11』, 여유당, 2007, 198쪽
164쪽 (하1)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기산 김준근 조선풍속도 매산 김양선 수집본』, 2008, 69쪽 / (하2)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기산 김준근 조선풍속도 매산 김양선 수집본』, 2008, 48쪽
166쪽 (상)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 휴머니스트, 2002, 224쪽 / (중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월간 문화재 354』, 2014, 20쪽
167쪽 (중1)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도록』, 2007, 140쪽
172쪽 (중)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시대 풍속화』, 2002, 159쪽
176쪽 (중) 동아일보사, 『사진으로 보는 한국 백년1』, 1991, 77쪽
177쪽 (상1) 김원모 외, 『사진으로 본 백년 전의 한국, 근대한국(1871-1910)』, 가톨릭 출판사, 1997, 15쪽 / (상3, 중1) 정숭교,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4』, 웅진지식하우스, 2011, 37, 135쪽 / (중2) 독립기념관, 『제2관 겨레의 시련 독립기념관』, 2008, 40쪽
178쪽 (상1) 국립중앙박물관, 『대한제국의 역사를 읽다』, 2016, 25쪽 / (상2, 중)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개항 이후 서울의 근대화와 그 시련(1876~1914O)』, 2002, 59, 89쪽 / (하1) 국립중앙박물관, 『가고 싶은 우리땅 독도』, 2006, 52쪽
179쪽 (상1) 지안니 과달루피, 『중국의 발견』, 생각의 나무, 2004, 304쪽 / (상2) 국립고궁박물관, 『대한제국 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 2010, 38쪽 / (중1)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2』, 인물과 사상사, 2007, 241쪽 / (중2)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전시품 요록』, 2000, 34쪽 / (하1) 한일관계사학회, 『독도는 한국땅이다』, 2008, 7쪽
180쪽 (상1) 독립기념관, 『제2관 겨레의 시련 독립기념관』, 2008, 68쪽 / (상2) 민족문제연구소,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2010, 139쪽 / (중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도록』 47쪽 / (하2)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전시품 요록』 2004, 50쪽
181쪽 (상1) 류시현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5』, 웅진지식하우스, 2011, 114쪽 / (상2) 동아일보사, 『사진으로 보는 한국 백년』, 1981, 218쪽 / (중1) 박도, 『사진으로 엮은 한국독립운동사』, 눈빛, 2005, 158쪽 / (중2)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npda_1924_03_01_v0001_0010 / (중3)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아틀라스 한국사』, 사계절출판사, 2016, 169쪽

182쪽 (상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기념관 전시품 도록』, 1989, 76쪽 / (상2)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2002, 9쪽 / (상3) 민족문제연구소,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2010, 187쪽 / (중1)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요록』, 2000, 72쪽 / (중2)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1945』, 한울, 2017, 203쪽

183쪽 (상, 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의 탄생 사진전』, 2016, 5, 19, 25~26, 46, 72~73, 87쪽 / 4·7 언론인회, 『기자 25시』, 1985, 37쪽

184쪽 (상1) 독립기념관, 『제2관 겨레의 시련』, 2008, 12쪽 / (상2)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한국독립투쟁사』, 1983, 16쪽 / (중) 동아일보사, 『사진으로 보는 한국 백 년 2』, 1991, 363쪽 / (하) 민족문제연구소,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2010, 144쪽

185쪽 (상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기념관 전시품 도록』, 1989, 42쪽 / (상2)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요록』, 2000, 30쪽 / (중1) 민족문제연구소,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2010, 71쪽 / (중2)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1945』, 한울, 2017, 44쪽

186쪽 (상) 동아일보사, 『사진으로 보는 한국 백년』, 1981, 123쪽

187쪽 (상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상3) 국립민속박물관, 『정성채 박사 기증 화폐 특별전 도록』, 2011, 70쪽 / (상4)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

188쪽 (상2) 박도, 우당기념관 역, 『사진으로 엮은 한국독립운동사』, 눈빛, 2005, 64쪽 / (하)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개항 이후 서울의 근대화와 그 시련(1876~19140), 2002, 162쪽

189쪽 (상1) 전북일보(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61558) / (상2) 동아일보사, 『사진으로 보는 한국 백년』, 1981, 283쪽 / (상3, 상4)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

190쪽 (중) 국립민속박물관, 『굳세어라 금순아』, 2010, 86쪽

196쪽 (상1) 박도, 『사진으로 엮은 한국독립운동사』, 눈빛, 2005, 128쪽

197쪽 (상1, 중1, 중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의 탄생 사진전』, 2016, 80, 84, 85쪽 / (중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기념관 전시품 도록』, 1989, 172쪽

198쪽 (중)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2831924)

199쪽 (상1) 4·7 언론인회, 『기자 25시』, 1985, 274쪽 / (상2) 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과 중등교육』, 2017, 11쪽 / (중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http://archives.kdemo.or.kr/) / (중2) 4·7 언론인회, 『기자 25시』, 1985, 284~285쪽

201쪽 (상1, 상2, 중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시선·기록·역사: 민주화의 길』, 2015, 41, 42, 43, 48쪽

202쪽 (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이 주인되다』, 2017, 71쪽

204쪽 (중1) 독립기념관, 『독립 기념관 전시품 도록』, 1988, 178쪽

205쪽 (중1, 중2) 국립민속박물관, 『굳세어라 금순아』, 2010, 130, 131, 182쪽

참고 문헌

강문식 외, 『15세기, 조선의 때 이른 절정』, 민음사, 2014.

강응천 외, 『16세기, 성리학 유토피아』, 민음사, 2014.

고구려 연구재단 편집부, 『고조선·단군·부여』, 고구려연구재단, 2004.

고조선사연구회·동북아역사재단,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학연문화사, 200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2 - 대한민국의 성립』, 2003.

권내현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3』, 웅진지식하우스, 201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란으로 읽는 조선 : 반란과 전쟁, 혁명이 바꾼 조선과 동아시아』, 글항아리, 201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011.

김리나 외, 『한국 불교 미술사』, 미진사, 2011.

김백철 외, 『18세기, 왕의 귀환』, 민음사, 2014.

김성칠, 『역사 앞에서』, 창비, 2018.

김우철, 『조선 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0.

김유향,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기원』, 월비스, 2017.

김인호 외, 『고려시대사 1』, 푸른역사, 2017.

김정배 편저, 『한국 고대사 입문 1~3』, 신서원, 2006.

김준석, 『조선 후기 정치사상사 연구』, 지식산업사, 2003.

김훈식 외, 『조선 시대사 2』 인간과 사회, 푸른역사, 2018.

노대환 외, 『19세기, 인민의 탄생』, 민음사, 2015.

노명호 외, 『고려 역사상의 탐색』, 집문당, 2017.

문중양 외 『17세기, 대동의 길』, 민음사, 2014.

박종기, 『고려사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2015.

박평식 외,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5』, 가람기획, 2015.

배우성, 『조선과 중화』, 돌베개, 2014.

백승철, 『조선 후기 상업사 연구』, 혜안, 2000.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05.

송찬섭 외, 『한국사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송호정 외, 『한국 고대사 1, 2』, 푸른 역사, 2016.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사』, 서해문집, 2018.

연갑수 외, 『한국 근대사 1, 2』, 푸른역사, 2016.

오영교, 『조선 후기 향촌 지배 정책 연구』, 혜안, 2001.

이강한, 『고려와 원 제국의 교역의 역사』, 창비, 2013.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이원순, 『조선 사학사 연구』, 일지사, 1989.

이정철, 『대동법 - 조선 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2010.

이태진 편, 『조선 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5.

임형택, 『21세기에 실학을 읽는다』, 한길사, 2014.

정석종, 『조선 후기 사회 변동 연구』, 일조각, 1983.

정숭교,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4』, 웅진지식하우스, 2011.

정연식, 『영조 대의 양역 정책과 균역법』,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정옥자, 『조선 후기 문화 운동사』, 일조각, 1988.

정창렬, 『민중의 성장과 실학』, 선인, 2014.

지두환 외, 『종묘』,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2006.

최윤오, 『조선 후기 토지소유권의 발달과 지주제』, 혜안, 2006.

표학렬, 『한컷 한국 현대사』, 인문서원, 2018.

한국고대사학회,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2007.

한국고문서학회 편, 『조선 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아틀라스 한국사』, 사계절, 2009.

한국사연구회,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지식산업사, 2008.

한국역사연구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1, 2, 3』, 역사비평사, 1998.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2004.

한국중세사학회, 『21세기에 다시 보는 고려 시대의 역사』, 혜안, 2018.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11.

홍순민 외, 『조선시대사 1』, 푸른역사, 2015.

- 집필진의 직접 집필인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았음.
- 출처 표시를 안 한 사진 및 삽화 등은 저작자 및 발행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

검정심의회

위 원 장 | 임기환(서울교육대학교)

간 사 | 박주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내용 조사> 김성규(전북대학교) 이상동(성균관대학교) 홍성화(부산대학교) 김형열(동의대학교)
허현(충남대학교) 양홍석(동국대학교) 윤재운(대구대학교) 임형수(충북대학교)
김백철(계명대학교) 정상우(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진한(인천대학교) 강수웅(장곡고등학교)
김창수(파주여자고등학교) 이일도(서울세현고등학교) 김효준(신명여자고등학교) 최중림(대전자운중학교)
조수연(한성여자중학교) 류지은(광양백운중학교)

<표기·표현> 김인균(신라대학교) 장충덕(충북대학교) 하정수(동국대학교) 장혜진(동국대학교)
김경열(충북대학교) 이수라(전주대학교) 정수현(건국대학교) 육민수(성균관대학교)
봉미경(연세대학교)

검정위원 | 이성원(전남대학교) 정기문(군산대학교) 이평수(충북대학교) 신동규(창원대학교)
조법종(우석대학교) 조명제(신라대학교) 임학성(인하대학교) 유시현(광주교육대학교)
박민역(장충고등학교) 한효석(성문고등학교) 권익산(원광여자중학교) 박상숙(경북고등학교)
김돈호(강동고등학교) 김일(은혜중학교) 문선희(수완중학교) 하혜진(재송여자중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용기(검정심사관리위원회 위원장) 안종욱(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대표) 신항수(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윤지훈(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이지수(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김종윤(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김진아(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엄성호(검정심사관리위원회 운영위원 대표) 정호영(검정심사관리위원회 심사지원팀장)
장일(검정심사관리위원회 심사진행팀장) 신동현(검정심사관리위원회 심사운영팀장) 최용선(검정심사관리위원회 운영위원)
노정하(검정심사관리위원회 운영위원)

개발 책임 정장아

편집 김용균, 진현휘, 조혜민, 곽지영, 오경자

디자인 오영숙, 장병진, 신수정

일러스트·삽화 전은우, 정태호, 김동현, 신나래, 박수영, 박승원, 안준석, 이대열, 이창우, 최수연

중학교 역사 ②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심사를 하였음.

초판 발행 | 2020. 3. 1. 2쇄 발행 | 2021. 3. 1. 정가 원

지 은 이 | 김태웅 외 9인

발 행 인 | (주)미래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인 쇄 인 | (주)미래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교과서의 본문 용지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전화: 1566-8572, www.textbook114.com 또는 www.교과서114.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전화 02-2608-2800, www.korra.kr)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내용 관련 문의 | (주)미래엔 교육사업본부 전화 1800-8890 전송 (02)541-8150

공급 업무 대행 |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10881)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439-1(신촌동 734-1)

개별 구입 문의 | 누리집 주소 www.ktbook.com 전화 (031)956-8581~4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ISBN | 979-11-6413-440-3